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지역사회 애착도와 관광영향 인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 제주지역사회를 사례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觀光開發學科

張 模 娜

2021年 2月

지역사회 애착도와 관광영향 인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 제주지역사회를 사례로 -

指導教授 임 화 순

장 모 나

이 論文을 觀光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12月

張模娜의 觀光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崔容齊

委

員

鄭丞勛

委

員

姜永淳

委

員

吳相勳

委

員

任和淳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0年 12月



The Effects of Community Attachment and the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on the
Intentions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on Jeju Island

MONA, CHANG

(Supervised by professor HWA-SOON, L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Tourism Development

2020.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2
제 2 장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지역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	13
1. 지역사회 애착의 개념과 정의	13
2. 지역사회 애착의 구성 요소	18
3. 지역사회 애착도의 측정	22
4. 관광개발 지지와 지역사회 애착	28
제2절 관광영향 인식(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30
1. 관광영향 인식과 사회교환이론	30
2. 사회교환이론의 적용	34
3. 관광영향 인식의 선행연구	41
4. 관광영향 인식의 영역	45
제3절 친환경 행동의도(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49
1. 친환경 행동의도의 개념과 정의	49
2. 친환경 행동 관련 선행연구	53
3. 친환경 행동의도의 척도	56
4. 친환경 행동과 관광개발	58
제4절 관광개발 지지도(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61
1.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 지지도의 개념	61
2. 사회교환이론과 관광개발 지지	64
3. 관광개발 지지 관련 선행연구	67

4. 관광개발 지지도의 측정	75
제 3 장 연구 설계	77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77
1. 연구모형	77
2. 가설의 설정	79
제2절 조사 설계	85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85
2. 설문지의 구성	97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01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01
2. 분석 방법	112
제 4 장 실증분석	115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115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15
2.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118
제2절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22
1.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 방법	122
2.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성 평가	123
3. 확인적 요인분석과 모델의 평가	128
제3절 연구가설의 검증	135
1. 검증 방법(PLS-SEM 구조방정식)	135
2.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검증(PLS-SEM Path Analysis)	139
3. 사회교환이론을 반영한 집단별 연구모형 분석(PLS-MGA)	144
4.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Analysis of Demographic Differences)	151
5. 지역주민의 유형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157
6.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 및 어휘 분석(Semantic Analysis)	168

제4절 분석 결과의 요약 및 논의	174
1. 분석 결과 요약	174
2. 논의	181
제 5 장 결론	189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89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94
1. 학문적 시사점	194
2. 정책적 시사점	196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198
참고 문헌	200
부록 1. 전문가 대상 예비조사 문항지	231
부록 2. 본조사 설문지	236
부록 3. 관광개발에 관한 설문 대상자들의 개인적 의견	241
ABSTRACT	247

표 목 차

〈표 2-1〉 지역사회 애착의 정의	16
〈표 2-2〉 선행연구에 나타난 지역사회 애착의 구성 요소	20
〈표 2-3〉 지역사회 애착 및 지역공동체 의식의 구성 요소 비교	22
〈표 2-4〉 선행연구에 나타난 지역사회 애착 척도 및 관련 변수	25
〈표 2-5〉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한 선행연구	36
〈표 2-6〉 선행연구에 사용된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척도	47
〈표 2-7〉 선행연구에 사용된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척도	48
〈표 2-8〉 환경 행동 관련 용어의 정의	52
〈표 2-9〉 선행연구에 나타난 친환경 행동의 척도	57
〈표 2-10〉 선행연구에 나타난 관광개발 지지도의 척도	76
〈표 3-1〉 지역사회 애착도(Community Attachment) 측정 항목	86
〈표 3-2〉 긍정적인 관광영향(Positive Tourism Impact) 인식 측정 항목	90
〈표 3-3〉 부정적인 관광영향(Negative Tourism Impact) 인식 측정 항목	91
〈표 3-4〉 친환경 행동의도(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문항 선정	92
〈표 3-5〉 친환경 행동의도(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측정 항목	93
〈표 3-6〉 관광개발 지지도(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측정 항목	94
〈표 3-7〉 관광개발 지지도(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문항 선정	95
〈표 3-8〉 설문지 구성	98
〈표 3-9〉 제주도 지역주민 및 관광개발 관련 선행연구	102
〈표 3-10〉 제주도 관광개발 선행연구 비교	106
〈표 3-11〉 제주 관광개발 권역 구분(2002~2021)	107
〈표 3-12〉 성별 및 연령대별 8개 권역 인구통계 자료	108
〈표 3-13〉 연구 지역별 할당된 표본의 수	109
〈표 3-14〉 연구 지역별 수집된 표본의 수	110
〈표 3-15〉 자료수집 방법 및 과정	112
〈표 3-16〉 단계별 분석내용 및 분석 방법에 따른 통계 분석 도구	113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17
〈표 4-2〉 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성향의 우선순위	118
〈표 4-3〉 주민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관광영향의 우선순위	119
〈표 4-4〉 주민이 인식하는 부정적인 관광영향의 우선순위	120
〈표 4-5〉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태도와 관련된 문항의 우선순위	121
〈표 4-6〉 지역주민의 친환경 행동의도의 우선순위	121
〈표 4-7〉 지역애착도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125
〈표 4-8〉 사회교환이론 변수(긍정적 관광영향)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126
〈표 4-9〉 사회교환이론 변수(부정적 관광영향)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127
〈표 4-10〉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128
〈표 4-11〉 Fornel-Larcker Criterion에 의한 반영지표의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131
〈표 4-12〉 Heterotrait-Monotrait Ratio(HTMT 비율)에 의한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131
〈표 4-13〉 반영적 측정모델의 평가 결과	133
〈표 4-14〉 정규성 분석 결과	137
〈표 4-15〉 다중공선성(내부 VIF 값) 평가 결과	139
〈표 4-16〉 구조적 가설검증 결과	140
〈표 4-17〉 연구모형의 적합성 분석 결과	143
〈표 4-18〉 경로별 다중집단분석 결과	145
〈표 4-19〉 다중집단분석 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효과 차이 비교	146
〈표 4-20〉 다중집단분석 결과: 남녀 그룹별 효과 차이 비교	147
〈표 4-21〉 다중집단분석 결과: 관광산업 종사 여부 그룹별 효과 차이 비교	148
〈표 4-22〉 다중집단분석 결과: 거주 기간 그룹별 효과 차이 비교	149
〈표 4-23〉 다중집단분석 결과: 출신 지역 그룹별 효과 차이 비교	150
〈표 4-24〉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기술분석)	152
〈표 4-25〉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기술분석)	153
〈표 4-26〉 관광산업 종사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기술분석)	154
〈표 4-27〉 거주 기간 분류에 따른 차이 분석(기술분석)	155
〈표 4-28〉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 분석(기술분석)	156
〈표 4-29〉 관광영향 인식 항목의 고유값 및 (누적)분산 설명 비율	158

〈표 4-30〉 관광영향 인식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159
〈표 4-31〉 관광영향 인식 요인의 군집분석 결과	160
〈표 4-32〉 관광영향 인식 군집의 판별분석 결과	161
〈표 4-33〉 관광영향 인식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교	163
〈표 4-34〉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관련 군집별 특성	164
〈표 4-35〉 관광영향 인식 군집별 세부 인식 차이 분석	166
〈표 4-36〉 다중그룹분석 결과: 관광영향 인식 군집별 차이 비교	167
〈표 4-37〉 어휘 분석을 위한 정제된 대표적 주관적 의견	168
〈표 4-38〉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에 대한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169
〈표 4-39〉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에 대한 감성 단어 빈도분석 결과	171
〈표 4-40〉 사회교환이론 변수와 관광개발 지지도 간의 가설검증 결과	175
〈표 4-41〉 수정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와 구성개념	176
〈표 4-42〉 다중집단분석의 경로 효과: 유의한 그룹 간의 차이 비교 결과	177
〈표 4-43〉 지역별 인식 및 태도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178
〈표 4-44〉 관광영향 인식 유형별 군집분석 결과 및 태도 차이 분석 결과	18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절차	11
[그림 2-1] The tripartite model of place attachment	19
[그림 2-2] A framework of analyzing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35
[그림 2-3] S-O-R Model of Touris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ERB)	55
[그림 3-1] 연구 모형	78
[그림 4-1] 연구 모형 분석 결과	141
[그림 4-2] 측정변수의 외부가중치/적재치와 경로효과 분석 결과	142
[그림 4-3]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에 대한 키워드 시각화	170
[그림 4-4]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에 대한 감성분석 시각화	172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관광개발은 이미 개발된 관광지는 물론 개발을 앞둔 개발 예정 지역에서도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관광지 주민들이 받는 관광의 영향은 지역 사회의 특정 그룹 또는 산업군에만 한정 짓기에는 그 영향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것은 물론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윤지현·이환봉, 2008), 종종 지역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국내외 많은 연구자가 오랫동안 관심 가져온 주제이다(강신겸, 2002; 박주영·오상훈, 2019; 임화순·고계성, 2012; Ap, 1992; Andereck & Vogt, 2000; Hanafiah, Jamaluddin, & Zulkifly, 2013; Liu, 2003).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개발을 지지해야 마땅하고, 환경의 파괴를 우려하는 그룹들은 반대의 관점에 서게 된다. 분명한 것은 개발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야한다'라는 동일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Qizilbash, 1996; Sharpley, 2020). 따라서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광객들 사이의 상호 작용 정도, 관광지 지역사회의 관광개발 수준, 관광 편의 시설의 가용성, 이해관계자의 지원 및 소비생활의 순환 등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모두 영향을 준다(Uysal, Sirgy, & Perdue, 2012).

지속 가능한 관광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정성문·강신겸, 2020; 정승훈, 2019),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진행된 관광개발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는지에 대하여 이미 많은 학자가 연구한 바 있다(김이수, 2016; 문홍교·김민지, 2019; Andereck & Nyaupan, 2011; Cecil et al., 2008; Jurowski, 2001).

국내(대한민국) 최대의 섬으로 가장 선호되는 관광지이자 인구 약 70만 명의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도로 전체 면적이 약 1,850km²에 이르며 2개의 행정시, 7개의 읍, 그리고 5개의 면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유네스코(UNESCO)가 인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까지 자연과학 분야에서 3관왕을 달성한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제주특별자치도, 2011)으로, 2019년 기준 연 1,400만 명이 방문하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국내 관광시장의 60% 이상은 수도권, 강원 그리고 제주지역에 집중되어있고(김영준·이동진, 2020), 특히 제주도는 관광산업과의 개연성이 높은 3차 서비스 산업이 전체 산업의 70%를 상회하는 현실(제주특별자치도, 2020) 앞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관광산업 또는 관광개발에 따른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관광 또는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지 주민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1970년 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Jurowski & Gursoy, 2004; Lankford, 1994; Nunkoo & Gursoy, 2012; Perdue, Long, & Allen, 1990; Tosun, 2002),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관광개발의 주체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관광개발의 영향에 대해 특정 개발 예정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대해 우려(Gursoy & Rutherford, 2004)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몇몇 주민 간의 갈등을 가져와 지역사회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강용석·최용복, 2019; 박주연, 2017; 이명구, 2010; Teixeira & Ribeiro, 2020).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광은 일자리 창출, 세입 증가, 사회기반 시설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에 기여하고(Harrill, 2004; Lankford & Howard, 1994; Tosun, 2002), 동시에 교통 혼잡, 환경오염 및 생활비 증가와 같은 관광의 부정적인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사실이다(Andereck & Nyaupane, 2011; McCool & Martin, 1994; Perdue, Long, & Allen, 1990). 즉, 관광과 관광개발은 관광지 지역사회의 복지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면적인 차원으로 이바지한다(Kim, Uysal, & Sirgy, 2013; Uysal, Sirgy, & Perdue, 2012).

사회교환이론(SET, Social Exchange Theory)은 관광의 양면적인 영향과 관광개발에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된 이론이다(조광익·김남조, 2002; Ap, 1992; Faulkner & Tideswell, 1997; Gursoy, Chi, & Dyer, 2010; Jurowski, 1994; Nunkoo, Smith, & Ramkissoon, 2013; Ribeiro et al., 2017).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관광산업을 통해 비용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개인이나 지역사회는 관광산업 또는 관광개발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Ap, 1992; Lee, 2013). 따라서 관광산업의 지속

적인 운영·관리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계획을 위해 비용과 혜택에 민감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피는 일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유익하다고 하겠다(임근욱·함승우·강형철, 2012;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Gursoy, Jurowski, & Uysal, 2002; Hillery et al., 2001; Jurowski, 1994; Williams & Lawson, 2001).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결과, 관광 편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관광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원하는 수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써 현재 진행되는 사업과 미래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Nunkoo & Ramkissoon, 2010).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에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령, 주민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관광지의 지속 가능성과 개발에 불리하며(고계성·이영진·고미영, 2011; 김보형·김영남·홍성화, 2019; Ap, 1992; Butler, 1980; Kim, 2002;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 2009), 관광객을 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계성, 2014; 황경후·송상현·정철, 2016; Allen et al., 1993; Gursoy, Chi, & Dyer, 2010; Gursoy, Jurowski & Uysal, 2002; Lee, 2013).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지지는 넓게는 관광산업을 유지하는 힘이며, 좁게는 개발에 대한 타당성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오정학·윤유식, 2009; 임기성, 2013; Butler, 1980; Choi & Sirakaya, 2005; Harrill, 2004). 이는 지리적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환경에 민감한 섬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Hanafiah, Jamaluddin, & Zulkifly, 2013; Liu, Sheldon, & Var, 1987). 주민과 관광객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광 행위가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환경에 가해지는 피해, 즉 관광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다(고동완·김현정, 2003; 문창현, 2007; 윤지현·이환봉, 2008; 한승훈, 2019; Halpenny, 2010; Su, Huang, & Pearce, 2018).

대한민국의 최대 관광지로서 제주도의 위치는 1991년 정부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관광 관련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였고, 이 법은 2002년 초 동북아의 경제를 주도하고 지역 내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시행한(한국법제연구원, 2010) 이후, 국제적 수준의 관광 휴양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개발산업이 곳곳에서 추진 중이다. 이들 중에는 아직도 논란이

멈추지 않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제2공항, 동물테마파크사업, 송악산 리조트, 그리고 오라 관광단지 등 대규모 사업들은 사업 주체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강용석·최용복, 2019; 제민일보, 2020). 그뿐만 아니라 이미 완공을 앞둔 도내 최대규모의 도심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가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와 그 이면(裏面)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윤동진, 2019).

관광지 주민들은 관광개발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Yu, Cole, & Chancellor, 2018). 관광은 본질적으로 자원에 의존하여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관광목적지는 지속해서 경제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경제 성장에 따른, 특히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변화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Sharpley, 2020).

그러나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다. 관광은 관광 주체인 지역 주민과 객체인 방문객, 그리고 매력적인 관광지가 상호교류하고 보완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며, 추후의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휴식과 충전을 제공하는 우리 일상의 에너지이다. 관광지 지역주민들이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을 친근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광의 영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역의 이슈와 문제점을 탐구하고 고민하는 것은 지역개발을 연구하는 데에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마땅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제주도민들이 가진 생각과 관광으로부터 받는 영향,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얼마간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알리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대상지인 제주도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와 주민들이 지각하는 관광의 영향이 환경친화적인 책임 있는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와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관광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 및 주민의 친환경 의식을 바탕으로 한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선정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지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예정된 관광개발 계획이나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관광개발의 목적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면서 주민들의 협력을 이끄는 요인들을 찾고자 한다. 이는 연구 대상지(제주도)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광산업의 영향을 받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만큼, 지역사회 애착과 환경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관광개발의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선행 요건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어낼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 애착도, 관광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 인식이 관광지 주민들의 친환경 행동의도와 지역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논의된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경로분석의 검증을 거쳐 각 잠재변수의 영향 관계 여부와 그 정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관광영향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는 주민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는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하는 관광의 영향에 따라 지역주민(연구 대상자)을 세분화하여 탐색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 관광개발 지지도를 이끄는 주요 요인인 관광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세부 인식 요인을 기초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통계적 검정을 거친 몇 개의 가능한 집단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지 지역주민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관광개발의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수 간의 관계 및 지역주민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실시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주민의 인식과 견해가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가진 관광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고, '지역발전, 관광개발, 관광영향, 환경인식' 등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키워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관광개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속 가능한 개발'로 설정하고,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해당 목적에 근접하기 위한 구성 요소를 찾고자 한다.

첫째, 관광개발의 목표 중 중요한 한 가지는 경제, 사회, 문화, 여가의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창출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강신겸, 2001; 유인혜·고동완, 2009; Moscardo & Ross, 1996; Pearce, Um & Crompton, 1987).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경제적 편익, 지역사회 애착, 관광자원의 활용 및 환경에 관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인식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Jurowski, Uysal, & Williams, 1997), 그 영향들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양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다. 사회교환이론은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자원 교환을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회학 이론으로 정의되어(Ap, 1992),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론적 체계이다(전영철, 2000; 한승훈, 2019, Andereck & Vogt, 2000; Gursoy et al., 2010; Harrigan et al., 2018; Nunkoo, Gursoy, & Juwaheer, 2010; Ribeiro et al., 2017). 관광이 유발하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 자원의 보존과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환경의 판도(New Environmental Paradigm) 간의 균형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한다(Choi,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지지도(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에 미치는 연관 요인들을 선정하여, 더욱 설명력이 높은 변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설계하고자 한다.

둘째,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변수로 지역사회 애착

(Community Attachment)을 선정하였다. 지역사회 애착 요소는 주민의 거주 기간, 나이, 소득, 출생지 여부 등의 사회학적 변수와 함께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다수의 연구자가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정유리·정성문·강신겸,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Harrill, 2004; Jurowski, 1994; Kasarda & Janowitz, 1974; ; Ramkissoon, Mavondo, & Uysal, 2018Um & Crompton, 1987). 급변하는 사회적 가치관을 고려할 때, 기존의 척도들을 활용한 지역애착도를 평가하여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서의 유효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관광개발과 환경문제이다. 관광산업이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색해온(Ap & Crompton, 1998; Butler, 1991; Lee et al., 2013; Liu, Sheldon & Var, 1987; Mihalic, 2000)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써 생태계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생활 터전이라는 점에서 환경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주제이다. 관광개발은 환경보존 또는 개선을 전제로 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므로 지역주민의 환경 인식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를 이끄는 데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어왔다(양승필, 2012; 한승훈, 2019; Choi & Murray, 2010; Jin, 2017; Su, Huang, & Pearce, 2018). 개인의 환경 인식을 기반으로 행동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써 친환경 행동의도(IPB, 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는 특히 계획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신념, 태도, 행동 의도에 대한 구성개념 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연구(윤선미·김태욱, 2020; Yuriev et al., 2020)들에 적용되어왔다. 이에 지역사회 애착과 함께 관광을 통한 환경 분양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선행변수로 지역주민들의 환경 인식과 연관된 행동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본 연구모형에서의 역할 여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지각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는 경제적인 이익과 고용 문제, 거주 기간 등을 지표로 삼으며, 지역주민의 태도나 지역애착도, 생활 만족도, 환경에 대한 태도 등을 선행변수, 외생변수, 또는 원인변수 등의 다각적 차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해왔다(Brunt & Courtney, 1999; Jurowski, Uysal, & Williams, 1997;

McGehee & Andereck, 2004). 그러나 관광산업과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대단히 개인적이며, 국가 간은 물론 같은 국가 안에서도 지역의 크기에 따라 지리적, 문화적, 경제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일반화하기 어려운 연구 문제이다(김경준, 1998; Brehm, Eisenhauer, & Krannich, 2006; Gursoy, Jurowski, & Uysal, 2001; Liu, Sheldon, & Var, 1987; Prezza, 2001; Tosun, 2002; Uzel et al 2002). 또한, 국내 최대의 관광지로서 제주 관광과 관련된 연구의 대상은 그동안 주로 관광객에게 집중되어있으며, 지역 인구가 지역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까닭에 관광개발 관련 주민들의 인식에 대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가 많지 않다. 더욱이 지역별·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관광개발 또는 넓은 의미로써 관광지 지역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는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이후석·오민재, 2004; 양성수·허향진·서용건, 2009; 임화순·고계성, 2012; 조광익·김남조, 2002; Byrd, Bosley, & Dronberger, 2009; Gursoy, Chi, & Dyer, 2010; Gursoy & Rutherford, 2004; Harrill, 2004; Lee et al., 2010; McCool & Martin, 1994; Nunkoo & Ramkissoon, 2010; Yu, Chancellor, & Cole, 2011)들의 맥을 이어, 제주도의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조금이나마 도출하기 위한 것을 본 연구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헌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1958년부터 2020년이며, 실증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으로, 자료수집을 위한 본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하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2020, 김형중), 2020년 11월 25일 현재까지 국내 환자 수는 30,000명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전에 없던 변화를 주고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관광산업은 심각한 영향을 받는 가운데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2010년 이후 지난 10년, 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 이주 열풍'으로 제주도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 바 있으며(장모나·허유순·임화순, 2019), 이후 인구증가 속도는 주춤해졌으나, 매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여전히 1,400~1,500만 명에 달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9월 현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수는 전년 대비 38%가 감소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0). 이는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발표한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의 아시아 지역 관광인구의 전년 대비 감소 폭인 79%(UNWTO, 2020)에 비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외 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조사 기간인 2020년 10월 제주도의 상황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3분의 1로 제한되었던 등교 수업 인원이 3분의 2단계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바, 계획된 조사 기간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한편 조사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제주도 인구의 행정구역별 세부 인구분포 내용이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 2019년 12월 31일이며, 이를 실증연구조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연구의 목적에 활용하는 표본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2020년 제주관광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곳으로 선정한 8개 권역으로 제주시 동지역,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중문 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성산읍, 그리고 표선면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10대 (만 15세 이상)에서 70대까지 경제활동인구 전 세대를 아우르며, 최대한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만나 볼 수 있는 학교 주변 버스 정류소, 주민 센터, 읍·면·리 사무소, 지역 대형마트 및 오일장 등이 조사 대상지로 활용되었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와 관광 전반에 대한 영향 인식 및 친환경 행동의도를 기반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만족도와 지지도 등 전반적인 태도를 조사하여 그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근거로 인구 특성에 따른 영향도의 차이별로 그룹별 유형을 나누어, 집단 간의 차이에 따른 특성을 제시하며, 변인들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는바, 연구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즉,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범위 및 특성과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절차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모형의 설계를 위한 이론적 참고 문헌과 그 이론적 배경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검토된 이론들을 근거로 설계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개념 및 문항 구성 및 척도들을 본 연구의 목적과 실증조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연구 대상에 대한 표본추출 방법 및 자료의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본 연구를 위한 분석 과정으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과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요인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구조모형 분석, 경로계수 확인을 통한 직접 효과 및 조절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중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표본의 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및 상호작용 효과 분석과 설문을 통해 나타난 제주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질적·양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요약한 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미흡한 점과 향후 계속되기를 바라는 연구의 내용에 대해 논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적 범위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수행 체계는 다음의 [그림1-1]과 같다.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방법 및 절차



제2장. 이론적 고찰			
지역사회 애착	관광영향 인식	친환경 행동의도	관광개발 지지도



제3장. 연구모형과 조사 설계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제4장. 실증분석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측정모델 평가)	연구가설 검증 (구조모형분석/경로 효과/다중그룹 분석)	탐색적 기술분석 (차이 분석/군집분석) 질적 자료 분석 (주관적 의견 어휘 분석)	분석 결과의 요약 및 논의



제5장. 결론		
연구의 요약	학문적·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제언

(그림 1-1) 연구 절차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를 설계하였다. 또한, 문헌 연구에서 추출한 특성 및 요인을 기준으로 구조화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조사 도구로 활용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응답자들이 직접 설문 문항에 기재하는 자기기입식의 설문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경로분석, 차이 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및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을 통한 다중그룹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준비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 애착, 관광영향 인식, 친환경 행동의도 및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특히 본 연구의 중심이론이 되는 사회교환이론에 대해 관광의 영향과 함께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모아 정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나타난 연구의 범위에 대한 비교 및 문항 척도의 기준이 되는 구성 요소의 검토를 통해 각각의 변인들이 관광개발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지 및 표본의 선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심층적인 사전 조사의 필요성으로 제주도 관광 및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 연구자들이 주목한 변인과 연구 대상지 등을 이해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절차상의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셋째, 표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표본 선정 과정 및 절차를 최대한 엄격히 준수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즉, 기본적인 성별과 나이별로 연구 대상지의 인구통계를 파악한 후 표본을 할당하며,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다량의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의 한계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하여 비확률표집 방법 중에서도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소집단별 일정 수의 표본을 할당하여 추출할 때 정해진 비율을 최대한 맞추어 자료의 편중성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관광지 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증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각 변인 간의 영향 관계 파악과 함께 군집분석 등 분석 방법을 다양화하여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지역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

1. 지역사회 애착의 개념과 정의

인간과 장소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특정 학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Shumaker & Hankin, 1984). 인간이 어떠한 물리적인 위치에서 얻는 감정이란 생태적, 건축적, 사회적, 그리고 상징적 환경으로부터 경험하는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은 물론 건축학, 인류학, 문화 생태학, 환경 심리학, 지리학, 도시 계획학 등의 사회학 전반에 걸쳐 지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널리 이루어져 왔다(이후석·오민재, 2014; Brehm, Eisenhauer, & Krannich, 2006; Hummon, 1992; Tuan, 1975).

한편 지역사회는 ‘커뮤니티(communitiy)’라는 영어의 국문 번역어로 사회학에서는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체 유대라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데, 이를 확대하면 지역적 변인의 지리적 영역, 사회학적 변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심리적·문화적 변인인 공동체 간의 유대를 포함한다(서인석·이재원·정원희, 2019; 장정순·임원선, 2015; MacQueen et al., 2001)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착은 영어 ‘attachment’의 번역어으로써, 고대 프랑스 단어 ‘attacher’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사전적 의미는 ‘단단하게 고착시키거나 사물이나 사람에 일부분이 된다’는 뜻으로써 ‘감성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강신겸·최승담, 2002; 윤지현·이환봉, 2008, 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9).

따라서 지역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이라는 용어는 지리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e), 장소 의식(Sense of Place), 장소 영향(Place Effects) 등의 유사한 표현으로 자주 대체되며, 학문적·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적용되어왔다(오정학·윤유식, 2009; Brehm, Eisenhauer, & Krannich, 2006; Chen & Dwyer, 2018; Hidalgo & Hernandez, 2001; Ramkissoon,

Smith, & Weiler, 2013; Styliadis, 2018a; Vargas-Sanchez et al., 2015).

지역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은 Kasarda와 Janowitz(1974)의 연구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그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와 정서를 교류 관계(친선), 연대감, 연결된 네트워크의 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에 대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정의로는 McMillan과 Chavis(1986)가 제시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서로와 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함께 하기로 하며, 구성원들 간의 요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공통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특정 장소 사이의 연결'로 정의(Hidalgo & Hernandez, 2001)되는데, 사회학 연구에서 의미하는 장소(place)란 한국어에서 정의하는 '일이나 사건이 이루어지거나 발생한 곳'이라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문화적·감정적으로 애착의 대상이 되는 곳과 대상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동시에 아우르고, 마을, 지역사회, 국가 또는 물건과 상징성을 가진 표식 등도 광범위하게 그 대상에 포함된다(Altman & Low, 2012; Cheng, Wu, & Huang, 2013; Hummon, 1992).

사회학 연구에서 애착(attachment)의 중심 개념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애정과 감정'이며, 여기서 감정의 질은 인식(cognitive) 및 실행(action/behavior)과 동반된다(Altman & Low, 2012). 구체적인 지역(장소)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한 곳은 물론 설화나 신화 속 상상의 장소 또한 포함될 수 있기에 장소 애착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차별화의 전제가 필요하며, 따라서 특정 환경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서적인 유대(affective bonds)를 가늠하는 잣대(indicators)가 된다(Armstrong & Stedman, 2019; Tuan, 1977; Vaske & Kobrin, 2001).

Sarason(1974)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심리학에 도입하였고, McMillan과 Chavis(1986)가 이를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인식 지수(SCI, Sense of Community Index)라는 척도를 개발하였고, SCI는 실증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Long & Perkins, 2003), 지역사회 애착도에 대한 척도와 일치하는 부분이 다수를 차지한다(김보경·조광익, 2018). 심리학에서는 장소와 인간의 유대관계에는 인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중심 환경과 연계된 개인의 기억, 신념, 의미, 그리고 지식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며(Scannell & Gifford, 2010), 따라서 인간은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와 관련된 행동과 경험의 기억, 생각, 감정, 태도, 가치, 선호도, 의미 및 개념을 나타내는 인지

구조를 구성하고 개발하려 한다(Proshansky et al., 1983).

다수의 연구자는 애착에 대해 '정서 또는 감정적인 연결'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 심리학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해 인간이 가지는 결속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에서 '특정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과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ong & Kim, 2019; Vaske & Kobrin, 2001; Vorkin & Riese, 2001).

이전까지 관광개발 연구에서 관광지 주민의 태도를 관측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애착 변수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경향이었으나(Harrill & Potts, 2003; Styliadis, 2018a),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장소 애착에 관한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의 관광자원에 대한 애착, 방문객들의 특정 여가활동과 방문지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second home owners)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로 관심이 높아져(Williams & Vaske, 2003), 관광개발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인 변수로 종종 활용되고 있다(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이 밖에 도시공학 연구에서도 장소 애착의 다면적인 속성에 대해 커뮤니티 애착심(community attachment), 장소 인식(sense of place),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조민지·임업, 2016).

지역사회 애착도는 일반적인 개인의 애착도와 비교하면, 다른 사람(사물)과의 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지역사회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추가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감정으로써, 더욱 넓고 복잡한 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영역 내에 있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교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김남선, 1991)는 점에서 사회학자들은 지역사회 애착도를 '지역사회의 주민이 해당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강신겸·최승담, 2002; 김경준·김성수, 1998; 박윤희·김해옥·현성협, 2019; 서현철·고호석, 2011; 윤지현·이환봉,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황경수, 2015; Chen & Dwyer, 2018; Kasarda & Janowitz, 1974; Ramkissoon, Smith, & Weiler, 2013; Strzelecka, Boley, & Woosnam, 2017), 여기에서 공동체 의식 즉,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이 강한 사람들을 공동체의 '이웃'으로 정의하고 있다(Glynn, 1986).

본 연구에서 논하는 지역사회 애착에 대한 정의는 장소 애착을 같은 범주로 다루고 있는바, 개념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지역사회 애착의 정의

연구자	정의
Kasarda & Janowitz (1974)	지역사회 안에 연결된 관계를 추상화하여 체계적으로 커뮤니티의 사회적 구조를 식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McMillan & Chavis (1986)	사회적 참여의 범위와 패턴, 지역사회 생활로의 통합,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 또는 영향
Um & Crompton (1987)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은 거주 연수, 출생지 및 유산으로 정의되며, 최근 또는 오래전부터 정착한 '토착 거주민'을 식별하는 핵심 요인
McCool & Martin (1994)	지역사회 애착은 사회 참여 및 커뮤니티 통합의 범위와 패턴,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 또는 영향
김경준·김성수 (1998)	지역사회 소속에 따른 충만한 느낌, 구성원들과 함께한다는 연대 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및 구성원 간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및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느낌이 드는 것
Gursoy, Jurowski, & Uysal(2002)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은 우정, 정서, 사회적 참여와 같은 사회적 유대 수준
강신걸·최승담 (2002)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사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 관광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인 변수
Harrill & Potts (2003)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하는 친지, 친구의 수, 거주 기간 및 출생지 여부
Brehm, Eisenhauer, & Krannich(2006)	주민에 의해 지각되는 지역에 대한 자연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애착 정도
윤지현·이환봉 (2008)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연대감이며, 정신적인 측면으로는 정체성,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의존성, 사회적 측면으로는 친분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개념
오정학·윤유식 (2009)	지역주민이 지역 환경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사회적 유대감
Lee(2011)	장소 애착이란 지역에 대한 인간의 복잡한 경험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서 발생하는 해당 장소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관계
Cheng, Wu, & Huang(2013)	지역성 또는 특정 위치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과 긍정적인 정서적 관계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이며, 자연환경과 연결되어 고유한 부분에 대한 식별, 만족,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애정, 인식 및 행동
Ramkissoon, Smith, & Weiler(2013)	장소 애착은 다각적 본질을 가진 장소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배양하는 된 의존성, 정체성, 정서 및 사회적으로 공유된 경험을 통해 장소 애착을 배양하는 것

연구자	정의
Vargas-Sanchez et al. (2015)	지역주민이 느끼는 지역에 대한 연대감으로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이해하는 결정요인
Strzelecka, Boley, & Woosnam(2017)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역량 강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장소에 대한 정체성 및 의존성
권송이·송명규 (2017)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적 소속감 및 유대감의 수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거주하기를 잘했다고 느끼며, 노후에도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는 정도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주민 중심의 인문 지리학적, 사회학적, 환경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역 환경에 대해 주민들이 지각하는 지역에 대한 감정 및 참여 정도
Chen & Dwyer (2018)	다각도의 인간과 장소 간의 유대관계로 정의되는 장소 애착은 더 많은 힘으로 인간의 행동을 끌어내는 감정적이며 자기 암시적인 기능
Stylidis(2018a)	특정 장소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끌어내는 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측면 모두를 가진 사람들의 누적된 경험의 결과
최연화·김준우·송학준 (2018)	지역 애착심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형성된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지역에 관한 관심의 크기 정도
황정진·고계성 (2018)	특정 지역에 대한 개인의 인식, 신념, 또는 태도가 만들어 내는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의 정도
Eslami et al. (2019)	지역사회 통합 및 공동체 참여의 범위와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느낌
Hong & Kim (2019)	기능적·정서적 의미를 포괄하는 장소에 대한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과정이며, '장소 소속성'과 '장소 친숙성'을 사회적 유대감의 개념과 통합한 것
김주진·류재준·신우진 (2019)	정체성(identity)은 상징적 또는 감정적인 의미에서 소속감의 가치를 가지는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적 애착, 의존성(dependence)은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목표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 관련 애착으로 어떤 장소의 기능적 용도, 친분성(friendship)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적 유대감을 의미
서인석·이재원·정원희 (2019)	중요한 지역발전의 요소에는 장소로서의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자체에 대한 애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좁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희망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지역사회 안의 구성원들과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 및 상호작용을 의미
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9)	친분성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의존성은 개인이 바라는 바와 목적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당 장소에 대한 애정을 의미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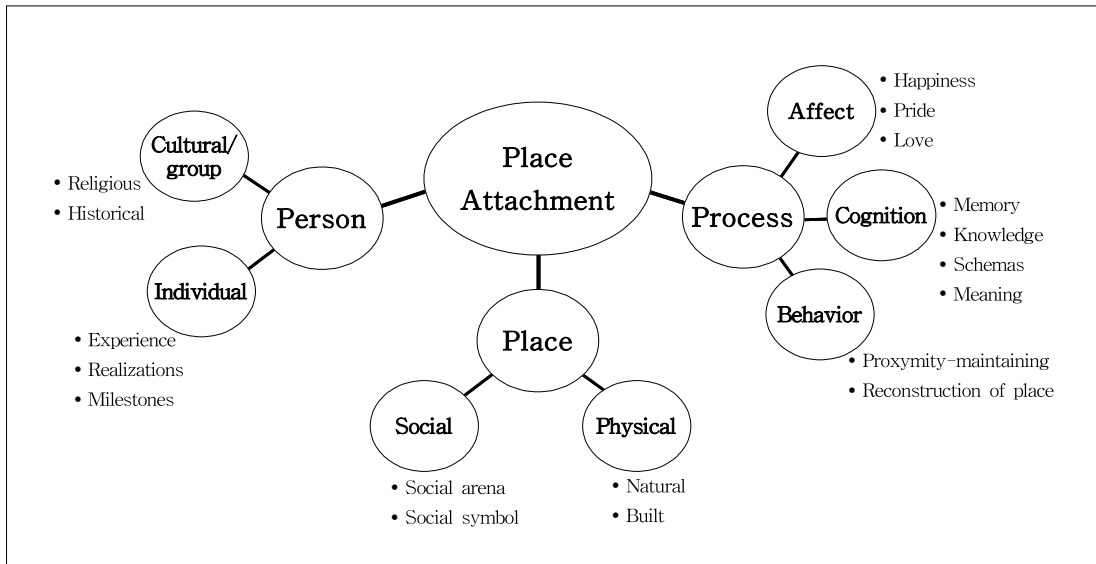
2. 지역사회 애착의 구성 요소

지역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이란 일정한 지리적 영역 속에 있는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사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개인적 또는 집단으로 형성하는 심리적 연대감으로, 정신적인 측면의 정체성, 기능적인 측면의 의존성,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친분 등으로 구성 되어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장소 애착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의 관광개발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인 변수로 활용된다(강신겸·최승담, 2002; 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고동완·김현정, 2003; 오정학·윤유식, 2009; 윤유식·곽용섭, 2005; 윤지현·이환봉, 2008; 이후석, 2011).

지역개발에서 주민 의견의 반영은 늘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행정상의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관광지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에 대한 인식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얻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애착도는 그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이후석, 2011;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McCool & Martin, 1994; Sheldon & Var, 1984).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은 주로 특정 장소 즉, 거주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형성되어,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역량 강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장소(Place)에 대한 정체성(Identity)과 의존성(Dependence)으로 구성(이경영, 2019; Lee, 2011; Strzelecka, Boley, & Woosnam, 2017)되나, 장소 내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측면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Scannell & Gifford, 2010). 또한, 장소 인식(SOP, Sense of Place)의 경우에도 환경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장소 개념인 애착, 정체성 및 의존성을 포함하고 있다(Jorgensen & Stedma, 2001).

다음의 [그림 2-1]은 Scannell & Gifford의 '장소 애착 3자 모델'로 인간, 장소, 과정의 3대 요소의 구성 체계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장소(Place)는 사회적 기능을 하는 곳과 물리적인 환경인 장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구성원들이 장소에 대해 애착을 가지는 것을 정서적인 면과 인지적인 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도식화 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 The tripartite model of place attachment

자료 : Scannell & Gifford(2010), Defining place attachment: A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지역사회 및 장소 애착에 개념을 통해 거론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지역사회 애착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며, 이들은 곧 정체성(Identity), 의존성(Dependence), 그리고 친분성(Friendship)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역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 간 상호연결된 인적 관계망이다(김주진·류재준·신우진, 2019; 이후석, 2011). 최규환(2018)은 특히, 지역애착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구성개념 간의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지역애착도가 독립변수로서 태도, 관광개발 지지, 참여 의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따라, 지역주민의 애착을 그 정도에 따라 군집화하고 지역애착도의 수준별 특성을 파악하여 긍정적 태도 및 참여 의지 등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사회적 친분을 사회적 연대로 구성하였다. 이는 지역공동체(community) 안에서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라는 연대 의식을 강조한 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다(김경준·김성수, 1998; 김명준·김은식, 2006; 김명준·홍계희, 2006; 서호철·고호석, 2011; McMillan & Chavis, 1986).

본 연구에서 논하는 지역사회 애착에 대한 정의는 장소 애착을 같은 범주로 다루고 있는바, 그 개념적 구성 요소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선행연구에 나타난 지역사회 애착의 구성 요소

연구자	구성 요소
Kasarda & Janowitz(1974)	사회적 친분(연대감)
McCool & Martin(1994)	거주 기간, 의존성
김경준·김성수(1998)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상호영향의식, 친밀감
Vorkin & Riese(2001)	지역 선호, 즐거움, 친밀도
Uzel, Pol, & Badenas(2002)	정체성, 연대/친밀감
Brehm, Eisenhauer, & Krannich(2006)	사회적 애착, 환경적 애착
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 오정학·윤유식(2009), 황정진·고계성(2018), Cheng, Wu, & Huang(2013)	정체성, 의존성
Lee(2011)	정체성, 선호/만족감, 의존성
임근욱·함승우·강형철(2012)	선호감, 지역연대, 자부심
Vargas-Sanchez et al.(2015)	거주 기간, 지역 친밀도
이영원(2016)	정서적 유대감, 지역 자부심, 지역 관여도, 지역 친밀도
조민지·임엽(2016)	지역 자부심, 이웃 신뢰감, 주관적 행복감, 거주 기간
권송이·송명규(2017)	지속적 거주 희망 여부, 긍정적 거주지 선택 여부, 자부심
Hong & Kim(2018)	의존성
Olya, Alipour, & Gavilyan(2018)	정체성, 선호/만족감, 의존성, 소속감
Stylidis(2018a)	편안함, 관심, 의존성
최연화·김준우·송학준(2018)	거주만족감, 지역애착, 정체성, 교류관계, 상호신뢰 등
Gursoy, Jurowski, & Usyal(2002), Eslami et al.(2019)	만족감, 편안함, 연대감, 의존성
남중헌(2019), 이경영(2019)	정체성, 자부심, 의존성
박윤희·김해옥·현성협(2019)	충족감, 소속감/친밀감, 연대감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사회적 친분(연대감), 의존성

연구자	구성 요소
강신겸·최승담(2002), 김보경·조광익(2018), 김주진·류재준·신우진(2019), 윤지현·이환봉(2008), 이후석·오민재(2014), 임기성(2013),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조장현(2017), 최규환(2018), 한승훈·김진옥(2018), 한승훈·신동주(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송상헌·정철(2016), Chen & Dwyer(2018), Chen, Dwyer, & Firth(2018), Halpenny(2006), Hidalgo(2001), Ramkissoon, Smith, & Weiler(2013), Scannell & Gifford(2010), Strzelecka, Boley, & Woosnam(2017), Williams & Vaske (2003)	정체성, 사회적 친분(연대감), 의존성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또한, 지역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과 더불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역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는 한국어의 이중적 표현일뿐 학문적으로 ‘community’라는 같은 단어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 의식은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 사이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김경준·김성수, 1998; 문경주·김수영·장수지, 2015; 양덕순·강영순, 2008; 이영원, 2016; Glynn, 1986; McMillan & Chavis, 1986). 지역사회 애착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에 애착(attachment)이라는 감정적인 요소가 더해져, 지역사회구성원이라고 느끼는 감정 즉, 정체성과 애정이 함께 표현되는데, 이는 지역사회가 갖는 정서적, 기능적 역할을 모두 인정하는 감정 상태인 의존성으로 표출되며(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김보경·조광익, 2018; Lee, 2013), 주민들을 연구하는 사회학, 환경 심리학, 인문 지리학에서는 애착도에 대해 지역 환경과 지각된 인식에 기반하여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참여 정도를 가리킨다(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참고한 가장 많은 문헌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애착의 구성 요소는 지역사회 정체성, 사회적 친분(연대감), 그리고 지역사회 의존성이며, 지역공동체 의식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두 이론에 대한 공통적인 구성 요소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지역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두 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들이 양측에서 동시에 등장하게 된다. 이에 지역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애착에 대한 개념의 구성 요소를 비교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지역사회 애착 및 지역공동체 의식의 구성 요소 비교

구성 요소		내용
지역사회 애착	정체성, 사회적 친분(연대감), 의존성	지역주민에게 있어 장소 애착은 지역사회가 지역주민에게 주는 의미로써,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의 크기이고(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지역사회 애착은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적으로 개인이 어떤 장소에 대해 가진 감정적인 애착을 의미하는 정체성, 개인이 희망과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가 가진 잠재력에 대한 기능적인 애착을 의미하는 의존성, 그리고 사회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친밀하게 유대감을 공유하며 이루어내는 사회적인 친밀감(김보경·조광익, 2018; Lee, 2013)을 뜻한다.
지역공동체 의식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구성원과 그룹에 중요하다는 느낌,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공동의 믿음을 가진다는 느낌으로 정의(McMillan & Chavis, 1986)되며, 실제적인 지역공동체 의식과 이웃 간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Glynn, 1986).
	충족감, 연대의식, 소속감,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지역사회에 소속됨으로써 느끼는 충만감, 연대 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지역사회 또는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느낌이다(김경준·김성수, 1998).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친밀감	지역공동체 의식은 지역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얻는 충만한 느낌, 함께한다는 연대 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과 상호 간 중요한 의무를 지는 것, 그리고 구성원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양덕순·강영순, 2008).
	소속감, 상호영향인식, 연대감, 지역성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구성원 간의 상호 관련성 인식, 구성원 간의 유대감 인식 정도 외에 지역사회와 동일시하는 감정,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포함한다(문경주·김수영·장수지, 2015).
	정서적 유대감, 지역 자부심, 지역 관여도, 지역 친밀도	지역공동체의 소속감은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조직 체제와 동일시하는 효과가 있고, 공통된 가치와 상호 연계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지역 정체성과 상통하며,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활동을 촉진한다(이영원, 2016).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3. 지역사회 애착도의 측정

관광학에서 지역사회 애착 또는 장소 애착은 연구 대상에 따라 관광객의 경우는 목적지 선택에 있어 특정 관광지 또는 방문지에 대한 애착도를,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도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강신겸·최승담, 2002; Williams & Vaske, 2003).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참고한 문헌을 근거로 작성된 〈표 2-2〉에 따르면, 지역사회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소는 의존성(Dependence), 사회적 친분(연대감, Social Bonding), 그리고 정체성(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애착의 개념을 적용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 애착도는 주로 지역 정체성과 지역 의존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회적 연대감이라는 요소를 관광학 분야의 연구에도 추가하여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한승훈·신동주,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의 개념을 지역사회 정체성(Community Identity), 사회적 연대감(Social Bonding) 그리고 지역사회 의존성(Community Dependence)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또는 장소)에 대해 편안함을 주는 충족감이나 만족감, 그리고 거주 기간 또는 향후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지가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참고한 문헌과 각 문헌에서 활용된 지역사회 애착 척도의 구성 요소는 <표 2-4>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체성(Community Identity)

지역에 대한 정체성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어디 사람’이라는 일반인들이 가지는 생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지역(자신이 사는 곳)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Halpenny, 2006). 이에 대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은 ‘이 지역(또는 마을)이 나의 일부라고 느낀다’라거나, ‘이 지역이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문항(강신겸·최승담, 2002; 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김보경·조광익, 2018; 김주진·류재준·신우진, 2019;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조장현, 2017; 최규환, 2018; 한승훈·김진옥, 2018; 한승훈·신동주, 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Cheng, Wu, & Huang, 2013; Hidalgo, 2001; Kasarda & Janowitz, 1974; Ramkissoon, Smith, & Weiler, 2013; Scannell, 2010; Strzelecka, Boley, & Woosnam, 2017; Williams & Vaske, 2003)이며, 이것은 거주지역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서적인 측면의 개념(Chen, Dwyer, & Firth, 2018)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측정하는 항목에는 이 밖에도 대상자가 해당 지역을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긴다(남중현, 2019; 이경영, 2019)는 항목이 소속감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을 떠나 거주하는 타향민에게도 동일한 개념이 반영되어 자신이 살던 곳에 대한 특별한 감정과 자부심이 측정 항목으로 적용되며(황정진·고계성, 2018),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특정 지역의 방문에 대해 의미(애착)를 두거나 자신과 동일시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등을 측정한다(Lee, 2011).

2) 사회적 연대감(Social Bonding)

지역사회(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 개인에 관한 연구를 지역사회 단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친분과 우정(friendship) 또는 연대감(solidity)은 지역(장소)이라는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완성되며(조민지·임업, 2016; 최연화·김준우·송학준, 2018), 이에 따른 긴밀한 유대관계가 ‘애착’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서인석·이재원·정원희, 2019; 서현철·고호석, 2011; 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9). 지역민들 간의 상호작용, 친분, 유대감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지역주민들을 잘 알고 있는지, 지역 내 친구나 친지들이 사는지 그리고 지역 내 친목 모임 또는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김보경·조광익, 2018;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9; 조장현, 2017; 최규환, 2018; 한승훈·김진옥, 2018;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Brehm, 2006; Kasarda & Janowitz, 1974), 때에 따라 이웃과의 친밀도를 ‘함께 보내는 시간 또는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기도 하며(조민지·임업, 2016; Uzel, Pol, & Badenas, 2002), 이웃과의 동질성을 연대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김경준·김성수, 1998; 박윤희·김해옥·현성협, 2019).

3) 지역사회 의존성(Community Dependence)

의존성이란 개인의 장소(지역)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곳은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자원이 되어 의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때 장소의 본질은 인간이 그 지역(또는 방문지)에 대해 기능적 속성 가진 대상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Stokols & Shumaker, 1982; Strzelecka, Boley, & Woosnam, 2017; Williams & Lawson, 2001). 이에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를 측정할 때 심리적 요소인 ‘정체성’과 더불어 기능적 요소로서 ‘의존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김주진·류재준·신우진, 2019; 서현철·고호석, 2011; 윤지현·이환봉, 2008; Chen & Dwyer, 2018). 따라서 의존성은 장소에 대한 애착심의 일부이며, 인간은 그곳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더욱 그 애착심이 높아지기 때문에(Williams & Vaske, 2003), 개인이 바라는 바와 목적하는 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정 장소가 가진 잠재력과 관련된 애착유형으로 의존성이 포함(김보경·조광익, 2018)된다고 하겠다. 의존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내 일을 하면서 살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지역이 가장 살기 좋다’거나, ‘이주할 기회가 생겨도 계속 거주한다/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다’ 등이 있으며(김보경·조광익, 2018; 임기성, 2013;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조장현, 2017; 한승훈·신동주, 2017;

Chen & Dwyer, 2018; McCool & Martin, 1994; Olya, Alipour, & Gavilyan, 2018; Scannell, 2010; Stylidis, 2018a; Williams & Vaske, 2003), 지역이 그 기능을 다 할 때 얻게 되는 만족감(Gursoy, Jurowski, & Uysal, 2002; Halpenny, 2006; Hidalgo, 2001)의 형태로 그 척도를 구성하기도 한다.

다음의 <표 2-4>는 지역사회 애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척도 및 관련 변수들의 목록이다.

<표 2-4> 선행연구에 나타난 지역사회 애착 척도 및 관련 변수

연구자	연구 지역	표본 수	지역사회 애착 척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 변수
Kasarda & Janowitz (1974)	Royal Commission on Local Government in England	2,199명	우정, 친분, 협력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크기/인구 밀도/거주 기간	지역사회 애착	
Glynn (1986)	이스라엘 (3개 마을 지역주민)	150명	공동체 의식 (실질적/이상적),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경쟁력	지역사회 애착	이웃의식	
Um & Crompton (1987)	미국 텍사스 주 (NewBraunfels)	230명	출생지, 거주 기간, 혈통	지역사회 애착	관광영향	
McCool & Martin (1994)	미국 몬태나 주	1,128명	의존성, 거주 기간	관광개발 태도	지역사회 애착	거주 기간
김경준·김성수 (1998)	서울(강남,강북)/경기(남양주, 이천, 평택, 고양/연천군, 여주군, 화성군, 강화군)	558명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친밀감	공동체 의식	사회문화 적 특성	인구통계 학적 특성
Vorkin & Riese (2001)	노르웨이 (농촌수력발전소개발지)	305명	정체성, 장소의식, 혈통	장소애착	환경파괴	인구통계 학적 특성
Hidalgo & Hernandez (2001)	스페인 산타크루스	177명	공간애착도 (가정, 이웃, 도시), 물리적/사회적 애착도	물리적/공간적 애착도	장소애착	인구통계 학적 특성 (연령/성별/사회계층)
Jorgensen & Stedma (2001)	Eight Lakes in Vilas County, 위스콘신 (세컨드 홈 소유주)	282명	장소 의식 (정체성, 애착심 의존성)	장소 의식	태도	
Prezza et al.(2001)	이탈리아 6개 도시	630명	지역사회의식 척도(SCI)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	
Vaske & Kobrin (2001)	학생 대상(14~17세)	182명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애착	환경책임 행동	

연구자	연구 지역	표본 수	지역사회 애착 척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 변수
강신겸·최승담 (2002)	안동 하회마을	진수조사 (149명)	정체성, 의존성, 사회적 친분	척도개발		
Uzel et al.(2002)	영국 (2개 마을)	성인 남녀 각 180명	도시 정체성 지속가능 척도(CIS)	정체성, 만족감, 친밀감	환경의식	
Long & Perkins (2003)	Brooklyn & Queens, New York (종단연구)	(T1 N= 1,081, T2 N= 638)	지역사회의식 척도(SCI)	공동체 의식	척도개발	
Williams & Vaske (2003)	국립공원방문자 비교	2,005명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에착	행동, 심리 변수	
Brehm, Eisenhauer, & Krannich (2006)	미국/3개 마을 (자원중심산업→관광중 심전환, 국립공원인근)	449명	사회, 경제, 환경 조건	지역사회 애착도	환경의식	소득, 연령 종교, 성별, 학력 등
Halpenny (2006)	Point Pelee National Park, 캐나다	1,111명	장소정체성, 장소에착, 장소의존성	지역사회 애착도	친환경 태도/행동	방문 기간
윤지현·이환봉 (2008)	안산시: 70년대 공업도시 → 2003년 이후 관광개발 진행	448명	정체성, 자부심, 의존성, 정주 의식, 인간관계, 사회적 친분	지역사회 애착도	관광개발 태도	
오정학·윤유식 (2009)	강원도 (화천, 영월, 고성, 태백, 횡성, 춘천, 강릉)	271명	일체감, 정체성, 거주 기간	지역 애착심	관광개발 지지/관광 개발효과 인식	
서현철·고호석 (2011)	'2009 성주참외축제' 참가지역주민	208명	정체성, 의존성, 사회적 친분	공동체 의식	지역애호도 (애착도)	
강영애·유광 민·김남조 (2012)	국내 19개 국립공원	2,471명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에착/ 환경인식 (NEP)	관광개발 지지도	
이영원 (2016)	전라북도	295명	정서적 유대감, 지역자부심, 지역 관여도, 친밀도	공동체 의식	커뮤니케 이션 채널 이용	
조민지·임엽 (2016)	「서울 서베이」 활용	20,000 가구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심	소득 혼합수준	장소 애착심	
권송이·송명규 (2017)	경기도 평택시 (농업기반 전원도시 개발지)	235명	사회연대감, 정체성, 의존성	지역사회 애착/시민 의식	친환경 행동의도	
서세진·서용건 (2017)	제주 올레길 방문객	150명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장소공감성, 사회적 유대감	장소에착	친환경 행동의도	

연구자	연구 지역	표본 수	지역사회 애착 척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 변수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지역	203명	사회연대감, 정체성, 의존성	지역사회 애착	관광개발 지지도	인구통계학적요인, 세분화
한승훈·신동주 (2017)	강원남부(평창인근)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준비 관광개발지	411명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사회적결속	지역사회 애착	관광개발 지지도	개발만족
김보경·조광익 (2018)	대구 지역 (최초의 지방컨벤션 센터)	418명	의존성, 사회적 친분	지역사회 애착	컨벤션의 참가의도 및 만족도	
양민호 외 (2018)	철원군 DMZ 평화마을 사업지	200명	구성원 의식, 교류성, 애착성	공동체의식 관광개발 태도	주민참여	
황정진·고계성 (2018)	'2016 서울남산한마음 축제'와 '2016 부산 제주특별자치도민 가족한마당축제'	388명	자부심, 정주의식, 인간관계	지역 애착심	관광개발 태도	지역 정체성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제주시 인구 밀집 지역 연동, 노형동 및 이도2동	373명	정체성, 의존성, 사회적 친분	관광개발 영향인식	관광개발 지지	지역 애착심
최규환 (2018)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지: 경남지역주민 (거제, 고성, 남해, 의령, 함안, 함양)	252명	정체성, 의존성, 사회적 연대	지역 애착도	관광개발 지지	지역애착도 군집별 분석(고, 저 2그룹)
최연화·김준우·송학준 (2018)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 지역주민 + 인천 주민	500명	장소애착	관광영향	관광개발 지지	지역애착, 개발인식
한승훈·김진욱 (2018)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319명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 사회적결속	지역애착	관광개발 태도	공동체 의식
문홍교·김민지 (2019)	강원도 화천 지역의 4개면 지역주민	307명	정체성, 의존성, 사회적 친분	지역애착, 관여도	관광요인	삶의 질 향상
이경영 (2019)	도시재생사업 추진중인 서울시	750명	의존성/정체성	주거환경 만족도	지역 애착도	사회적 자본
박윤희·김해옥·현성협 (2019)	용평리조트 직원	187명	정체성, 의존성, 사회적 친분	조직적합도, 지각된 혜택, 조직 사회화 등	지역 애착도	자기효능감, 정치적 기술, 사회적 교류
남중헌 (2019)	창원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273명	정체성, 의존성	축제 성과	지역 애착도, 주민참여	

연구자	연구 지역	표본 수	지역사회 애착 척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 변수
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9)	우수축제 '시흥갯벌축제'	149명	의존성, 친분성	지역애착	축제의 혜택, 손실, 지지도	
김주진·류재준·신우진 (2019)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63명	정체성, 의존성, 친분성	지역애착도 복합문화 시설만족도	재방문 의도	
서인석·이재원·정원희 (2019)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 데이터	5,893명	정체성, 의존성, 친분성	공공문화 시설	지역 애착심	여가 만족도
윤동환·한승훈(2020)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348명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관광지 매력성	환경책임 행동	장소에착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4. 관광개발 지지와 지역사회 애착

지금까지 제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자가 지역 애착에 관해 연구해왔으나, 관광학에서 진행된 애착도 연구는 관광객이 가지는 방문지에 대한 '장소 애착'과 같은 비교적 협소한 영역 집중되어 있었다(강신겸·최승담, 2002).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며, 장소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또는 지역사회 그 자체에 대한 애정'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과 상호작용으로(서인석·이재원·정원희, 2019), 관광개발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도는 관광학 분야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관광영향의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관광개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의 효과 인식 및 지각된 영향도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경후·송상헌·정철, 2016; Gursoy & Rutherford, 2004; McCool & Martin, 1994).

그러나 분야별 관광영향의 효과는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다준다. 즉, 관광영향이 주민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애착 요인이 관광영향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각의 편익에 대하여는 유의한 영향과 함께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이 관광개발의 지지도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지각으로 인해 지지도에 대하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임기성, 2013; Um & Crompton, 1987), 때로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Lankford & Howard, 1994).

한편 지역에 대한 애착은 거주 기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강신겸·최승담, 2002; 김경준·김성수, 1998;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조민지·임엽, 2016; Kasarda & Janowitz, 1974; McCool & Martin, 1994; Um & Crompton, 1987)는 연구 결과는 이주 인구가 많은 제주도 지역사회에 폭넓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는 거주 기간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비록 지역에 대한 이질감으로 소속감은 낮지만, 거주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 있다(Knez, 2005). 이 밖에도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사업장이나 직장 유무에 따른 애착도에도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애착도에 따른 세분화 연구가 필요하다(정유리·정성문·강신겸 외, 2017).

또한, 관광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개발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점차 지역개발이 진행될수록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의 이미지와 사회적 편의 시설 개선, 그리고 여가활동의 기회 증진 등 사회적·문화적 영향요인 및 도로 상태 개선과 교통량 증가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개발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윤지현·이환봉, 2009; 이충기·강세영,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애착심과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연구한 것으로 지역주민이 갖는 지역사회의 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태도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요인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제2절 관광영향 인식(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1. 관광영향 인식과 사회교환이론

지역주민의 관점에서의 관광영향은 관광개발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지각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계성, 2014; 고동완, 2001; 김진옥·신동주, 2017). 관광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관광산업은 국가적, 지역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으로도 그 영향이 직결되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행정 관리 및 의사결정까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Kim, 2002). 관광학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산업의 영향이 중요한 이유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와 나아가 해당 국가의 차원에서 관광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및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고 협력을 이끄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정성문·강신겸, 2020; Allen et al. 1993; Jurowski, Uysal & Williams, 1997; Liu, Sheldon, & Var, 1987).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우리말 ‘영향(影響)’의 의미는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이다. 또한 본 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한 관광학에 적용된 ‘관광영향(Tourism Impacts)’을 정의할 때는 영어 단어인 ‘impact’를 사용한다. ‘impact’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a powerful effect that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new, has on a situation or person (Cambridge, 2020)’이며, 또 다른 출처에 따르면 ‘impact(of something) (on somebody/something) the powerful effect that something has on someone or something (Oxford, 2020)’으로, 한국어에서 의미하는 ‘영향’과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영어권에서 지칭하는 ‘impact’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어의 ‘강력한 영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관광학에서 의미하는 ‘관광영향’이라는 주제의 책임감과 중요성을 상기하게 된다.

관광영향은 ‘관광개발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무형의 효과를 총칭하는 개념’이며, 관광 현상에 대해 지역주민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또는 관광개발 영향 인식에 대해 연구자들에 따라 지각, 태도, 의견, 반응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왔다(정승훈, 2014).

관광산업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꼭 필요한 것으로 지역주민은 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가장 많이 영향받는 그룹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곧바로 관광객들에게 전달되어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성문, 2019; 조광익·김남조, 2002; 최규성, 2004; 황정진·고계성, 2018; Ap, 1992; Gunn, 1994; Gursoy & Rutherford, 2004; Yu, Chancellor, & Cole, 2011).

관광지 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60년대 낙관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경제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으나(서세진, 2019; Liu, Sheldon, & Var, 1987; Milman & Pizam, 1988), 이후 물리·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부상하기 시작하였다(Pizam, 1978). 이에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비판론이 퍼지면서, 관광목적지의 급속한 개발은 지역의 사회, 문화, 환경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oi & Sirakaya, 2006)는 주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Cohen, 1978).

그동안 ‘굴뚝 없는 산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찬사를 받으며 그 편익에 대해 주목 받던 관광산업은 70년대 말부터 새로운 환경운동의 표준에 발맞추며 최적의 사회·경제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관광개발 틀의 재구성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이 시작되었다(Choi & Sirakaya, 2005). 이후 80년대와 90년대에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관점들이 더욱 균형을 맞추어 평가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관광영향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음, 공해, 혼잡 등 무형의 척도들에 비해 정량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었다(Ap & Crompton, 1998).

즉, 이전까지 본질적이고 탐색적인 설명이 주류를 이루었던(Allen et al., 1988; Lui et al., 1987; Pizam, 1978) 관광학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관광의 영향을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의 양면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관광의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이론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Ap, 1992). 경제적 이득을 앞세운 전통적인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는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변화의 주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Kuhn(1970)이 지향하는 ‘새로운 행태(a new gestalt)’를 생성하는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현상으로, 과학자들이 과거의 이론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이론과 비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관광영향

연구에서,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관광개발의 이론적 기반으로 서서히 확산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다. 행동이론 사회학자인 George C. Homans는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B. F. Skinner의 영향을 받아 공리주의 경제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교환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재화와 상품 등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인정이나 명성과 같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까지의 교환(exchange)으로서, 교환에 임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얻는 것을 보상(reward)으로, 그가 주는 것은 비용(cost)이라 하고, 그 보상에서 비용을 뺀 부분이 '편익(benefit)'이며, 인간은 그가 얻을 편익이 최대가 되는 경우 행동의 변화는 줄어든다는 것이다(Homans, 1958). 즉, 인간은 교환 활동에 따른 보상과 편익을 인식할 때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고, 교환이 이롭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라, 관광에 대해 주민은 그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며, 이에 따른 개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게 될 때, 이것을 교환에 참여하려는 의지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Ap, 1992; Gursoy, Jurowski, & Uysal, 2002; Jurowski et al 1997).

사회교환이론(SET, Social Exchange Theory)은 “상호작용 상황에서 개인과 그룹 간의 자원 교환을 이해하는 데 관련된 일반적인 사회학 이론”으로(Ribeiro et al., 2017), 교환 과정에서 행위자(사회구성원)들은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관한 결과에 서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가치를 더 얻고 부정적인 가치는 더 줄이는 쪽으로 행동을 하려 하며, 상호작용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의 결정은 주관적인 비용 편익 분석과 대안 비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이 과정에서 개인은 더 많은 편익이 발생한다고 느낄 때 상호작용을 지속하게 된다(Nunkoo & Ramkissoon, 2011).

따라서 관광학에서 인지하는 사회교환이론은 관광 활동을 통해 '교환관계'가 성립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이나 편익을 얻었을 때 향후 그에 따른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고(고계성, 2014), 관광 경험을 통한 관광 효과의 유형적·무형적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은 그 교환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얻은 편익과 지급한 비용을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해 간다(김영미·김미주·김성섭, 2010;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Perdue, Long & Allen, 1990).

관광개발의 목적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얻는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며, 지역주민들은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기대하는 이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관광의 영향을

평가하여,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관광을 추구한다는 것이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으로, 이는 관광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설명하면서, 관광지 주민들이 관광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발전시키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동완·정승호, 2004; 이결재, 2008; 조광익·김남조, 2002; Ap, 1992; Faulkner & Tideswell, 1997; Gursoy, Chi, & Dyer, 2010; Jurowski, 1994; Ribeiro et al., 2017; Su, Huang, & Pearce, 2018).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에서 '사회교환이론'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Gursoy, Jurowski, & Usyal, 2002; Hillery et al., 2001; Jurowski, 1994; Williams & Lawson, 2001),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소 이외에도 사회인구학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Ap, 1992; Hillery et al., 2001; Jurowski & Gursoy, 2003; Prentice, 1993).

관광 분야에서 논의된 사회교환이론은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주고받는 유·무형적인 관광의 경험과 관광 효과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받은 편익과 방문객들이 지급한 비용을 비교 및 평가한 후,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 의사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미·김미주·김성섭, 2010; 조광익·김남조, 2002; Ap, 1992; Perdue, Long & Allen, 1990).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사회교환이론을 배경으로 한 관광영향 인식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다수 문헌의 영향력은 사회교환이론이 관광개발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임근욱·함승우·강형철, 2012;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사회교환이론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Doxey(1975)의 '분노지수 모델(Irridex Model)'에서 지표로 삼은 지역주민의 감정적 변화(euphoria, apathy, irritation, & antagonism)나, Butler(1980)의 '관광지 수명주기 모형(Destination Life Cycle Model)'을 통한 관광지의 사회문화적 영향 단계와 비교된다. 이에 대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Doxey와 Butler의 모델은 관광지 주민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개발의 정도에 따른 단계별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바, 지역주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개별적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론적인 이념의 틀에서 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조광익·김남조, 2002). 즉, Doxey's Irridex Model의 경우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인 반응이 혼재할 때도 'euphoria'에서 'antagonism'까지를 일관된 수준으로 보는 극단적 단계 규정은 다각적인 관광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복잡한 태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평이하다(Lankford & Howard, 1994b)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Brougham과 Butler(1981)는 이미 관광영향의 편익과 비용이 균형 있게 누적되지

않는다는 실증연구를 통해 개인과 지역적 특성, 즉 거주 기간, 나이 및 사용 언어 등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주민들을 세분화하여 다면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Perdue, Long & Allen(1990)은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개발 지지도의 관계 모델을 통해 개인적 편익의 통제 상황에서 관광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주민들이 추가적인 특정 개발 정책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통해 관광영향 측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밖에도 관광개발과 지역주민 및 지역발전에 관한 태도 연구에 관련된 이론으로는 연극이론, 보상이론, 갈등이론, 귀인이론, 수용력 이론, 종속이론, 사회표상이론 등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적용되어왔다(김용철·윤유식, 2013; AP,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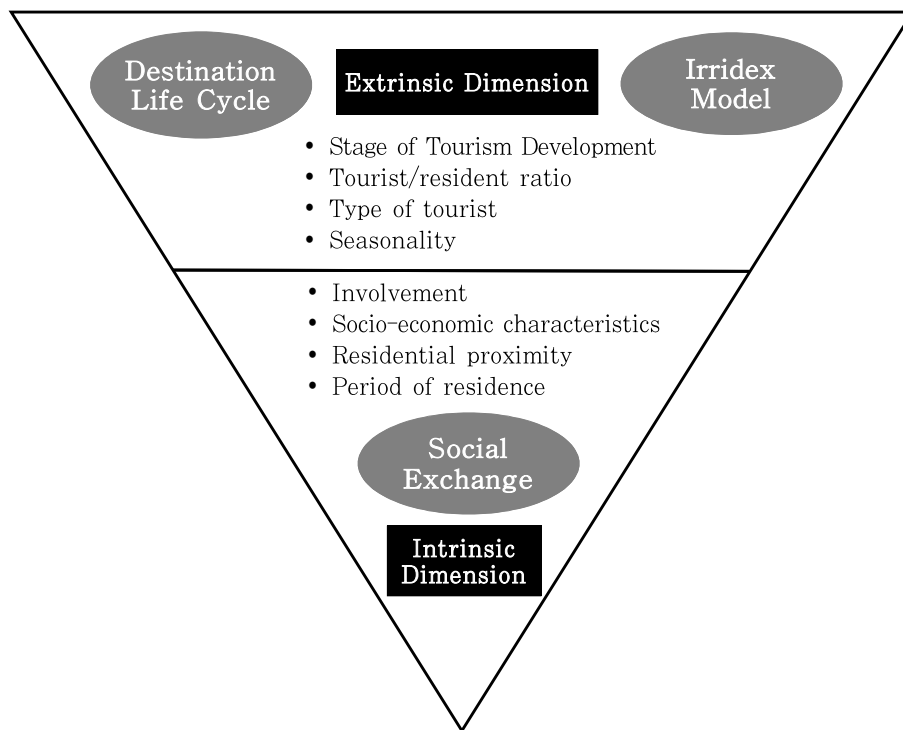
2. 사회교환이론의 적용

사회교환이론(SET, Social Exchange Theory)을 구성하는 신뢰와 힘의 핵심 아이디어가 아직 관광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에 관한 연구 역시 단일 체계로 통합되지는 않은 가운데, 여러 실험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자들은 이후에도 이 이론에 기반한 중요한 이론적 구성을 제외한 불특정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세트를 제시해 왔다(Nunkoo & Ramkissoon, 2011).

즉,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관광영향에 관한 연구는 Ap(1992)가 적용 모델을 제시한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Faulkner와 Tideswel(1997)이 제시한 관광영향에 대한 본질적인 프레임워크는 사회교환이론이 비용과 편익 사이의 최종적인 균형에 따라 양측이 서로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사이에서 지역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는 다각적인 연구의 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과 관광영향 관련 연구의 설명이론으로 가장 많이 참고되는 세 개의 이론을 축으로 비교한 그들의 ‘관광 프레임워크 [그림 2-2]’는 선행된 두 개의 이론과 함께 사회교환이론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즉, ‘Destination Life Cycle Model’과 ‘Irridex Model’이 관광지의 ‘외적 역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모형으로써 관광지의 역할 및 위치적인 특성에 따라 관광개발의 성격과 단계를 구분하고 이를 반영한 관광객의 활동과 개입을 고려하는 이론이라면,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관광지 지역사회 내에서 인식되는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내적 차원’의 성격이 강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Faulkner & Tideswel, 1997). 다시 말하면, 지역주민이 개입된 연구에서 관광의 외적 역할에 주목한 관광

개발은 발전 수준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획일화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관광의 '내적 역할'을 고려하는 관광개발은 사회적인 관점(social perspectives)을 중요시하므로, 거주 환경에 따른 주민 개인의 특성, 지역사회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따른 특성은 물론 관광으로 얻거나 잃는 정신적, 물리적인 객체에 대한 복합적인 특성이 결합하여 이전과 같이 4~5개의 서열식(또는 계단식) 단계와는 다른 개성 있는 양상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그림 2-2] A framework of analyzing the social impacts of tourism

자료 : Faulkner & Tideswell(1997), A framework for monitoring community impacts of tourism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각하는 관광의 영향에 대해 사회교환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 선행연구는 기본적으로 관광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의 양면을 긍정적인(positive) 또는 부정적인(negative) 관점으로 양분하여 척도 문항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관광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태도(attitude)와 행동(behavior)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광에 대한 만족(satisfaction)과 지지(support)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계성, 2014; 이상용·윤희정, 2013; 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9; 황경후·송상현·정철, 2016; Allen et al., 1993; Gursoy, Chi, & Dyer, 2009; Lee, 2013; Papastathopoulos et al., 2020).

〈표 2-5〉에서는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1992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선행연구의 다양한 연구 결과 및 그 분석 방법 등을 고찰하여 정리한 결과물이다.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온 또는 개발을 앞둔 지역에서 주민, 지자체, 관광객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관광영향 관련 연구에 대한 다각적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표 2-5〉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주요 분석 방법
Ap (1992)	주민과 관광의 자원 교환 활동이 많고 균형이 잡힐 때나 불균형적인 관계에서라도 교환 활동이 많은 경우, 주민들은 관광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교환 활동이 적으면 그 영향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Model of the Social Exchange Process
Faulkner & Tideswell (1997)	도시 계획에 있어 연구 대상 도시(호주, 골드코스트) 주민들은 관광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익에 대해 이타적인 자세를 가져, 이에 따르는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인식을 보였다.	PCFA t-Test
Jurowski et al. (1997)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경로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경제적 편익, 관광 자원의 활용, 환경 중심적 태도, 주민들이 지각하는 지역사회 애착도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준다.	SEM
전영철 (2000)	경제적 편익에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은 사회적 영향이며 환경적 영향 변수의 효과는 매우 적으며, 관광자원을 관광객처럼 이용하는 주민들은 관광개발이 자연환경 개선의 효과를 준다고 인식한다.	SEM
Gursoy & Jurowski (2002)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지지는 그들의 관심 수준, 생태 중심적 가치, 자원 기반 활용, 지각된 비용 및 관광개발로 인한 혜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EM
Kim (2002)	관광지 주민은 관광의 성숙단계에서 경제적인 영향과 물질적인 웰빙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언제라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뀔 수 있다.	CFA/HMRC
조광익·김남조 (2002)	경제적 편익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가장 강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향은 부(-)의 영향을 주는데, 경제적 편익이 높고 사회적 비용이 낮을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라는 사회교환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CFA/SEM
Andriotis & Vaughan (2003)	태도 진술에 기반한 세분화 절차는 옹호자(관광 혜택에 대한 높은 평가로 식별됨), 사회적 및 환경적 관심자(관광 확장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합의로 특징 지음), 경제 회의론자(관광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낮은 평가를 보인 사람)로 분류되었고, 연구 결과는 사회적 교류를 참조하여 논의되고 사회적 표현 이론과 함께 결론을 제공하였다.	ANOVA/ Cluster Analysis
Gursoy & Rutherford (2004)	지역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지지도는 지역공동체에 관한 관심, 생태 중심적 가치, 관광자원기반의 이용, 지역사회 애착, 지역 경제 상황, 경제 및 사회적 편익, 문화적 편익 등 아홉 가지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SEM
Jurowski & Gursoy (2004)	레저 관광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관광영향 인식은 원근 거리 거주자보다 더 부정적이며, 환경에 민감한 주민들의 경우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할수록 관광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다.	SEM

연구자	연구 결과	주요 분석 방법
고동환·정승호 (2004)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의 경제적 편익은 관광객과 비교해서 부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문화 및 환경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관광객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인식도 관광객보다 높게 나타났다.	t-Test
Andereck et al. (2005)	지역사회 개발 실무자가 주민들 사이의 관광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사회학적 힘에 대한 정보에 해박하다면, 갈등 해소와 희망하는 미래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 내부의 합의를 구축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PCFA MANOVA
Dyer et al.,(2006)	연구 결과 다섯 가지 요인이 지각된 관광영향을 측정하는 척도로 제안되는데, 즉,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 긍정적인 문화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 요인이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FA/CFA SEM
윤지현·이환봉 (2008)	지역애착도가 높을수록 관광개발에 따른 편익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인식된 관광으로부터의 혜택은 관광개발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오염, 혼잡, 환경훼손 등이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EM
이결재 (2008)	관광개발에 대한 경제적인 태도 요인은 사회적 태도 요인과 비교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경제적인 효과 인식 지각이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끌어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Multiple LRA/ Logistic RA
Vargas- Sánchezet al.(2009)	관광개발 초기의 과거 탄광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영향 인식은 발달 단계에 따른 Doxey의 'euphoria' 단계로서, 경제적 영향보다는 지역사회 애착과 만족도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EM
Gursoy, Chi, & Dyer (2010)	관광지 지역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지지는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 수준, 지역 사회 애착, 생태 중심적 가치, 관광자원 기반 활용, 지역 경제 상태 및 관광개발의 인지된 영향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SEM
Nunkoo & Ramkisson (2010b)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환경적 태도가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비용 및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이다.	SEM
고계성·김영남 ·현홍준 (2010)	카지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향들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카지노 개발정책의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Multiple LRA
Nunkoo & Ramkisson (2011a)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은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환경과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관광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는 관광 지지에 영향을 주는 선행 조건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SEM
고계성·이영진 ·고미영 (2011)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더 많이 인식될수록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고, 편익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해양 관광개발 지지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비용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Multiple LRA

연구자	연구 결과	주요 분석 방법
강영애·유광민 ·김남조 (2012)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 인식, 장소 애착도 그리고 환경 인식이 지역주민들의 생태관광 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지역주민은 관광개발이 지역 사회에 가져다줄 변화를 인식하고 개발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	Multiple LRA
임근욱·함승우 ·강형철 (2012)	메가 이벤트의 개최는 사회교환이론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소요 비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보다 크다고 인지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지지도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Multiple LRA
Lee(2013)	지역사회 애착 및 참여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주민들이 인지하는 혜택은 지역사회 애착과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지지도와의 간의 관계, 지역사회 참여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지지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SEM
임기성 (2013)	지역사회 애착은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영향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EFA/SEM
고계성 (2014)	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개발의 영향과 개발 선호도의 영향 관계는 경제력 향상, 생활환경 개선, 여가 여건 개선 부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Multiple LRA
이후석·오민재 (2014)	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요인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소로 구성되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관광영향 인식으로 구분되는 사회교환이론에 부합한다.	Logistic RA
Nunkoo & So(2016)	최적의 모델에서 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았다. 관광의 개인적 혜택은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어, 사회교환이론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제공해주었다.	CFA SEM
Vargas-Sanchez, et al. (2015)	관광객에 대한 인식과 관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중 한 지역에서 훨씬 더 강하고 관광개발 수준과 부정적인 영향 사이의 연관성이 다른 한 지역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	SEM
송재호·고계성 (2015)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에 따른 다양한 긍정적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해법은 다르지만,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ANOVA TEST
황경후·송상현 ·정철 (2016)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는 경제 효과에 대한 인식과 환경영향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은 비용에 대한 인식보다 편익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EFA/ Multiple LRA
Ribeiro et al. (2017)	경제적인 요인이 주민들의 개발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비경제적 요인과 관광개발 지지도의 관계는 긍정적인 태도로만 매개하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태도는 모두 주민들의 우호적인 관광개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SEM
정유리·정성문 ·강신겸 (2017)	현재의 개발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향후 지역 관광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을 고려한다면 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부차적 영향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Multiple LRA/LRA

연구자	연구 결과	주요 분석 방법
Gonzalez (2018)	사회교환이론 및 영향 인식과 관련된 수용 능력은 주민들의 인식과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보였다. 주민지지도는 관광 의존도에 크게 의존하며, 성별과 교육에 의한 영향은 더 낮다. 관광영향 인식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ANOVA TEST
Harrigan et al. (2018)	개인은 예상되는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클 때만 다른 당사자와 관계를 맺고 유지한다는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소비자가 브랜드와 소통하기 위해 인지적/정서적/행위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고객브랜드 관여(CBE)의 본질이다.	SEM
Olya, Alipour, & Gavilyan (2018)	지역사회 애착, 참여 및 지각된 관광의 편익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메트릭 불변성 테스트의 결과는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지역사회 애착과 참여의 효과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세계유산 관광지의 지역사회 그룹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SEM
Pham, Andereck, & Vogt. (2019)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한 관광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만족, 환경에 대한 만족, 사회 경제에 대한 만족 등의 변수 중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과 경제적 편익이 중요하게 도출되었다.	SEM
Su, Huang, & Pearce (2018)	부정적인 관광영향에 대한 관광지 사회적 책임(DSR)의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관광영향과 전반적인 지역사회 만족도는 지역주민들의 환경책임 행동(ERB)에 대한 관광지 사회적 책임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SEM
Yu, Chancellor, & Cole (2018)	사회문화적 및 환경적 편익이 모두 지역사회 생활 경험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제적, 사회문화적 편익, 부정적인 사회·문화적/환경적 영향과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	SEM
최연화·김준우·송학준 (2018)	복합리조트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환경적 효과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뉘며, 긍정적인 환경 효과는 장소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와 긍정적인 환경 효과는 개발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SEM
한승훈·김진욱 (2018)	관광학에서 공동체 의식과 지역 애착에 대한 관계에 관해 다른 연구가 많지 않아, 시도해 본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의 변수 중에서 지역주민의 충족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지역 의존성과 주민들의 유대감으로 확인되었다.	SEM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경제적·환경적 영향 인식, 중·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인식이 지속적 관광개발지지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관광개발에 대한 영향 인식과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의 지지도 사이에 영향 관계에 있는데, 주민들의 지역 애착심 중 의존성이 그 관계에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ltiple LRA/ Hierarchical RA
Choi et al. (2019)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개발은 지역주민들에게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지역 경제와 삶의 질 사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되었다.	SEM

연구자	연구 결과	주요 분석 방법
Eslami et al. (2019)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주민지지도에서 주민들이 지각하는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비물질적 삶의 영역과 중요한 관계가 있고, 환경적 영향은 물질적/비물질적 삶의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의 영향은 상당히 관련이 있었다.	SEM
김보형·김영남·홍성화 (2019)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긍정 영향 인식과 사회·문화적인 긍정 영향 인식은 복합 리조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고, 사회·문화적 부정 인식과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인식은 주민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더 영향을 준다.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LRA
박주영·오상훈 (2019)	관광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 및 관광지의 지가 상승으로 혜택을 인식하는 주민들이 있고, 관광영향에 대해 경제적 요인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대해 더 높게 체감하는 주민들도 있으나, 관광객 유입 및 증가가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증가, 생활 수준 등 긍정적인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은 감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ultiple LRA/Sobel test
송래현·윤유식 (2019)	전반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이 향후 관광개발 사업을 지지하거나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관광개발 사업 현안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Cluster Analysis/ MANOVA
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9)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은 축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축제의 혜택 쪽에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이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결과를 통해 이론적인 근거를 지지하고 있다.	Multiple LRA
정승훈 (2019b)	정치적 권한 부여는 관광개발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혜택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의 신뢰와 개발 지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SEM
정승훈 (2019c)	긍정적인 관광에 대한 영향 인식(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 부분)이 높은 경우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낮게 인식할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ultiple LRA
Papastathopoulos, et al. (2020)	주민들의 관광영향 인식이 주민들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거주 기간과 나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별, 교육 수준 및 국적은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SEM
정성문·강신겸 (2020)	사회적 자본은 주거지역 중심의 비 원도심보다 관광개발이 집중된 원도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관광개발의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고착되면 조절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SEM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3. 관광영향 인식의 선행연구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관광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관광개발의 전반적인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중요한 부분이다(Kim, Uysal & Sirgy, 2013; Lee, 2013).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 성장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지만, 관광개발이 반드시 주민들의 삶을 만족하게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Jurowski & Gursoy, 2004) 연구 결과도 있듯이, 관광영향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우선적인 영향은 경제 분야의 효과에 관한 논란일 것이다.

사회교환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다수의 연구는 주민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관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 또한, 관광개발 초기에는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개발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개발이 진척될수록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이미지의 개선, 여가활동의 기회 증진, 그리고 공공 편의 시설 개선과 같은 사회적·문화적인 영향요인과 사회기반시설 개선 및 교통량 증가와 같은 환경적인 영향요인에 의한 개발인식이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양승필, 2015; 윤지현·이환봉, 2009; Koen, 2018; Ribeiro et al., 2017).

환경적, 사회적 영향보다는 일자리, 소득 등 경제적 영향이 높을수록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높으면 지역개발에 지속해서 참여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며, 동시에 공동체 사회에 대한 귀속성과 애착성으로 귀결되어 주민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양민호 외, 2018)은 당연해 보인다. 관광개발에 대한 경제적인 태도 요인은 사회적 태도 요인과 비교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경제적인 효과 인식 지각이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이결재, 2008).

관광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의 요인에는 소득의 증대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 고용기회의 창출과 고용 확대, 투자 유치 및 개발 기반 환경의 개선, 조세 수입의 증가, 지역 내 경제구조의 다변화 등이고, 부정적인 영향에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 생활비 증가, 지역이윤의 외부로의 유출, 경제의존에 따른 대외 종속 문제, 지역적 불균형 개발, 고용의 불안정,

저급 인력 양상, 물가 인상, 주택 및 토지 가격의 상승 등이 있다(최규성, 2004; Ap & Crompton, 1998; Liu, Sheldon, & Var, 1987; Perdue, Long & Allen, 1990).

한편, 경제적인 영향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의 동반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쟁점이다(고계성·이영진·고미영, 2011; 고동완·정승호, 2004; 윤지현·이환봉, 2008; Ap & Crompton, 1998; Faulkner & Tideswell, 1997; Ko & Stewart, 2002; Kreag, 2001). 즉, 부동산 및 주택가격 상승, 생활비 및 재산세 증가 등이 주된 내용인데, 이와 더불어 흔히 관광지 물가라고 부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상품의 가격 상승에 대해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승분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민감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박주영·오상훈, 2019; 정승훈, 2019c; Olya, Alipour, & Gavilyan, 2018). 이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소비를 유발하는 쇼핑, 식도락, 여흥을 위한 시설 등 여러 요인은 주민들에게까지도 과소비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돌아와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충분하다(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Dyer et al., 2006). 그러나 경제적인 비용을 치러야 하는 근거가 관광산업의 호황 덕분에 지역주민의 소득증가와 지역경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면(Kim, Uysal & Sirgy, 2013), 지역사회 내부에서 갈등은 비교적 적을 것이다.

이보다도 관광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지역사회 밖으로 유출된다고 인식될 때(이후석·오민재, 2014; 임근욱·함승우·강형철, 2012;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Andriotis & Vaughan, 2003;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 2009), 사전 외부자본의 유입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민들에게 자칫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가져다줄 수도 있다.

관광영향의 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초기에는 관광의 경제적인 효과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경향을 보였으나(서세진, 2019), 차차 지역별로 중요한 발전의 기폭제로 인식됨은 물론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포함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초래하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고계성, 2007). 전반적으로 관광은 지역사회에 고용 창출과 이에 따른 소득 및 조세 수입 증대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유발하는 등 긍정적으로 경제에 유리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Perdue, Long & Allen, 1990), 이러한 경제적인 혜택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인 비용과 환경적인 파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가져다준다(Liu,

Sheldon, & Var, 1987).

관광이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관광객의 유입으로 자본과 소비의 흐름이 왕성해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되고(송재호·고계성, 2015), 이것이 방문객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연적으로 문화적 자긍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동완·정승호, 2004; 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박인규·이희천·전기환, 2011; 이결재, 2008; 이후석·오민재, 2014; Ap & Crompton, 1998; Lee, 2013; Olya, Alipour, & Gavilyan, 2018; Ribeiro et al., 2017;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 2009).

다수의 연구자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영향이 소득의 증가로 풍요로워진 경제적 요인보다 더욱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계성·이영진·고미영, 2011; 고계성, 2014; 송재호·고계성, 2015; 임기성, 2013;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최연화·김준우·송학준, 2018;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Ap & Crompton, 1998; Choi et al., 2019; Pizam, 1978). 이 밖에도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및 치안 방재 시설의 확충과 개선 효과(Yu, Cole, & Chancellor, 2018),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Ko & Stewart, 2002)를 가져다주며,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해주는 등(고계성·김영남·현홍준, 2010) 편익을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여가시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에게도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늘어나고,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부분도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배경이 된다(고계성, 2014; 김보형, 2019; 박주영·오상훈, 2019; 이형주·김인신, 2014; Eslami et al., 2019; Kim, Uysal & Sirgy, 2013; Su, Huang, & Pearce, 2018).

관광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비용적인 면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이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환경적인 측면과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주민들의 처지에서 관광산업을 통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지역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변화를 겪고, 생활 규범이 무너지면서 범죄가 늘어나고 지역의 미풍양속이 사라지는 등 윤리의식이 낮아지면, 환경 의식도 점차 무너지게 되는데, 이러한 파괴적인 요인이 작을수록 관광개발 지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들도 지역 정서와 문화·역사성을 지키고 고양하면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광개발을 원하게 된다(고계성, 2014).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관광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며(Andereck & Vogt, 2000), 이는 주민들이 관광을 경제의 발판으로 인식하는 경우 특히 더 그런 경향이지만(Gursoy, Jurowski, & Uysal, 2002), 지역에 따라 관광의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민들도 있다(Pizam, 1978).

한편,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그 범위가 사회 전반의 물리적인 면에서 인식되는 영향과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령 역사·문화적 건물, 즉 사적지의 보호나 복원(임근욱, 함승우, 강형철, 2012; Yu, Cole, & Chancellor, 2018), 세계문화유산의 관리(Jeon et al., 2014; Nicholas, 2009; Rasoolimanesh et al., 2017), 도로, 도시미관, 사회자본시설 등의 개선(이후석·오민재, 2014; Kim, Uysal & Sirgy, 2013; Ko & Stewart, 2002;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as-Bueno, 2009) 등의 물리적인 혜택은 지역 환경에는 물론 사회적인 편익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관광지 그리고 관광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관광과 환경의 관계는 '황금을 낳은 거위를 계속 키우느냐, 죽여서 한꺼번에 황금을 얻어내느냐'는 우화에 빗대어 회자할 정도로 이해(利害) 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다(Cohen, 1978).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환경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환경을 그대로 보존한 채 관광지를 건설하는 것은 누구나 희망하는 일이지만 이루기는 쉽지 않다. Cohen(1978)은 그 예를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싱가포르의 타이거밤 가든에서 찾았다.

Liu, Sheldon, & Var(1987)는 하와이, 북웨일즈, 이스탄불의 세 국가의 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의 사회환경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광산업이 성숙한 지역의 주민일수록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놓으며, 관광의 부정적·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여부도 중요하지만, 관광개발의 경제적인 편익이 사회적·환경적 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끌어내는 것은 필수 요소라고 주장한다.

하와이와 환경이 유사한 제주도도 섬이라는 지리적인 제약은 지역의 고유문화와 생태 환경, 역사 등의 매력을 제공해주면서도, 동시에 잘못 관리하면 그 가치가 상실되어 환경적으로

복원이 어려움에 따라 경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서세진·서용건, 2017; 서용건·고광희·김민철, 2010; Hanafiah, Jamaluddin, & Zulkifly, 2013; Liu, Sheldon, & Var, 1987)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관광영향의 요인은 이렇게 다양한 범위에서 나타나지만, 이들 중에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지역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므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이며 유용한 시작점이 된다(고계성, 2007; 고동완, 2001). 또한, 지역사회 애착도가 높은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관광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Gursoy, Jurowski, & Uysal, 2002)는 연구 결과는 관광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의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며 자신들의 환경을 방문자에게 내어주고 있는지가 관광의 영향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관광영향 인식의 영역

관광영향 관련 연구에서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관광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관계를 모두 제시하는데, 결과적으로 관광개발 지역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세 가지 기본적인 범주에서 혜택과 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계성, 2014; 유근준·이혁진, 2014; 이충기·강수경, 2008; Gursoy, Jurowski, & Uysal, 2002).

즉, 개인의 관광산업에 대한 참여 정도는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상충 관계의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생계를 관광에 의존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거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조광익·강신겸, 2020; Brougham & Butler, 1981; Milman & Pizam, 1988; Perdue, Long & Allen, 1990; Pizam, 1978).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은 다수의 선행연구 탐색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척도를 찾아볼 수 있다.

1) 경제적 영향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비용과 편익의 측면에서 나누어 보면, 우성 경제적 편익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생활 수준 향상, 지역 세수 증대, 투자 기회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순이며, 그밖에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업의 기회 제공, 지역주민에게 쇼핑의 기회를 넓혀 준다는 견해도 있으며, 비용 면에서는 생활물가 인상, 부동산 및 주택가격 상승, 자본의 외부 유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세금 증가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과소비 조장, 삶의 질 저하,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문항 등이 있으며, 비성수기에는 오히려 실업 문제가 불거지고, 소수의 지역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Kreag, 2001).

2) 사회·문화적 영향

사회·문화적 편익에는 타문화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 지역민의 여가 기회 향상, 공공시설 및 서비스 개선 효과, 지역문화 정체성 및 자긍심 향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역사·문화유산 보존의식 고취, 주민의 문화 활동의 기회 증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민들의 상호신뢰 증진 등이 있다. 사회·문화적 비용으로는 미풍양속 등 고유문화 파괴, 사행성·쇠퇴문화 증가, 각종 범죄증가, 사생활 침해, 관광객 또는 주민 간 갈등 조장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은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지역문화의 과도한 상품화(박주영·오상훈, 2019; 정승훈, 2019c;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나 지역 이미지의 하락(김보형, 2019) 등의 영향도 있다.

3) 환경적 영향

환경적 편익으로는 사회기반 시설 개선,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 경관 개선, 생활환경 개선, 유적지 보존, 자연보호 의식 고취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 이미지 개선, 관광객 증대, 주민공동체 의식 강화 등의 내용이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쓰레기, 소음, 대기·수질오염)문제 증가, 자연·생태 환경 파괴, 혼잡도 증가, 교통 및 주차난 증가, 경관 훼손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공간 축소, 사회환경 교란, 외부 생물체 유입(Kreag, 2001) 등의 문항도 있다. 특히 환경오염의 경우 여러 요인이 혼재하여, 쓰레기, 소음,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을 각각 따로 측정하는 경우(조광익·김남조, 2002)도 있지만, 하나의 개념 안에 넣은 선행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관광영향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영향 관계를 사회교환의 측면에서 본 것인가 아닌가의 기준으로 구분된다. 물론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대상으로 개념을 구성하였지만, 편익의 측면만을 연구한 문헌(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박인규·이희천·전기환,

2011; 이결재, 2008; 조광익·김남조, 2002; Allen et al., 1993; Gursoy, Jurowski, & Uysal, 2002; Lee, 2013; Pizam, 1978; Sinclair-Maragh, Gursoy, & Vieregge, 2015)도 참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광영향 인식에서 비용적인 측면을 구성하는 공통의 척도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2-6>과 같다.

<표 2-6> 선행연구에 사용된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척도

구분	관광영향 인식 척도	연구자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회 증가 ▪ 주민소득증대로 생활 수준 향상 ▪ 지역 세수 증대 ▪ 투자 기회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의 기회 제공 ▪ 지역주민에게 쇼핑의 기회 	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 고계성(2014),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고동환·정승호(2004), 김보형(2019), 김진욱·신동주(2017), 박인규·이희천·전기환(2011), 박주영·오상훈(2019), 송재호·고계성(2015), 윤지현·이환봉(2008), 이결재(2008), 이상용·윤희정(2013), 이형주·김인신(2014), 이후석·오민재(2014), 임근욱·함승우·강형철(2011), 임기성(2013),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정승훈(2019b), 정승훈(2019c),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조광익·김남조(2002), 최연화·김준우·송학준(2018),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송상현·정철(2016), Allen et al.(1993), Andriotis & Vaughan(2003), Ap & Crompton (1998), Choi et al.(2019), Dyer, Gursoy, Sharma, & Carter (2006), Eslami et al.(2019), Faulkner & Tideswell(1997), Frauman & Banks(2011), Gursoy & Rutherford(2004), Gursoy, Chi, & Dyer(2010), Gursoy, Halpenny, & Uysal (2002), Hanafiah, Jamaluddin, & Zulkifly (2013), Jurowski & Gursoy(2003), Kim, Uysal & Sirgy(2013), Ko & Stewart(2002), Kreag (2001), Lankford & Howard(1994b), Lee (2013), Nunkoo & Ramkisson(2010), Nunkoo & Ramkisson (2011), Nunkoo & So(2016), Olya, Alipour, & Gavilyan(2018), Pizam(1978), Ribeiro et al. (2017), Sinclair-Maragh, Gursoy, & Vieregge (2015), Su, Huang, & Pearce(2018),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2009), Yu, Cole, & Chancellor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문화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 ▪ 지역민의 여가 기회 향상 ▪ 공공시설 및 서비스 개선 효과 ▪ 지역문화 정체성 및 자긍심 향상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역사문화 유산 보존의식 고취 ▪ 주민의 문화 활동의 기회 증진 ▪ 지역 이미지 개선 ▪ 지역민들의 상호신뢰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 시설 개선 ▪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 ▪ 경관 개선 ▪ 생활환경 개선 ▪ 유적지 보존 ▪ 자연보호 의식 고취 ▪ 지역 이미지 개선 ▪ 주민공동체 의식 강화 	

자료 :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또한, 관광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연구도 떠오르고 있는데, 과잉관광(Overtourism)으로 표현되는 이 현상은 특히 관광객의 수가 그 수용 능력을 과도하게 넘어선 유럽의 전통적인

관광도시에서 주민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Koen et al. (2018)은 질적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과잉관광에 관해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단지 관광의 영역에만 속해 있지 않은 까닭에 더 넓은 사회와 도시 개발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과잉관광’을 개념화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참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광영향 인식의 비용적인 면에서 척도를 구성하는 개념들은 <표 2-7>과 같다.

<표 2-7> 선행연구에 사용된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척도

구분	관광영향 인식 척도	연구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물가 인상 ▪ 부동산·주택가격 상승 ▪ 자본의 외부 유출 ▪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 세금 증가 ▪ 지역주민의 과소비 조장 ▪ 삶의 질 저하 ▪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 ▪ 비성수기 실업 문제 유발 	고계성(2014),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고동완·정승호(2004), 김보형(2019), 김진옥·신동주(2017), 박주영·오상훈(2019), 송재호·고계성(2015), 윤지현·이환봉(2008), 이상용·윤희정(2013), 이형주·김인신(2014), 이후석·오민재(2014), 임근욱·함승우·강형철(2011), 임기성(2013),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정승훈(2019b), 정승훈(2019c),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조광익·김남조(2002), 최연화·김준우·송학준(2018),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송상현·정철(2016), Allen et al.(1993), Andriotis & Vaughan(2003), Ap & Crompton(1998), Choi et al.(2019), Dyer, Gursoy, Sharma, & Carter(2006), Eslami et al.(2019), Faulkner & Tideswell(1997), Frauman & Banks(2011), Gursoy & Rutherford(2004), Gursoy, Jurowski, & Uysal(2002), Hanafiah, Jamaluddin, & Zulkifly(2013), Jurowski & Gursoy(2004), Kim, Uysal & Sirgy(2013), Ko & Stewart(2002), Koen et al.(2018), Kreag(2001), Lankford & Howard(1994), Lee(2013), Nunkoo & Ramkisson(2010), Nunkoo & Ramkisson(2011), Nunkoo & So(2016), Olya, Alipour, & Gavilyan(2018), Pizam(1978), Ribeiro et al.(2017), Sinclair-Maragh, Gursoy, & Vieregge(2015), Su, Huang, & Pearce(2018),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2009), Yu, Cole, & Chancellor(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풍양속 등 고유문화 파괴 ▪ 사행성·쇠퇴문화 증가 ▪ 각종 범죄 증가 ▪ 사생활 침해 ▪ 관광객 또는 주민 간 갈등 조장 ▪ 지역문화의 과도한 상품화 ▪ 지역 이미지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쓰레기, 소음, 대기·수질오염) 문제 증가 ▪ 자연·생태 환경 파괴 ▪ 혼잡도 증가 ▪ 교통 및 주차난 증가 ▪ 경관 훼손 ▪ 공간 축소 ▪ 사회환경 교란 ▪ 외부 생물체 유입 	

자료 :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제3절 친환경 행동의도(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1. 친환경 행동의도의 개념과 정의

친환경 행동의 의도란 환경책임행동을 기반으로 하며, 경제·환경·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이 취하는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의 정도를 의미한다(고동완·이상훈·오수진, 2015; Han & Yoon, 2015; Lee, 2011; Schultz, 2000; Stern, 2000). 이는 환경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강영애·최승담, 2016; Kollmuss & Agyeman, 2002; Su et al., 2018).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되며, 환경이란 물질적인 것과 자연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생태적 체계(ecological system)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교육에서는 자연적, 인위적인 환경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즉, 사회적 체계(social system)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이재영, 2015). 환경문제를 인간과 환경과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인간 간의 문제라고 본다면, 인간에게는 자체적으로 ‘공유재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령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곳에서도 그들 중 누군가는 스스로 공공 자연재에 대한 취득량을 제한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 다른 사회구성원들 간에 암묵적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이 발현된다(Mosler, 1993).

영어의 책임에 해당하는 ‘responsibility’는 ‘respond(대응)’와 ‘ability(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사전적 의미는 ‘말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를 뜻한다(국립국어원, 2020). 즉, 책임은 우리가 말아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며, 발생할 일의 결과에 대해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서로 연결된 일을 신중히 처리하여 건설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강민정, 2014).

환경책임행동은 환경교육의 핵심 목표가 된다. 즉, 인간은 생태계 안에 살면서 환경의 위기가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 형식의 교육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종합적으로 소통하며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에 관심을 두고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며, 친환경적 삶을 살면서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환경교육의 목적이다(김태경 외, 2005).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과 관련한 인간의 행동 변수를 찾는 일은 교육학의 측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환경 행동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행동 변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J. M. Hines는 환경 행동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성격 변수와 함께 행동 전략 및 환경 이슈에 관한 '지식'이 환경 행동을 주요 변수로 하는 환경책임행동의 선행변수가 된다는 모델을 제안하였다(Hines et al, 1987). 그가 제시한 환경 지식은 지각된 소비자 효율(PCE,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이론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신념과 함께 친환경 소비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었으며(류을순, 2015; Jung & Oh, 2013), 이는 '친환경 행동' 장려를 위한 정책적 제안의 하나로 환경 관련 서적이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정책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Ellen, Wiener & Cobb-Walgren, 1991).

지난 수십 년간 환경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오면서 대중들이 지지하는 환경운동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최소 6개의 관련 이론들을 소개할 수 있다(Stern et al., 1999). 이들은 환경 행동과 지식, 태도, 의도의 실증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관련된 표현으로서, 행동에 중점을 둔 '환경 행동(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action, ecological behavior)', 환경친화적인 내용에 중점을 둔 '친환경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friendly behavior)', 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subjectively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general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그리고 환경변화와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 행동(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 conservation behavior)'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인간이 살며, 이해하고 배우며, 계획하며 돌보아야 하는 곳으로서의 환경은 인간이 매일 생활하는 일상적인 장소이며, 인간의 사회, 문화, 기술 그리고 역사가 모두 그 구성 요소가 되기에 이것이 우리가 환경에 감사하고 살기 좋은 곳을 계획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며 소속감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Sauvé, 1996). 즉, 환경과 장소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장소 애착'이 '환경책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Ramkissoon, Smith, & Weiler, 2013; Vaske & Kobrin, 2001).

행동 의도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변인이라고 설명하는 Ajzen과

Fishbein이 제시한 합리적 행동이론(TRA)과 계획된 행동이론(TPB)은 환경 행동 연구에 적용되어, 계획된 행동이론(Chen & Tung, 2014; Han, 2015; Han & Kim, 2010), 시민 행동(CB) 이론(Hungerford & Volk, 1990), 가치-신뢰-신념(VBN) 이론(Chen & Tung, 2014; Han & Kim, 2010; Stern et al., 1999), 관광객 환경책임행동(ERB)의 메커니즘 이해 연구(Han, 2015; Kiatkawsin & Han, 2017), 장소애착 이론에 근거한 연구(Cheng & Wu, 2015; Cheng, Wu, & Huang, 2013) 등으로 확산하여왔다(금지현·김진모, 2011; Su, Hsu, & Boostrom Jr., 2020).

특히, 환경책임행동(ERB,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은 ‘환경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개인 또는 그룹의 행동(specific term referring to any action, individual or group, directed toward remediation of environmental issues/problems)’을 특정하는 용어(Sivek & Hungerford, 1990)로써, 여기서 환경에 대한 ‘책임’이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Bamberg & Möser, 2007; Schwartz & Howard, 1980). Borden & Schettino (1979)는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평가하여 환경책임행동에 관한 연구를 개척하였고, 개인을 교육하고 환경책임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Sivek & Hungerford(1990)는 환경책임행동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임을 보여주었다.

여러 연구에서 인간 활동이 환경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해왔으며(Halpenny, 2010; Ramkissoon, Smith, & Weiler, 2013), 여기서 인간의 활동에는 일상생활 활동은 물론 관광 활동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체론적 관점에서 관광객의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을 더욱 철저히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행동과 특정(관광지에서의) 행동이 환경책임행동의 평가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Halpenny, 2010; Lee, Jan, Yang, 2013; Mehmetoglu, 2010; Ramkissoon, Smith, & Weiler, 2013).

환경책임행동은 개인이나 집단이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일어나는 행동을 말한다(Cottrell, 2003). 그러한 행동은 또한 친 환경적이고, 환경친화적 행동이며, 환경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행동으로도 언급되어 왔다(Mobley, Vagias, & DeWard, 2010).

Stren(2000)은 또한 친환경 행동은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 주의, 특정 정책 시책의 지원을 포함한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비활동 주의적 정치 행위, 구매 결정을 포함한

민간 환경주의, 소비자 구매와 에너지 사용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 개인이 포함된 단체 행동 등의 종류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 행동의 하위 요소에는 친생태적 행동, 검소한 행동, 이타적 행동, 공정한 행동이 있으며(Corrall-Verdugo et al., 2010; Kaiser, 1998; Nelson & Winter, 2002; Schultz, 2000), 최근 환경 의식과 친환경 행동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에서 이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환경 의식이 모두 친환경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한 연구들도 있어서, 친환경 행동의 다차원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박희제·허주영, 2010).

다음의 <표 2-8>은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환경 행동과 관련된 연구에 적용된 이론을 근거로 사용된 유사한 개념의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8> 환경 행동 관련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연구자
환경책임행동, ERB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환경책임행동(ERB)은 환경문제 및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책임 있는 행동	윤동환·한승훈(2020), Lee & Oh(2018), Sivek & Hungerford(1990), Su, Huang, & Pearce(2018)
환경의식행동, ECB (Environmentally Concerned Behavior)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태도로 개인의 일상에서의 친환경적인 행동을 이끄는 주된 인과 요인	박희제·허주영(2010), 이종호·노정구·김인숙(2000), 윤효실·윤혜현(2013), Cottrell(2003)
친환경 행동, PEB (Pro-environmental Behavior)	개인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연적이고 건설적인 세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행위	류동균 외(2016), 민현선·이기춘(1999), 송명규(2018), Kollmuss & Agyeman (2002), Leeuw et al.(2015),
환경중요행동, ESB (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	환경으로부터 물질이나 에너지의 이용 행태를 바꾸거나 생태계 또는 생물권 자체의 구조와 역학을 변화시키는 정도	김진옥(2018). Stern(1997, 2000)
지속가능 행동, SB (Sustainable Behavior)	배려와 존중을 기본 가치로 하여, 유한한 자연 자원을 아끼고 보호하며, 자신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 배려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동	최지혜(2016), Meijers & Stapel(2011)

자료 : Lee, Jan & Yang(2013)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2. 친환경 행동 관련 선행연구

Mosler(1993)는 환경문제는 실제로 사람과 환경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구성원 간의 문제라는 사회적 딜레마 이론을 근거로, 환경문제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개인 간의 차이를 인식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장소에 대한 정체성, 사회적 결속력 및 주거 만족도 등이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환경문제는 인간과 환경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간의 문제(Mosler, 1993)라는 주장에 대해 Uzel 등은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모두 한 개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지역사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이웃들과의 신뢰가 개인의 의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Uzel, Pol, & Badenas, 2002).

이 밖의 다수의 연구자가 환경적 태도, 인식 및 행동 간의 단절을 이해하고 환경친화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재정 및 시간적인 제약에서 가치 및 신념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러 변수가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거나 방해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Bamberg & Moser, 2007; Blake, 2001; Dietz, Kalof, & Stern, 2002; Halpenny, 2010; Schultz, 2000). 즉, 환경에 유익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많은 연구자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 의식, 그리고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왔으며, 그 변인들 사이의 다양한 매개 요인에 따라 인간의 가치와 신념이 환경친화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Bamberg & Moser, 2007; Dietz, Kalof, & Stern, 2002; Halpenny, 2010).

Mateu-Sbert et al.(2013)은 연구를 통해 스페인의 Menorca 섬 관광객이 1%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쓰레기는 0.282%가 증가한다는 추산된 결과를 제시하면서, 관광의 영향으로 인한 환경 폐기물 관리의 문제는 건전한 공공정책으로서의 정부 당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기 이전 수행한 연구 조사를 통해 고계성과 임화순(2007)은 제주도 환경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을 환경보존론 집단, 개발론 집단, 중간적 집단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동시에 결혼 여부, 직업, 지역, 소득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환경 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의 환경에 대한 책임감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관광개발의 맥락에서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된 지역이 받는

영향이 관광객 수와 관계없이 그 지역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비용, 그리고 천연자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Cohen, 1978), 지속 가능한 관광지 개발은 지역의 환경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여러 연구자가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관심을 가져왔다(Cheng & Wu, 2015; Han, 2015; Su, Huang, & Pearce, 2018). 따라서 관광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는 과정과 결과는 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Kollmuss & Agyeman, 2002; Su & Swanson, 2017)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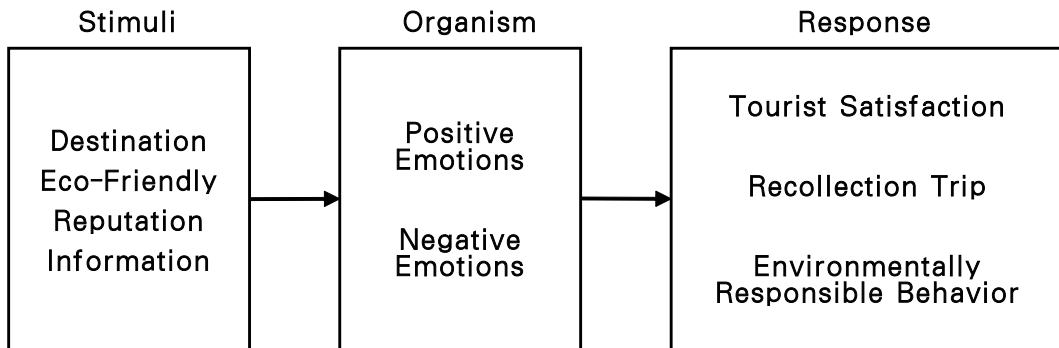
관광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함께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을 동시에 살펴보면, 잠재적 변인과의 영향 관계가 더욱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과 이해관계자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관광지 주민들이 지각하는 관광지의 사회적 책임은 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영향 및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한승훈, 2019; Su, Huang, & Pearce, 2018). 이해관계자 이론의 경우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들은 조직을 지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교환 이론과 서로 지지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그들이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Nunkoo, Gursoy, & Juwaheer, 2010; Nunkoo & Ramkissoon, 2011).

또한, 사회교환이론의 경우 편익과 비용에 기인한 상호 간의 교환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교환의 관계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때 상호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Andereck & Vogt, 2000; Ap, 1992). 사회교환이론도 마찬가지로 관광지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거나(전영철, 2000; Gursoy, Chi, & Dyer, 2010; Wang & Pfister, 2008), 그들이 지각하는 관광영향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다양한 분야의 영향 관계에 대해 그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데 널리 활용되어 왔다(Allen et al., 1993; Nunkoo & Ramkissoon, 2011).

지금까지 관광지 환경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관광객의 활동에 주로 집중된 경향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경제적·사회적 활동과 더불어 환경 활동 역시 마땅히 관광지의 최우선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Han, 2019). 한편,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활동에 관한 환경 행동의 연구는 최근 Su, Hsu, & Boostrom Jr.(2020)의 모델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3]은 관광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외부의 자극에 노출된 개인의 판단과 인식에 따라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일어난 반응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지지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책임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개인은

부정적인 행동을 위하게 된다는 'S-O-R 모델'이다(Su, Hsu, & Boostrom Jr., 2020).



[그림 2-3] S-O-R Model of Touris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ERB)

자료 : Su, Hsu, & Boostrom Jr.(2020) From recreation to responsibility: Increasing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in tourism

이와 유사하게, 축제 관련 연구들은 이전까지는 축제 개최 지역의 주민들이 고려되지 않은 관광객들의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기에(Jin, 2017), 관광지 주민의 인식이 관광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따라서 친환경 행동이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책임 있는 환경 인식과 행동에 대한 권장 사항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Jin, 2017). 또한, 장소 애착의 기능적인 면의 중요한 변수인 자연환경에 대한 애착이 높은 주민들의 경우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기초한 높은 환경 인식은 지역 정체성 및 장소의존성과 환경책임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완전한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Lee & Oh, 2018), 지역주민의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가변적이라고 보는 연구에서도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정체성과 의존성을 바탕으로 둔 장소 인식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축제의 매력성이 더해져 지역에 대한 애착심에 영향을 주게 된다(Jin, 2017).

Uzel, Pol, & Badenas(2002)는 사회적 친밀도와 지역 정체성이 높은 지역주민들이 환경 지속성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만큼,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관계를 통해 표현되는 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환경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계획에 고려되어야 하며, 장소정체성은 위치에 따라 정의될 수 있는 그룹 구성원의 자격을 반영하며, 다른 이웃으로부터 해당 주민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였다.

3. 친환경 행동의 척도

친환경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은 개인이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동으로 설명되는데(Schultz, 2000; Stern, 2000), 관광지 주민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환경친화적 행동을 탐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Su, Huang, & Pearce, 2018). 그러나 주민들은 관광목적지의 중요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이기 때문에(한승훈, 2019; Nunkoo & Ramkissoon, 2011), 관광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책임 있는 환경친화적 행동을 채택하는지는 관광목적지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Su, Huang, & Pearce, 2018).

책임 있는 환경 행동(ERB)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산출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측정에서 특이성 문제이다. Ajzen과 Fishbein(1980)은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 측정이 동일한 수준의 추상화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환경 영역 내에서 측정 특이성 문제는 서로 다른 환경 구성과 책임 있는 환경 행동 간의 관계를 종종 약화하고, 물질주의와 책임 있는 환경 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데 있어, 추상적인 환경 행동과 구체적인 환경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의 기준이 달라서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할 수 있다(Kilbourne & Pickett, 2008).

즉, 환경 행동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시각이 연구자들마다 다르고, 또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이론을 주장하는 여러 학자는 일반적인 환경 행동의 영역 안에서, 일반적인 행동(General Behavior)과 특정적인(구체적인) 행동(Specific Behavior)으로 나누는(서세진·서용건, 2017; Cheng et al., 2019; Kaiser & Wilson, 2004; Lee & Oh, 2018; Vaske & Kobrin, 2001)가 하면, 이를 더욱 세분된 범위로 분류하는 연구자(Kaiser & Gutscher, 2003; Orams, 1997; Smith-Sebsto & D'Costa, 1995)의 경우는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을 시민, 교육, 재정적, 법적, 물리적 행위 등 6개의 범주 안에서 분류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친환경패러다임(NEP, New Environmental Paradigm)이나 친환경행동(PEB, Pro-Environmental Behavior)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자들이 활용한 척도에도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Borden & Schettino(1979)는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평가하여 환경책임행동 연구를 개척했으며, 개인을 교육하고 환경책임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Sivek & Hungerford(1990)는 개인의 환경책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개인 또는 그룹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제시하였다.

〈표 2-9〉 선행연구에 나타난 친환경 행동의 척도

연구 주제	친환경 행동 척도	연구자
소비자 행동	친환경제품으로 전환, 환경오염 적은 상품 구매, 재활용 용기 제품 구매, 친환경(유기농) 과채류 구매, 재활용 종이 구매 노력, 환경위해(環境危害) 제품 불매 노력, 친환경 세제 구매 노력, 친환경제품 구매	Kiatkawsin & Han (2017), Lee, Jan, & Yang (2013), Mainieri et al. (1997), Scott & Willits (1994), Stern et al. (1999),
환경 시민 의식·행동	환경보호 단체 회원 가입, 환경단체 잡지·출판물 구독 여부, 환경보호 목적의 청원서 서명, 환경단체 기부, 환경보호 지지를 위한 기관에 진화, 환경위해 물품 불매 운동 참여, 환경정책을 위한 후보 지지	Ballantyne, Packer, & Falk (2011), Kaiser et al. (2003), Mainieri et al. (1997), Orams (1997), Stern et al. (1999)
간접적인 환경 행동	환경단체 가입, 환경단체에 기부, 환경 잡지 구독, 정치 대표(공무원)와 소통, 인적 환경보호 캠페인, 주변에 환경보호 중요성 설득, 환경보호 관련 토론 참여	Kilbourne & Pickett (2008)
직접적인 환경 행동	재활용 종이·플라스틱 제품 구매, 난방 절약(의복으로 대신) 세제 사용 제한, 친환경 세제 구매, 캔 음료 구매, 친환경제품 구매 노력, 가정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소재 제품 사용, 유기농 식품 구매, 물·전기 절약	Homburg & Stolberg (2006), Kilbourne & Pickett (2008)
교육적 활동	환경 지식 습득(독서, 청취 등), 환경 관련 TV 프로그램 시청, 환경 관련 도서·잡지 읽기	Smith-Sebasto & D'Costa (1995), Thapa (2010)
정치 활동	환경문제 의견 작성해 보내기, 환경 간행물 구독, 환경보호 정책 후보자에 투표, 환경보존 단체에 기부	Thapa (2010)
관광지 활동	환경단체 일원이 되기, 환경문제 배움에 시간·노력 들이기, 해양 생물 투어 에코 라벨링 적용 동의, 다른 투어보다 에코 라벨링이 있는 투어 선택, 친구에게 친환경 여행 제안, 해양자원 지속가능 활용 홍보, 동물에게 먹이 주지 않기, 생태계 훼손하지 않기, 자연·야생 동물 잘 관찰, 숲 생태계에 어울리는 복장 하기, 남이 버린 쓰레기 줍기, 놀던 자리 청소하기	Chen (2011), Lee, Jan, & Yang (2013)
친환경 활동	종이·플라스틱·금속 재활용, 물·에너지 절약, 친환경·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 구매, 야생 동물 친화적인 마당 꾸리기, 야생 동물 연구 참여, 야생 동물 서식지 개선 활동 참여, 이웃과 환경문제에 대해 얘기함, 이웃과 협력하여 환경문제·이슈 해결, 지역 환경단체 정회원으로 참여, 환경에 영향 미치는 정책·규정 지원 투표, 환경문제 청원서 서명, 지역 환경보호 지원을 위한 기부, 환경문제에 대한 서신 작성	류동균 외 (2016), 서세진, 서용건 (2017), Larson et al. (2015), Leeuw et al. (2015), Rice (2006)

자료 :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제작성

90년대 환경 행동 관련 연구는 척도 기준을 위해 환경 행동을 시민행동, 교육적 행동, 정치적 행동, 그리고 소비자 행동 등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Mainieri et al., 1997; Orams, 1997; Scott & Willits, 1994; Stern et al., 1999), 2000년대부터는 Vaske & Kobrin(2001)의 환경책임행동(ERB) 척도 연구 이후 일반적 행동(general behavior)과 특정 행동(specific behavior)으로 구분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이상의 친환경 행동 관련 선행 연구의 척도를 분야별로 재구성한 내용은 상기 <표 2-9>와 같다.

4. 친환경 행동과 관광개발

관광지 지역주민이 가진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써 장소 애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환경 인식은 개인이 환경에 대해 가지는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환경 교육과 친환경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왔다(금지현·김진모, 2011; 이재영, 2002). 관광개발 지지도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관광을 통해 얻게 되는 지각된 혜택 또는 긍정적 인식은 환경친화적으로 지역을 변모시키고,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관광지와 더불어 주민 편의 시설 등의 준비를 통해 지역주민이 긍정적으로 관광개발을 지지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윤지현·이환봉, 2008; Gursoy, Jurowski, & Uysal, 2002; Jurowski, Uysal & Williams, 1997).

한편, 관광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외지인 부동산 소유 증가, 일상생활의 불편 증가, 지역 간의 갈등 및 환경오염 사례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고동완·김현정, 2003; 문창현, 2007; 조광익·김남조, 2002; 이후석·오민재, 2004; Ko & Stewart, 2002).

사회교환이론은 교환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교환에서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느끼면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교환 활동을 계속한다(Ap, 1992). 사회교환이론은 특히 관광지 주민들의 태도와 행동에 관해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과 그룹 간의 자원 교환으로 이해하는 연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널리 적용되어왔다(Byrd et al., 2009; Gursoy, Chi, & Dyer, 2010; Lee et al., 2010; Nunkoo & Ramkissoon, 2010, 2011).

여기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지 주민의 행동의도와 관련하여 사회교환이론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이론은 관광지의 사회적 책임(DSR, Destination Social Responsibility)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교통, 항공사, 숙박, 식당,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사업체들이 경제, 환경, 문화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대상으로 특히 호텔이나 항공사와 같은 대형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연구 대상이 되며, 단지 마케팅의 일부가 아닌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많은 연구자와 기관이 조사를 수행해 왔다(Dahlsrud, 2008). 즉, 관광지의 사회적 책임(DSR)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정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혜택, 작업 조건 및 산업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환경 및 자원을 보호하며, 목적지의 다양성 유지함으로써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다(Su, Huang, & Huang, 2018),

한승훈(2018)은 관광지의 사회적 책임이 환경책임행동에까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며, 관광지 사회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긍정적 관광영향을 지각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주면서, 부정적인 관광영향의 인식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연구를 통해 밝혔다. 또한, 전반적으로 관광지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긍정적 관광영향 지각은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관광개발의 영향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와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상당수이지만, 드물게는 지역주민 중 환경운동에 관여를 많이 하는 집단과 적게 하는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도 있다. 이들 주민이 관광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에 대해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으로써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환경운동에 많이 참여하는 그룹의 경우, 관광개발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과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의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발전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전희원·문상정, 2006).

관광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과정과 그 결과는 관광지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Kollmuss & Agyeman, 2002; Su & Swanson, 2017), 지금까지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관한 관심과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김현정·유광민·김남조, 2014; Cheng & Wu, 2015; Han & Yoon, 2015).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가 주로 관광객의 활동과 인식이 관광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어(강영애·최승담, 2016; 유광민·김현정·김남조, 2013; Lee, Jan, & Yang, 2013), 갈수록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는 지역 주민이 관광지에서 최우선의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처지에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Su, Huang, & Pearce, 2018). 사회 교환이론에 의하면 지역주민은 관광지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소득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혜택을 얻을 때 이에 상응하는 피드백으로써 교환 활동, 즉, 관광객을 수용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Andereck & Vogt, 2000; Ap, 1992). 또한, 이 교환 행동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로 지역주민들이 제공하는 피드백 중 하나가 바로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이며(Su, Huang, & Pearce, 2018), 이는 곧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행동이다(Chen & Tung, 2014; Clayton, 2003; Su, Huang, & Pearce, 2018; Vaske & Kobrin, 2001).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관광영향, 지역 만족, 책임 있는 환경 행동, 그리고 관광지 사회적 책임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 행동의도가 종속변수로서 지역에 대한 만족도, 관광영향,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Su, Huang, & Pearce, 2018).

제4절 관광개발 지지도(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1.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 지지도의 개념

‘태도(attitude)’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Ajzen, 1988)이며, 관광개발에 있어 관광지 지역주민의 태도란 관광 현상 혹은 관광개발에 따른 감정과 생각, 관광산업의 발전과 쇠퇴 등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지역주민의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arrill, 2004).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관광개발 지지 의도는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긍정적 태도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개발로 인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관광개발을 찬성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박주영·오상훈, 2019; 송기현, 2010; 양승필, 2012). 즉, 관광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관광개발의 최종 목적이 지역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지역주민 관점에서 관광영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이형주·김인신, 2014).

관광개발은 종종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동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개발계획이 무너지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바,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필수 선행 작업인데(Nunkoo & Ramkissoon, 2010), 이는 주민의 태도가 “일어날 것(현실)과 사람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지각) 사이의 일치 정도으로써 관광개발 및 운영에 중요한 고려 사항(Andriotis, 2008)”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일터인 동시에 의·식·주의 생활공간이며(박석희·고동우·김병국, 2000), 관광객의 유입으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이후석·오민재, 2004; 양성수·허향진·서용건, 2009; 조광익·김남조, 2002; Harrill, 2004; Vargas-Sanchez et al, 2009).

또한, 지지도는 인간의 신념이나 지식, 의견 등을 뜻하는 인지적인 요소(cognitive component)와 특정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정서적인 요소(affective component), 그리고 전자의 두 가지 요소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움직임을 드러내는 행동적인 요소

(behavioral component)로 구성되어 있다(조광익·김남조, 2002; Carmichael, 2000).

일반적으로 태도는 특정 대상 또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의 선호 경향이면서, 그 대상에 대한 평가를 긍정·부정으로 드러내는 감정의 표출이다. 그래서 관광개발에서 지역 주민의 태도란 현재 또는 미래의 개발영향에 대하여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를 통해 찬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문 및 자연 환경 자원과 함께 개발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주민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이다(김진주, 2017; 윤병국, 2010; 정성문, 2019).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마케팅의 관점에서든 마찬가지로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는 인지적(지각적) 또는 신념적 요소(cognitive component)라고 하며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긍정적·부정적 또는 중립적인 신념과 지식을 말한다. 둘째는 감정적 요소(affective component)로서 대상에 대하여 소비자가 드러내는 감정으로서 소비자가 자신의 지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요소는 복잡하면서도 순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감정적 요소는 그에 비해 단순하지만, 더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지적 요소가 사라진 후에도 정서적 요소는 계속 남아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가 있는데, 이는 대상과 관련하여 개인이 호의적·비호의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준을 의미한다(강신겸, 2002; 김인환·이용진, 2009; Assael, 1984).

개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식하는 바에 대해 선호하는 감정이나 믿음 또는 신념을 어느 정도 지속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대상물과 관련이 있는 태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면서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타인의 행동과 태도를 판단하고 비교하게 된다(김인환·이용진, 2009).

윤지현과 이환봉(2008)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경험과 노출, 반복된 자극 등을 통하거나 가족이나 학교 등을 통한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형성되는데, 관광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역민의 태도는 관광지의 성장과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발 이후에도 경영 측면에서 지역민의 태도는 해당 관광지의 성장 및 지역 방문객이 지각하는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의 태도는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어서, 하나의 이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설명이론을 통해 여러 관점에서 지역의 관광 현상을 바라보며, 경험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갈등도 기본적으로 갈등 및 저항이론으로부터 바라볼 수 있으나, 주민의 개인적, 상황적 요인에 따라 저항 여부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관광개발 연구에서 세분된 접근 방법을 요구하게 된다(고계성·김영남·현홍준, 2010).

관광개발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주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인식하는 영향이 다르고 그에 따른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서광용, 2016; 양승필, 2012; 이형주·김인신, 2014).

오늘날 많은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개발 활동의 주요 초점은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을 통한 지자체의 세금 수입, 일자리 창출 및 실소득의 증가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있으나,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가장 중대한 영향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수용 가능성은 거주자가 관찰한 불이익에 대한 대가로 받는 혜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Jurowski & Gursoy, 2004).

관광영향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광산업을 영유하는 동안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Butler(1991)는 자연과 문화의 환경·유산 보호를 위한 맥락에서 기초가 되는 것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으며, 복잡한 관광산업의 본질을 더욱더 이해하고 환경을 둘러싼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광정책, 적극적인 기획, 과도한 발전의 제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광개발을 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도는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최연화·김준우·송학준, 2018), 해당 지역과 지역사회구성원에 대한 이해는 개발자가 지역 관광의 촉진을 위한 최적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윤유식·오정학, 2009).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에서 주요 쟁점은 지역사회 발전 계획의 수립에 있어 관광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 방문객들의 지속적인 재방문 및 구전(word of mouth)의 근원이 지역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많은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관광지 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은 경제

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Perdue, Long & Kang, 1995; 조광익, 김남조, 2002).

2. 사회교환이론과 관광개발 지지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반응을 탐색하는 기본적인 작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관광지의 개발 과정과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Butler(1980)의 관광목적지 수명주기(Destination Life Cycle)이론에 따르면, 관광지는 탐색-관여-개발-정착(강화)-정체-쇠퇴(재생)단계 등 6단계의 순환적인 변화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객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나 행동 또한 이러한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데, Doxey(1975)가 제시한 분노지수이론(Irridex Model Theory)에 따르면 관광의 발전에 따른 주민의 반응은 행복감(환영), 무관심(의심), 분노(성가심), 적대(반감), 그리고 체념의 5단계로 설명되어, 관광지 수명주기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서는 주민들이 어떠한 태도를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은 계산된 이익과 비용에 따라 변하게 된다고 하여, 관광으로 인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선택은 관광지 지역주민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탄력적인 설명으로 이어진다(이수진, 2019; Doğan, 1989).

Doxey와 Butler의 모델은 관광지 주민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개발의 정도에 따른 단계별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으나, 이는 지역주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개별적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론적인 이념의 틀에서 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조광익·김남조, 2002).

Homans(1958)에 의하여 처음 제안된 사회교환이론의 기본개념은 '주고받는 교환과정'으로 설명된다. 1970년대 관광학 분야에서는 관광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후 20년간은 관광의 양면성에 모두 관심을 두는 추세로 이어져(Harrill & Potts, 2003), 관광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관광 편익과 비용이라는 유형·무형의 자원을 교환하는 주체로 인식되어,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사회교환이론이 적중하게 된다. 즉, 관광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주민들의 인식을 통해 관광의 영향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태도(지지도)를 형성하게 된다(Gursoy, Jurowski, & Uysal, 2002; Jurowski et al., 1997)는 설명은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해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

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되어 많은 연구에 적용됨으로써 관광개발 연구에서 관광지 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회심리학 이론이 되었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상호작용이란 행위자들 간에 가치 있다고 느끼는 물질, 비물질적 보상을 서로 주고받는 상호교환과정으로 설명한다. 사람들의 관계 존속 여부는 노력이나 서로 투자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는가에 관련성이 있으며,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인간관계가 약화하여 간다고 볼 수 있다(진윤주·신준섭·서동준, 2020).

따라서 사회교환이론을 관광개발 연구에 적용하여 그 정의를 설명한다면, 관광개발 지지도는 개인의 관광개발 영향 인식의 관점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혜택과 비용 또는 편익-비용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인지된 개인의 편익이나 지역 차원에서의 혜택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어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즉, 태도는 개인과 집단, 사물 등 일정한 대상에 대한 한결같은 신념이나 감정, 행동 영향, 경험의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치의 신념으로(송광인·김정준·김용준, 2010),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사상의 종합적인 판단으로써 특정 대상 혹은 특정 대상단체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경향으로 의미 되기도 한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감정을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Carmichael, Peppard Jr., & Boudreau, 1996).

조광익과 김남조(2002)는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란 관광개발에 따른 다양한 영향에 대해 주민들이 지각 또는 인식하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장시간 유지되기도 하지만 가변적이기도 해서,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면서도 관광개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광 경제 안에서 유발되는 편익이나 비용은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서와는 다르게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김사현, 2003), 편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보다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더 작은 쪽을 차감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지 따져본 후, 그 결과에 대해 논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강하고 대중들은 그 영향을 쉽게 인식하게 된다(고계성, 2011).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하는 다수의 연구는 경제적으로는 편익을 사회적·환경적으로는 그 반대의 효과를 낸다(Milman & Pizam, 1988; Pizam, 1978)고 알려져 있다. 또는 경제·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충기·양형은·이재석, 2011). 이에 Perdue, Long, & Allen(1990)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지각하는 관광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주민들이 고용기회 및 세수 등 농촌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 여부 조사를 위해 관광영향 태도 지수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여 개발한 관광영향평가(TIAS, Tourism Impact Assessment)를 도구로 활용한 바 있으며, Lankford & Howard(1994)는 오레곤, 워싱턴 등의 13개 도시와 6개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영향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관광영향평가(TIAS)를 활용하였는데, 주민들이 지각하는 관광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따른 추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이 관광영향을 인식할 때, 선출·임명된 공무원들의 역할과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는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 변인은 경제, 사회·문화, 환경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광의 경제적 영향(economic impact)에 관한 연구는 경제 편익을 강조하고, 비용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즉, 수입이나 고용 증가와 같은 경제적 편익은 유형적이고 비교적 측정이 쉽지만, 소음, 공해, 혼잡과 같은 요인의 경제 비용은 무형적이어서 경제적 관점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교환이론에서는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지의 경제적 영향에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관광은 경제적으로 우선하여 지속 가능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영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양민호 외, 2018; Perdue, Long, & Kang, 1995).

즉, 관광개발로 인하여 초래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간접효과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며, 직접 효과는 수입 증가, 고용 창출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관광개발이 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외부투자 등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관광개발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임대료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지역의 물가상승, 생활비 증가, 관광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 등이 있다(윤지현·이환봉, 2008; Ko & Stewart, 2002; Kreag, 2001).

관광지 개발을 통해 어떤 지역이 방문객을 수용하게 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외부인과 만나게 되고, 이는 곧 지역문화와 외래문화의 접촉을 의미한다. 외부문화와의 접촉은 많은 적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문화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영향은 엄격히 분리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까닭에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영향은 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동완, 1998).

한편, 사회적·문화적 영향(social cultural impacts)이란 관광영향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사회적인 영향과 문화적인 영향을 포괄하여 말하는 것인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관광개발은 전통·역사 건축물의 보존 및 관리, 치안유지 및 개선, 지역주민의 문화정체성 보존,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경험 기회의 확대, 문화교류의 촉진,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자긍심 고취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반대로 성(性)의 문란, 주류 소비 증가, 미풍양속 저해나 범죄율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한다(Brougham & Butler, 1981; King, 1993; Milman & Pizam, 1988).

종합적으로 보면, 지역 관광개발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의 태도는 복잡하면서도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이에,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태도 및 행동 연구의 흐름을 살펴본 있는데, 초창기의 지역주민 태도 연구에서는 관광의 경제적 편익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부문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인식과 부정적 영향 인식을 모두 지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문수, 2015).

3. 관광개발 지지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지지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발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즉, 수용력, 관광시설, 지역 및 마을 개발을 중심으로 한 연구, 그리고 축제와 이벤트 및 지역주민을 세분화한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그 영향 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수용력과 관광개발

관광지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 인식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는 관광지의 수용력에 관한 문제이다. 노상열·손재만·고성호(2019)는 제주도의 우도지역에 관한 관광개발 과정 문제에 대한 사회·심리적 수용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주민 혼잡지각이 낮을수록, 주민의 거주 만족이 높다'는 것과 '주민 혼잡지각이 높을수록 주민 경제 만족이 낮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사회·심리적

불쾌감이 경제 만족 및 거주 만족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의 중요성을 입증하게 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처할 방법을 찾는다고 제안하고 있지만(Getz, 1994; Rothman, 1978), 관광영향에 대한 조사를 통한 결과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다. 그것이 반드시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광영향의 인식과 수용력 사이의 관계가 유의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Gonzalez(2018)는 스페인의 역사유적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에 관한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었지만, 수용력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광 유형이나 여행자 유형 등 다른 객관적 변수에 대해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광과 경제의 문제에 대해 Arrow et al.(1995)은 경제 성장은 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만병 통치약이 아니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성장 내용, 즉 환경 자원을 포함한 투입물과 폐기물 등을 포함한 산출물의 구성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조언하며, 관광이 생태계의 복원력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특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환경 자원 할당의 효율성을 높여야, 생태계 유지 시스템 내에서 지속 가능한 규모의 경제 활동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관광의 수용력에 대해서는 경제의 일면만이 아닌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관광시설 별 개발에 따른 수용 여부를 조사한 연구도 있는데, Andereck & Vogt (2000)는 주민들의 수용인식이 관광시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긍정적인 선호도의 순서는 공원,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 역사·문화 관광지, 축제행사장, 식당, 소매점, 박물관, 호텔 숙박 시설 등으로 대상지 중 가장 수용도가 낮은 시설은 클럽·술집·도박장(카지노) 등 이었다고 밝혔다.

2) 관광시설 개발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복합리조트, 카지노,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 개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Choi et al., 2019; Harrill, 2004; Nunkoo & Ramkissoon, 2010). Lepp(2007)와 Ribeiro et al.(2017)도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이 자신들의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비록 대규모 리조트의

개발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주민들의 인식에는 자연 환경 오염과 같은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ndereck et al., 2005; Sinclair-Maragh, Gursay, & Vieregge, 2015)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는 최연화·김준우·송학준(2018)이 진행한 인천 및 영종도 지역주민의 지역 내 카지노 기반 복합리조트가 개발에 관한 인식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복합리조트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카지노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경제, 사회·문화 및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카지노 개발에 대한 긍정적 환경적 영향만이 장소 애착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이 개발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 외에 리조트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넘어 리조트 직원의 인식과 태도를 연구한 문헌도 참고해 볼 수 있는데, 박윤희·김해옥·현성협(2019)은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 소속 직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리조트 지역의 애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애착도 형성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관광영향의 경제적 편익에 고용기회 창출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는 만큼, 관광 개발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조언한다.

김보형·김영남·홍성화(2019)는 제주지역의 복합리조트 개발지의 지역주민이 경제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 인식과 사회·문화적인 긍정 영향 인식이 지역주민이 가지는 복합 리조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과 사회·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주민의 인식이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제주지역의 주민들은 복합리조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등 사회·문화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대해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강원랜드는 2000년 국내에서 최초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가능한 카지노 리조트 지역으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던 리조트 개발지이다. 이봉구(2004)의 연구 결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강원랜드 개장 이후에도 삶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하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조트 개발로 인한 조세 수입이 지역에 환원되지 못하는 점과 주민들의 자긍심과 지역 정체성과 화합 및 주민 복지 개선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책의 영향으로 보았다. 즉, 관광 개발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김보형(2019)은 복합리조트 및 카지노에 대한 영향 인식이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환경적 긍정 영향과 경제적 부정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요인에서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곧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인식이 강할수록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역주민의 태도 또한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인식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지역주민의 태도가 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긍정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지역주민의 긍정적 태도를 확보하고 나아가 지지도를 끌어내는 구조적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복합리조트는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카지노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가져 지역마다 유치 기회를 잡으려 애쓰는 시설이다(Roehl, 1999). 홍성범·오상훈·박운정(2016)은 지역주민들이 카지노 사업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태도가 리조트 개발계획의 진행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며,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위협 요인이라고 정의하며, 카지노에 대한 주민들의 위협인식이 집단 간 불안, 현실적 위협, 상징적 위협 등 세 가지 요인이 주민들의 태도 수준을 크게 결정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문수(2015)는 제주도의 복합리조트에 대한 주민들의 영향 인식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면서,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와 포함하지 않는 리조트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주민들의 인식에 차이를 준다는 것을 경로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또한, 관광에 대한 인식이 복합리조트와 연계되는 경우 주민의 인식은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만, 리조트 포함하지 않을 때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결과를 통해,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만큼, 개발지는 물론 언론 등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Nunkoo & Ramkissoon(2010)의 실증연구에서도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도는 개발 사업으로부터 인지되는 편익과 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 지지도는 지역사회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환경적 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획자와 개발자가 계획 전략에서 주민들에게 우선적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개발자들은 특히, 본질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질적이며 각 군집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인지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Perdue, Long, & Kang(1995)은 카지노 개발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주민들의 거주 기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으며, 카지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에는

개인의 편익과 장래 지역사회가 받을 영향이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결과를 끌어냈다.

Carmichael, Peppard Jr., & Boudreau(1996)의 연구에서는 카지노, 테마파크 등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고용기회 부분에서는 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왔으며, 회귀모델을 통해 본 결과 개발 지지도에 있어 환경영향은 모든 사례에서 유의미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김영진(2016)은 제주지역 관광숙박업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문제는 외국 법인 또는 내·외국인 합작 법인의 대형 숙박 시설의 건설로 관광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내의 개발 사업이 제주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지,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승인에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은 관광객 전용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고동완(2008)은 카지노 도입에 대한 제주지역주민들의 태도와 행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가 찬성으로 나타나, 제주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측면의 요인들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 외에도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의 제주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즉, 남성보다 60대 이상의 주부인 여성들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추가적인 허용에 대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경제의 영향을 제외한 긍정적인 사회·문화 영향과 부정적인 사회·문화 영향 및 환경영향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는 긍정적인 경제 영향과 부정적인 사회·문화 영향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과 부정적인 환경영향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강원도 남부지역에 대한 김진옥·신동주(2017)의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이 정책적으로 폐광지역법에 따라 경제적 발전도모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관광개발이 추진되어온 곳으로써,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개발 영향은 편익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쳐, 긍정적 경제, 긍정적 사회문화, 긍정적 환경은 편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경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경제 영향은 편익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사회문화, 부정적 환경영향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으니,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3) 지역 및 마을 개발

임화순·고계성(2012)은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의 해양관광 개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향상 요인이 지역 관광개발 필요성 인식과 개발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학력, 직업, 소득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부분적으로 유의하며, 전문관리직군의 종사자들이 관광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사회적 문제에 높게 우려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을 부각하기보다는, 환경파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내의 사회 불안정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 주민들과 불신을 해소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개발이 요구된다(임화순·고계성, 2012).

한편, 윤유식(2009)은 농촌관광 마을의 활성화가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휴식과 교양,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 등에 이바지하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발에 대한 태도와 지지도의 요인을 탐구하는 연구에서 마을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 상호협력, 상호신뢰, 그리고 마을의 규범 등 4개의 사회적 자본을 변인으로 도출하였는데, 이중 마을의 규범과 상호협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냈다.

관광개발지의 성격에 따라 주민들의 관광지지 정도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역의 규모(농촌·도시·대도시·중소도시 등)에 따라 주민들의 관광개발지지 또는 반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달라진다. Gursoy, Jurowski, & Uysal(2001)은 국립 레저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5개의 카운티 주민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사회교환론에 근거한 경제적 편익과 비용이 관광개발 지지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도출되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관광지 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의 관광영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며, 관광개발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최종 목적이 아닌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Ko & Stewart, 2002). 즉, 관광개발에 따른 개인의 편익이 일반적으로 관광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그 비용에 대해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당시 조사가 제주도 전체 73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1997년에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전영철(2000)은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태도에 대하여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의 효과, 위락자원의 이용에 대한 정(+)의 효과, 환경 중심 태도의 부(-)적 직·간접적 효과를 검증하는데 Jurowski, Uysal, Williams(1997)의 연구의 문항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환경에

대해 부정적 관계가 있으나, 지역애향심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혀냈으며, 관광기업과 지자체에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환경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와 비참여 주민들이 관광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문화 관광 인프라 개발에 대해 각 그룹의 지지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Jurowski & Brown, 2001).

관광개발 관련 연구는 개발 예정지에 대한 경제적인 편익을 통해 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인 개발 지지 또는 지지도 변화에 관한 연구에 적합함에도 이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황경후 외(2016)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신겸(2002)은 안동하회마을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연구 결과로 주민들의 신규 관광개발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 관광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관광을 통한 소득향상에 관심이 높다는 결과와 함께 관광영향이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용순·고동완(2010)은 농촌 마을에서 농촌관광 사업에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민의 권한 강화, 연대감, 장소 애착심과 같은 주민통합이며, 이는 곧 주민들이 사업의 추진 주체로써 참여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화적인 동질감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복구하는 등 마을 내부의 역량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었을 때 추가사업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4) 축제·이벤트 및 세분화 관련 연구

임근욱·함승우·강형철(2012)은 관광개발 영향 관계에 대해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이전 대관령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 경제 영향, 부정적 사회 영향 및 부정적 경제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애향심은 긍정적 경제 영향과 부정적 사회·문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 이익과 애향심과 개최지지도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대규모 이벤트가 주민에게 이익이 크다고 인식되고, 주민들의 애향심이 높을수록 개최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승익(2008)은 지역축제가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만큼, 지역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승익 외, 2007)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만족도, 추천 의도, 그리고 재방문 의도에까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해 역사·

문화 및 자연환경의 파괴, 그리고 생활환경 악화 등의 부정적인 면들이 강하게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 밖에도 관광개발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인식의 이해를 위해 세분한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driotis & Vaughan (2003)은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사회표상이론(Social Representations Theory)을 근거로 관광지 지역주민을 세 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는데, 옹호자 집단(the Advocates), 사회 환경우려자 집단(the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Concerned), 그리고 경제적 회의론자 집단(the Economic Skeptics)으로 분류하였다.

Sinclair-Maragh, Gursoy, & Michael Vieregge(2015)는 신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방식으로 4개의 그룹을 추출하였는데, '공공 서비스 및 환경 중심 그룹'은 대부분 편의 시설과 환경문제의 가용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커뮤니티 중심 그룹'은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심을, '커뮤니티-공공 서비스 및 환경 중심 그룹'은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요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관광개발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송재호·고계성(2015)은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을 바탕으로 한 창원 지역의 관광개발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주민을 관광의 기대 편익을 중심으로 '경제 여건 우선군', '문화 여건 우선군', '지역 여건 우선군', '모든 여건 우선군' 등 네 개의 군집으로 세분하였는데, 발전단계와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에 따른 다양한 긍정적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록 지역주민들 각각이 지역발전의 해법은 다르지만,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Kim, Uysal & Sirgy(2013)는 관광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 복지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 결과에서 주민들에게 관광을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을 알리는 일이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즉, 관광개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관광의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편익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관광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는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은 관광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고용 확대 방안 마련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에 대해 알리고 관광개발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한다는 점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내부 마케팅 전략으로써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임기성(2013)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세대 동안 관광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은 학계와 실무자들 사이에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아왔으나, 관광개발 과정에서 관광의 잠재적인 역할과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간과되어왔다. 미래지향적인 개발전략으로 보일지라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대체로 관광 상품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목표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Sharpley, 2000).

이상으로 분야별 관광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와 그 영향 관계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는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지지 없이 관광산업의 성장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상실되기 쉽다(Nunko & Ramkison, 2010). 다시 말해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즉 지지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변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

4. 관광개발 지지도의 측정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지도는 이를 태도의 관점에서 측정한 연구(Gursoy, Jurowski, & Uysal, 2002; Ko & Stewart, 2002)와 행동 의도 또는 행동의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Lepp, 2007; Ribeiro et al., 2017)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주제를 바탕으로 현재 및 추가 관광개발 지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관광개발의 비용과 편익 비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필요성, 관광개발의 부정적 영향 인식, 전반적 만족도(태도)와 지지, 관광 분야별 지지도, 관광개발 참여 의도 등 8개의 분야에서 각 연구자가 활용한 관광개발 지지도의 척도를 구분해 보았으며, 세부 내용은 <표 2-10>과 같다.

한편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태도, 지지도, 만족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7개의 척도 문항을 도출하였다. 즉, '내가 사는 지역은 관광개발로 얻는 이득이 더 많다.', '내가 사는 지역의 관광개발을 희망적으로 본다.', '관광산업은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관광산업은 내가 사는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 '관광 발전으로 내가 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사는 지역의 관광개발에 만족한다.',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추가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지지한다.',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에 협조할 것이다.'로 주민들의 태도와 인식을 측정하고자, 46개의 문항으로부터 총 244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표 2-10〉 선행연구에 나타난 관광개발 지지도의 척도

연구 주제	관광개발 지지 척도	연구자
현재 및 추가 관광개발 지지	현재 관광개발지지 여부, 추가적인 관광 편의·숙박·상업 시설의 확충 찬성 여부, 현재 관광개발에 대한 만족, 관광장려의 필요성, 전반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관점, 마을 개발에 대한 장래, 향후 개발에 대한 희망 등	윤지현·이환봉(2008),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조광익·김남조(2002), 한승훈·신동주(2017), Hanafiah, Jamaluddin, & Zulkifly(2013), Perdue, Long & Allen(1990), Styliadis(2018a), Yu, Cole, & Chancellor(2018), Woo, Kim, & Uysal(2015)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카지노 지역 거주에 대한 만족감, 편익 인식 여부, 테마파크·리조트 건설 및 카지노 확장에 대한 찬반 의견, 문화 관광 인식 등	양승필·서용건(2015), Carmichael et al.(1996), Gursoy, Chi, & Dyer (2010), Perdue, Long & Kang(1995)
관광개발의 비용과 편익 비교	관광의 전반적인 편익과 비용의 비교, 관광 제한 필요성, 관광개발에 따른 개인적 편익, 지역 환원 및 환경보전에 기여 등 관광의 경제적 역할 및 영향 인식 여부 등	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 양승필(2012), Andriotis & Vaughan (2003), Gursoy, Chi, & Dyer(2002), Nunkoo & Ramkisson(2010), Vargas-Sánchez et al.(2009)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필요성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 관광 계획 개발 지지·참여·협력 여부, 미래지역발전을 위한 관광개발 인식 여부, 올바른 지역 성장에 기여 인식 등	강태우(2019), 박주영·오상훈(2019), 정승훈(2019), 한진성·문현철·윤지환, Eslami et al.(2019), Lee(2013)(2018)
관광개발의 부정적 영향 인식	관광시설 기금의 재원 낭비성, 추가 관광 개발의 지역발전 저해 여부, 관광의 제한적인 혜택에 관한 인식, 외지인의 채용 기회 제공에 대한 불만 인식 여부 등	Faulkner & Tideswell(1997), Sinclair-Maragh, Gursoy, & Vieregge(2015)
전반적 만족도 (태도)와 지지	관광산업의 성공 인식 여부, 지역발전에 이바지 여부, 관광의 전반적 만족과 기대감, 관광객 추가 유치에 관한 지지 여부, 지역 이미지 개선 인식 여부, 관광의 전반적인 긍정적 인식 여부 등	고계성(2014), 송래현·윤유식(2019), 이상용·윤희정(2013), 임기성(2013), 임화순·고계성(2012), Ko & Stewart (2002), Nunkoo & So(2016), Papastathopoulos et al.(2020)
관광 분야별 지지도	자연관광·생태관광 지지 여부, 마을 관광 사업에 대한 협력 및 투자 의사, 동계올림픽 개최에 관한 지지 여부, 해양관광 발전에 대한 인식 및 개발지지 여부, 지자체 문화·축제 관광지지 및 참여 여부 등	윤유식 2009), 이후석·오민재(2014), 임근욱·함승우·강형철(2012),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황경후 외(2016), Gursoy & Rutherford(2004), Jurowski & Gursoy(2004)
관광개발 참여 의도	관광개발 정책에 관한 관심, 집행 과정 참여, 정보 및 의견 교환 희망 여부, 개발계획 과정에 참여 희망 여부, 홍보 행사 활동 참여 여부 등	최윤석·김인신·정호관(2014), Megeirhi et al.(2020)

자료 :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제 3 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급격한 이주민과 관광객증가 현상을 보이는 제주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관광지의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정도에 따라 관광에 대해 지각하는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각 잠재변수 사이의 영향의 정도에 따른 주민들의 성향을 구분 지어 보고,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만족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목표로 하는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과 관광개발 지지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관광지의 역할 및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라 관광개발의 성격과 단계를 구분하고 이를 반영한 관광객의 활동과 개입을 고려하는(Allen et al., 1993; Ap, 1992; Faulkner & Tidswel, 1997; Gursoy, Chi, & Dyer, 2009)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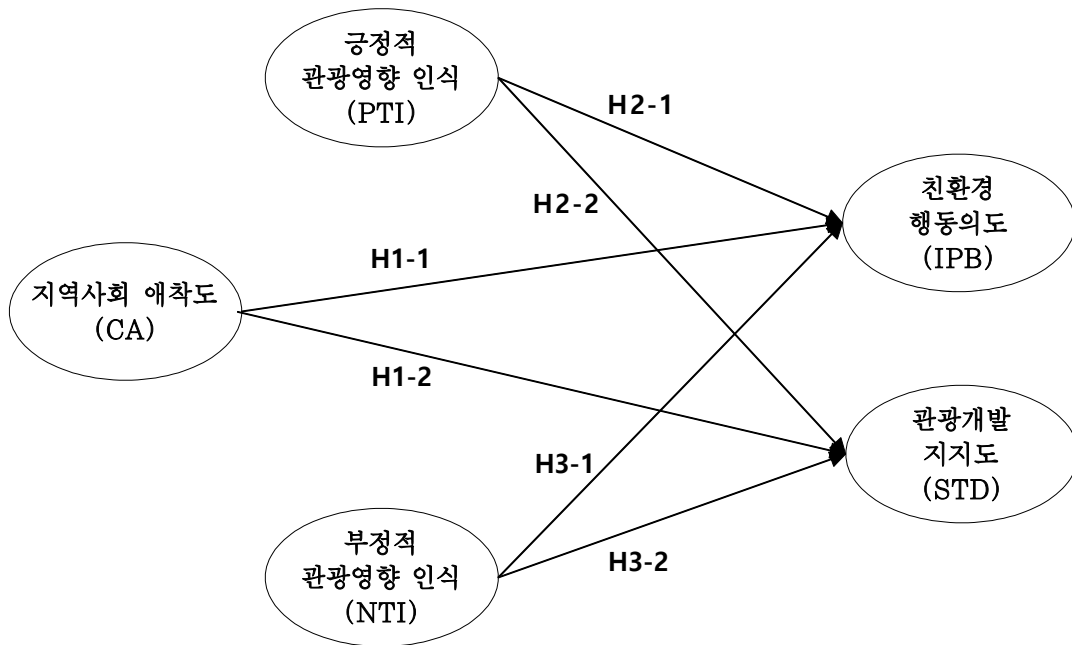
사회교환이론은 거주지 환경에 따른 주민 개인의 특성, 지역사회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따른 특성은 물론 관광으로 얻거나 잃는 정신적, 물리적인 객체에 대한 복합적인 특성이 결합하여 관광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의 양면을 긍정적인(positive) 또는 부정적인(negative) 관점으로 양분하여 척도 문항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관광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태도(attitude)와 행동(behavior)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광에 대한 만족(satisfaction)과 지지(support)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애착 요소는 주민의 거주 기간, 나이, 소득, 출생지 여부 등의 사회학적 변수와 함께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다수의 연구자가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해 왔다(강신겸·최승담, 2002; 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정유리·정성문·

강신겸, 2017; Harrill, 2004; Jurowski, 1994; Kasarda & Janowitz, 1974; Um & Crompton, 1987).

한편, 개인의 환경 인식을 기반으로 행동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친환경 행동의도 (IPB, 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는 특히 계획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신념, 태도, 행동 의도에 대한 구성개념 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연구(윤선미·김태욱, 2020; Yuriev et al., 2020)들에 적용되어왔다.

이에, 선행연구 통해 살펴본 이상의 이론들을 토대로 각 잠재변수 간의 관광개발에서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의 환경 친화적인 행동의도 및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의 영향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찾고자 한다. 이상의 변수들을 반영하여 설계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의 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관광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수준과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 인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변수로서의 지역애착도의 영향력과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정도가 친환경 행동의도 및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확인하고, 사회교환이론의 근거가 되는 지역주민의 집단적·개인적 특성에 따른 영향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효과 인식의 차이 및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군집화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구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주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검정(PLS-SEM Path Analysis)

상기 연구모형의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경로분석을 통해 관광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관광영향 인식, 친환경 행동의도, 관광개발 지지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이다.

가설 II. 사회교환이론을 반영한 집단별 연구모형의 검정(PLS-MGA)

경로분석을 통해 검정을 거친 연구모형에 대해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다중집단분석 시행 결과, 인구특성 별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이다.

가설 III.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Analysis of Demographic Differences)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도,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친환경 행동의도, 관광개발 만족도와 관광개발 지지도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 지역주민의 유형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관광영향의 요인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그룹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네 개의 가설의 범위를 설계하였다. 즉,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경로분석으로 변수 간의 효과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을 통해 연구모형을 평가하고 구축한 후, 인구특성에 따라 구분한 다수의 집단별로 구축된 모형의 경로 효과 차이를 분석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친다. 이후 지역주민들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비교하여 태도와 인식에서 평균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차이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큰 범주를 두고 각 가설 및 가설의 설정 배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I.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검증(PLS-SEM Path Analysis)

1) 지역사회 애착도의 영향

지역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개인적·집단적으로 가지는 심리적인 연대감으로, 정신적으로는 정체성을, 기능적으로는 의존성,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친분성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개념으로, 장소 애착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관광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강신겸·최승담, 2002; 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고동완·김현정, 2003). 지역사회 애착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개발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만족감 또는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요인임은 물론 환경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이렇게 형성된 애착심이 유지되는 것을 지역사회 애착의 정도로 볼 수 있다(최연화·김준우·송학준, 2018).

환경과 장소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장소 애착'이 '친환경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사회적 친밀도와 지역 정체성이 높은 주민들은 환경에 관한 관심과 지지도가 높은 까닭에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관계를 통해 표현되는 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환경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amkissoon, Smith, & Weiler, 2013; Uzel, Pol, & Badenas, 2002; Vaske & Kobrin, 2001).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관광영향과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관광을 통해 지각된 편익과 긍정적인 인식이 지역을 환경친화적인 모습으로 개선하고, 경관 조성 및 공공편의시설 정비 등의 개선 작업을 통해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끌어낸다(오정학·윤유식, 2009; 윤지현·이환봉, 2008; Gursoy, Jurovski,

& Uysal, 2002; Jurowski, Uysal & Williams, 1997).

관광개발 초기에는 경제적 효과가 개발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관광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 편의 시설의 개선, 주민의 여가활동 기회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이미지의 개선 등 문화적인 요인과 경관 및 도로 개선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개발 지지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윤지현·이환봉, 2009; 이충기·강세영, 2004; 최연화·김준우·송학준, 2018; 최윤석·김인신·정호권, 2014).

이에 관광개발 지지도와 친환경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지역사회 애착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 지역사회 애착도는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지역사회 애착도는 친환경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지역사회 애착도는 관광개발 지지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교환이론 기반의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 효과

본 연구에서 관광지 주민들의 중요한 행동 예측변수로 제시되어 온 지각된 관광영향의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를 위한 동기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광에 대한 경제, 사회·문화, 환경 분야의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인식하는 주민들이 관광개발을 지지하면서, 친환경 행동의도가 있는지, 또는 부정적 영향을 더 인식하는 주민들이라도 지역애착도와 관광영향의 인식에 따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관광개발 지지를 끌어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은 관광개발 지지에 대하여 장소 애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지속가능한 환경의식은 지역주민의 친환경 행동 및 관광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최윤석·김인신·정호권, 2014), 지역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 의식, 그리고 환경에 관한 관심은 친환경 행동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로써(윤동환·한승훈, 2020; Cheng et al., 2019; Cheng, Wu, & Huang, 2013),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끌어낸다. 결론적으로 관광산업이 성숙한 지역의 주민들은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은 본 연구에서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 측정을 위한 선행요인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다.

관광영향의 긍정적·부정적 인식 여부도 중요하지만, 관광개발의 경제적인 편익이 사회적·환경적 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를 완화하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긍정적인 태도는 필수적인 요소이다(Liu, Sheldon, & Var, 1987).

관광학에서 인지하는 사회교환이론은 관광 활동을 통해 '교환관계'가 성립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이나 편익을 얻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서(고계성, 2014), 관광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유·무형의 관광 효과에 따른 자원을 토대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은 교환(교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교환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이 얻은 이익과 지급한 비용을 비교·평가하면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김영미·김미주·김성섭, 2010;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Perdue, Long & Allen, 1990)는 것을 설명해준다.

여기서 관광개발의 목적이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감당하며 얻게 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은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상응하는 이익과 비용의 차이를 따져 관광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수요를 조절하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을 추구한다는 것이 '사회교환이론'의 핵심이다. 이는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함께 고려됨으로써, 관광지 주민들이 관광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발전시키는 배경과 요인을 논리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론적 체계를 제공해준다(고동완·정승호, 2004; 이결재, 2008; 조광익·김남조, 2002; Ap, 1992; Faulkner & Tideswell, 1997; Gursoy, Chi, & Dyer, 2010; Jurowski, 1994; Ribeiro et al., 2017; Su, Huang, & Pearce, 2018).

사회교환이론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체계성을 인정받아왔으며(Gursoy, Jurowski, & Usyal, 2002; Hillery, Nancarrow, Griffin, & Syme, 2001; Jurowski, 1994; Williams & Lawson, 2001),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소는 물론 사회인구학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왔다(Ap, 1992; Hillery, Nancarrow, Griffin, & Syme, 2001; Jurowski & Gursoy, 2003; Prentice, 1993).

즉,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관광객과 관광지 지역주민이 상호 교환하는 관광의 경험과 효과에 대한 유형적·무형적인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얻게 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평가한 후에 개발에 대한 지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한승훈·김진옥, 2018; 김영미·김미주·김성섭, 2010; Eslami et al., 2019; Perdue, Long & Allen, 1990). 더불어,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해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하는 관광

영향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상당수의 문헌이 학계에 미친 영향력은 이 이론이 관광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론임을 증명하고 있다(임근욱·함승우·강형철, 2012;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관광영향의 편익 인식은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모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정적인 관광영향의 비용 인식은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행동의도를 이끄는 요인으로, 관광개발에 대하여는 그 반대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에 사회교환이론에 기반한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 인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긍정적인 관광영향 인식은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관광에 대한 긍정적 편익 인식은 친환경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관광에 대한 긍정적 편익 인식은 관광개발 지지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부정적인 관광영향 인식은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관광에 대한 부정적 비용 인식은 친환경 행동의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관광에 대한 부정적 비용 인식은 관광개발 지지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 사회교환이론을 반영한 집단별 연구모형의 검정(PLS-MGA)

관광개발에 있어 관광지 지역주민의 역할 및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현실적으로도 개발을 앞둔 지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또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은 대단히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지역주민이 보이는 혹은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개발에 대한 반응이 획일적이지 않으므로, 각자의 입장과 견해 차이 또는 혜택과 피해의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관광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지 지역의 관광개발에 있어 함께 고려되는 변수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정 또는 지지도이며,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에 관한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광개발이 가져다줄 경제 효과는 물론 사회 및 문화적인

변화가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실질적인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는지는 주민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지역사회 주민들에 관한 세분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송래현·윤유식, 2019).

지역주민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개별적인 태도를 측정, 군집화하여 지역사회 애착도와 관광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 의사 그리고 주민의 참여 의도 등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과 시사점을 제공해준다(최규환, 2018; Sinclair-Maragh, Gursoy, & Michael Vieregge, 2015).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군집화 또는 세분화 연구와 비교해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기준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 연구모형에서 경로계수의 차이 검증을 통한 변수 간의 효과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

주민들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특성을 이해하여 접근하는 것이 사회교환이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까닭에 다중집단분석(MGA, Multi-Group Analysis)은 지역주민 연구에서 시도해볼 만한 가설을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 또한 본 가설이 채택된다면, 표본의 집단적 특성이 본 연구모형의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연구모형 검증의 두 번째 단계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연구모형은 인구특성에 따른 집단별 경로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1. 연구모형의 경로효과는 도시와 농촌 지역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2. 연구모형의 경로효과는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3. 연구모형의 경로효과는 관광업 종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4. 연구모형의 경로효과는 거주 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5. 연구모형의 경로효과는 출신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조사 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관광영향의 긍정적, 부정적 인식과 지역사회 애착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주고받는 영향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지역사회 애착(CA, Community Attachment)

지역사회 애착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애착의 정도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애착도의 개념과는 달리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배경이 해당 지역사회라는 점에서, 더욱 폭넓고 복잡한 개념이며, 특히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리적 영역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영역 내에 있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교류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김남선, 1991). 따라서, 다수의 사회학자는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심리적인 연대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강신겸·최승담, 2002; 김경준·김성수, 1998; 박윤희·김해옥·현성협, 2019; 서현철·고호석, 2011; 윤지현·이환봉,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2008; 황경수, 2015; Chen & Dwyer, 2018; Kasarda & Janowitz, 1974; Ramkissoon, Smith, & Weiler, 2013; Strzelecka, Boley, & Woosnam, 2017).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지닌 ‘이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Glynn, 1986).

본 연구에서 논하는 지역사회 애착에 대하여, 김주진·류재준·신우진(2019)이 정의한 지역사회 정체성(Community Identity)은 ‘상징적 또는 감정적인 의미에서 소속감의 가치를 가지는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며, 지역사회 의존성(Community Dependence)은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목표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과 관련된 애착’으로, 특정 장소가 가지는 기능적 용도로 보았으며, 사회적 친분성(Social Bonding)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개인적인 친분을 형성하는 정도’라는 정의를 참조하였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연대감이며, 정신적으로는 정체성, 사회적으로는 친분성, 기능적으로는 의존성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개념(윤지현·이환봉, 2008)'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지역사회 애착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써 ① 지역사회 정체성(CI, Community Identity)과 ② 사회적 친분(SB, Social Bonding), 그리고 ③ 지역사회 의존성(CD, Community Dependence)을 선정하여 <표 3-1>과 같이 세부 측정 문항에 대한 항목을 선정하였다.

<표 3-1> 지역사회 애착도(Community Attachment) 측정 항목

요인	측정 문항	참고 문헌
지역 사회 정체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지역은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2. 우리 지역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3. 나는 우리 지역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이 있다. 4. 나에게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지역 이야기도 하게 된다. 5. 나는 우리 지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p>강신겸·최승담(2002), 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 김주진·류재준·신우진(2019), 남중현(2019),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김보경·조광익(2018), 이경영(2019), 임기성(2013), 윤지현·이환봉(2008), 조장현(2017), 최규환(2018), 한승훈·김진옥(2018), 한승훈·신동주(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Chen & Dwyer(2018), Cheng, Olya, Alipour, & Gavilyan(2018), Hidalgo(2001), Ramkissoon, Smith, & Weiler(2013), Scannell & Gifford(2010), Strzelecka, Boley, & Woosnam(2017), Williams & Vaske(2003), Cheng, Wu, & Huang(2013)</p>
사회적 친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지역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2. 나는 우리 지역의 친목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3. 나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4. 우리 지역에는 친한 사람들(친구·친척)이 많이 산다. 5. 나는 우리 지역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p>강신겸·최승담(2002), 김보경·조광익(2018), 김주진·류재준·신우진(2019), 윤지현·이환봉(2008), 임기성(2013),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조장현(2017), 최규환(2018), 한승훈·김진옥(2018), 한승훈·신동주(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Kasarda & Janowitz(1974)</p>
지역 사회 의존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 갈 일이 있더라도, 나는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 것이다. 2. 내 생활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보낸다. 3. 이 지역을 떠난다면, 나는 매우 섭섭할 것이다. 4.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 지역이 최고다. 5. 나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가장 좋다. 	<p>강신겸·최승담(2002), 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 김보경·조광익(2018), 김주진·류재준·신우진(2019), 남중현(2019), 윤지현·이환봉(2008), 이경영(2019), 임기성(2013),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조장현(2017), 최규환(2018), 한승훈·김진옥(2018), 한승훈·신동주(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Chen & Dwyer(2018), Chen, Dwyer, & Firth(2018), Cheng, Wu, & Huang(2013), Eslami et al.(2019), Gursoy, Jurowski, & Uysal(2002), Hidalgo(2001), Hong & Kim(2018), Kasarda & Janowitz(1974), Ramkissoon, Smith, & Weiler(2013), Scannell(2010), Strzelecka, Boley, & Woosnam(2017), Stylidis(2018a), Williams & Vaske(2003)</p>

2) 관광영향(TI, Tourism Impacts)

관광지 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영향은 관광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의 양면을 긍정적인(positive) 또는 부정적인(negative) 관점으로 나누어 척도 문항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분은 주민들이 관광영향을 인식하여 태도와 행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광에 대한 만족감과 지지도로 전환할 수 있다(고계성, 2014; 이상용·윤희정, 2013; 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9; 황경후·송상헌·정철, 2016)는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관광영향은 관광개발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지각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계성, 2014; 고동완, 2001; 김진옥·신동주, 2017).

관광지 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60년대 관광산업에서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며, 그에 대한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서세진, 2019; Liu, Sheldon, & Var, 1987; Milman & Pizam, 1988). 그러나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에서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었다(Pizam, 1978). 이후 한동안은 부정적인 영향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연구들이 나왔으나, 70년대에 접어들어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이 확산하여, 환경요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으며(Choi & Sirakaya, 2005),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지금까지 관광영향 인식에서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 균형을 맞추어 평가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관광지 주민 개인이 인식하는 관광의 영향을 혜택 또는 편익(benefit), 그리고 비용(cost)이라는 양분된 관점에서 해석하는 패러다임이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며, Ap(1992)가 이 이론을 제안 함으로써 관광학에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환경적 관점에서 관광의 영향력에 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민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지거나, 지역사회에서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고(조광익·김남조, 2002; Perdue, Long & Allen, 1990; Pizam, 1978), 관광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유럽의 관광도시에서는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이 주민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사회문제로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Koen et al., 2018).

본 연구에 적용된 관광영향의 조작적 정의는 '관광개발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 간의 접촉으로 형성되어 관광에서 비롯되는 유·무형의 효과를 가리키는 개념'이며, 지역주민들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관광 현상에 대한 효과를 지각하는 정도이다(정승훈, 2014).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관광영향을 긍정적인 편익(benefit)과 부정적인 비용

(cost)을 각각 두 개의 잠재변수로 설정하고, 각 변수를 구성하는 반영지표로써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요인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각 변수의 요인이 되는 ①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PECI, Positive Economic Impact), ②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PSCI, Positive Socio-cultural Impact), 그리고 ③ 긍정적인 환경적 영향(PEVI,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세부 문항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편익과 비용의 6개 항목을 모두 척도로 삼은 선행연구는 고동완·정승호(2004), 김보형(2019), 김진옥·신동주(2017), 박주영·오상훈(2019), 이형주·김인신(2014),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정승훈(2019c),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2016), Andriotis & Vaughan(2003), Ap & Crompton(1998), Faulkner & Tideswell(1997), Kreag(2001), Ko & Stewart (2002),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as-Bueno(2009), Yu, Cole, & Chancellor(2018) 등 총 16편이고, 이들 중 5개 항목만을 척도로 삼은 선행연구는 고계성(2014),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송재호·고계성(2015), 이상용·윤희정(2013), Kim, Uysal & Sirgy(2013), Lankford & Howard(1994), Ribeiro et al.(2017), Su, Huang, & Pearce(2018) 등 9편이었으며, 3~4개 항목을 척도로 삼은 선행연구는 임기성(2013), Choi et al.(2019), Dyer, Gursoy, Sharma, & Carter 2006), Gursoy, Chi, & Dyer(2010), Gursoy & Rutherford(2004), Pizam(1978) 등 6편이 참고되었다.

경제적 편익은 관광의 영향을 편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구분한 상기 31편의 선행연구에서 총 163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들 중 유사한 표현의 중복된 문항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활용된 문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고용기회 증가(33회),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생활 수준 향상(32회), 지역 세수 증대(27회), 투자 기회 증가(20회), 지역경제 활성화(20회) 순이며, 그밖에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업의 기회 제공, 지역주민에게 쇼핑의 기회를 넓혀 준다는 문항도 있었다.

사회·문화적 편익에는 타문화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28회), 지역민의 여가 기회 향상(24회), 공공시설 및 서비스 개선 효과(25회), 지역문화 정체성 및 자긍심 향상(18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18회), 역사·문화 유산 보존의식 고취(12회), 주민의 문화 활동의 기회 증진(10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민들의 상호신뢰 증진 등이 있다. 따라서, 상기 31편의 문헌 중 Choi et al.(2019)을 제외한 30편의 문헌에서 총 171개 문항을 추출

한 후 선정하였다.

한편, 환경적 편익으로는 공공시설 서비스 개선(18회),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16회), 경관 개선(12회), 생활환경 개선(11회), 유적지 보존(7회), 자연보호 의식 고취(7회)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지역 이미지 개선, 관광객 증대, 주민공동체 의식 강화 등의 문항이 1~2회 사용되었다. 상기 31편의 문헌에서 총 80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는데, 환경적 편익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인 관광영향(NTI, Negative Tourism Impacts)의 요인이 되는 ①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NECI, Negative Economic Impacts), ②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NSCI, Negative Socio-cultural Impacts), 그리고 ③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NEVI,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세부 문항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경제적 비용은 상기 31개 문헌 중 고계성(2014), 송재호·고계성(2015), Choi et al.(2019), Lankford & Howard (1994), Pizam(1978)의 문헌을 제외한 26편에서 모두 사용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부합하는 총 81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여기에는 생활물가 인상(23회), 부동산·주택가격 상승(14회), 자본의 외부 유출(9회),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8회), 세금 증가(6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과소비 조장, 삶의 질 저하,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문항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이들 중 '비성수기 실업 문제 유발'이라는 문항은 다른 연구자들이 거론하지 않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Kreag, 2001).

사회문화적 비용으로는 황경후·송상현·정철(2016)과 Kim, Uysal & Sirgy(2013)의 문헌을 제외한 29편에서 총 129개의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미풍양속 등 고유문화 파괴(23회), 사행성·쇠퇴문화 증가(22회), 각종 범죄 증가(20회), 사생활 침해(13회), 관광객 또는 주민 간 갈등 조장(10회) 등의 문항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이외에도 지역문화의 과도한 상품화나 지역 이미지의 하락 등의 영향도 있다.

환경적 비용을 측정하는 문항은 임기성(2013), Gursoy, Chi, & Dyer(2010), Gursoy & Rutherford(2004)를 제외한 28편의 문헌에서 총 99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는데, 환경(쓰레기, 소음, 대기·수질오염)문제 증가(34회), 자연·생태 환경 파괴(21회), 혼잡도 증가(11회), 교통 및 주차난 증가(9회), 경관 훼손(7회)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공간 축소, 사회 환경 교란, 외부 생물체 유입 등의 문항도 있다. 특히 환경오염의 경우 여러 요인이 혼재하는 바, 쓰레기와 소음 등을 한 문항에 사용하는 경우와 각각의 요인으로 처리한 예도 있다.

〈표 3-2〉 긍정적인 관광영향(Positive Tourism Impacts) 인식 측정 항목

요인	측정 문항	참고 문헌
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2. 관광산업은 소득증가를 통해 생활 수준을 높여준다. 3. 관광산업은 지역의 세금 수입을 가져다준다. 4. 관광산업은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 5. 관광산업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고계성(2014), 고동완·정승호(2004), 김진옥·신동주(2017), 김보형(2019), 박주영·오상훈(2019), 송재호·고계성(2015), 이상용·윤희정(2013), 이형주·김인신(2014), 임기성(2013), 정승훈(2020),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2016), Andriotis & Vaughan(2003), Ap & Crompton(1998), Choi et al.(2019), Dyer, Gursoy, Sharma, & Carter(2006), Faulkner & Tideswell(1997), Gursoy, Chi, & Dyer(2010), Gursoy & Rutherford(2004), Kim, Uysal & Sirgy(2013), Ko & Stewart(2002), Kreag(2001), Lankford & Howard(1994),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2009), Pizam(1978), Ribeiro et al.(2017), Su, Huang, & Pearce(2018), Yu, Cole, & Chancellor(2018),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산업을 통해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이해하게 된다. 2. 관광산업은 지역주민의 여가 기회를 높여준다. 3. 관광산업을 통해 공공시설과 서비스가 개선된다. 4.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높아진다. 5. 관광산업을 통해 주민의 삶이 향상된다.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고계성(2014), 고동완·정승호(2004), 김진옥·신동주(2017), 김보형(2019), 박주영·오상훈(2019), 송재호·고계성(2015), 이상용·윤희정(2013), 이형주·김인신(2014), 임기성(2013), 정승훈(2020),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2016), Andriotis & Vaughan(2003), Ap & Crompton(1998), Dyer, Gursoy, Sharma, & Carter(2006), Faulkner & Tideswell(1997), Gursoy, Chi, & Dyer(2010), Gursoy & Rutherford(2004), Kim, Uysal & Sirgy(2013), Ko & Stewart(2002), Kreag(2001), Lankford & Howard(1994),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2009), Pizam(1978), Ribeiro et al.(2017), Su, Huang, & Pearce(2018), Yu, Cole, & Chancellor(2018)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산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역사보존 의식이 높아진다. 2. 관광산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 활동 기회가 늘어난다. 3. 관광산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더욱 잘 보존된다. 4. 관광산업을 통해 공공 인프라가 더 좋아진다. 5. 관광산업을 통해 주변 경관이 잘 가꾸어진다. 6. 관광산업을 통해 주변 생활 환경이 좋아진다. 7. 관광산업을 통해 유적지가 잘 보존된다.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고동완·정승호(2004), 김보형(2019), 김진옥·신동주(2017), 박주영·오상훈(2019), 이상용·윤희정(2013), 이형주·김인신(2014), 임기성(2013), 정승훈(2020),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2016), Andriotis & Vaughan(2003), Ap & Crompton(1998), Dyer, Gursoy, Sharma, & Carter(2006), Faulkner & Tideswell(1997), Gursoy, Chi, & Dyer(2010), Gursoy & Rutherford(2004), Kim, Uysal & Sirgy(2013), Ko & Stewart(2002), Kreag(2001),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2009), Ribeiro et al.(2017), Su, Huang, & Pearce(2018), Yu, Cole, & Chancellor(2018)

이처럼 관광영향의 인식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영역에서 각각의 측정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요인의 반영지표로 설정하여, 〈표 3-2〉와 〈표 3-3〉과 같이

참고 문헌을 토대로 측정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표 3-3〉 부정적인 관광영향(Negative Tourism Impacts) 인식 측정 항목

요인	측정 문항	참고 문헌
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물가와 생활비가 더 오른다. 2.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부동산(주택) 가격이 오른다. 3.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지역 자본이 빠져나간다. 4.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더 오른다. 5.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세금이 더 오른다. 	<p>고계성(2014),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고동완·정승호(2004), 김진옥·신동주(2017), 김보형(2019), 박주영·오상훈(2019), 송재호·고계성(2015), 이상용·윤희정(2013), 이형주·김인신(2014), 임기성(2013), 정승훈(2020),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2016), Andriotis & Vaughan(2003), Ap & Crompton(1998), Choi et al.(2019), Dyer, Gursoy, Sharma, & Carter(2006), Faulkner & Tideswell(1997), Gursoy, Chi, & Dyer(2010), Gursoy & Rutherford(2004), Kim, Uysal & Sirgy(2013), Ko & Stewart(2002), Kreag(2001), Lankford & Howard(1994),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2009), Pizam(1978), Ribeiro et al.(2017), Su, Huang, & Pearce(2018), Yu, Cole, & Chancellor(2018)</p>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미풍양속 등 고유문화가 파괴된다. 2.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사행성(퇴폐) 문화가 늘어난다. 3.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각종 범죄가 늘어난다. 4.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사생활이 침해받는다. 5.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주민과 관광객 또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p>고계성(2014),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고동완·정승호(2004), 김보형(2019), 김진옥·신동주(2017), 박주영·오상훈(2019), 송재호·고계성(2015), 이상용·윤희정(2013), 이형주·김인신(2014), 임기성(2013), 정승훈(2020),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Andriotis & Vaughan(2003), Ap & Crompton(1998), Choi et al.(2019), Dyer, Gursoy, Sharma, & Carter(2006), Faulkner & Tideswell(1997), Gursoy, Chi, & Dyer(2010), Gursoy & Rutherford(2004), Ko & Stewart(2002), Kreag(2001), Lankford & Howard(1994),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2009), Pizam(1978), Ribeiro et al.(2017), Su, Huang, & Pearce(2018), Yu, Cole, & Chancellor(2018)</p>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환경(쓰레기·소음·대기 및 수질 오염 등)문제가 늘어난다. 2.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자연(생태)환경이 파괴된다. 3.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지역이 더 혼잡해진다. 4.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교통 및 주차 문제가 늘어난다. 5.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주변 경관이 훼손된다. 	<p>고계성(2014),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고동완·정승호(2004), 김보형(2019), 김진옥·신동주(2017), 박주영·오상훈(2019), 송재호·고계성(2015), 이상용·윤희정(2013), 이형주·김인신(2014), 정승훈(2020),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2016), Andriotis & Vaughan(2003), Ap & Crompton(1998), Choi et al.(2019), Dyer, Gursoy, Sharma, & Carter(2006), Faulkner & Tideswell(1997), Kim, Uysal & Sirgy(2013), Ko & Stewart(2002), Kreag(2001), Lankford & Howard(1994),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2009), Pizam(1978), Ribeiro et al.(2017), Su, Huang, & Pearce(2018), Yu, Cole, & Chancellor(2018)</p>

4) 친환경 행동의도(IPB, 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친환경행동은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처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일상적인 개인적 행동뿐 아니라 환경운동에의 참여와 같은 정치적 함의를 갖는 집합적 행동을 포괄한다(송명규, 2018; Kaiser & Gutscher, 2003; Vaske & Kobrin, 2001).

〈표 3-4〉 친환경 행동의도(Intention fo Pro-environmental Behavior) 문항 선정

구분	세부 문항 내용	빈도	채택
특정 행동 (직접 행동)	친환경제품/농축산물의 소비/구매 행위	66	●
	가정에서 자원(물/전기/에너지) 절약하기	51	●
	쓰레기 관련 행동(분리수거, 쓰레기 줍기 등)	37	●
	지역 내에서의 청소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19	●
	직접 재활용을 하는 행동	8	
일반 행동 (간접 행동)	주변사람에게(과) 환경문제에 대해 설득/얘기/토론/논의하기	29	●
	환경문제 관련 책/도서/잡지/출판물/TV 등을 시청 또는 구독하기	18	●
	환경단체의 워크숍/세미나/회의/캠페인 등에 참여(참석)하기	17	●
	환경보호 단체에 기부하기	9	
	환경문제 관련 스스로 학습/행동하고자 노력하기	9	
	환경문제 관련 단체 행동/청원 등에 서명하기	9	
	환경정책을 앞세운 후보자를 지지하기	8	
	환경훼손 발견 시 신고하기	7	
	환경문제 관련 의견 보내기	4	
	환경보호 지지를 위한 전화 걸기	3	
기타	65		
	계	359	

친환경행동을 측정하는 기준은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며 환경책임행동(ERB)이론을 주장하는 다수의 연구자는 일반적인 환경 행동의 영역 안에 일반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누고 있는데(서세진·서용건, 2017; Cheng at al., 2019; Kaiser & Wilson,

2004; Vaske & Kobrin, 2001; Lee & Oh, 2018), 이를 더욱 세분된 범위로 분류하는 연구자(Kaiser & Gutscher, 2003; Orams, 1997; Smith-Sebsto & D'Costa, 1995)의 경우는 환경책임행동을 시민, 교육, 재정적, 법적, 물리적 행위 등 6개의 범주 안에서 분류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친환경패러다임(NEP, New Environmental Paradigm)이나 친환경행동(PEB, Pro-Environmental Behavior)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자들이 활용한 척도에도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44건의 문헌을 통해 환경 행동을 측정된 359개의 문항을 수집하여 분류한 결과는 위의 <표 3-4>와 같다.

이를 토대로 구성한 친환경행동 의도(IPB, 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의 측정 도구를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특정(직접적) 행동에는 친환경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쓰레기 저감을 위한 행동, 환경정화(청소) 자원봉사 활동이 있으며, 일반적인(간접적) 행동의 영역에 환경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환경정보에 관심 갖기, 그리고 환경단체 모임에 참석하기 등으로 구성하여, 참고 문헌의 출처와 함께 <표 3-5>에 수록하였다.

<표 3-5> 친환경 행동의도(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측정 항목

요인	측정 문항	참고 문헌
직접적 행동	1. 나는 제품 구매시 친환경(재활용 가능)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다. 2. 나는 각종 에너지(물, 전기, 연료 등)를 절약한다. 3. 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행동(분리수거, 재사용 등)을 한다. 4. 나는 우리 지역 환경정화(청소) 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권송이·송명규(2017), 류동균 외(2016), 서세진·서용건(2017), 송명규(2018), 윤동환·한승훈(2020), 이후석·오민재(2019), 최윤석·김인신·정호권(2014), 한승훈(2019), Hong & Kim(2019), Jin(2017), Kaiser & Gutscher(2003), Kaiser & Wilson(2000), Kaiser & Wilson(2004), Kaiser(1998), Kaiser et al.(2003), Kiatkawsin & Han(2017), Kilbourne & Pickett 2008), Larson et al.(2015), Lee & Oh(2018), Lee, Jan, & Yang(2013), Leeuw et al.(2015), Mainieri et al.(1997), Mobley, Vagias, & DeWard(2010), Orams(1997), Ramkissoon, Smith, & Weiler(2013), Rice(2006), Scott & Willits(1994), Smith-Sebasto & D'Costa(1995), Stern et al.(1999), Su, Hsu, & Boostrom Jr.(2020), Su, Huang, & Pearce(2018), Thapa(2010), Vaske & Kobrin(2001), Whitmarsh & O'Neill(2010), Zhang et al.(2014)
간접적 행동	5. 나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6. 나는 환경 관련 정보(도서, TV, 기사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7. 나는 환경단체 활동(회의, 캠페인,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	권송이·송명규(2017), 류동균 외(2016), 서세진·서용건(2017), 송명규(2018), 윤동환·한승훈(2020), 이후석·오민재(2019), 최윤석·김인신·정호권(2014), 한승훈(2019), Hong & Kim(2019), Jin(2017), Kaiser & Gutscher(2003), Kaiser & Wilson(2000), Kaiser & Wilson(2004), Kaiser(1998), Kaiser et al.(2003), Kiatkawsin & Han(2017), Kilbourne & Pickett 2008), Larson et al.(2015), Lee & Oh(2018), Lee, Jan, & Yang(2013), Leeuw et al.(2015), Mainieri et al.(1997), Mobley, Vagias, & DeWard(2010), Orams(1997), Ramkissoon, Smith, & Weiler(2013), Rice(2006), Scott & Willits(1994), Smith-Sebasto & D'Costa(1995), Stern et al.(1999), Su, Hsu, & Boostrom Jr.(2020), Su, Huang, & Pearce(2018), Thapa(2010), Vaske & Kobrin(2001), Whitmarsh & O'Neill(2010), Zhang et al.(2014)

5) 관광개발지지 (ST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관광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관광 편익과 비용이라는 유형 혹은 무형의 자원을 교환하는데, 이때 지역주민들이 관광을 통하여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관광의 영향에 대해 갖게 되는 인식과 태도, 즉, 지지 의도를 형성하게 된다(Jurowski et al., 1997; Gursoy, Jurowski, & Uysal, 2002).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태도에 대해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교환이론은 많은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적용되었다.

관광개발 연구에서 적용된 사회교환이론에 대해 그 정의를 설명하면, 관광개발 지지도는 개인이 지각하는 관광개발 영향의 인식을 긍정-부정, 혜택-비용 또는 편익-비용이라고 구분 짓고, 개인의 지각된 편익과 지역이 얻는 혜택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관광개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표 3-6〉 관광개발 지지도(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측정 항목

요인	측정 문항	참고 문헌
태도 (만족도·지지도)	1. 내가 사는 지역은 관광개발로 얻는 이득이 더 많다. 2. 내가 사는 지역의 관광개발을 희망적으로 본다. 3. 관광산업은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4. 관광산업은 내가 사는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 5. 관광 발전으로 내가 사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 강태우(2019), 고계성(2014), 박주영·오상훈(2019), 송래현·윤유식(2019), 양승필(2012), 양승필·서용건(2015), 오정학·윤유식(2009), 윤유식(2009), 윤지현·이환봉(2008), 이상용·윤희정(2013), 이충기·양형은·이재석(2011), 이후석·오민재(2014), 임근욱·함승우·강형철(2012), 임기성(2013), 임희순·고계성(2013),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정승훈(2019),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조광익·김남조(2002), 최윤석·김인신·정호권(2014), 환승훈·신동주(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송상현·정철(2016), Andereck & Vogt(2000), Andriotis & Vaughan(2003), Carmichael, Peppard Jr., & Boudreau(1996), Eslami et al.(2019), Faulkner & Tideswell 1997), Gursoy & Rutherford(2004), Gursoy, Chi, & Dyer(2010), Gursoy, Jurowski, & Uysal(2002), Hanafiah, Jamaluddin, & Zulkifly(2013), Jurowski & Gursoy(2004), Ko & Stewart(2002), Lankford & Howard(1994), Lee(2013), Megeirhi et al., (2020), Nunkoo & Ramkisson(2010b), Nunkoo & Ramkisson(2011), Nunkoo & So(2016), Papastathopoulos et al.(2020), Perdue, Long, & Allen(1990), Perdue, Long, & Kang(1995), Sinclair-Maragh, Gursoy, & Michael Vierregge(2015), Styliadis(2018a), Styliadis(2018b), Uzel, Pol, & Badenas(2002),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ás-Bueno(2009), Vargas-Sánchez et al.(2015), Woo, Kim, & Uysal(2015), Yu, Cole, & Chancellor(2018)
	1.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사는 지역의 관광개발에 만족한다. 2.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추가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지지한다. 3.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에 협조할 것이다.	

‘태도(attitude)’란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Ajzen, 1988)이며,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지 지역주민의 태도는 관광 현상이나 관광개발로부터 영향을 받는 감정 또는 생각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쇠퇴 등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지역주민의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arrill, 2004). 지지도는 인간의 신념이나 지식과

의견 등을 뜻하는 인지적 요소, 특정 대상에게 가지는 감정 또는 평가를 뜻하는 정서적 요소,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특정 대상에 대하여 특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행동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조광익·김남조, 2002; Carmichael,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광개발 지지도는 태도와 지지도로 이루어졌으며, 태도는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안에 인지적·정서적 요인과 만족감을 포함하였고. 지지도에서는 '현재까지의 지지도'와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지지 의도'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 항목을 구성하는데 참조한 문헌들은 상기 <표 3-6>과 같다.

문항 추출은 이상의 46개의 문헌으로부터 총 244개의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문항은 <표 3-7>에 표시하였듯이, 출현 빈도순으로 10회 이상 활용된 상위 7개의 문항을 기준이 선정·활용되었다.

<표 3-7> 관광개발 지지도(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문항 선정

구분	문항	빈도	채택
지지도	관광개발 지지 여/부	92	●
태도	긍정적 감정(바람직함, 기쁨, 자긍심, 자부심, 기대감, 희망적)	31	●
	지역의 성장/발전에 이바지	22	●
	경제적으로 도움(일자리 등)	19	●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 이익/편익/개선 효과가 더 높음	15	●
	(전반적인 부정적 태도)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듦*	14	●
	삶의 질이 좋아짐	12	●
	주민 의견 수렴 필요	9	
	문화 관련 의견(참여, 지원, 개발 필요 등)	18	
기타	12		
계		244	

6) 제주지역의 일반적 특성

한반도 남서 해상에 위치한 면적 1,850.1km²의 제주도는 대한민국 해양 관할 권역의 24.4%를 차지하는 최대의 섬이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 국가의 18개 주요 도시들을

있는 항공 요지이다(엄상근, 2020). 2019년 현재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인구는 696,657명(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 2020)이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의 총 인구수에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가구당 인구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거주 외국인도 증가 추세이다. 2018년 기준 제주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총 19조 9,109억 원(1인당 GRDP는 30,506천 원, 전국 평균은 36,817천 원)으로 그 규모는 최근 5년 간(2012~2016년)간 지속해서 성장해 왔으며, 2012년 대비 2016년에 약 23% 성장하였다. 제주지역은 2012년 이후 5%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어 전국 평균(2016년 2.8%)의 약 2배의 성장률을 보인다. 한편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1차 산업이 지속해서 감소하여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은 급격히 증가하여 16.1%를, 3차 산업은 유지 추세를 보여, 73.7%를 차지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20).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는 관광영향에 대한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다른 잠재변수와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회교환이론에 직접적인 변인이 되는 관광영향 인식과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 그리고 선행변수로 설정한 지역사회 애착도와 종속변수가 되는 친환경 행동의도에 대한 측정 항목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들인 제주도 주민들을 인구통계학적이고 개인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계된 설문지는 총 7개의 영역에 걸쳐 7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1개의 선택 문항과 1개의 단답식, 1개의 서술식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부분의 '거주지역'에 관한 질문을 제1영역에 배치하였다. 이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범위에 혼선이 예상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답자 기준으로 지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도로 설정되었음을 밝힌다.

제2영역은 '지역사회 애착'에 대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순서대로 측정하는 부분이며, 제3영역은 '관광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문항으로 경제, 사회·문화, 환경 분야의 질문을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제4영역은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문화, 환경 관련 순으로 배치하였다. 제5영역은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지금까지의 개발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추가개발에 대한 지지도와 '관광'을 배제한 지역개발의 찬반 의견에 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제6영역은 환경 인식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인식은 환경책임행동을 기반으로 정의한 '친환경 행동의도'로서, 질문의 내용은 관광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친환경 행동'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영역은 인구통계학적이고 개인적인 사안에 관한 질문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이상의 주민들을 모두 포함하는바, 연령대는 15세 이상 10대부터 70대 이상으로 경제활동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 비해 넓은 범위 연령대의 표본을 수집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직업 이외에도 관광업종 종사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제주도에 거주한 기간과 출신지(고향)에 대한 문항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것이므로 반드시 포함할 질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주관식의 선택적 문항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여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설문지)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3-8>과 같다.

〈표 3-8〉 설문지 구성

변수 (문항수)	측정 내용		척도
지역사회 애착 (15)	지역사회 정체성 (5)	우리 지역은 ... ① 내 삶의 큰 부분 ② 특별한 곳 ③ 할 이야기가 많음 ④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지역 이야기도 함 ⑤ 사는 것이 자랑스러움	리커트 7점 척도
	사회적 친분 (5)	나는 우리 지역에서... ① 모임에 적극적 활동 ② 친목 모임에 참여 ③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음 ④ 친한 사람들(친구·친척)이 많이 삶 ⑤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함	
	지역사회 의존성 (5)	나는 우리 지역에서.../우리 지역은 ... ① 이사 갈 일이 있어도 계속 살 것임 ② 생활 대부분을 보냄 ③ 지역을 떠난다면, 섭섭할 것 ④ 내 일 하며 살기에 최고 ⑤ 어떤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가장 좋음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17)	긍정적 경제 영향 (5)	관광산업은 ... ① 더 많은 일자리 제공 ② 소득 증가로 생활 수준 상승 ③ 지역 세수 증가 ④ 지역 투자 유치 ⑤ 지역 경제 활성화	
	긍정적 사회·문화 영향 (5)	관광산업을 통해 ... ① 다른 문화와 교류 및 이해 ② 지역주민 여가 기회 상승 ③ 공공시설 및 서비스가 개선 ④ 지역문화 정체성 및 자부심 상승 ⑤ 주민의 삶 향상	
	긍정적 환경영향 (5)	관광산업을 통해 ... ① 주민의 문화·역사보존 의식 상승 ② 문화 활동 기회 증가 ③ 자연환경 보존 유익 ④ 공공 인프라 개선 ⑤ 주변 경관 관리 개선 ⑥ 주변 생활환경 개선 ⑦ 유적지 보존 개선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15)	부정적 경제 영향 (5)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 ① 물가 및 생활비 상승 ② 부동산(주택) 가격 상승 ③ 지역 자본 유출 ④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 ⑤ 세금 상승	
	부정적 사회·문화 영향 (5)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 ① 미풍양속(고유문화) 파괴 ② 사행성(퇴폐) 문화 확산 ③ 각종 범죄 증가 ④ 사생활 침해 증가 ⑤ 주민과 관광객/주민들 간 갈등 고조	
	부정적 환경영향 (5)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 ① 환경(쓰레기·소음·대기 및 수질오염 등)문제 증가 ② 자연(생태)환경 파괴 ③ 지역 혼잡 가중 ④ 교통 및 주차 문제 증가 ⑤ 주변 경관 훼손	
관광개발 지지도 (8)	나는 지역 관광개발에 대해... 생각한다. ① 얻는 이득이 더 많음 ② 희망적으로 봄 ③ 지역발전에 이바지함 ④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됨 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⑥ 지금까지 관광개발에 만족 ⑦ 추가적인 관광개발 사업지지 ⑧ 지역발전에 협조할 것		
친환경 행동의도 (7)	나는 환경을 위해 ...을 한다(할 것이다). ① 제품 구매시 친환경(재활용 가능)제품 선택 ② 각종 에너지(물, 전기, 연료 등) 절약 ③ 쓰레기 줄이기 행동(분리수거, 재사용 등) ④ 지역 환경정화(청소) 봉사활동 참여 의향 ⑤ 주변 사람과 환경문제 대화 ⑥ 환경 관련 정보(도서, TV, 기사 등)에 관심 ⑦ 환경단체 활동(회의, 캠페인, 세미나, 워크숍 등) 참석 의향		
인구통계특성 /개인소견(11)	거주지역(읍/명/동)/성별/나이/학력/월소득/직업/관광산업 종사 여부/제주도 거주 기간/고향(출신지)/관광개발 관련 자유 의견		명목 척도

변수	선행연구
지역사회 애착	강신겸·최승담(2002), 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 권송이·송명규(2017), 김경준·김성수(1998), 김보경(2018), 김주진·류재준·신우진(2019), 남중현(2019), 박윤희·김태욱·현성협(2019), 서인석·이재원·정원희(2019), 양민호 외(2018), 오정학·윤유식(2009), 윤지현·이환봉(2008), 이경영(2019), 이후석·오민재(2014), 임근욱·함승우·강형철(2012), 임기성(2013),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조민지 외(2016), 조장현(2017), 최규환 (2018), 최연화·김준우·송학준(2018), 한승훈·김진옥(2018), 한승훈·신동주(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송상현·정철(2016), 황정진(2018), Cheng, Wu, & Huang(2013), Eslami et al.(2019), Gursoy, Jurowski, & Uysal(2002), Hidalgo(2001), Hong & Kim(2018), Kasarda & Janowitz(1974), Lee(2011), McCool & Martin(1994), Olya, Alipour, & Gavilyan(2018), Ramkissoon, Smith, & Weiler(2013), Scannell(2010), Strzelecka, Boley, & Woosnam(2017), Styliadis(2018a), Uzel, Pol, & Badenas(2002),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as-Bueno(2009), Vorkin & Riese(2001), Williams & Vaske(2003)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 고계성(2014),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고동완·정승호(2004), 김보형(2019), 김진옥·신동주(2017), 박인규·이희천·전기환(2011), 박주영·오상훈(2019), 송재호·고계성(2015), 윤지현·이환봉(2008), 이결재(2008), 이상용·윤희정(2013), 이형주·김인신(2014), 이후석·오민재(2014), 임근욱·함승우·강형철(2011), 임기성(2013),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정승훈(2019b), 정승훈(2019c),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조광익·김남조(2002), 최연화·김준우·송학준(2018),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송상현·정철(2016), Allen et al.(1993), Andriotis & Vaughan(2003), Ap & Crompton(1998), Choi et al.(2019), Dyer, Gursoy, Sharma, & Carter(2006), Eslami et al.(2019), Faulkner & Tideswell(1997), Frauman & Banks(2011), Gursoy & Rutherford(2004), Gursoy, Chi, & Dyer(2010), Gursoy, Jurowski, & Uysal(2002), Hanafiah, Jamaluddin, & Zulkifly(2013), Jurowski & Gursoy(2004), Kim, Uysal & Sirgy(2013), Ko & Stewart(2002), Kreag(2001), Lankford & Howard(1994), Lee(2013), Nunkoo & Ramkissoon(2010), Nunkoo & Ramkissoon(2011), Nunkoo & So(2016), Olya, Alipour, & Gavilyan(2018), Pizam(1978), Ribeiro et al.(2017), Sinclair-Maragh, Gursoy, & Vieregge(2015), Su, Huang, & Pearce(2018),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as-Bueno(2009), Yu, Cole, & Chancellor(2018)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고계성(2014),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고동완·정승호(2004), 김보형(2019), 김진옥·신동주(2017), 박주영·오상훈(2019), 송재호·고계성(2015), 윤지현·이환봉(2008), 이상용·윤희정(2013), 이형주·김인신(2014), 이후석·오민재(2014), 임근욱·함승우·강형철(2011), 임기성(2013),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정승훈(2019b), 정승훈(2019c),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조광익·김남조(2002), 최연화·김준우·송학준(2018),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송상현·정철(2016), Allen et al.(1993), Andriotis & Vaughan(2003), Ap & Crompton(1998), Choi et al.(2019), Dyer, Gursoy, Sharma, & Carter(2006), Eslami et al.(2019), Faulkner & Tideswell(1997), Frauman & Banks(2011), Gursoy & Rutherford(2004), Gursoy, Jurowski, & Uysal(2002), Hanafiah, Jamaluddin, & Zulkifly(2013), Jurowski & Gursoy(2004), Kim, Uysal & Sirgy(2013), Ko & Stewart(2002), Koen et al.(2018), Kreag(2001), Lankford & Howard(1994), Lee(2013), Nunkoo & Ramkissoon(2010), Nunkoo & Ramkissoon(2011), Nunkoo & So(2015), Olya, Alipour, & Gavilyan(2018), Pizam(1978), Ribeiro et al. (2017), Sinclair-Maragh, Gursoy, & Vieregge(2015), Su, Huang, & Pearce(2018),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as-Bueno(2009), Yu, Cole, & Chancellor(2018)

변수	선행연구
관광개발 지지도	<p>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 강태우(2019), 고계성(2014), 박주영·오상훈(2019), 송래현·윤유식(2019), 양승필(2012), 양승필·서용건(2015), 오정학·윤유식(2009), 윤유식(2009), 윤지현·이환봉(2008), 이상용·윤희정(2013), 이충기·양형은·이재석(2011), 이후석·오민재(2014), 임근욱·함승우·강형철(2012), 임기성(2013), 임화순·고계성(2013),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정승훈(2019),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조광익·김남조(2002), 최윤석·김인신·정호권(2014), 한승훈·신동주(2017),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황경후·송상헌·정철(2016), Andereck & Vogt(2000), Andriotis & Vaughan(2003), Carmichael, Peppard Jr., & Boudreau(1996), Eslami et al.(2019), Faulkner & Tidswell(1997), Gursoy & Rutherford(2004), Gursoy, Chi, & Dyer(2010), Gursoy, Jurowski, & Uysal(2002), Hanafiah, Jamaluddin, & Zulkifly(2013), Jurowski & Gursoy(2004), Ko & Stewart(2002), Lankford & Howard(1994), Lee(2013), Megeirhiet al.,(2020), Nunkoo & Ramkisson(2010), Nunkoo & Ramkisson(2011), Nunkoo & So(2016), Papastathopoulos et al.(2020), Perdue, Long, & Allen(1990), Perdue, Long, & Kang(1995), Sinclair-Maragh, Gursoy, & Michael Vieregge(2015), Stylidis(2018a), Stylidis(2018b), Uzel, Pol, & Badenas(2002), Vargas-Sánchez, Plaza-Mejía, & Porras-Bueno(2009), Vargas-Sanchez et al.(2015), Woo, Kim, & Uysal(2015), Yu, Cole, & Chancellor(2018)</p>
친환경 행동의도	<p>권송아·송명규(2017), 류동균 외(2016), 서세진·서용건(2017), 송명규(2018), 윤동환·한승훈(2020), 이후석·오민재(2019), 최윤석·김인신·정호권(2014), 한승훈(2019), Hong & Kim(2019), Jin(2017), Kaiser & Gutscher(2003), Kaiser & Wilson(2000), Kaiser & Wilson(2004), Kaiser(1998), Kaiser et al.(2003), Kiatkawsin & Han(2017), Kilbourne & Pickett 2008), Larson et al.(2015), Lee & Oh(2018), Lee, Jan, & Yang(2013), Leeuw et al.(2015), Mainieri et al.(1997), Mobley, Vagias, & DeWard(2010), Orams(1997), Ramkissoon, Smith, & Weiler(2013), Rice(2006), Scott & Willits(1994), Smith-Sebasto & D'Costa(1995), Stern et al.(1999), Su, Hsu, & Boostrom Jr.(2020), Su, Huang, & Pearce(2018), Thapa(2010), Vaske & Kobrin(2001), Whitmarsh & O'Neill(2010), Zhang et al.(2014)</p>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도민을 모집단으로 하는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도민의 숫자는 총 670,989명(남성 337,345명, 여성 333,644명)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의 크기는 설문 문항 수와 자료 분석기법, 표본추출기법 및 추정 절차 등으로 고려하여 4~500명으로 설정하고, 표본추출방법은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을 적용하여, 연령대 및 성별 분포에 따라 할당된 수의 표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할당표본추출법이 활용될 경우, 연구 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사전 정보로 명확한 표본 프레임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특성을 보이는 표본들의 요소를 모집단과 구성 비율이 일치되도록 표본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박석희·고동우·김병국, 2000).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의 대상을 선택하는 판단표본추출법(judgment sampling)을 병행하고자 한다. 이는 이번 연구가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했을 때 선정된 표본이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할 것이며, 적은 수의 표본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확대해석해 직접적인 일반화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환·김경환, 2012).

이와 더불어 선행 탐색자료의 하나로써 제주도를 연구의 범위로 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연구한 문헌들을 살펴보는 과정은 본 연구에 대한 지역적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Korea Citation Index,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eArticle, DBpia 등을 통해 '제주 관광 및 지역주민'을 검색어로 하여 수집된 210개의 학술논문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39건의 문헌들을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의 <표 3-9>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하는 연구에 대하여 사용된 변수, 연구의 범위(주제), 표본의 범위 및 크기와 조사 지역 등을 추출하여 도식화한 자료이다.

〈표 3-9〉 제주도 지역주민 및 관광개발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 범위 구분			조사 연도	제주도 전체 여부	표본(조사) 지역	유효 표본수
			관광시설	문화/행사	관광개발 일반				
강숙영(1999)	컨벤션 영향	주민 인식 확산	컨벤션			1998	●	2개 시, 2개 군	420
서용건 외(2005)	골프장 개발	지역주민 태도	골프장			2004	●	서귀포시	350
이진희(2006)	생태마을 조성	지역주민 인식	생태마을			2005	●	강정, 토평, 법환, 보목	409
고계성(2007)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주민 인식		세계자연유산		2006	●	월드컵경기장, 제주버스터미널, 탐라문화재	308
고승익 외(2007)	지역애착심, 축제영향	지역주민 평가		지역축제		2006		서귀포 칠십리축제	311
양필수(2007)	골프장 개발, 영향 지각	태도, 만족도	골프장			2007	●	제주도 각 동, 읍면지역	598
조문수(2008)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주민 인식		세계자연유산		2007	●	성산/김녕/세화, 제주시/서귀포시	442
고승익(2008)	지역애착심, 축제영향	지역주민 인식		지역축제		2007		우도(축제참가자)	211
고동완(2008)	카지노 도입	지역주민 태도	카지노			2008	●	제주시:서귀포시	436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 범위 구분			조사 연도	제주도 전체 여부	표본(조사) 지역	유효 표본수
			관광시설	문화/행사	관광개발 일반				
양성수·허향진·서용건 (2009)	관광개발	지역주민 인식과 태도			관광개발	2008	●	도민이용도 높은 5대 은행	276
현홍준(2010)	문화유산, 자원 속성	지역주민 인식		해녀 문화		2008		공항, 월드컵경기장, 성산일출봉	279
이명구(2010)	관광개발	주민 갈등	올레길			2010	●	제주 일대	337
고계성(2010)	카지노 영향 인식	지역주민 인식과 태도	카지노			2009	●	제주 지역	498
장혜원(2011)	다크투어리즘	방문 동기		다크투어리즘		2009		제주 4.3평화공원	288
고계성(2011)	관광개발 영향 인식	지역주민 인식, 개발 지지	해양관광			2010		김녕(주민 49%) 중심	198
이지훈(2012)	지역애착심, 관광영향	개발인식			관광개발	2011		서귀포 관광마을 체험지	292
임화순·고계성 (2012)	지역주민 인식과 태도	개발 지지	해양관광			2010		김녕리	237
현미경(2013)	도시발전	인식 수준		문화예술도시		2012	●	제주지역	445
김용철·윤유식 (2013)	관광산업 영향, 혜택	개발지지	컨벤션			2013		제주도 컨벤션뷰로 회원사 임직원	403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 범위 구분			조사 연도	제주도 전체 여부	표본(조사) 지역	유효 표본수
			관광시설	문화/행사	관광개발 일반				
정승훈(2014)	관광개발, 관광영향	개발 지지			관광개발	2013		제주 읍면동	643
이형주·김인신 (2014)	관광개발 영향	지역정체성, 개발참여의도			투자이민	2013	●	제주 일대	227
민기(2014)	풍력발전 개발	주민 인식	풍력발전			2013	●	제주 일대 (48% 외국인)	211
양승필·서용건 (2015)	관광개발 갈등, 주민협력	개발 지지			관광개발	2014	●	제주:서귀포	312
황경수(2015)	공동체 문화	지역발전		관당(지역) 문화		2014	●	제주:서귀포(7:3)	578
조문수(2015)	복합리조트 개발	지역주민 태도	복합리조트			2014	●	제주도민	349
박경욱(2015)	환경 인식	지역주민 태도	올레길			2014		올레 6, 7코스(서귀포시) 서귀 버스터미널, 마을입구	232
서광용(2016)	개발영향, 기업의 사회적책임	지역주민 인식			관광개발	2016	●	제주:서귀포	203
홍성범(2016)	카지노 위협인식	지역주민 태도	카지노			2016	●	제주시/서귀포시	225
황경후(2016)	관광개발 영향 인식	지역애착, 개발지지	해양관광			2011		우도 주민	101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 범위 구분			조사 연도	제주도 전체 여부	표본(조사) 지역	유효 표본수
			관광시설	문화/행사	관광개발 일반				
유원희(2017)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 인식		세계자연유산		2017		주민(64%), 관광객 (36%)	460
박주연(2017)	공항 입지	주민 갈등	공항			2016		공무원/반대위 실무진 (정성평가)	11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관광개발 영향	개발 지지			관광개발	2016		연동, 노형동 및 이도2동	373
임화순·박종준 (2018)	관광도시 이미지	지역 차이			관광이미지	2018		제주시 거주자	347
강용석·최용복 (2019)	공공정책	지역주민 인식			공공정책	2019	●	간접영향 주민(57%) 직접영향 주민(43%)	350
서세진(2019)	관광영향 인식	정서와 태도			관광영향	2016		A초교:B초교 (99:66)	168
김보형(2019)	복합리조트, 산업 영향	지역주민 태도, 개발 지지	복합리조트			2019		복합리조트 개발(예정)지역	303
정승훈(2019a)	어촌 관광개발	지역주민 태도, 개발 지지	어촌관광			2015		어촌체험 마을 (구엄, 하도)	334
정승훈(2019b)	정치적 입파워먼트	지역주민 인식, 개발 지지			관광개발	2018	●	제주(동/읍면), 서귀(동/읍면)	403
정승훈(2019c)	관광개발 영향	지역주민 인식, 개발 지지			관광개발	2018	●	제주(동/읍면), 서귀(동/읍면)	405

상기 문헌 중 지역 행사, 축제 등 특정 지역의 관광 상품 또는 관광지 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21건의 연구들이 제주도 전체 또는 일부 행정단위 기준의 인구할당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질적분석을 위한 1개의 문항을 제외한 전체 연구의 유효 표본 크기는 최소 101명부터 643명까지 다양하다. 표집 장소를 밝힌 연구도 다수 있어, 특정 관광 활동이 진행 중인 곳 이외에 버스터미널, 공항, 마을 입구, 주민센터(읍·면사무소), 은행, 우체국 등이 표집 장소로 이용되었다.

관광개발 관련 연구의 상당수는 개발 예정지의 경제적인 편익을 변수로 활용하여, 해당 개발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으며(황경후 외, 2016),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관광개발의 문제는 종종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박주연, 2017; 양승필·서용건, 2015; 이명구, 2010). 또한, 제주도를 연구 범위로 하여 지역주민의 태도를 연구한 문헌들은 대체로 관광단지 또는 특정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그리고 행사나 축제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 관광개발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제주도 내의 한정된 범위만을 논하는(양성수·허향진·서용건, 2009)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주도의 특정 지역 및 대상에 대한 관광영향 인식, 태도 및 지지도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던 반면, 제주도 전체 또는 지역별 주민 대상 관광영향에 관한 인식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정승훈, 2014). 상기 <표 3-9>를 토대로 한 선행연구 중 제주도 전체를 표본으로 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문헌들은 다음의 <표 3-10>과 같다.

<표 3-10> 제주도 관광개발 선행연구 비교

연구자	표본 지역 및 표본의 크기	개발 대상
양성수·허향진·서용건 (2009)	제주도 전체, 도내 5대 은행 이용 거주민, 276명	진행 중인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
정승훈(2014)	제주도 전체, 5개의 권역별로 구분, 643명	권역별 관광개발 대상
양승필·서용건 (2015)	제주도 전체, 제주:서귀포(7:3), 312명	추가적인 카지노 개발 사업
서광용(2016)	제주도 전체, 제주:서귀포(8:2), 203명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정승훈(2019a)	제주도 전체, 제주(동/읍면)·서귀(동/읍면), 403명	제주도의 전반적인 관광개발 정책과 관광개발
정승훈(2019b)	제주도 전체, 제주(동/읍면)·서귀(동/읍면), 405명	행정구역별 관광개발

한편 제주도 관광권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지역구분은 시기별로 다음의 <표 3-11>과 같다. 이들 중 가장 최근 제주관광공사가 조사한 ‘제주방문 관광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로 도출된 8개의 클러스터는 2019년 6월에서 12월 사이 제주도에 내비게이션 검색 서비스를 사용한 8,466,488명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에 버스를 이용한 승객 2,264,542명의 태그 정보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이동패턴을 함께 분석한 결과이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 2020). 관광개발 정도의 단계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연관성이 있으며(Allen, 1988; Doxey, 1975), 관광영향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추가적인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인 까닭에(표 3-10 참조),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곳에서의 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회교환이론 기반의 기존 문헌(조광익·김남조, 2002; 한승옥·김진옥, 2018; 황정진·고계성, 2018; Choi et al., 2019; Eslami et al., 2019; Perdue, Long, & Kang, 1995)의 지적을 고려하여, 제주도에 주민과 관광객의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즉, 8개 클러스터는 관광객의 이동패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관광객의 공간적인 분산의 유도 할 수 있게 하여,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의 균형 있는 개발과 소득의 분산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이동 수단인 렌터카와 대중교통의 이동패턴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새로운 지역의 단독적인 개발보다는 기존의 관광지들과의 연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이 더욱더 효율적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 2020).

<표 3-11> 제주 관광개발 권역 구분(2002~2021)

내용	적용 기간	지역구분	권역	출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02~2011	5대 관광권역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한라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구보고서, 제주도, 200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2014~2021	6대 관광권역	북부, 동부, 남동부, 남서부, 서부, 한라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 계획 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방문 관광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분석 연구	2020~2021	8개 클러스터	제주시 동지역, 조천읍, 성산읍, 표선면,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중문동, 한림읍, 애월읍	제주방문 관광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분석 연구, 제주관광공사,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관광개발 권역 연구에서 활용한 가장 최근의 자료에 근거하여,

제주도 내 인구 집중 지역인 8개 권역을 지리적인 표집 범위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표본 대상지의 선정이 끝난 후, 다음 단계에서는 표본 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월 인구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인구구성원에 대한 통계자료는 연 1회만 발표되는 관계로, 가장 최근의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할당에 기준이 되는 인원은 2019년 12월 31일 전체 도민 696,657명이며, 8개 권역의 15세 이상 인구는 총 308,359명으로 다음의 <표 3-12>는 308,359명의 성별, 연령대별 인구수이고, 이를 비례하여 할당한 표본의 수는 <표 3-13>이며, 표집 완료 후 집계된 유효표본의 수는 <표 3-14>와 같다.

<표 3-12> 성별 및 연령대별 8개 권역 인구통계 자료

2019.12.31. 기준 (단위:명)

구분	1			2			3			4		
	제주시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5~19세	9,613	5,122	4,491	958	541	417	1,641	885	756	1,182	642	540
20~29세	20,935	11,525	9,950	2,170	1,207	963	3,638	1,972	1,666	2,778	1,541	1,237
30~39세	19,701	9,946	9,755	2,337	1,232	1,105	4,454	2,331	2,123	2,985	1,510	1,475
40~49세	26,194	12,589	13,605	3,495	1,958	1,537	6,524	3,564	2,960	3,964	2,172	1,792
50~59세	24,446	12,265	12,181	3,826	2,111	1,715	6,262	3,376	2,886	4,310	2,317	1,993
60~69세	13,814	6,717	7,097	2,884	1,471	1,413	4,111	2,147	1,964	3,033	1,552	1,481
70세이상	10,676	4,288	6,388	3,265	1,200	2,065	4,422	1,716	2,706	3,318	1,325	1,993
계	125,379	62,452	63,467	18,985	9,720	9,215	31,052	15,991	15,061	21,570	11,059	10,511

구분	5			6			7			8		
	성산읍			표선면			서귀포시 동지역			중문지역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5~19세	537	284	253	481	249	232	4,005	2,092	1,913	1,326	666	660
20~29세	1,536	854	682	1,295	729	566	8,087	4,227	3,860	3,333	1,699	1,634
30~39세	1,546	846	700	1,190	602	588	8,430	4,256	4,174	4,319	2,209	2,110
40~49세	2,209	1,308	901	1,972	1,139	833	12,014	6,346	5,668	5,000	2,759	2,241
50~59세	3,149	1,737	1,412	2,385	1,272	1,113	12,141	6,270	5,871	4,472	2,419	2,053
60~69세	2,474	1,335	1,139	1,835	916	919	8,430	4,256	4,174	3,203	1,617	1,586
70세이상	2,594	1,008	1,590	1,845	740	1,105	8,459	3,443	5,016	3,156	1,259	1,897
계	14,045	7,372	6,677	11,003	5,647	5,356	61,566	30,880	30,686	24,809	12,628	12,181

〈표 3-13〉 연구 대상 지역별 할당된 표본의 수

(단위:명)

구분	제주시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성산읍		표선면		서귀포시 동지역		중문지역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19세	8 (3.76)	8 (3.76)	1 (3.13)	1 (3.13)	2 (3.85)	1 (1.92)	1 (2.63)	1 (2.63)	1 (3.85)	1 (3.85)	1 (4.76)	1 (4.76)	4 (3.70)	4 (3.70)	1 (2.33)	1 (2.33)
20~29세	20 (3.39)	16 (7.51)	2 (6.25)	2 (6.25)	3 (5.77)	3 (5.77)	3 (9.38)	3 (9.38)	1 (3.85)	1 (3.85)	1 (4.76)	1 (4.76)	8 (7.41)	8 (7.41)	3 (6.98)	3 (6.98)
30~39세	18 (8.45)	18 (8.45)	2 (6.25)	2 (6.25)	4 (7.69)	3 (5.77)	3 (9.38)	3 (9.38)	2 (7.69)	2 (7.69)	1 (4.76)	1 (4.76)	8 (7.41)	8 (7.41)	4 (9.30)	4 (9.30)
40~49세	22 (10.33)	24 (11.27)	3 (9.38)	3 (9.38)	7 (13.46)	5 (9.62)	3 (9.38)	3 (9.38)	2 (7.69)	2 (7.69)	2 (9.52)	2 (9.52)	11 (10.19)	9 (8.33)	4 (9.30)	4 (9.30)
50~59세	20 (10.33)	20 (10.33)	3 (9.38)	3 (9.38)	5 (9.62)	5 (9.62)	4 (12.50)	4 (12.50)	3 (11.54)	3 (11.54)	2 (9.52)	2 (9.52)	10 (9.26)	10 (9.26)	4 (9.30)	4 (9.30)
60~69세	11 (5.16)	11 (5.16)	3 (9.38)	2 (6.25)	4 (7.69)	3 (5.77)	3 (9.38)	2 (6.25)	2 (7.69)	2 (7.69)	2 (9.52)	2 (9.52)	7 (6.48)	7 (6.48)	3 (6.98)	3 (6.98)
70세 이상	7 (3.29)	10 (4.69)	2 (6.25)	3 (9.38)	3 (5.77)	4 (7.69)	2 (6.25)	3 (9.38)	2 (7.69)	2 (7.69)	1 (4.76)	2 (9.52)	6 (5.56)	8 (7.41)	2 (4.65)	3 (6.98)
소계	213 (39.96%)		32 (6.00%)		52 (9.76%)		38 (7.13%)		26 (4.88%)		21 (3.94%)		108 (20.26%)		43 (8.07%)	
합계															533 (100.00%)	

〈표 3-14〉 연구 대상 지역별 수집된 유효표본의 수

(단위:명)

구분	제주시 동지역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성산읍		표선면		서귀포시 동지역		중문지역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19세	10 (3.82)	9 (3.44)	1 (2.38)	1 (2.38)	2 (3.51)	1 (1.75)	1 (2.56)	1 (2.56)	1 (3.45)	1 (3.45)	1 (4.17)	1 (4.17)	5 (4.17)	6 (5.00)	1 (1.85)	1 (1.85)
20~29세	23 (8.78)	24 (9.16)	2 (4.76)	3 (7.14)	3 (5.26)	3 (5.26)	3 (7.69)	3 (7.69)	1 (3.45)	1 (3.45)	1 (4.17)	1 (4.17)	8 (6.67)	13 (10.83)	3 (5.56)	4 (7.41)
30~39세	19 (7.25)	22 (8.40)	2 (4.76)	3 (7.14)	5 (8.77)	5 (8.77)	3 (7.69)	3 (7.69)	3 (10.34)	2 (6.90)	1 (4.17)	2 (8.33)	8 (6.67)	10 (8.33)	4 (7.41)	4 (7.41)
40~49세	30 (11.45)	30 (11.45)	4 (9.52)	3 (7.14)	5 (8.77)	7 (12.28)	5 (12.82)	2 (5.13)	2 (6.90)	3 (10.34)	2 (8.33)	2 (8.33)	12 (10.00)	11 (9.17)	4 (7.41)	8 (14.81)
50~59세	23 (8.78)	23 (8.78)	4 (9.52)	6 (14.29)	5 (8.77)	6 (10.53)	4 (10.26)	5 (12.82)	4 (13.79)	3 (10.34)	2 (8.33)	2 (8.33)	10 (8.33)	10 (8.33)	6 (11.11)	5 (9.26)
60~69세	12 (4.58)	18 (6.87)	5 (11.90)	3 (7.14)	5 (8.77)	3 (5.26)	2 (5.13)	3 (7.69)	2 (6.90)	2 (6.90)	3 (12.50)	2 (8.33)	7 (5.83)	7 (5.83)	3 (5.56)	6 (11.11)
70세 이상	8 (3.05)	11 (4.20)	2 (4.76)	3 (7.14)	4 (7.02)	3 (5.26)	1 (2.56)	3 (7.69)	2 (6.90)	2 (6.90)	2 (8.33)	2 (8.33)	5 (4.17)	8 (6.67)	2 (3.70)	3 (5.56)
소계	262 (41.78%)		42 (6.70%)		57 (9.09%)		39 (6.22%)		29 (4.63%)		24 (3.83%)		120 (19.14%)		54 (8.61%)	
합계															627 (100.00%)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는 제주도의 8개 지역으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 제주시 동 지역에서 할당된 표본 수가 가장 적은 서귀포시 표선면까지 제주도 전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문항을 직접 선택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온라인 또는 대면 설문지로 제출하였으며, 대면 설문지 수집장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지역 대형마트, 읍내 상가와 스포츠 센터 등이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통계청의 공식 집계자료에서 발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 내 전체 인구는 670,989명이며, 이중 설문 대상자인 만 15세 이상의 인구 507,329명을 본 연구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통계청이 제시한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만 15세~19세가 동일 항목 안에 있으며(통계청, 2020), OECD 국가에서도 생산가능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적용하고 있으므로(진재문, 2020),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나이를 청장년 인구(만 15세부터 64세)와 노년 인구(만 65세 이상)로 특정하였다.

예비조사에 앞서 관광학 박사 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문항을 제시하여, 추출 작업을 의뢰하였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관광영향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관한 항목들을 완전히 분리하여 새로운 영역에 재배치하였다.

예비조사 작업은 42명의 관광학 박사 또는 석사 이상 출신으로 관광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각 잠재변수의 구성 요소들을 5개~14개씩 제시하였으며, 문항들은 각 구성 요소 별로 5~8개까지로 축소되었으며, 관광개발 지지도 관련 문항은 최초의 찬성/반대의 두 가지 문항에서, 태도와 지지도의 문항을 세분하여 각각 5개와 3개의 문항으로 축소·정리였다. 본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1차 사전 조사 역시 관광학 전공자(석·박사) 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의뢰한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지역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인 거주지명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마지막에 선택항목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응답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추가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3차에 걸쳐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2차 사전 조사는 일반인 56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고, 수정된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명의 응답자와 전화 면담을 통해 질문에 대한 오해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검사를 통해 본조사에 활용될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자료수집과정은 다음의 <표 3-15>와 같다. 본조사에서 배포한 설문은 총 650부이고, 최종 수집된 635부에서 불성실하게 작성되거나 미완성된 응답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27부가 유효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3-15〉 자료수집 방법 및 과정

구분	내용			
모집단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507,329명 (2019.12.31. 기준 만 15세 이상 인구)			
표본	제주특별자치도 8개 지역(제주시 동지역,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중문지역, 서귀포 동지역, 성산읍, 표선면) 주민			
표집 장소	학교,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지역 대형마트, 오일장, 읍내 상가, 스포츠 센터 등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인구(성별, 연령별)를 고려, 할당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한 판단표본추출법			
측정 방법	자기기입식			
구분	조사 기간	표본 수 (표집 수)	설문/면접 방법	비고
표적집단면접 (FGI)	2020.8.18	5	면접(회의)	전문가 대상(박사), 최초 문항 선정/편집
예비조사	2020.8.24. ~ 2020.8.31	42(42)	온라인(웹, 모바일)	전문가 대상, 문항 선정/삭제/용어 수정
1차 사전 조사	2020.9.15. ~ 2020.9.20	45(45)	온라인(웹, 모바일)	관련학과 전공자(석·박사) 대상, 신뢰도/타당성 검사
2차 사전 조사	2020.9.24. ~ 2020.9.30	56(56)	온라인(웹, 모바일)	일반인 대상, 신뢰도/타당성 검사
본 조사	2020.10.7. ~ 2020.10.24.	650(635)	온라인 250부/ 설문지 배포 400부	최종 유효표본 627부

3.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총 7단계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집된 627개의 표본에 대한 기초적인 탐색 과정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변수들의 빈도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한 사전 단계로써 측정 도구로 사용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 검사는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여 내적일관성 검사를, 표본적합도검사(Kaiser-Meyer-Olkin,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 test of sphericity)을 통해 요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모델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분석에는 Smart PLS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Fornel-Larcker의 평균분산추출값(AVE)과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의 상관계수 값을 적용하였다. 세 번째 과정은 검증된 요인의 영향 관계 파악을 위한 주요 분석 방법으로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PA, 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잠재변수의 직접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네 번째 단계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그룹 간의 경로 차이를 통해 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중그룹분석(PLS-MGA, Multi-Group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표 3-16〉 단계별 분석내용 및 분석 방법에 따른 통계 분석 도구

단계	분석내용	분석 방법	통계 분석 도구
1	인구통계 특성 및 개인적 특성	빈도분석(FA)	SPSS v24.0
2	측정 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측정모델 평가)	탐색적 요인분석(PCA) 확인적 요인분석(CFA)	SPSS v24.0 SmartPLS 3.3.2
3	가설검증 I (경로효과 분석)	최소자승법 경로분석 (PLS Algorithm PA)	SmartPLS 3.3.2
4	가설검증 II (조절효과 분석)	그룹 간 모델 효과 차이 분석 다중그룹 분석(PLS-MGA)	
5	가설검증 III (차이 분석)	평균 및 분산의 차이 분석 독립표본 t 검정(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SPSS v24.0
6	가설검증 IV (군집분석)	집단 간 비교, 유형 분류, 유형별 특성 분석, 연관성 분석 요인분석, 판별분석, 교차분석,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7	탐색적 정성 자료 분석 (주관적 의견 어휘 분석)	키워드 분석, 형태소 분석, 감성분석, 빈도분석, 시각화	Python 3.7.9 KoNLP/Twitter TEXTOM v4.5

다섯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탐색적 기술분석의 방법으로 다양한 조건에 따라 표본들의 평균 차이를 통한 유의성 검증을 시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기준으로 한 차이 분석을 위해 변인 그룹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 번째는 인식된 관광영향의 요인에 따른 표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군집화하는 과정을 거쳐 관광영향을 인식하는 주민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군집화된 유형은 새로운 변인이 되어, 가설검증에 사용된 방법인 다중그룹 분석을 통해 경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주민들의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만족도, 그리고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에 대해 군집 간의 차이가 유효한 부분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설문에 포함되어 수집된 주관식 의견자료는 텍스트를 정제한 후 대표 문장을 선정하고, 빈도수를 기준으로 한 키워드 및 감성분석을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시각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탐색적으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함께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전 과정에서 활용된 주요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24.0이며, 경로분석, 다중그룹분석 및 측정 도구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SmartPLS GmbH 3.3.2를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적 의견에 대한 질적 자료 분석은 오픈소스 프로그램 언어와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Python 3.7.9와 TEXTOM v4.5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계 별로 시행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방법 및 사용된 통계 분석 도구는 상기 <표 3-16>과 같다.

제 4 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영향에 대한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627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328명(52.31%), 남성이 299명(47.69%)으로 분석되었고,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30명(20.73%)으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118명(18.82%), 20대와 30대가 동일하게 각 96명(15.31%), 60대 83명(13.24%), 70대 이상이 61명(9.73%), 그리고 10대 43명(6.86%)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가 232명(37.0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가 123명(19.62%), 고등학교 졸업자가 104명(16.59%),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84명(13.34%), 중졸 이하 84명(13.40%)의 순으로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응답자들이 많은 편이나, 청소년과 노인층에는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 분포도를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사무직 종사자 150명(23.92%)이고, 기타 100명(15.95%), 학생 89명(14.19%), 전문직 78명(12.44%), 자영업자 67명(10.69%), 전업 주부 38명(6.06%), 1차 산업 종사자 37명(5.90%), 판매·서비스직 35명(5.58%), 기술직 33명(5.26%) 순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00~299만 원이 가장 많아 2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126명(20.10%)은 100만 원 미만, 133명(18.02%)은 100~119만 원, 100명(15.95%)은 300~399만 원, 67명(10.69%)은 500만 원 이상이며, 62명(9.89%)이 400~499만 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627명 중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117명(18.66%)이고, 나머지 510명(81.34%)은 관광업종과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응답자들의 출생 지역에 관한 질문에서는 제주시가 268명(42.74%)으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 191명(30.46%), 제주도 외

출신이 168명(26.79%)으로 전체 응답자들의 73.21%가 제주도 토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거주 기간도 30년 이상이 가장 많은 308명(49.12%)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11년~30년은 201명(32.06%), 마지막으로 10년 이하는 118명(18.82%)으로 상당수의 이주민의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임을 짐작할 수 있다.

거주지역별 응답자의 분포는 제주시 동지역이 가장 많은 261명(41.63%)이며, 서귀포시 동지역 121명(19.30%), 애월읍 57명(9.09%), 중문지역 54명(8.61%), 한림읍 42명(6.70%), 조천읍 39명(6.22%), 성산읍 29명(4.63%), 그리고 표선면 24명(3.83%) 순이다. 이는 애초 지역별로 할당된 표본 수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지역별 배정된 표본 수는 제주시 동지역 213명(261), 서귀포시 동지역 108명(121), 애월읍 52명(57), 중문지역 43명(54), 한림읍 32명(42), 조천읍 38명(39), 성산읍 26명(29), 그리고 표선면 21명(24)으로 주민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99	47.69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126	20.10
	여성	328	52.31		100~199만 원	113	18.02
	소계	627	100.00		200~299만 원	159	25.36
나이	10대(15~19세)	43	6.86		300~399만 원	100	15.95
	20대	96	15.31		400~499만 원	62	9.89
	30대	96	15.31		500만 원 이상	67	10.69
	40대	130	20.73		소계	627	100.00
	50대	118	18.82	관광 업종 종사 여부	예	117	18.66
	60대	83	13.24		아니오	510	81.34
	70대 이상	61	9.73		소계	627	100.00
	학력	소계	627	100.00	출신 지역	제주시	268
중졸 이하		84	13.40	서귀포시		191	30.46
고졸		104	16.59	제주도 외		168	26.79
전문대학 재학/졸업		84	13.40	소계	627	100.00	
거주 기간	대학교 재학/졸업	232	37.00	거주 기간	10년 이하	118	18.82
	대학원 재학/졸업	123	19.62		11~30년	201	32.06
	소계	627	100.00		30년 이상	308	49.12
직업	사무직	150	23.92	소계	627	100.00	
	전문직	78	12.44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261	41.63
	기술직	33	5.26		조천읍	39	6.22
	판매·서비스직	35	5.58		애월읍	57	9.09
	자영업	67	10.69		한림읍	42	6.70
	전업주부	38	6.06		중문지역	54	8.61
	학생	89	14.19		서귀포시 동지역	121	19.30
	농업·어업·임업 종사	37	5.90		성산읍	29	4.63
	기타	100	15.95		표선면	24	3.83
	소계	627	100.00		소계	627	100.00

2.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은 지역사회 애착,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관광개발 지지도 그리고 친환경 행동의도이다. 본 항에서는 각 변수의 응답 결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mean)을 토대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문항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한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4-2>는 지역사회 애착도에 대한 문항의 평균 분석 결과이다. 총 15개의 문항 중 '지역사회 정체성'을 측정하는 항목 3개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친분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결과가 대부분 낮게 나타나며, 지역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평균도 최하(3.39)이며, 편차도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이다.

<표 4-2> 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성향의 우선순위

순위	항목 구분	내용	평균	표준편차
1	지역사회 정체성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5.45	1.396
2	지역사회 정체성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5.44	1.442
3	지역사회 정체성	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지역 이야기도 한다.	5.30	1.423
4	지역사회 의존성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좋다.	5.26	1.368
5	지역사회 의존성	지역을 떠난다면, 나는 매우 섭섭할 것이다.	5.25	1.422
6	지역사회 의존성	생활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보낸다.	5.17	1.562
7	사회적 친분	지역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한다.	5.15	1.636
8	지역사회 의존성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 것이다.	5.08	1.654
9	지역사회 의존성	우리 지역이 최고다.	5.07	1.441
10	지역사회 정체성	우리 지역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다.	4.87	1.531
11	사회적 친분	친한 사람들(친구·친척)이 많이 산다.	4.72	1.805
12	사회적 친분	지역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4.63	1.780
13	사회적 친분	지역의 친목 모임에 참여한다.	4.06	1.790
14	지역사회 정체성	지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3.51	1.900
15	사회적 친분	지역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3.39	2.070

주: 평균 점수는 '매우 그렇다' 7점, '보통이다' 4점, '전혀 아니다' 1점이 부여된 산술평균임

다음의 <표 4-3>은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과 관련된 문항들이다. 총 17개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분야의 질문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질문은 '생활환경개선' 효과(5.40)이며, 두 번째로 '소득증가로 인한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답변은 편차가 가장 적어(1.321) 많은 응답자가 공통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높은 문항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편익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높고 환경적인 편익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적 편익은 평균이 가장 넓게 분포해있으며, 이들 중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향상된다'라는 답변이 가장 높지만, 주민의 삶이 향상된다는 답변이 최하위 평균을 보이는데, 주민들이 인식하는 경제적인 생활 수준의 상승이 문화적인 삶의 질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주민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관광영향의 우선순위

순위	항목 구분	내용	평균	표준편차
1	환경 편익	생활환경 개선	5.40	1.477
2	경제 편익	소득증가로 생활 수준 상승	5.38	1.321
3	사회·문화 편익	지역문화 정체성 및 자부심 상승	5.24	1.414
4	경제 편익	지역 세수 증가	5.20	1.418
5	환경 편익	주변 경관 관리 향상	5.20	1.508
6	경제 편익	고용기회 제공	5.18	1.406
7	경제 편익	지역 투자 유치	5.09	1.504
8	사회·문화 편익	주민 여가 기회 제공	4.89	1.477
9	경제 편익	지역 경제 활성화	4.89	1.422
10	환경 편익	문화역사지 보존의식 향상	4.89	1.520
11	사회·문화 편익	공공시설 및 서비스 향상	4.79	1.509
12	환경 편익	문화 활동 기회 향상	4.77	1.611
13	사회·문화 편익	타문화 교류 및 이해	4.76	1.441
14	환경 편익	유적지 보존	4.73	1.569
15	환경 편익	자연환경 보존 개선	4.68	1.611
16	환경 편익	사회기반 시설 개선	4.48	1.686
17	사회·문화 편익	지역주민의 삶 향상	4.36	1.830

<표 4-4>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관광의 영향에 관한 질문들이다. 여기에서는 여타 변수를 모두 통해 살펴본 문항별 평균에서 유일하게 6점을 초과한 항목이 눈에 띈다. 바로

환경오염 관련 문제 인식(6.06)이다. 총 15개의 경제, 사회·문화, 환경 관련 관광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답변으로 도출된 환경비용에 관한 문제는 편차도 가장 낮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문항으로 '청정 제주' 이미지를 지켜온 제주도에 쓰레기,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 관련 문제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범죄율 상승, 주민 간 혹은 관광객과의 갈등, 사생활 침해 등을 높이 인식하였고, 상대적으로 교통, 주차, 혼잡 등의 문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자본 유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평균은 최하위(4.16)로 나타났다.

〈표 4-4〉 주민이 인식하는 부정적인 관광영향의 우선순위

순위	항목 구분	내용	평균	표준편차
1	환경 비용	환경(쓰레기·소음·대기 및 수질오염)문제	6.06	1.258
2	사회·문화 비용	각종 범죄 증가	5.96	1.368
3	사회·문화 비용	주민 및 관광객들과 갈등	5.74	1.360
4	사회·문화 비용	사생활 침해 증가	5.68	1.383
5	환경 비용	자연(생태)환경이 파괴	5.51	1.462
6	경제 비용	물가 및 생활비 상승	5.19	1.492
7	경제 비용	부동산 및 주택가격 상승	4.93	1.454
8	경제 비용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	4.90	1.526
9	경제 비용	세금 인상	4.74	1.617
10	사회·문화 비용	미풍양속 및 고유문화 파괴	4.70	1.624
11	환경 비용	주변 경관이 훼손	4.56	1.569
12	사회문화 비용	퇴폐 문화 및 사행 심리 확산	4.44	1.668
13	환경 비용	교통 및 주차 문제	4.43	1.577
14	환경 비용	지역 혼잡 문제	4.31	1.597
15	경제 비용	지역 자본 유출	4.16	1.748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에 대한 문항은 〈표 4-5〉와 같으며, 총 8개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은 '지역발전에 협조할 것(5.89)'과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5.40)',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에 만족한다'는 의견(5.09)으로 지지도와 만족도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의 경우, 관광개발이 지역 경제(4.09)와 지역발전(4.04)에 이바지한다는 의견들이 최하위를 보이고,

편차가 큰 만큼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표 4-5〉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태도와 관련된 문항의 우선순위

순위	항목 구분	내용	평균	표준편차
1	관광개발 태도(지지)	지역발전에 협조할 것임	5.89	1.168
2	관광개발 태도(지지)	추가적인 관광개발을 지지함	5.40	1.310
3	관광개발 태도(만족)	지금까지 관광개발에 만족함	5.09	1.379
4	관광개발 태도(인식)	관광의 발전은 주민의 삶에 이바지	4.82	1.596
5	관광개발 태도(인식)	관광개발로 얻는 이득이 더 많음	4.78	1.541
6	관광개발 태도(인식)	지역 관광개발은 희망적	4.32	1.507
7	관광개발 태도(인식)	관광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	4.09	1.753
8	관광개발 태도(인식)	관광은 지역발전에 이바지	4.04	1.530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친환경 행동의도 관련 문항은 〈표 4-6〉과 같다. 주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항목은 친환경제품 구매(5.15)와 쓰레기(분리수거 등) 저감 행동(5.14), 에너지 절약행위(4.95) 등 구체적인 환경 행동이며, 일반적인 환경 행동인 환경 관련 대화 나누기(4.08), 정보 관심(3.33), 단체 활동 참석(3.10)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환경정화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답변은 본 연구의 설문지 전체를 통해 가장 낮은 점수(1.52)와 편차(0.500)를 보여, 응답자 전체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문항으로 구분되었다.

〈표 4-6〉 지역주민의 친환경 행동의도의 우선순위

순위	항목 구분	내용	평균	표준편차
1	친환경 행동의도	친환경제품 구매	5.15	1.497
2	친환경 행동의도	쓰레기 저감	5.14	1.395
3	친환경 행동의도	에너지 절약	4.95	1.568
4	친환경 행동의도	환경문제 관련 대화	4.08	1.725
5	친환경 행동의도	환경 관련 정보에 관심	3.33	1.323
6	친환경 행동의도	환경 관련 단체 활동 참석	3.10	1.580
7	친환경 행동의도	환경정화 봉사활동 참여	1.52	0.500

제2절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 방법

신뢰성(reliability)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문제에 관한 질문이 반복되면 일관된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응답자의 답변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노경섭, 2018). 연구 조사에서 신뢰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또한 측정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정확성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대안적 검사, 재검사법 등 다양한 검사법이 있으며, 반분법이나 항목 간 평균 측정 등은 1회의 검사를 통해 알아내는 내적일치도법에 속하는데, 크론바흐의 알파 상관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통한 검사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 방법이다(김계수, 2010; 김영석, 2002; Stemler, 2004). Cronbach's alpha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측정되며,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회과학연구에서 용인되는 수치는 0.7~0.8 이상으로 보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항목을 제거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신뢰도가 낮은 항목부터 제거하게 된다(이학식·임지훈, 2017). 표본의 상관행렬에 대한 요인분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표본적합도검사(Kaiser-Meyer-Olkin, KMO)가 수반되는데, 요인분석에 적절한 KMO 측정치는 0.7~0.8을 이상적으로 본다. 또한,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으로 판단하며, 근사 카이제곱(X^2)값과 유의수준 $p < .05$ 를 기준으로 확인한다(신민철, 2007; 정충영·최이규, 2011).

타당성(validity)이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및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 도구가 그 개념과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여러 개의 조작적 정의(측정 항목)를 이용하여 동일한 정의를 측정하고, 이때 개별 측정치들의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의 속성이나 개념에 대한 측정값이 다른 속성의 변화에 대한 예측 정도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타당도를 일컫는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와 측정 도구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를 일컫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그리고 측정 도구가 연구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즉, 구성을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을 일컫는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있다.

여기서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은 요인분석과 다속성 측정방법(multitrait-multimethod approach)이 있는데, 이 중 요인분석은 사회 과학연구에서 수많은 변수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 몇 개의 집단으로 그룹화하는데 이용하는 통계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로 선정된 문항들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 신뢰도 검증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에 대해 가설검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공통요인으로 묶인 요인들은 지역사회 애착도의 구성 요소인 지역사회 정체성, 지역사회 친분, 지역사회 의존성이고, 긍정적 관광영향의 구성 요소가 되는 긍정적 경제영향, 사회·문화영향, 환경영향과 부정적 관광영향의 구성 요소가 되는 부정적 경제영향, 사회·문화영향, 환경영향, 친환경 행동의도, 관광개발 지지도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잠재변수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위해 SPSS v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SmartPLS 3.3.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Smart PLS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변수에 대한 반영지표의 경로계수를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지표와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 방향이나 상호 호환성, 측정지표들 사이의 공분산과 변수 간의 법칙적 인과관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된 반영지표(또는 형성지표)들을 연구자의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 개념적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환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다(김중인, 2012).

2.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신뢰성 평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의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에는 요인들의 상호독립성 검정에 유용하다고 설명되는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0.7 이상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잠재변수를 설정하였는데 선행독립변수로 선정한 지역사회 애착도와 핵심 이론인 사회교환이론의 주요 변수인 관광의 긍정적 영향 인식과 부정적 영향 인식,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친환경 행동의도 및 관광개발 지지도이며, 이들 변수의 측정 항목에 대해 각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지역애착도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로 설계한 지역사회 애착도의 변수는 지역 정체성, 사회적 친분, 지역 의존성의 3개 항목의 각각 5개의 변수로 총 15개 문항이었으나, 각 항목에서 요인적재량이 낮은 변수가 한 개씩 발견되어, 각 4개의 변수로

축소되어 기대하던 3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거된 변수는 '나에 관해 지역 이야기함(ID4), 지역 내 친구·친척 거주(SD4), 생활 대부분 지역에서 보냄(DP2)'의 3개이며, 남은 12개의 측정 문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들 요인 간의 KMO 값은 .903이며, Bartlett's 구형성 검정은 $p < .000$ 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신뢰도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지역 정체성(0.872), 사회적 친분(0.891), 지역 의존성(0.891) 나타나 모두 임계치인 0.7 이상의 큰 값을 상회함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지역애착도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사회교환이론 변수 중 긍정적 관광영향의 변인은 경제(5개), 사회·문화(5개), 환경(7개)의 편익으로 3개 분야에서 모두 17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며, 초기에 구성된 항목들이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 후에도 그대로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신뢰도는 0.889~0.934 수준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KMO = 0.945$, $p < 0.000$ 으로 적합성이 확인되었고, 긍정적 관광영향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다.

또한, 사회교환이론 변수에서 부정적 관광영향의 변인은 경제(5개), 사회·문화(5개), 환경(5개)의 비용(또는 손실)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3개 분야에서 모두 1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며, 역시 초기에 구성된 항목들이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 후에도 그대로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신뢰도는 0.849~0.924 수준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KMO = 0.909$, $p < 0.000$ 으로 적합성이 확보되었으며, 부정적 관광영향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다.

한편,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관한 변수는 요인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단일 요인 항목으로 각 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적재량과 신뢰도는 <표 4-10>의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표 4-7〉 지역애착도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 문항	요인적재량		
	1	2	3
요인 1. 지역 의존성			
지역 이주 시 섭섭함(DP3)	.809		
일과 생활에 최적지(DP4)	.794		
타지역보다 더 선호함(DP5)	.792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 것(DP1)	.744		
요인 2. 사회적 친분			
지역의 친목 모임에 참여(SD2)		.895	
지역 모임에서 적극 활동(SD1)		.860	
이웃을 많이 알고 지냄(SD3)		.834	
이웃들과 친하게 지냄(SD5)		.669	
요인 3. 지역 정체성			
삶의 큰 부분 차지함(ID1)			.829
매우 특별한 곳임(ID2)			.810
지역 거주 의 자랑스러움(ID5)			.745
지역 관련 이야기 많음(ID3)			.723
고유값(eigen value)	3.097	3.064	2.928
설명변량(%)	25.811	25.532	24.396
누적설명변량(%)	25.811	51.343	76.739
신뢰도(Cronbach's α)	.891	.891	.872

총 분산 설명력(%) = 75.739%, KMO(Kaiser-Meyer-Olkin) = .90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X^2) = 5267.828 (df=66, P < .000)

주: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요인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맥스(Varimax) 회전

〈표 4-8〉 사회교환이론 변수(긍정적 관광영향)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 문항	요인적재량		
	1	2	3
요인 1. 경제적 편익			
지역 세수 증가(PEC3)	.824		
고용기회 제공(PEC1)	.823		
소득증가로 생활 수준 상승(PEC2)	.811		
지역 투자 유치(PEC4)	.775		
지역 경제 활성화(PEC5)	.757		
요인 2. 사회문화적 편익			
지역문화 정체성 및 자부심 상승(PSC4)		.837	
타문화 교류 및 이해(PSC1)		.786	
주민 여가 기회 제공(PSC2)		.758	
공공시설 및 서비스 향상(PSC3)		.741	
지역주민의 삶 향상(PSC5)		.740	
요인 3. 환경적 편익			
유적지 보존(PEV7)			.818
주변 경관 관리 향상(PEV5)			.801
생활환경 개선(PEV6)			.774
사회기반 시설 개선(PEV4)			.756
자연환경 보존 개선(PEV3)			.746
문화 활동 기회 향상(PEV2)			.688
문화역사지 보존의식 향상(PEV1)			.630
고유값(eigen value)	4.056	3.706	4.588
설명변량(%)	23.858	21.801	26.988
누적설명변량(%)	50.846	72.647	26.988
신뢰도(Cronbach's α)	.934	.889	.921

총 분산 설명력(%) = 72.647%, KMO(Kaiser-Meyer-Olkin) = .94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X^2) = 8251.974 (df = 136, P < .000)

주: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요인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맥스(Varimax) 회전

〈표 4-9〉 사회교환이론 변수(부정적 관광영향)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 문항	요인적재량		
	1	2	3
요인1. 경제적 비용			
지역 자본 유출(NEC3)	.811		
물가 및 생활비 상승(NEC1)	.791		
부동산 및 주택 가격 상승(NEC2)	.791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NEC4)	.607		
세금 인상(NEC5)	.607		
요인2. 사회문화적 비용			
각종 범죄 증가(NSC3)		.873	
사생활 침해 증가(NSC4)		.834	
주민 및 관광객들과 갈등(NSC5)		.790	
퇴폐 문화 및 사행 심리 확산(NSC2)		.763	
미풍양속 및 고유문화 파괴(NSC1)		.752	
요인3. 환경적 비용			
지역 혼잡 문제(NEV3)			.853
자연(생태)환경이 파괴(NEV2)			.837
환경(쓰레기·소음·대기 및 수질오염) 문제(NEV1)			.834
교통 및 주차 문제(NEV4)			.833
주변 경관이 훼손(NEV5)			.783
고유값(eigen value)	3.094	3.439	3.970
설명변량(%)	20.630	22.926	26.470
누적설명변량(%)	70.026	49.396	26.470
신뢰도(Cronbach's α)	.849	.882	.924

총 분산 설명력(%)=70.026%, KMO(Kaiser-Meyer-Olkin) =.90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X^2)=5824.383 (df=105, P<=.000)

주: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요인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맥스(Varimax) 회전

3. 확인적 요인분석과 모델의 평가

집중타당성은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외부적재치, Outer Loadings)’과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변수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 표준화된 외부적재치의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써 측정변수들의 설명력을 합산한 값을 의미하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성신뢰도(CR)와 Cronbach’s α 값의 일반적 수용기준은 0.6~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AVE)은 0.5 이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Fornel & Larcker, 1981).

반영지표 모형에서는 모든 잠재변수의 Cronbach’s α 와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Construct Reliability)는 0.7 이상,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0.5 이상이면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또한, 집중타당성의 경우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이 0.5 이상이고,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이 0.5~0.95 사이이나, 0.7 이상을 바람직하다고 본다(Chin, 1988; Nunally & Bernstein, 1994).

본 연구에 투입한 모든 잠재변수의 측정 문항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검사한 분석 결과는 <표 4-10>과 같으며, 모든 변수에 대한 요인적재량(외부적재치)은 0.698~0.907이며, Cronbach’s α 값은 0.849~0.934, 합성신뢰도(CR)는 0.891~0.944, 평균분산추출(AVE)값은 0.601~0.791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다.

<표 4-10>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명	측정 항목	요인적재량 (Outer Loadings)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지역사회 정체성 (CID)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함(ID1)	0.858	0.874	0.914	0.726
	매우 특별한 곳임(ID2)	0.907			
	지역 관련 이야기 많음(ID3)	0.788			
	지역 거주자의 자랑스러움(ID5)	0.858			
사회적 친분 (SBD)	지역 모임에 적극적 활동(SD1)	0.891	0.892	0.925	0.754
	지역의 친목 모임에 참여(SD2)	0.891			
	지역주민 많이 알고 지냄(SD3)	0.868			
	지역 사람들과 친하게 지냄(SD5)	0.822			

변수명	측정 항목	요인적재량 (Outer Loadings)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지역사회 의존성 (CDP)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 것(DP1)	0.836	0.893	0.926	0.757
	지역 이주 시 섭섭함(DP3)	0.883			
	일과 생활에 최적지(DP4)	0.857			
	타 지역보다 더 선호함(DP5)	0.904			
긍정적 경제 영향 (PECI)	고용기회 제공(PEC1)	0.873	0.934	0.950	0.791
	소득증가로 생활 수준 상승(PEC2)	0.907			
	지역 세수 증가(PEC3)	0.903			
	지역 투자 유치(PEC4)	0.888			
	지역 경제 활성화(PEC5)	0.875			
긍정적 사회문화 영향 (PSCI)	지역문화 정체성·자부심 상승(PSC1)	0.831	0.889	0.919	0.694
	타문화 교류·이해(PSC2)	0.838			
	주민 여가 기회 제공(PSC3)	0.770			
	공공시설·서비스 향상(PSC4)	0.899			
	지역주민의 삶 향상(PSC5)	0.824			
긍정적 환경영향 (PEVI)	문화역사지 보존 향상(PEV1)	0.826	0.923	0.938	0.683
	문화 활동지 향상(PEV2)	0.831			
	자연환경 보존 개선(PEV3)	0.767			
	사회기반 시설/공공 서비스 개선(PEV4)	0.870			
	주변 경관 관리 향상(PEV5)	0.839			
	생활환경 개선(PEV6)	0.829			
	유적지 보존(PEV7)	0.820			
부정적 경제 영향 (NECI)	물가·생활비 상승(NEC1)	0.840	0.849	0.891	0.623
	부동산·주택 가격 상승(NEC2)	0.805			
	지역 자본 유출(NEC3)	0.699			
	상품·서비스 가격 상승(NEC4)	0.848			
	세금 인상(NEC5)	0.743			

변수명	측정 항목	요인적재량 (Outer Loadings)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부정적 사회문화 영향 (NSCI)	미풍양속·고유문화 파괴(NSC1)	0.778	0.883	0.914	0.681
	퇴폐 문화·사행 심리 확산(NSC2)	0.781			
	각종 범죄 증가(NSC3)	0.880			
	사생활 침해 증가(NSC4)	0.847			
	주민·관광객들과 갈등(NSC5)	0.836			
부정적 환경영향 (NEVI)	각종 환경문제 심화(NEV1)	0.884	0.925	0.943	0.769
	자연(생태)환경 파괴(NEV2)	0.898			
	지역 혼잡 문제(NEV3)	0.881			
	교통·주차 문제(NEV4)	0.873			
	주변 경관 훼손(NEV5)	0.847			
친환경 행동의도 (IPB)	친환경제품 구매(IPB1)	0.762	0.867	0.900	0.601
	에너지 절약(IPBB2)	0.753			
	쓰레기 저감(IPB3)	0.698			
	환경정화 봉사활동 참여(IPB4)	0.792			
	환경문제 관련 대화(IPB5)	0.815			
	환경 관련 정보에 관심(IPB6)	0.825			
관광개발 지지도 (STD)	관광개발의 편익이 더 많음(ATT1)	0.814	0.931	0.944	0.678
	지역 관광개발은 희망적(ATT2)	0.858			
	관광은 지역발전에 이바지(ATT3)	0.871			
	관광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ATT4)	0.867			
	관광은 주민의 삶에 이바지(ATT5)	0.875			
	현재까지 관광개발 만족(ATT6)	0.762			
	추가 관광개발 지지(ATT7)	0.801			
	지역발전에 협조할 것(ATT8)	0.723			

상기 <표 4-10>은 반영적 측정지표들의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이다. 탐색적 요인분석(PCA)을 통해 총 4개의 신뢰도가 낮은 요인, 즉 지역사회 정체성(ID4), 사회적 친분(SD4), 지역사회의존성(DP2), 친환경 행동의도(IPB7)가 제거되었다. 그 밖의 요인들은 모든 지표에서 집중타당성과 신뢰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선행변수에 대해 1차 성분인 잠재변수들을 개념적으로 조작화하여, 2차성분(second-order components)에 담아 고차원의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위계적 성분모델(HCM, Hierarchical Components Model)을 시도하였다. 즉, 지역사회 정체성(CID), 사회적 친분성(SBD), 그리고 지역사회 의존성(CDP)은 2차성분인 지역사회 애착(CA)의 개념을 각각 반영하고, 긍정적 경제 영향(PECI), 긍정적 사회문화 영향(PSCI), 그리고 긍정적 환경영향(PEVI)은 2차성분인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PTI)의 개념을 반영하며, 부정적 경제 영향(NECI), 부정적 사회문화 영향(NSCI), 그리고 부정적 환경영향(NEVI)은 2차성분인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NPTI)의 개념을 반영하는 위계적 성분 모델을 구상하였다. 반영적 측정모델을 평가할 때 집중타당도를 보여주는 외부적재치의 적합성은 (outer loading relevance) 0.7 이상을 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0.4 이상, 0.7 미만의 값은 해당 측정 변수를 제거하여 CR 값이 0.7, AVE 값이 0.5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내용타당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거를 고려해야 한다(신건권, 2018; Hair et al, 2011).

〈표 4-11〉 Fornel-Larcker Criterion에 의한 반영지표의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CA	IPB	NTI	PTI	STD
CA	0.748				
IPB	0.391	0.776			
NTI	0.040	0.191	0.877		
PTI	0.337	0.271	-0.115	0.792	
STD	0.307	0.161	-0.155	0.692	0.823

〈표 4-12〉 Heterotrait-Monotrait Ratio(HTMT 비율)에 의한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CA	IPB	NTI	PTI	STD
CA					
IPB	0.431				
NTI	0.067	0.213			
PTI	0.359	0.299	0.129		
STD	0.332	0.177	0.167	0.738	

판별타당성의 기준으로 고려된 기준인 요인적재량(Cross-Loading)은 해당 구성요소 하위 지표의 외부적재치가 다른 요소들과 연계된 모든 적재치보다 커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며, 이 값은 일반적인 판별타당성 검증 수준에서 덜 보수적인 방법으로 인정받는다(Hair, Ringle & Sarstedt, 2011). 한편 Fornel-Larcker Criterion의 경우, 경험적 접근을 통해 잠재변수들이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가에 대한 것인데, Fornell Larcker (1981)가 제시한 방식으로 각 구성요소의 AVE 값의 제곱근과 잠재변수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방법인 Fornell-Larcker 의 기준으로 AVE 제곱근 값을 제시하여 0.7보다 높은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 또 다른 방식은 Heterotrait- Monotrait(HTMT) 상관 비율검정으로 그 자체가 판별타당성 검증에서 매우 엄격한 방식이며, 연구자들이 모델 구조와 보수적인 정도, 그리고 표본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0.85 또는 0.90)이 되는 추론의 임계치를 결정하기를 권하고 있다(Henseler et al., 2015).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실시한 판별타당도의 결과, <표 4-11>의 Fornel-Larcker Criterion 방식을 적용한 경우, 모든 구성요소는 0.70 이상의 결과치를 보여주고, Heterotrait-Monotrait(HTMT)의 방식을 적용한 <표 4-12>의 분석 결과에서도 보수적인 임계치 0.85를 기준으로 하여도, 모두 그 이하의 값으로 양쪽의 방식 모두 실시하여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차성분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판별타당도를 낮추는 측정변수들을 제거한 후의 분석 결과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신뢰도 평가 및 외부적재치를 활용한 집중타당성 분석을 통해 총 62개의 측정변수 중 이미 3개의 변수가 제거된 바 있는데, 판별타당도 분석에서 지역 사회 애착의 구성개념을 방해하는 측정변수 ID1과 SD2가,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에서는 모든 PSC(사회·문화적 영향) 변수가,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에서는 환경변수를 제외한 경제(NECI) 및 사회·문화(NSCI)가 모두 제거되어야 했다. 다음의 <표 4-13>에서 지역사회 애착도를 설명하는 측정변수 가운데 ID3, SD1 및 SD3는 외부적재치가 0.7보다 약간 낮은 값을 보이나, 해당 측정변수를 유지하더라도 CR과 AVE가 임계치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에 반영하는 측정변수로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광영향 인식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영역의 외부적재치는 해당 측정변수를 유지할 때 AVE의 평균이 0.5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측정변수의 분산이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정도가 절반 미만을 의미하는 것(신건권, 2018)이므로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4-13〉 반영적 측정모델 평가 결과

잠재 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내적일관성 신뢰도			판별 타당도
		외부 적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AVE	Cronhach's Alpha	rho_A	CR	HTMT
		> 0.70	> 0.50	> 0.50	0.60~ 0.90	> 0.70	0.60~ 0.90	신뢰구간에 1을 포함하지 않음
CA	ID2	0.784	0.615	0.560	0.912	0.914	0.927	예
	ID3	0.698	0.487					
	ID5	0.771	0.594					
	SD1	0.649	0.421					
	SD3	0.672	0.452					
	SD5	0.749	0.561					
	DP1	0.793	0.629					
	DP3	0.794	0.630					
	DP4	0.732	0.536					
	DP5	0.821	0.674					
PTI	PEC 1	0.757	0.573	0.627	0.940	0.941	0.949	예
	PEC 2	0.826	0.682					
	PEC 3	0.795	0.632					
	PEC 4	0.818	0.669					
	PEC 5	0.817	0.667					
	PEV 1	0.818	0.669					
	PEV 2	0.793	0.629					
	PEV 4	0.824	0.679					
	PEV 5	0.765	0.585					
	PEV 6	0.762	0.581					
PEV 7	0.727	0.529						
NTI	NEV 1	0.882	0.778	0.769	0.925	0.932	0.943	예
	NEV 2	0.901	0.812					
	NEV 3	0.880	0.774					
	NEV 4	0.870	0.757					
	NEV 5	0.851	0.724					

잠재 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내적일관성 신뢰도			판별 타당도
		외부 적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AVE	Cronhach's Alpha	rho_A	CR	HTMT
		> 0.70	> 0.50	> 0.50	0.60~0.90	> 0.70	0.60~0.90	신뢰구간에 1을 포함하지 않음
IPB	IPB1	0.760	0.578	0.601	0.867	0.873	0.90.	예
	IPB2	0.757	0.573					
	IPB3	0.713	0.508					
	IPB4	0.787	0.619					
	IPB5	0.809	0.654					
	IPB6	0.822	0.676					
STD	ATT1	0.814	0.663	0.677	0.931	0.933	0.944	예
	ATT2	0.858	0.736					
	ATT3	0.872	0.760					
	ATT4	0.867	0.752					
	ATT5	0.874	0.764					
	ATT6	0.759	0.576					
	ATT7	0.800	0.640					
	ATT8	0.726	0.527					

이로써, 연구모형은 판별타당도의 조건을 충족하고, 또한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인 SRMR(Standardised Root Mean Residual)이 0.8 미만을 보임에 따라(표 4-17 참조), 모든 잠재변수에서 1차 성분의 관측변수들이 5개~11개인 모델로 구성개념을 조작할 수 있도록 단순화함으로써 모형을 개선하였다. 위의 <표 4-13>은 최종적인 반영적 측정모델의 평가 결과이며, 이것으로 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3절 연구가설의 검증

1. 검증 방법(PLS-SEM 구조방정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은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측정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크게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식(CB-SEM, Co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과 최소자승법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PLS-SEM,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의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구모형의 확인적 성격이 강하며 모형의 크기가 작을 때는 CB-SEM 방식이, 연구모형의 탐색적 성격이 강하면서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PLS-SEM 방식이 권고되고 있다.

1974년부터 Wold(1974, 1980, 1982)에 의해 개발된 최소자승법(PLS)은 내적 요인 구성의 설명된 분산을 최대화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된 구조방정식 기술이다(Fornell & Bookstein, 1982). 모델이 샘플 데이터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얼마나 잘 추정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 기존의 이론을 확인하고자 하는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CB-SEM) 방법과는 달리 PLS-SEM의 작동 방식은 그 원리가 다중회귀분석과 매우 유사하다(Hair et al., 2011).

Wold(1982)와 Chin(1998)은 PLS-SEM이 경제학, 교육, 건강 관리 및 의학, 정치학, 화학과 같은 풍부한 데이터가 있는 고전적인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문항 수가 적은 경영·관리 및 기타 사회과학 분야일수록 2차 데이터(선행연구 자료)가 풍부하며, 과거와 달리 선행연구를 통한 분석자료들이 충분히 쌓여 가자, PLS 기법이 고전적인 학문보다는 실무적인 학문에 더욱 유리하게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Hair et al., 2014). 더불어, PLS-SEM 접근 방식은 조형적 지표를 통해 측정되는 잠재변수를 나타내는 모델이나 작은 모집단으로 인한 작은 표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원활한 모델 구성이 가능하여 적용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Rigdon, 2016; Hair et al., 2016).

또한, PLS-SEM을 통한 경로분석은 새로운 잠재변수, 지표 및 내부 모델 관계의 도입이나 생략과 같은 과정을 통해 모델 개선이 가능하여 예측 관련성에 관해서도 빠르고 쉬운 검증이

가능하므로 예측 지향 분석이나 복잡한 모델 및 2차 데이터나 빅데이터 등에 활용하는 것도 권장되고 있다(Gefen, Rigdon, & Straub, 2011; Rigdon, 2012, 2014).

PLS-SEM 분석 방법은 기존의 CB-SEM과 비교해 상대적인 표본 크기 및 잔차 분포에 대한 요구사항이 덜 엄격한 까닭에 탐색적인 연구와 복잡한 모델 분석 수행에 유리하며 (Chin, 1998), 고객만족도와 같이 일반적으로 비정규 분포를 이루는 자료들에 대한 개념들을 포함하는 연구모형 분석에 유리하고(Henseler & Sarstedt 2013), 보다 효율적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기능이 있어 일반적으로 높은 통계적 검증력을 보여서(Hair et al., 2011),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정보시스템, 회계 등의 여러 응용사회과학 영역에서 활발하게 그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Jarvis et al. 2003; Petter, Straub, & Rai, 2007).

PLS-SEM는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는 비모수 통계 분석법으로 데이터의 정규성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분석 전 데이터 왜도 및 첨도 등을 확인하여 데이터의 이상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기본이다(신건권, 2018). 본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이상치 및 결측치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전 검사 과정의 목적으로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규성 분석을 하였다.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히스토그램을 표준정규분포와 비교한 Kolmogorov-Smirnova Test와 오차항의 정규 분포를 확인하는 Shapiro-Wilk Test의 검정은 유의수준(p값)이 0.05보다 크면 정규성을 가정하게 된다. 검사 결과 유의수준(p값)이 모든 관측변수에서 0.00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자료들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가설을 확인하였으며, 정규성 분석 결과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4-14>와 같다.

〈표 4-14〉 정규성 분석 결과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수준	통계량	df	유의수준
ID1	.190	627	.000	.880	627	.000
ID2	.185	627	.000	.876	627	.000
ID3	.162	627	.000	.923	627	.000
ID5	.166	627	.000	.890	627	.000
SD1	.135	627	.000	.915	627	.000
SD2	.165	627	.000	.885	627	.000
SD3	.123	627	.000	.941	627	.000
SD5	.143	627	.000	.924	627	.000
DP1	.162	627	.000	.914	627	.000
DP3	.189	627	.000	.894	627	.000
DP4	.173	627	.000	.899	627	.000
DP5	.175	627	.000	.900	627	.000
PEC1	.172	627	.000	.900	627	.000
PEC2	.163	627	.000	.918	627	.000
PEC3	.177	627	.000	.909	627	.000
PEC4	.179	627	.000	.909	627	.000
PEC5	.180	627	.000	.903	627	.000
PSC1	.188	627	.000	.911	627	.000
PSC2	.178	627	.000	.913	627	.000
PSC3	.136	627	.000	.932	627	.000
PSC4	.186	627	.000	.907	627	.000
PSC5	.142	627	.000	.933	627	.000
PEV1	.146	627	.000	.930	627	.000
PEV2	.137	627	.000	.934	627	.000
PEV3	.122	627	.000	.931	627	.000
PEV4	.156	627	.000	.925	627	.000
PEV5	.143	627	.000	.930	627	.000
PEV6	.151	627	.000	.932	627	.000
PEV7	.131	627	.000	.938	627	.000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수준	통계량	df	유의수준
NEC1	.197	627	.000	.901	627	.000
NEC2	.204	627	.000	.878	627	.000
NEC3	.144	627	.000	.929	627	.000
NEC4	.194	627	.000	.900	627	.000
NEC5	.137	627	.000	.921	627	.000
NSC1	.132	627	.000	.942	627	.000
NSC2	.161	627	.000	.922	627	.000
NSC3	.155	627	.000	.924	627	.000
NSC4	.147	627	.000	.927	627	.000
NSC5	.152	627	.000	.935	627	.000
NEV1	.250	627	.000	.752	627	.000
NEV2	.206	627	.000	.839	627	.000
NEV3	.216	627	.000	.830	627	.000
NEV4	.270	627	.000	.742	627	.000
NEV5	.198	627	.000	.856	627	.000
ATT1	.142	627	.000	.945	627	.000
ATT2	.148	627	.000	.940	627	.000
ATT3	.171	627	.000	.929	627	.000
ATT4	.162	627	.000	.922	627	.000
ATT5	.175	627	.000	.939	627	.000
ATT6	.179	627	.000	.942	627	.000
ATT7	.142	627	.000	.934	627	.000
ATT8	.143	627	.000	.920	627	.000
IPB1	.180	627	.000	.917	627	.000
IPB2	.182	627	.000	.901	627	.000
IPB3	.227	627	.000	.834	627	.000
IPB4	.163	627	.000	.902	627	.000
IPB5	.145	627	.000	.924	627	.000
IPB6	.163	627	.000	.916	627	.000

2.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검증(PLS-SEM Path Analysis)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관광지 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의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지역사회 애착, 친환경 행동의도, 그리고 관광개발 지지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계된 연구모형은 SmartPL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LS-SEM의 PLS Algorithm 분석을 통해 각 경로의 효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해 준다. CB-SEM과 PLS-SEM의 가장 큰 차이는 분석의 목적에 있는데, CB-SEM은 논리의 적합성 검정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반해 PLS-SEM의 목적은 예측에 있다(Chin, 1998). 특히 계량심리적(psychometric) 차원에서 계량적인 지표가 없는 경우, PLS-SEM에서는 연구자가 설계한 모델에 대해 반영적 측정모형의 검증통계량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PLS-SEM 적합성 검증, 모델예측력 검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임성범, 2015). 내적일관성을 검증은 평균분산추출(AVE), 합성신뢰도(CR), 모형 신뢰성(Cronbach's alpha)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4-15〉 다중공선성(내부 VIF 값) 평가 결과

	CA	IPB	NTI	PTI	STD
CA		1.136			1.136
IPB					
NTI		1.020			1.020
PTI		1.149			1.149
STD					

구조모델에서는 다중공선성을 평가하는 내부 VIF값을 확인하여 5 이하의 값이 나오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상기 〈표 4-15〉와 같이 본 연구모형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내생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PLS Algorithm의 실행 시, 잠재변수 점수는 물론 이를 이용해 측정모델의 외부가중치(outer weights), 외부적재치(outer loadings)와 구조모델의 경로계수(path coefficients), 내생잠재변수의 R²(결정계수) 등의 추정이 가능하다. 결정계수는 0.50을 기준으로 설명력을 갖게 되며, 0.25는 약한 설명력, 0.75는 설명력이

크다고 본다.

다음의 <표 4-16>과 [그림 4-1]은 PLS-Algorithm으로 분석한 본 연구모형의 경로분석(Path Analysis) 및 가설검증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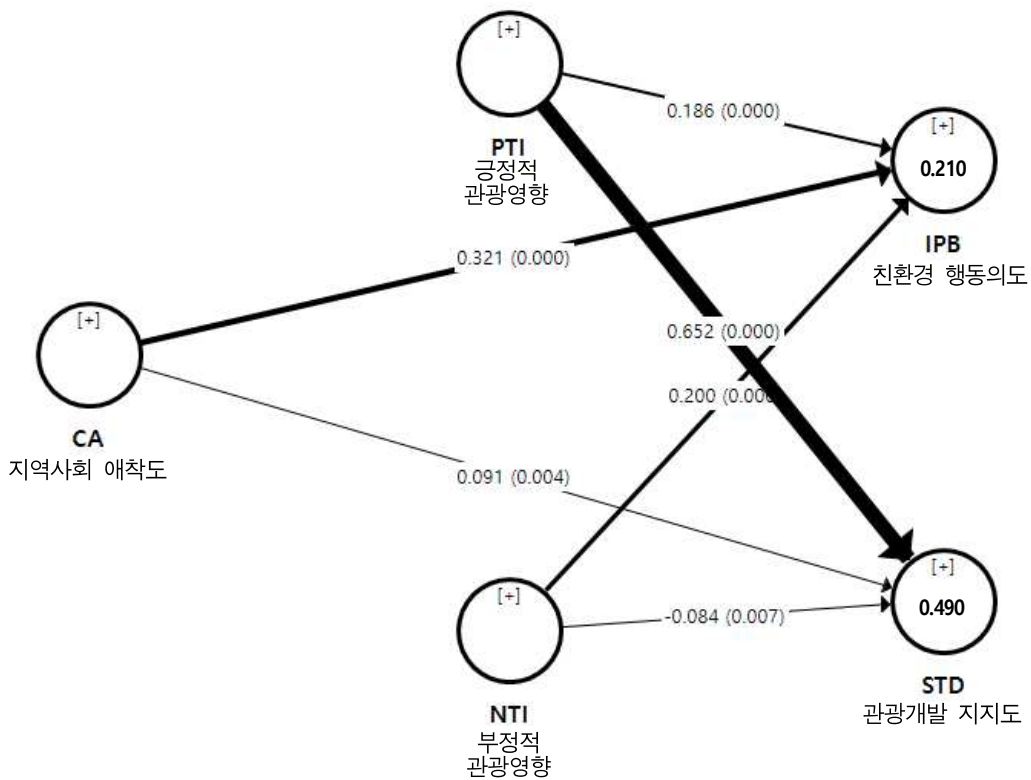
<표 4-16> 구조적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Value	P-value	가설검증
가설 H1. 지역애착도의 영향 관계					
H1-1	지역사회 애착도 → 친환경 행동의도(CA → IPB)	0.321	7.723	0.000	채택
H1-2	지역사회 애착도 → 관광개발 지지도(CA → STD)	0.091	2.848	0.004	채택
가설 H2.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의 영향 관계					
H2-1	긍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PTI → IPB)	0.186	4.161	0.000	채택
H2-2	긍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PTI → STD)	0.652	22.938	0.000	채택
가설 H3.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의 영향 관계					
H3-1	부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NTI → IPB)	0.200	5.015	0.000	채택
H3-2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NTI → STD)	-0.084	2.848	0.007	채택
잠재변수(Latent Variables)		결정계수(R²)		수정된 결정계수(R²)	
친환경 행동의도		0.214		0.210	
관광개발 지지도		0.492		0.490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은 총 6개로, 가설에 대한 경로계수 분석 결과는 [그림 4-1]과 같으며, 각 가설의 검증 결과 및 채택 여부는 상기 <표 4-16>과 같다. 지역사회 애착도는 친환경 행동의도(H1-1: 경로계수=0.321, t-Value=7.723)와 관광개발 지지도(H1-2: 경로계수=0.091, t-Value=2.848)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관광개발 지지도 보다는 친환경 행동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은 경제 및 환경의 편익을 측정하여 반영되었는데, 친환경 행동의도

(H2-1: 경로계수=0.186, t-Value=4.161)와 관광개발 지지도(H2-2: 경로계수=0.652, t-Value=22.938)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정된 결정계수로 본 설명력은 친환경 행동의도가 0.210으로 약한 설명력을, 관광개발 지지도는 0.490으로 중간 정도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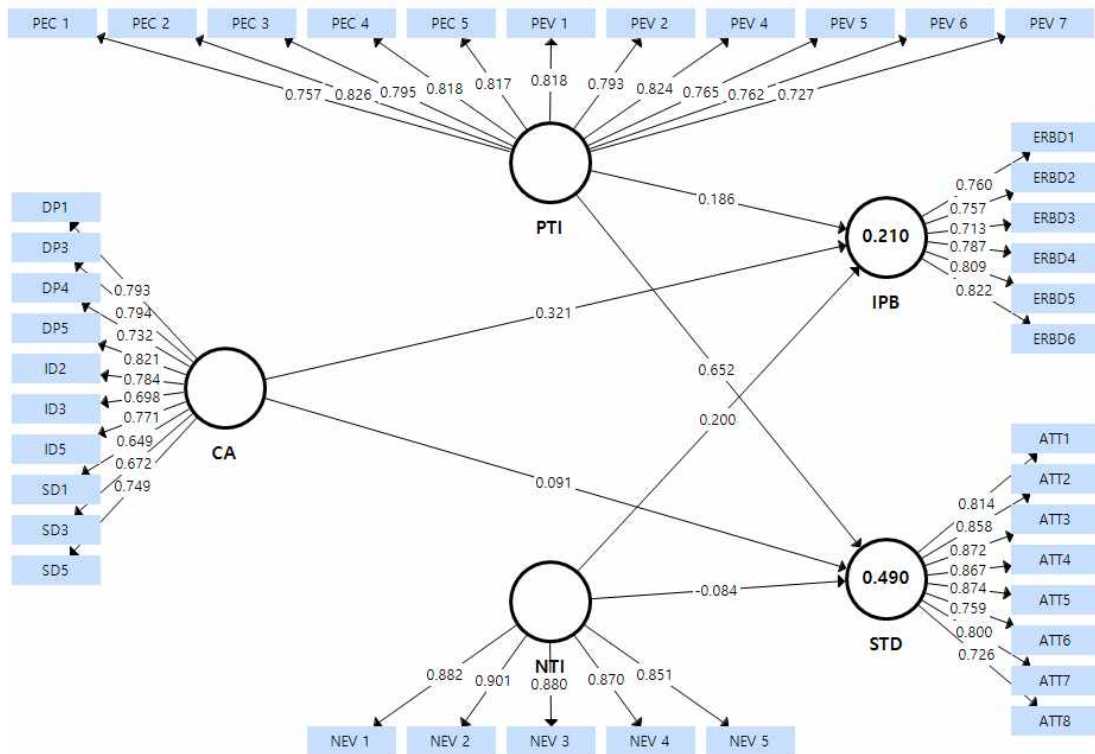


*p<0.05, *p<0.01, ***p<0.001

[그림 4-1] 연구모형 분석 결과

한편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은 환경비용이 측정변수로서 반영되었는데, 친환경 행동의도 (H3-1:경로계수=0.200, t-Value=5.015)와 관광개발 지지도(H3-2: 경로계수=-0.084, t-Value=2.848)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관광개발 지지도 보다는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과 특히 관광개발 지지도에는 부(-)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증명되었다.

다음의 [그림 4-2]는 본 연구모형에 활용된 각 측정변수의 외부가중치(적재치)와 경로효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 측정변수의 외부가중치/적재치와 경로효과 분석 결과

또한, 예측적 적합성(predictive relevance)에 대한 기준으로 R^2 과 함께 Stone-Geisser의 Q^2 (Construct Cross-validated Redundancy)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값은 누락 거리 D(omission distance)에 의한 블라인드폴딩(Blindfolding)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0보다 큰 Q^2 은 외생잠재변수가 내생잠재변수에 대해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0보다 작다면, 예측적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PLS-SEM 모델의 적합도(model fit)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SRMR 0.8 미만이다. 효과 크기(f^2)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 외생구성개념이 제거되었을 때 R^2 이 제거된 구성개념이 내생 구성개념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Hair, et al, 2017). 결론적으로 PLS-SEM에 서는 구조모델의 외생잠재변수 또는 예측변수가 내생잠재변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4-17>과 같다.

잠재변수의 예측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결정계수(Q^2)는 친환경 행동의도가 0.126, 그리고 관광개발 지지도는 0.328이며, SRMR은 0.062로 모두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다음

으로 f^2 값은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0.02는 작은 효과 크기, 0.15는 중간크기, 0.35 이상이면 효과가 크다고 본다(Chin, 1998; Cohen, 1988).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은 t 값의 유의수준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f^2 을 기준으로 한 경로효과에서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애착도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효과는 작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그보다는 크고, 중간 정도 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변수의 경로효과 역시 작은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연구모형의 적합성 분석 결과

잠재변수 (Latent Variables)	Q^2	SRMR
친환경 행동의도(IPB)	0.126	0.062
관광개발 지지도(STD)	0.328	
외생잠재변수 (Outer Latent Variables)	가설	f^2
지역사회 애착도 → 친환경 행동의도(CA → IPB)	H1-1	0.014
지역사회 애착도 → 관광개발 지지도(CA → STD)	H1-2	0.009
긍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PTI → IPB)	H2-1	0.038
긍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PTI → STD)	H2-2	0.729
부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NTI → IPB)	H3-1	0.050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NTI → STD)	H3-2	0.014

주 : SRMR<0.08, Q^2 >0, f^2 >0

3. 사회교환이론을 반영한 집단별 연구모형의 검정(PLS-MGA)

PLS-SEM 이전에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의 접근 방식은 대부분 두 그룹 간의 매개변수 차이를 테스트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한 쌍의 집단에서의 차이 분석과 달리 여러 집단으로 묶이는 경우, 즉 다중 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 집단에 대해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표본을 그룹화할 때 오류를 줄이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Bonferroni가 수정한 해결 방법은 비교된 집단의 오류율을 전체 비교 수로 나누어 집단 가족별 오류율을 유지하는 보수적인 방법이며, 그 대안으로 전체 F 검정을 수행하여 다른 그룹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은 ANOVA 분석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분포가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Hair et al., 2010; Sarstedt, Henseler, & Ringle, 2011). PLS-SEM의 프레임워크에서 여러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집단 가족(family)별 오류율을 유지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의 통계적 검정력을 제공하며, 분포가정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최적의 검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Sarstedt, Henseler, & Ringle,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같이 표본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경우, PLS-SEM의 다중집단분석(MGA, Multi-Group Analysis)은 그룹 특성별 요인에 따른 측정변수의 경로계수 간 차이가 유의한지를 분석하여 조절효과를 밝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다중그룹분석(PLS-MGA)에서는 사전 정의된 데이터 그룹에 대해 집단별 외부가중치, 외부 하중 및 경로계수 모수 추정치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수 있다. SmartPLS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그룹의 부트스트랩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편향이 수정된 신뢰구간을 계산법(Confidence Intervals-Bias Corrected)으로 PLS-SEM에서 모수의 그룹별 추정에 대한 편향이 보정된 신뢰구간을 계산하여,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으면 경로계수의 그룹별 결과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도출된다. 또한, 파라메트릭 테스트(Parametric Test) 방법은 그룹 간에 등분산을 가정하는 집단에서, Welch-Satterthwait 테스트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집단에서 각각 PLS-SEM 결과 분산의 차이에 대한 모수적 유의성 검정 방법이다. 부분최소제곱 다중그룹 분석(PLS-MGA) 방법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PLS-SEM 부트스트래핑 결과를 기반으로 다수의 집단 간 결과 차이에 대해 비모수적으로 유의성을 검정하게 되는데, 집단별 특정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해 p값이 0.05보다 작거나 0.95보다 큰 경우 5% 오차범위 수준에서 결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한다(Hair et al., 2018; Sarstedt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검정을 마친 후, 네 번째의 가설로서 인구특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을 그룹으로 묶은 뒤, 본 연구의 모형의 가설을 다시 한번 분석할 때, 집단별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총 5회 걸쳐 각기 다른 기준의 집단으로 형성된 그룹에 대해 PLS-MGA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가설검증의 채택 여부에 따라 모두 정리한 내용은 <표 4-18>과 같으며, 집단별 세부 분석내용을 추가로 제공한다.

<표 4-18> 경로별 다중집단분석 결과

그룹 구분	경로	지역사회	지역사회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가설 검증
		애착도 → 친환경 행동의도 (CA → IPB)	애착도 → 관광개발 지지도 (CA → STD)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PTI → IPB)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PTI → STD)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NTI → IPB)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NTI → STD)	

가설 H4. 인구특성 별 집단 간의 경로효과 차이

H4-1. 도시와 농촌		0.696	0.255	0.856	0.121	0.192	0.472	기각
H4-2. 성별		0.208	0.959	0.235	0.400	0.477	0.782	기각
H4-3. 관광업 종사 여부		0.997	0.936	0.611	0.961	0.887	0.496	기각
H4-4. 거주 기간	10년 이하 vs 30년 이상	0.723	0.011*	0.045*	0.495	0.600	0.002**	부분 채택
	11년~30년 vs 30년 이상	0.680	0.736	0.308	0.021*	0.049*	0.295	
H4-5. 출신지		0.075	0.177	0.905	0.953	0.124	0.031*	부분 채택

*p<0.05, *p<0.01, ***p<0.001

다중집단분석은 PLS Algorithm에 따른 원래의 경로계수(Total Effects Original)에 대한 각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 t-Test 값을 기준으로 새로운 p 값을 산출함으로써 가설검증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 H4-1, 4-2, 4-3으로 설정한 도농 간의 차이, 성별의 차이, 그리고 관광업 종사 여부에 따른 그룹 간의 경로효과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한편 거주 기간에 따라 대상자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세부 경로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출생지를 기준으로 한 그룹의 차이에서도 1개의 경로는 차이가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도시와 농촌 지역 다중집단분석(PLS-MGA by Region)

본 연구모형의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상에서 전체 627이 표본을 인구특성에 따라 2~3개의 집단으로 사전에 그룹을 생성하여야 한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제주시 동(洞)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그리고 중문지역을 도시(city)로 구분하고, 나머지 5개 읍면지역은 농촌(rural)의 범주에 넣어 2개의 범주형 자료를 생성하였다. 각각 표본의 수는 도시가 436명, 농촌이 191명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다중집단분석(MGA) 결과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① PLS-Algorithm을 이용한 Bootstrapping 결과로 도출된 집단 간 경로 계수의 차이를 살핀다. 즉, <표 4-19>의 경우 '지역사회 애착도(CA) → 친환경 행동의도(IPB)' 경로에 대한 '도시-농촌'의 계수 차이는 -0.034이다. 즉, 지역사회 애착도가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농촌 지역의 효과 값이 도시보다 더 크다는 의미로, 농촌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가 환경의식 또는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원래의 p 값과 새로운 p 값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③ '새로운 p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는 원래의 p 값이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양 집단 간의 효과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④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 4-19>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모형 안의 모든 경로계수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 지은 두 그룹 간의 경로계수의 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19> 다중집단분석 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효과 차이 비교

경로	p-Value (지역_도시) n=436	p-Value (지역_농촌) n=191	경로계수 차이 (도시 - 농촌)	새로운 p-Value (도시 vs 농촌)
지역사회 애착도 → 친환경 행동의도	0.000	0.000	-0.034	0.709
지역사회 애착도 → 관광개발 지지도	0.221	0.018	-0.075	0.255
긍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01	0.035	0.017	0.862
긍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00	0.000	-0.087	0.117
부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00	0.072	0.112	0.194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11	0.164	-0.043	0.471

*p<0.05, *p<0.01, ***p<0.001

본 연구의 통계 조사는 제주도의 8개 권역에서 표본을 수집하면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였으나, 전체 627개의 유효표본 중 성산읍과 표선면의 표본은 애초 할당된 표본과 수집된 표본의 수가 모두 30개를 넘지 않는 까닭에 단일그룹으로써 분석할 수 없을뿐더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 그룹의 표본 크기는 100개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 바(Schlittgen et al., 2016), 행정구역상 동(洞) 지역을 도시로, 읍면지역을 농촌으로 구분하여 그룹을 생성하게 되었다. Henseler(2012)은 아직은 PLS-MGA에서 그룹 간의 측정 불변성을 조사하기 위한 PLS 기반 접근법은 제시되지 않았기에, PLS-MGA를 통한 그룹 간의 효과 차이 분석 결과는 여타의 그룹 간 차이 분석 방법들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이 될 수 있으나, 그 결과에만 몰입하는 것에 대해 주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LS-MGA는 모집단 안의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특성을 관찰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써 최근 들어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Chin et al., 2020; Kock & Hadaya, 2018).

2) 남녀 그룹 다중집단분석(PLS-MGA by Gender)

다음은 다중집단분석을 통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남성은 299명, 여성은 328명으로 여성이 절반을 조금 더 넘는다. 다음의 <표 4-20>은 남성과 여성의 두 범주로 나누어진 표본에 대한 PLS-MGA의 경로별 분석 결과이다.

<표 4-20> 다중집단분석 결과: 남녀 그룹 간 효과 차이 비교

경로	p-Value (성별_남) n=299	p-Value (성별_여) n=328	경로계수 차이 (남 - 여)	새로운 p-Value (남 vs 여)
지역사회 애착도 → 친환경 행동의도	0.000	0.000	0.099	0.208
지역사회 애착도 → 관광개발 지지도	0.039	0.044	0.003	0.959
긍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31	0.000	-0.105	0.235
긍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00	0.000	-0.046	0.400
부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00	0.000	0.055	0.477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69	0.033	-0.017	0.782

*p<0.05, *p<0.01, ***p<0.001

결과적으로 모든 경로에 대해 성별 그룹에 따른 경로계수의 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경로계수가 더 크게 나타나, 응답자 중 여성들이 가진 관광의 경제 및 환경적 편익에 따른 친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가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관광산업 종사 여부 그룹 다중집단분석(PLS-MGA by Tourism Sector Engagement)

본 연구 조사의 응답자 중 총 117명은 관광업종과 관련이 있는 그룹이며 나머지 510명은 비관련 종사자이다. 이 두 집단에 대한 경로계수의 차이 결과는 다음의 <표 4-21>과 같다. 결과적으로 모든 가설의 경로에 대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비록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지역사회 애착도가 미치는 영향과 관광의 영향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효과에서 관광업 비종사자들의 계수가 더 높다는 것은, 관광업 종사자들보다 비종사자들이 해당 경로에 대하여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1> 다중집단분석 결과: 관광산업 종사 여부 그룹별 효과 차이 비교

경로	p-Value (비종사자) n=510	p-Value (종사자) n=117	경로계수 차이 (비종사자 - 종사자)	새로운 p-Value (종사자 vs 비종사자)
지역사회 애착도 → 친환경 행동의도	0.000	0.000	0.002	0.997
지역사회 애착도 → 관광개발 지지도	0.008	0.237	0.007	0.936
긍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00	0.019	-0.056	0.611
긍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00	0.000	0.006	0.961
부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00	0.053	-0.014	0.887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34	0.112	0.061	0.496

*p<0.05, *p<0.01, ***p<0.001

4) 거주 기간 그룹 다중집단분석(PLS-MGA by Residential Periods)

다음은 주민들을 거주 기간에 따라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각 그룹의 표본 크기를 고려하여, 총 3개의 그룹으로 범주화하는 데 있어, 제주도 출신의 주민들은 오래는 80년 이상 거주자도 있으며, 제주도 출신이 아닌 이주한 지역주민의 경우 10년 미만의 주민들도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10년과 30년을 기준 단위로 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표본 수는 각각 118명(10년 이하), 201명(11년~30년), 308명(30년 이상)이다.

분석 결과 <표 4-22>에서 보듯이, 10년 이하 거주 집단과 30년 이상 거주 집단 간의 주목할만한 경로효과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지역사회 애착도(CA) → 관광개발 지지도(STD)', '긍정적 관광영향(PTI) → 친환경 행동의도(IPB)', '부정적 관광영향(NTI) → 관광개발 지지도(STD)'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30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들은 11년~30년간 거주해온 주민들과 비교하여 '긍정적 관광영향(PTI) → 관광개발 지지도(STD)'와 '부정적 관광영향(NTI) → 친환경 행동의도(IPB)'의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래 거주한 주민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관광으로 인한 피해의식에 대해 더욱 민감하여 관광개발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을 조금 더 뚜렷이 드러낼 수 있고, 반면 거주한 지 30년이 안 되는 주민들의 경우 경제활동이 더 왕성한 세대일 확률이 높아, 자연적으로 관광산업의 긍정적인 효과 인식에 더욱 민감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22> 다중집단분석 결과: 거주 기간 그룹별 효과 차이 비교

경로	p-Value			경로계수 차이		새로운 p-Value	
	10년 이하 n=118	11년~30년 n=201	30년 이상 n=308	10년이하 - 30년이상	11년 ~30년 - 30년이상	10년이하 vs 30년이상	11년 ~30년 vs 30년이상
지역사회 애착도 → 친환경 행동의도	0.000	0.000	0.000	0.040	-0.038	0.723	0.680
지역사회 애착도 → 관광개발 지지도	0.387	0.003	0.001	-0.198	0.024	0.011*	0.736
긍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00	0.008	0.124	0.237	0.102	0.045*	0.308
긍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00	0.000	0.000	0.040	-0.152	0.495	0.021*
부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12	0.000	0.033	0.049	0.180	0.600	0.049*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00	0.649	0.131	-0.198	0.089	0.002**	0.295

*p<0.05, *p<0.01, ***p<0.001

이 분석 결과는 또한 3개 집단의 비교를 동시에 수행할 때 각 경로에 대해 총 3개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로, 본 분석은 30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만을 중심으로 나머지 두 집단과의 차이에 관한 결과만을 보고하고 있어서, 다른 두 집단 간의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5) 출신 지역 그룹 다중집단분석(PLS-MGA by Place of Birth)

PLS-MGA의 마지막 분석 요인은 출신 지역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이다. 본 연구의 응답자 627명 중 제주도에서 출생한 주민은 459명이며, 제주도 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주민은 총 168명이다. 이 두 집단 간의 PLS-SEM 연구모형 분석 결과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와 유의확률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23>과 같고, p값의 결과에 따르면 한 개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가설 경로에서 두 집단이 받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정적 관광영향(NTI) → 관광개발 지지도(STD)'의 경로에서 제주도 출신 주민들이 제주도 외 출신 주민(이주민)들과 비교해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해당 경로에 대하여 이 두 집단 간에는 그 영향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가설을 증명하게 되었다. 또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제주도 출신 주민들이 부정적인 관광의 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주도 외 출신 주민들은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다중집단분석 결과: 출신 지역 그룹별 효과 차이 비교

경로	p-Value (제주도) n=459	p-Value (제주도 외) n=168	경로계수 차이 (제주도- 제주도 외)	새로운 p-Value (제주도 vs 제주도 외)
지역사회 애착도 → 친환경 행동의도	0.000	0.000	-0.172	0.075
지역사회 애착도 → 관광개발 지지도	0.001	0.641	0.100	0.177
긍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01	0.044	-0.012	0.905
긍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00	0.000	-0.002	0.953
부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00	0.129	0.131	0.124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139	0.000	0.130	0.031*

*p<0.05, **p<0.01, ***p<0.001

4.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Analysis of Demographic Differences)

1)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Differences by Residential Area)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 인식의 영향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애착,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관광개발 지지도, 친환경 행동의도를 잠재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역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으로 지역변수를 들어 8개 연구 대상 지역주민의 인식을 잠재변수에 따라 비교하고자 하였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24>와 같다.

8개 지역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에 관한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애착도($F=5.058$, $p<0.001$), 긍정적 관광영향($F=2.339$, $p<0.1$), 관광개발 지지도($F=5.248$,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Scheffe의 사후검정(Post-hoc Test)을 통해 지역별 인식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성산읍(5.57), 애월읍(5.03), 한림읍(5.02), 조천읍(4.93), 표선면(4.93), 서귀포시 동지역(4.77), 중문지역(4.65), 제주시 동지역(4.47)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관광의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지역은 성산읍(5.34), 조천읍(5.24), 제주시 동지역(5.03), 서귀포시 동지역(4.90), 한림읍(4.82), 중문지역(4.80), 표선면(4.77), 애월읍(4.60) 순이다. 관광개발 지지도, 즉 향후의 관광개발에 대한 찬성 의지를 가장 높게 보인 지역은 성산읍(5.66), 조천읍(4.93), 표선면(4.63), 서귀포시 동지역(4.58), 중문지역(4.51), 한림읍(4.41), 제주시 동지역(4.29), 애월읍(4.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 애착에 대하여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드러났는데, 총 5개의 변수의 지역별 비교에서 4개 항목에 대해 성산읍의 평균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제주시 동지역, 애월읍, 중문지역의 평균이 여러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애월읍 주민들의 경우는 지역사회 애착도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으며 동시에 부정적인 관광영향의 인식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증명하듯이 관광개발 지지도 역시 8개 지역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보임으로써 성산읍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행동의도는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4〉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기술분석)

	지역구분	n	평균 (M)	표준편차 (SD)	F	P	사후검정 (Scheffe)
지역사회 애착도	7. 성산읍	29	5.57	0.83	5.058	.000***	1<5<6<8 <2<4<3<7
	3. 애월읍	57	5.03	1.17			
	4. 한림읍	42	5.02	1.16			
	2. 조천읍	39	4.93	1.09			
	8. 표선면	24	4.93	1.34			
	6. 서귀포시 동지역	121	4.77	1.08			
	5. 중문지역	54	4.65	1.36			
긍정적 관관영향	1. 제주시 동지역	261	4.47	1.22	2.339	.023*	3<8<5<4 <6<1<2<7
	7. 성산읍	29	5.34	0.98			
	2. 조천읍	39	5.24	1.17			
	1. 제주시 동지역	261	5.03	1.00			
	6. 서귀포시 동지역	121	4.90	1.01			
	4. 한림읍	42	4.82	1.03			
	5. 중문지역	54	4.80	1.22			
부정적 관관영향	8. 표선면	24	4.77	1.35	1.060	.388	5<8<1<2 <6<4<7<3
	3. 애월읍	57	4.60	1.28			
	7. 성산읍	29	5.31	1.26			
	4. 한림읍	42	5.30	1.12			
	6. 서귀포시 동지역	121	5.22	0.88			
	2. 조천읍	39	5.18	1.16			
	1. 제주시 동지역	261	5.08	0.87			
관광개발 지지도	5. 중문지역	54	4.96	1.14	5.248	.000***	3<1<4<5 <6<8<2<7
	7. 성산읍	29	5.66	1.03			
	2. 조천읍	39	4.93	1.47			
	8. 표선면	24	4.63	1.36			
	6. 서귀포시 동지역	121	4.58	1.26			
	4. 한림읍	42	4.41	1.37			
	1. 제주시 동지역	261	4.29	1.43			
친환경 행동의도	3. 애월읍	57	4.14	1.24	1.050	.395	4<6<5<1 <8<2<3<7
	7. 성산읍	29	5.47	0.94			
	3. 애월읍	57	5.43	0.97			
	2. 조천읍	39	5.36	1.13			
	8. 표선면	24	5.35	0.99			
	1. 제주시 동지역	261	5.29	1.11			
	5. 중문지역	54	5.26	1.08			
6. 서귀포시 동지역	121	5.11	1.03				
4. 한림읍	42	5.05	1.16				

*p<0.05, **p<0.01, ***p<0.001

2) 성별에 따른 차이(Differences by Gender)

본 연구의 5개 잠재변수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은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25>와 같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요인별로 살펴볼 때, 부정적인 관광영향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에 평균 차이가 보이며, 여성(5.22)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성(5.08)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는 등 모든 변수에서 여성들의 인식 평균이 남성보다 높게 표출되는데, 관광개발 지지도에서만 남성(4.53)이 여성(4.42)보다 조금 더 찬성의 의지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평균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측정 변수는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4-25>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기술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M)	표준편차 (SD)	t-Value	유의수준
지역사회 애착도	남	299	4.72	1.24	-0.089	.495
	여	328	4.73	1.18		
긍정적 관광영향	남	299	4.94	1.11	-0.235	.323
	여	328	4.96	1.06		
부정적 관광영향	남	299	5.08	1.02	-1.735	.323
	여	328	5.22	0.938		
관광개발 지지도	남	299	4.53	1.39	0.965	.592
	여	328	4.42	1.37		
친환경 행동의도	남	299	5.17	1.10	-2.197	.772
	여	328	5.35	1.04		

*p<0.05, **p<0.01, ***p<0.001

3) 관광산업 종사 여부에 따른 차이(Differences by Tourism Sector Engagement)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관광업종과 무관한 주민들 사이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 5개의 비교 변수에 대하여 종사자와 비종사자 인식의 평균값에 대해 독립표본 t-Test의 실시 결과는 <표 4-26>과 같다.

결과적으로 모든 변인에 대해 관광산업 종사자와 비종사자 간의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애착도에 있어 종사자(4.68)의 평균보다는 비종사자(4.74)의 평균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은 종사자(5.18)들의 평균이 비종사(4.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에서도 종사자(4.82)들의 평균이 비종사자(4.40)들의 평균보다 높게 나와 개발에 대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개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6〉 관광산업 종사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기술분석)

구분	관광산업 관련	n	평균 (M)	표준편차 (SD)	t-Value	유의수준
지역사회 애착도	종사자	117	4.68	1.21	-0.464	.461
	비종사자	510	4.74	1.21		
긍정적 관광영향	종사자	117	5.18	1.02	2.507	.112
	비종사자	510	4.90	1.10		
부정적 관광영향	종사자	117	5.12	0.98	-0.433	.257
	비종사자	510	5.16	0.98		
관광개발 지지도	종사자	117	4.82	1.30	3.007	.113
	비종사자	510	4.40	1.38		
친환경 행동의도	종사자	117	5.24	0.99	-0.232	.206
	비종사자	510	5.27	1.09		

*p<0.05, **p<0.01, ***p<0.001

4)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Differences by Residential Periods)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거주 기간에 대한 문항을 선택형 질문이 아닌 연한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최소 1년에서 최대 83년까지 627건에 대한 거주 기간의 분류는 10년 단위로 할 때 9개의 변인이 도출되어 유의한 통계치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에 전체적으로 비교할만한 인구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10년 이하, 11년~30년, 그리고 30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의 응답자 627명 중 제주도 출생 지역주민들의 비율이 73.21%(459명)를 차지하는 만큼, 이주민의 비율이 높지 않음에 따라 10년 미만의 기간을 세분하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거주 기간은 10년과 30년을 기준으로 한 세 개의 그룹으로 보고, 각 기간에 따른 5개 잠재변수 간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27〉과 같다.

거주 기간별 주민들의 인식에 관한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애착($F=26.157, p<0.001$), 부정적 관광영향($F=17.627, p<0.001$), 관광개발 지지도($F=4.165, p<0.05$), 그리고 친환경 행동의도($F=10.129,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Post-hoc Test)을 통해 그룹별 인식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7〉 거주 기간 분류에 따른 차이 분석(기술분석)

	거주 기간	n	평균 (M)	표준편차 (SD)	F	P	사후검정 (Scheffe)
지역사회 애착도	10년 이하(a)	118	4.42	1.18	26.157	.000***	b<a<c
	11년~30년(b)	201	4.39	1.12			
	30년 이상(c)	308	5.07	1.18			
긍정적 관광영향	10년 이하(a)	118	5.11	1.02	1.783	.169	b<c<a
	11년~30년(b)	201	4.88	1.01			
	30년 이상(c)	308	4.93	1.15			
부정적 관광영향	10년 이하(a)	118	4.99	0.89	17.672	.000***	b<a<c
	11년~30년(b)	201	4.89	0.95			
	30년 이상(c)	308	5.38	0.98			
관광개발 지지도	10년 이하(a)	118	4.80	1.25	4.165	.016*	b<c<a
	11년~30년(b)	201	4.39	1.35			
	30년 이상(c)	308	4.41	1.42			
친환경 행동의도	10년 이하(a)	118	5.38	1.05	10.129	.000***	b<a<c
	11년~30년(b)	201	4.99	1.14			
	30년 이상(c)	308	5.40	1.00			

* $p<0.05$, ** $p<0.01$, *** $p<0.001$

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5.07), 10년 이하 거주민(4.46), 11년~30년간 거주한 주민(4.36)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10년 이하 거주민(5.11)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4.93), 그리고 11년~30년간 거주한 주민(4.88)이 비교적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관광개발에 대한 찬성 의지를 가장 높게 보인 주민들은 10년 이하 거주민(4.80)이며, 다음으로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4.41), 11년~30년간 거주한 주민(4.396)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행동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5.40)이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하 거주민(5.38), 11년~30년간 거주한 주민(4.99) 순으로

드러났다.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는 거주 기간에 따라 그룹화한 모든 지역주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10년 이하 거주민(5.11)들의 평균이 근소하게나마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30년 이상 거주민(4.93), 11년~30년간 거주한 주민(4.88) 순서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각 잠재변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낸 주민들 가운데에는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과 10년 이하 거주한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Differences by Place of Birth)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출신 지역에 대해 잠재변수에 대한 차이 분석은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28>과 같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 대해 제주도 출신과 제주도 외 출신 주민들이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요인별로 살펴볼 때, 제주도 출신 주민들이 지역에 착도(4.82)와 부정적인 관광영향(5.20)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 제주도 외 출신 주민들보다 높았고, 반면 제주도 외 출신 주민들의 경우는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5.12)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관광개발 지지도(4.72) 그리고 친환경 행동의도(5.42)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출신 지역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4-28>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 분석(기술분석)

구분	출신지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 (SD)	t-Value	유의수준
지역사회 애착도	제주도	459	4.82	1.17	3.123	.169
	제주도 외	168	4.48	1.27		
긍정적 관광영향	제주도	459	4.88	1.11	-2.438	.330
	제주도 외	168	5.12	1.00		
부정적 관광영향	제주도	459	5.20	1.01	1.884	.131
	제주도 외	168	5.03	0.88		
관광개발 지지도	제주도	459	4.39	1.42	-2.649	.050
	제주도 외	168	4.72	1.23		
친환경 행동의도	제주도	459	5.21	1.087	-2.183	.215
	제주도 외	168	5.42	1.03		

*p<0.05, **p<0.01, ***p<0.001

5. 지역주민의 유형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1)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주된 목적은 자료의 개성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는 데이터 간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변수 간의 상관행렬에서 공통요인을 추출하여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공통요인과의 관계를 발견하여 더욱 간결하게 요인 기술해 내는 것이다.

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 방법은 데이터의 양을 줄여 간략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떠한 구조 관계를 밝혀내고자 할 때, 또는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측정변수들이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리고 상관관계가 낮은 불필요한 요인들을 제거할 때도 활용된다. 변수들이 다수의 요인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요인에 속하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회전을 통해 요인의 차원을 변경시켜보면, 가장 부하량이 높은 요인이 나타나고, 이렇게 회전과 차원을 축소하는 방식이 주성분 분석의 과정으로 요인회전은 배리맥스 직각 회전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주성분 분석과 달리 일반적인 요인분석(FA, Factor Analysis)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잠재된 요인들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몇 개의 유사한 변수들 모여 각각의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하므로 변수의 개수는 고려할 필요 없는 비슷한 요인들을 결집하는 결과만을 얻게 된다(노형진, 2014).

군집분석을 위해 유사한 요인들끼리 묶기 위해서는 주성분 분석을 통한 탐색이 필요한데, 본 연구의 기반 이론인 확장된 사회교환이론(SET)을 구성하는 '경제 편익', '사회·문화 편익', '환경 편익', '경제 비용', '사회·문화 비용', '환경 비용'의 6가지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 32개 문항을 대상으로 배리맥스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진행하였다.

2)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관련 항목에 대한 군집분석

지금까지 본 연구에 대한 응답자에 대한 다섯 가지의 잠재변수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사회교환이론에 따른 응답자들의 인식 차이에 대해 개별 응답자들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관광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의 요인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군집을 나누어 각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는 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관광영향 인식 속성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변수들을 요인들의 선형결합으로 가정하는 방법으로 직각 회전을 통해 각 요인행렬의 분산 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요인을 단순화하게 된다(이학식·임지훈, 2017). 이에 따른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여 추출된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하여 도출해낸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4-29> 및 <표 4-30>과 같다.

총 32개의 관광영향 인식 관련 항목에 대한 1차 요인분석 결과, 여섯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추출된 6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1부터 6까지 신뢰도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0.6 이상)인 0.849~0.934로 도출되어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29> 관광영향 인식 항목의 고유값 및 (누적)분산 설명 비율

요인명(Factor)	고유값 (Eigen Value)	분산 설명 비율 (%)	누적 분산 설명 비율 (%)
요인1. 정서풍요 추구형	5.185	16.202	16.202
요인2. 사회문제 우려형	4.319	13.497	29.699
요인3. 경제실리 추구형	4.126	12.894	42.593
요인4. 실리문제 우려형	3.511	10.971	53.564
요인5. 환경실리 추구형	2.990	9.345	62.909
요인6. 환경문제 우려형	2.617	8.177	71.086

신뢰도 분석이 완료된 총 32개 전체의 관광영향 인식 관련 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KMO (Kaiser-Meyer-Olkin)값은 .917,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결과는 $\chi^2=14225.778$, 자유도 (df)=496, $p<.000$ 으로 모두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1개의 항목에서 최저치 .490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은 .050~.865로 모두 .50 이상으로 관련 항목들이 모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수에 대해 추출된 요인에 의하여 그 변수에 담겨진 정보를 설명하는 비율 나타내는 공통성(Communalities)은 .526 ~.834로 모두 임계치인 .40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분산 총합, 즉 요인별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 값을 제공하여 더한 고유값(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4-30〉 관광영향 인식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Factor)	항목 (Item)	평균 (Mean)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s)	공통성 (Communality)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요인 1. 정서풍요 추구형	주민의 문화 활동 기회 증진	4.766	0.822	0.751	0.921
	지역의 공공 인프라 향상	4.475	0.804	0.708	
	문화역사 의식 고양	4.890	0.803	0.756	
	자연환경 보존에 유익	4.683	0.780	0.718	
	주민의 삶의 질 향상	4.364	0.738	0.672	
	지역문화 정체성과 자부심 증가	4.793	0.696	0.679	
	공공시설 및 서비스 개선	4.893	0.690	0.702	
요인 2. 사회문제 우려형	주민 간·관광객과의 갈등 초래	5.745	0.855	0.787	0.934
	환경문제(쓰레기·소음·대기·수질오염) 증가	6.062	0.843	0.763	
	각종 범죄 증가	5.962	0.842	0.764	
	사생활 침해	5.679	0.835	0.774	
	자연(생태계)환경 파괴	5.514	0.790	0.730	
요인 3. 경제실리 추구형	타문화 교류 및 이해증진	5.242	0.832	0.790	0.893
	지역 세수 확대	5.514	0.831	0.730	
	지역에 투지 유치 증진	5.514	0.794	0.730	
	주민 여가 기회 향상	4.762	0.683	0.651	
	지역 경제 활성화	4.890	0.667	0.652	
	고용기회 증가	5.514	0.525	0.730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	5.514	0.490	0.730	
요인 4. 실리문제 우려형	세금 인상	4.737	0.865	0.791	0.882
	미풍양속 파괴	4.699	0.822	0.739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상승	4.898	0.759	0.674	
	사행성(퇴폐) 문화 확산	4.435	0.757	0.670	
	지역 자본 유출	4.159	0.744	0.699	
요인 5. 환경실리 추구형	생활환경 개선	5.397	0.789	0.686	0.849
	물가·생활비 상승	5.190	0.770	0.716	
	주변 경관 개선	5.198	0.744	0.680	
	유적지 보존에 유익	4.732	0.553	0.526	
	부동산주택가격 상승	4.930	0.500	0.530	
요인 6. 환경문제 우려형	주변 경관 훼손	4.565	0.828	0.834	0.896
	지역 혼잡 유발	4.311	0.825	0.775	
	교통 및 주차 문제 심화	4.426	0.814	0.827	

KMO=.917, Bartlett's Chi-Square=14225.778(df=496, p<.000)

또한, 이 여섯 개의 요인들이 전체분산의 71.08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검증 결과를 거쳐 도출된 여섯 개의 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요인 1은 관광영향 인식에 대하여 관광의 긍정적인 사회·문화 및 환경의 편익 영향에 민감한 그룹으로 “정서풍요 추구형”으로 구분하였다. 요인 2는 관광의 부정적인 사회·문화와 환경적 비용 영향에 민감한 그룹으로 “사회문제 우려형”으로 이름 지었다. 요인 3은 관광의 경제적 편익을 중시하는 그룹으로 “실리적 편익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관광영향 인식에 대하여 관광의 경제, 사회·문화 비용을 걱정하는 그룹으로써 “실리문제 우려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은 관광의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편익을 동시에 관심 갖는 그룹으로 “환경실리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6의 경우 관광영향 인식에 대하여 관광의 환경적인 비용에 집중적 관심을 두고 있는 그룹으로 나타나 “환경문제 우려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4-31〉 관광영향 인식 요인의 군집분석 결과

요인 \ 군집	군집 1. (n=181)	군집 2. (n=295)	군집 3. (n=151)	F Value	P Value
요인1. 정서풍요 추구형	.05880	-.13397	.19124	5.809	.003**
요인2. 사회문제 우려형	.71773	.24402	-1.33705	484.367	.000***
요인3. 경제실리 추구형	.13084	.03779	-.23067	5.867	.003**
요인4. 실리문제 우려형	-.55981	.47946	-.26566	85.943	.000***
요인5. 환경실리 추구형	-.81838	.58259	-.15721	175.163	.000***
요인6. 환경문제 우려형	-.14959	.09012	.00325	3.247	.040*
군집명	실리형	비판형	미래형		

*p<0.05, **p<0.01, ***p<0.001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대상별 그룹을 분류하는 분석 방법으로, 두 점의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찾아내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적절한 군집의 개수를 파악한 후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가까운 거리의 대상들을 포함하여 군집을 형성하여 도출하는 방법이다. 요인분석을 기반으로 대상자들의 유형이 결정되면, 각 군집에 속하는 개체들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하여 근접한 거리에 있는 개체를 묶어서 분할하게 되는데, K-평균 군집분석은 자료에 있는 각 개체를 유사한 특성에 따라 K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비계층적 군집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방법의 하나이다(Hartigan, 1974).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은 각 군집의 표본이 100개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노경섭, 2017), 여러 차례 반복을 시행한 결과 3개의 군집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 거쳐 결정된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1의 경우 “실리형”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경제적·환경적 실리(편익)적인 면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집단으로 관광을 통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편익을 중시하며, 관광이 주변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에 민감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군집 2는 ‘문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집단으로 관광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경제적 비용, 환경적으로 입는 피해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유형으로 묶여서, “비판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의 경우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중시하는 성향으로 경제적 편익과 함께 사회·문화·환경의 모든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관광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는바, “미래형”이라 명명하였다. 계층적,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분석 결과는 상기 <표 4-31>과 같으며, 각각의 군집별로 명명한 실리형(181명), 비판형(295명), 그리고 미래형(151명)으로 묶였다.

<표 4-32> 관광영향 인식 군집의 판별분석 결과

판별함수	고유값	분산의 %	정준상관 계수	Wilk's Lamda	Chi-Sq	유의수준
함수 1	1.831	56.6	.804	.147	1191.869	.000***
함수 2	1.404	43.4	.764	.416	545.140	.000***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 계수

함수	정서풍요 추구형	사회문제 우려형	경제실리 추구형	실리문제 우려형	환경실리 추구형	환경문제 우려형
1	-.089	.963	.269	-.230	-.437	-.122
2	-.258	.329	.082	.804	.876	.167

군집	실리형	비판형	미래형	계	Hit Ratio
1	177(97.8%)	3(1.0%)	1(0.6%)	181(100.0%)	98.4%
2	5(1.7%)	290(98.3%)	0(0.0%)	295(100.0%)	
3	0(0.0%)	1(0.7%)	150(99.3%)	151(100.0%)	

***p<0.001

상기 두 단계의 군집분석 실행 후, 분류된 군집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거쳐야 하는데, 대상 군집이 세 개 이상일 때, 집단 내 분산에 비례하여 집단 간 분산의 차이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계수를 찾아 독립변수 간의 판별 함수를 구하는 것이 다중판별 분석의 원리이다. 구해진 판별함수의 전반적인 적합도에 대한 유의성을 점검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설명력을 제시하면, 해당 군집분석의 결과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집분석의 설명력은 0~1 사이의 값으로 Hit Ratio라고 하며, 이는 회귀분석의 R^2 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이학식·임지훈, 2017). 설명력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사회교환이론에서 논해온 관광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인식 요인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 대상인 전체 627명의 응답자를 요인별 유형으로 분류한 뒤, 6개의 잠재변수의 특징에 따라 군집화한 한 결과,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표본들은 다시 3개의 군집으로 묶였으며, 그 3개 군집이 표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적합한 집단끼리 모여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판별분석의 결과는 위의 <표 4-32>와 같다.

군집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 < .000$), 정확도(Hit Ratio)는 98.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 1 '실리형'은 전체 181명 중 4명을 제외한 177명(97.8%)의 정확도를 보였고, 군집 2 '비판형'의 경우 전체 295명 중 5명을 제외한 290명(98.3%)의 정확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3 '미래형'은 151명 중 1명을 제외한 150명(99.3%)을 정확히 판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관광영향 인식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군집분석을 통해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된 관광영향 인식 유형별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33>과 같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수가 많은 군집 2(비판형)이 41.8%~83.3%의 비율을 차지하며 지역마다 높게 퍼져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천읍(76.9%), 성산읍(65.5%), 표선면(87.5%)에는 군집 2(실리형)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제주도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한림읍에서는 군집 3(미래형)의 비율이 26.2%~30.7%로 타지역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중문지역과 표선면으로 각각 비판형 집단과 실리형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요인의 경우 평균에서도 유의한 인식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군집의 비율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여성(30.5%) 쪽에서 군집 2(실리형)의 비율이 남성(27.1%) 쪽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4-33〉 관광영향 인식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교

단위 : 명(%)

구분	내용	실리형 n=181(28.8)	비관형 n=295(47.05)	미래형 n=151(24.08)	계 n=627(100.0)
지역	제주시 동지역	72(27.6)	109(41.8)	80(30.7)	261(100.0)
	조천읍	30(76.9)	2(5.1)	7(17.9)	39(100.0)
	애월읍	17(29.8)	32(56.1)	8(14.0)	57(100.0)
	한림읍	7(16.7)	24(57.1)	11(26.2)	42(100.0)
	중문지역	3(5.6)	45(83.3)	6(11.1)	54(100.0)
	서귀포시 동지역	12(9.9)	72(59.5)	37(30.6)	121(100.0)
	성산읍	19(65.5)	10(34.5)	0(0.0)	29(100.0)
	표선면	21(87.5)	1(4.2)	2(8.3)	24(100.0)
성별	남	81(27.1)	144(48.2)	74(24.7)	299(100.0)
	여	100(30.5)	151(46.0)	77(23.5)	328(100.0)
연령	10대	14(32.6)	12(27.9)	17(39.5)	43(100.0)
	20대	30(31.3)	37(38.5)	29(30.2)	96(100.0)
	30대	23(24.0)	51(53.1)	22(22.9)	96(100.0)
	40대	39(30.0)	62(47.7)	29(22.3)	130(100.0)
	50대	37(31.4)	63(53.4)	18(15.3)	118(100.0)
	60대	23(27.7)	43(51.8)	17(20.5)	83(100.0)
	70대 이상	15(24.6)	27(44.3)	19(31.1)	61(100.0)
학력	중졸 이하	30(35.7)	32(38.1)	22(26.2)	84(100.0)
	고졸	39(37.5)	48(46.2)	17(16.3)	104(100.0)
	전문대학 재학/졸업	24(28.6)	44(52.4)	16(19.0)	84(100.0)
	대학교 재학/졸업	63(27.2)	102(44.0)	67(28.9)	232(100.0)
	대학교 재학/졸업	25(20.3)	69(56.1)	29(23.6)	123(100.0)
소득	100만 원 미만	42(33.3)	38(30.2)	46(36.5)	126(100.0)
	100~199만 원	30(26.5)	64(56.6)	19(16.8)	113(100.0)
	200~299만 원	48(30.2)	87(54.7)	24(15.1)	159(100.0)
	300~399만 원	27(27.0)	48(48.0)	25(25.0)	100(100.0)
	400~499만 원	14(22.6)	32(51.6)	16(25.8)	62(100.0)
	500만 원 이상	20(29.9)	26(38.8)	21(31.3)	67(100.0)
직업	사무직	47(31.3)	81(54.0)	22(14.7)	150(100.0)
	전문직	22(28.2)	44(56.4)	12(15.4)	78(100.0)
	기술직	8(24.2)	14(42.4)	11(33.3)	33(100.0)
	판매·서비스직	6(17.1)	22(62.9)	7(20.0)	35(100.0)
	자영업	26(38.8)	31(46.3)	10(14.9)	67(100.0)
	전업주부	18(47.4)	13(34.2)	7(18.4)	38(100.0)
	학생	26(29.2)	24(27.0)	39(43.8)	89(100.0)
	농업·어업·임업 종사	11(29.7)	17(45.9)	9(24.3)	37(100.0)
	기타	17(17.0)	49(49.0)	34(34.0)	100(100.0)
관광업	관광업종	15(12.8)	71(60.7)	31(26.5)	117(100.0)
	비관광업종	166(32.5)	224(43.9)	120(23.5)	510(100.0)
출신지	제주도	142(30.9)	214(46.6)	103(22.4)	459(100.0)
	제주도 외	39(23.2)	81(48.2)	48(28.6)	117(100.0)

연령대별 내용을 살펴보면 30대(53.1%)와 50대(53.4) 그리고 60대(51.8%)에 과반의 비율로 비판형 군집이 나왔다. 특이한 점으로는 1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군집 분포가 군집3(미래형)으로 39.5%의 청소년이 관광영향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도 전체 군집의 크기에 비례해 보이지만, 중졸 이하 및 고졸 군에서 상대적으로 '실리형' 군집의 비율(35.7%~37.5%)이 높았으며, 전문대 재학/졸업자와 대학원 재학/졸업자 군에서 '비판형' 인구의 비율(25.45~56.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에 따른 군집의 특성을 보면, 100만 원 미만(33.3%)과 200~299만 원(30.2%)의 군집에서 '실리형'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100만 원 미만의 그룹(36.5%)에서는 '미래형' 군집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0~199만 원(56.6%), 200~299만 원(54.7%), 400~499만 원(51.65%) 소득 그룹들은 평균보다 '비판형' 군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4〉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관련 군집별 특성

군집명	특 성
군집 1. 실리형	관광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편익에 대한 가치를 가장 높이 여기고 중요시하므로 사회·문화적, 환경적 손실에 대해서도 자연히 민감하다. 관광 비용을 고려하면서 경제적인 편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리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이다. 인구 밀집 지역인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한림읍에 다수 거주하지만, 조천읍, 성산읍, 표선면에 거주 비율이 높다. 남성보다는 여성 쪽 비율이 약간 높으며, 교육 수준은 및 임금 수준은 중·하권인 주민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고, 전업주부의 비율도 가장 높다. 30년 이상 오래 거주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관광업종과 무관한 편이며, 이주민보다는 제주도 출신의 주민들이 비교적 실리적인 면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군집 2. 비판형	관광의 경제, 사회·문화, 환경 부분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높이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으로 얻는 환경의 혜택은 인정하지만, 환경 및 경제 비용에 대해 가장 민감하여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제주시 동지역 및 시내권과 가까운 애월읍과 한림읍,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 및 중문관광단지 인근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연령층에서는 30대, 50대, 70대가 가장 비판적 성향을 보인다.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고, 소득도 높은 층이 많으며, 100만 원 미만의 월 소득자들도 다수 포함한다. 판매·서비스직과 전문직에서 비판적 성향이 높고, 특히 관광업 종사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군집 3. 미래형	관광의 긍정적인 사회·문화, 환경의 편익 영향에 가장 민감하고, 관광의 경제, 사회·문화 비용을 어느 정도 우려하면서도 경제적·환경적 편익에 동시에 관심을 가지며,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이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그리고 한림읍에 비교적 많이 거주한다. 10대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고, 따라서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다. 학생 및 기술직과 프리랜서 같은 기타 직군들 가운데에 다수를 차지하며, 제주도 거주 기간이 30년을 넘지 않는 젊은 주민들 혹은 이주민들 가운데에 비교적 많이 분포해있다.

직업변수는 총 9개로써 그 다양성만큼 군집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업주부(47.4%) 가운데 '실리형' 군집이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38.8%)와 사무직(31.3%)도 상대적으로 '실리형'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형' 군집에는 학생(43.8%)과 기술직(33.3%), 기타 직군(34.0%)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비판형' 집단 중에 판매·서비스직(62.9%)과 전문직(56.4%) 종사자들이 평균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거주 기간에 따른 군집별 특성을 보면, 10년 이하 및 11년~30년의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평균적인 군집의 크기와 유사하게 보이나 실리형(25.45%~28.9%)보다는 미래형(38.0%~29.0%) 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3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실리형(30.2%) 집단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업 종사자와 비종사자의 요인을 비교하면, 관광업 종사자 중 비판형 그룹(60.7%)이 월등히 높았고, 비종사자의 경우 실리형(32.5%) 군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신지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 제주도 출신 주민들 가운데 실리형(30.9%)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제주도 외 출신 주민들의 경우 미래형(28.6%) 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약간 큰 편으로 집계되었다. 이상으로 군집별 지역주민들이 특성을 종합하여 서술한 내용은 상기 <표 4-34>에 정리하였다

4) 관광영향 군집별 세부 인식의 차이

군집분석을 통한 세 개의 그룹은 관광영향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주된 요인 성분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는 관광지 주민의 태도의 척도로 지역사회 애착, 친환경 행동의도, 관광개발 지지도를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군집별 차이 외에도 다른 태도 변수에 대한 군집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관광개발 지지도의 평가 항목 중에는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에 만족하는지'와 '앞으로 추가 관광개발에 대해 지지하는지'에 대한 항목이 분리되어 있었던 만큼, 만족도와 지지도를 따로 분석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세 군집에 대한 4개의 주요 변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정(Post-hoc)으로 Scheffé's Test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애착도를 비교한 결과 $F=3.279$,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는 실리형(4.90), 비판형(4.71), 미래형(4.57) 순으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표 4-35>와 같다. 즉, 관광의 경제적 순기능에 대해 비교적 민감한 실리형 집단은 지역애착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환경문제에 관해 관심은 높지만, 경제적인 손익에도 관심이 높은 비판형 군집과 비교해, 관광의 사회·

문화·환경의 편익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미래형 군집에서 지역애착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래형 군집에서 10대의 인구가 비교적 많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근거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4-35〉 관광영향 군집별 세부 인식의 차이 분석

구분	n	평균 (M)	표준편차 (SD)	F	유의수준	사후검정 (Scheffe)
지역사회 애착도	실리형(a)	181	4.90	3.279	0.038*	c<b<a
	비관형(b)	295	4.71			
	미래형(c)	151	4.57			
친환경 행동의도	실리형(a)	181	5.38	1.371	0.255	a<b<c
	비관형(b)	295	5.22			
	미래형(c)	151	5.21			
관광개발 만족도	실리형(a)	181	4.27	3.858	0.022*	b<c<a
	비관형(b)	295	3.87			
	미래형(c)	151	4.11			
관광개발 지지도	실리형(a)	181	5.10	4.348	0.013*	c<b<a
	비관형(b)	295	4.74			
	미래형(c)	151	4.64			

*p<0.05, **p<0.01, ***p<0.001

친환경 행동의도에 대하여 F=1.371, p<0.05 수준에서 군집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로는 실리형(5.38), 비관형(5.22), 미래형(5.21)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항목 평가 척도 점수가 7점인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항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식도의 평균값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개발 만족도에 대한 군집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3.858, p<0.05에서 통계적으로 군집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는 실리형(4.27), 미래형(4.11), 비관형(3.87)의 순이다. 관광으로 얻게 되는 편익과 손실에 대해 비교적 민감한 실리형이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으며, 관광으로 유발되는 사회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집단은 그 만족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추가적인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한 군집 간의 차이를 보면, F=4.348,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는 실리형(5.10), 비관형

(4.74), 미래형(4.64)의 순이다. 관광의 경제적 순기능에 대해 비교적 민감한 실리형 집단은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경향을 높게 보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환경 문제에 관해 관심은 높지만, 경제적인 손익에도 관심이 높은 비판형 군집과 비교해, 관광의 사회·문화 환경의 편익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미래형 군집에서 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집 간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한 비교 순위는 지역사회 애착도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유형별 관광영향 인식 차이에 대한 다중그룹분석(PLS-MGA)

추가적으로 유형별 관광영향 인식 차이에 대한 다중그룹분석을 실시하여, 각 잠재변수의 영향 관계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서 실시했던 SmartPLS 프로그램의 PLS-MGA 분석을 통해 3개 군집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4-36>에서 보듯이, 미래형과 실리형 간의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밖의 군집 간 경로효과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머지 경로계수의 차이들을 살펴본 결과, 유의하지는 않지만, 비판형과 실리형 사이에서도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리형 집단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이 두 변수의 영향에 대해 비교적 민감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 4-36> 다중그룹분석 결과: 관광영향 인식 군집별 차이 비교

경로	경로계수 차이			새로운 p-Value		
	미래형 - 비판형	미래형 - 실리형	비판형 - 실리형	미래형 vs 비판형	미래형 vs 실리형	비판형 vs 실리형
지역사회 애착도 → 친환경 행동의도	-0.089	0.017	0.107	0.384	0.884	0.255
지역사회 애착도 → 관광개발 지지도	-0.047	-0.003	0.043	0.588	0.980	0.556
긍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113	0.005	-0.108	0.264	0.969	0.332
긍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24	-0.071	-0.095	0.742	0.328	0.126
부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136	0.181	0.045	0.170	0.115	0.716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111	-0.261	-0.150	0.132	0.003**	0.065

*p<0.05, **p<0.01, ***p<0.001

6.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 및 어휘 분석(Semantic Analysis)

1) 주요 의견

본 연구의 마지막 분석은 설문조사에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 할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에 사용된 1차 수집자료들은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직관적으로 통계 분석이 가능하였다. 본 항에서는 비록 선택적인 한 개의 문항에 대해 수집된 자료이나, 주민들이 직접 수기로 기재하여 자발적으로 표출한 의견임을 소중히 여겨 가장 기초적인 정량화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4-37〉 어휘 분석을 위한 정제된 대표적 주관적 의견

연번	내용
1	개발 좋은일 무분별 개발 제한 제주 친환경 자연유산 보존 중요 생각
2	관광개발 산업 발달 좋은일 주민 입장 우리지역 고유문화 파괴 물가 상승 환경 파괴 모습 발전 상심
3	관광개발 관리 사업 발달 과정 제주도민 실질 혜택 제주문화 자연 지킴
4	난개발 반대 기존 원형 모습 간직 최소한 변형 개발 자연 친화 제주도 특성 관광개발
5	난개발 반대 계획 장기 자연환경 보존 범위 관광개발 희망
6	도민 주체 도민 직접 참여 개발 관광 소득 도민 돌려줌 희망
7	미래 관광산업 제주 특성 방향 제주 자연환경 문화 전통 삶 모습 제주어 독특 구성 활용 관광 자원 개발 역점 마음
8	자연 개발 필요 한라산 케이블카 서귀포 절경 외돌개 삼매봉 새섬 케이블카 관광개발 우선 환경단체 반대 도민 이익 자연 보전 개발 필요
9	자연 훼손 금지 정식 계획 현재 환경 발전 필요
10	자연 훼손 관광개발 지양 건물 개발 무차별 제주 거주 이유 여행 이유 없음
11	제주도 공정 관광 개념 정착 활성화 관광산업 무분별 개발 반대
12	환경 훼손 도민 관광객 자유 편리 이용 서비스
13	환경 보존 자연 가치 제주 아름다움 향토 문화 관광개발 조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연구모형에 적용할 각 변수를 측정하는 62개의 객관식 항목과 인구 통계 분석에 활용되는 10개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응답자가 가진 '제주 관광 개발'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1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자료수집 결과

총 627개의 유효한 응답 결과에서 122개의 주관적인 의견이 수집되었고, 이들 중 119건에서 의미 있는 단어들을 추출할 수 있는 문장(의견)으로 판단되었다. 조사(助詞) 등의 불용어를 처리한 후 의미 있는 단어들만 추출하여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문장 13개가 선정되었다. 따라서 관광개발에 관한 제주 지역주민들의 대표적인 주관적 의견에 대하여 문장별로 어휘 분석이 가능하도록 명사형 단어만을 추출하는 정제과정을 거치는데, 그 결과를 위의 <표 4-37>과와 같은 주요 문장(어휘)을 추출·정리하였으며, 전체 의견은 <부록 3>에 수록하였다.

2) 키워드 분석 및 감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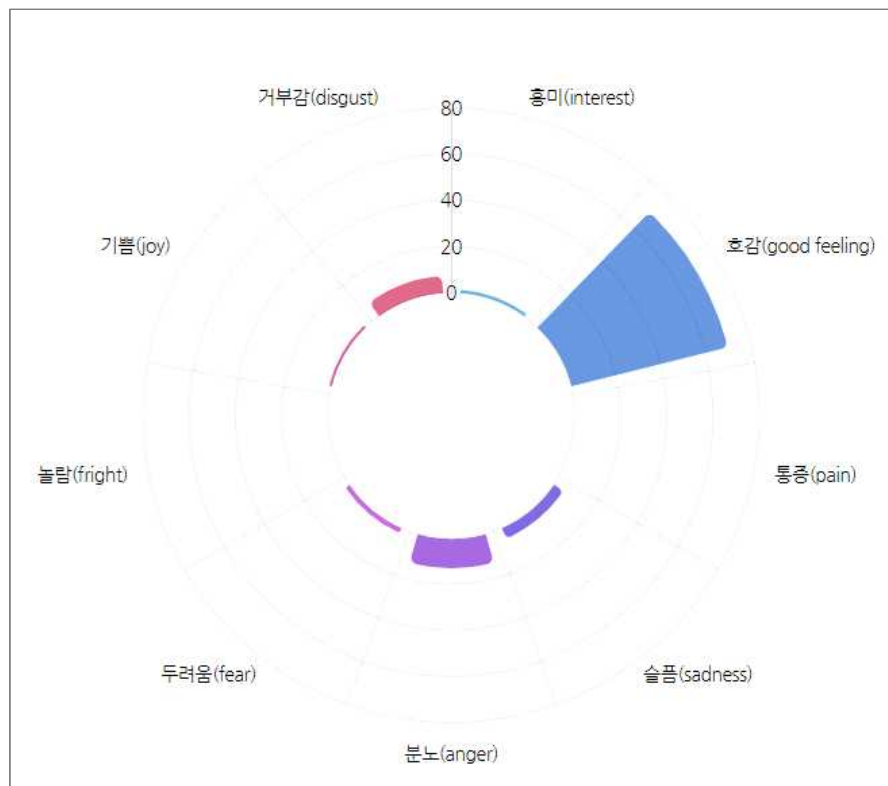
<표 4-38>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에 대한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연번	단어	빈도	%	연번	단어	빈도	%
1	개발	46	9.60	19	조화	8	1.67
2	제주	40	8.35	20	관리	7	1.46
3	환경	38	7.93	21	쓰레기	7	1.46
4	관광개발	33	6.89	22	유지	7	1.46
5	보존	27	5.64	23	제한	7	1.46
6	자연	27	5.64	24	지역주민	7	1.46
7	필요	23	4.80	25	계획	6	1.25
8	반대	20	4.18	26	교통	6	1.25
9	희망	17	3.55	27	무분별	6	1.25
10	훼손	15	3.13	28	범위	6	1.25
11	관광	13	2.71	29	주차	6	1.25
12	도민	13	2.71	30	관광산업	5	1.04
13	발전	13	2.71	31	관광지	5	1.04
14	문화	11	2.30	32	문제	5	1.04
15	생각	11	2.30	33	보전	5	1.04
16	지역	11	2.30	34	우선	5	1.04
17	파괴	10	2.09	35	주민	5	1.04
18	관광객	8	1.67		계	479	100.00

〈표 4-39〉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에 대한 감성 단어 빈도분석 결과

구분	세부 감성	감정 강도	감정분류	빈도	비율(%)
긍정	호감(good feeling)	4.333	좋다	32	28.57
긍정	호감(good feeling)	4.556	자연스럽다	27	24.11
부정	분노(anger)	5.556	파괴	10	8.93
긍정	호감(good feeling)	5.111	아름답다	4	3.57
부정	슬픔(sadness)	5.667	울다	3	2.68
긍정	호감(good feeling)	5.556	조화롭다	3	2.68
긍정	호감(good feeling)	4.000	대중적이다	2	1.79
긍정	호감(good feeling)	3.333	전통적	2	1.79
긍정	기쁨(joy)	3.444	감사하다	2	1.79
부정	거부감(disgust)	1.778	신경쓰이다	2	1.79
부정	거부감(disgust)	6.556	싫다	2	1.79
부정	거부감(disgust)	2.111	심각하다	2	1.79
부정	거부감(disgust)	4.667	불편	2	1.79
긍정	흥미(interest)	2.778	새롭다	1	0.89
부정	거부감(disgust)	4.444	심하다	1	0.89
긍정	호감(good feeling)	5.778	현대적	1	0.89
부정	분노(anger)	5.889	불쾌	1	0.89
긍정	호감(good feeling)	3.667	뚜렷하다	1	0.89
긍정	호감(good feeling)	6.667	편리하다	1	0.89
긍정	호감(good feeling)	2.556	유용하다	1	0.89
긍정	흥미(interest)	4.889	독특하다	1	0.89
부정	두려움(fear)	4.889	불안	1	0.89
부정	거부감(disgust)	3.556	어렵다	1	0.89
긍정	호감(good feeling)	4.778	강인하다	1	0.89
부정	슬픔(sadness)	3.444	죄송하다	1	0.89
긍정	호감(good feeling)	4.333	균형	1	0.89
긍정	호감(good feeling)	5.889	편하다	1	0.89
부정	분노(anger)	3.444	불만스럽다	1	0.89
긍정	호감(good feeling)	4.000	사랑스럽다	1	0.89
부정	두려움(fear)	6.111	무섭다	1	0.89
부정	슬픔(sadness)	4.667	속상하다	1	0.89
긍정	호감(good feeling)	3.667	충분하다	1	0.89
			계	112	100.00

한편,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이란 수집한 질적 텍스트 자료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어휘에 대한 감성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키워드 분석과 같은 기법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분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이상훈·최정·김종우, 2016). 즉, 문서의 최소단위로 불리는 단어의 감성 극성(sentiment polarity)을 기반으로 하여, 사전(事前)에 정의된 감성사전(感性辭典)에 따라, 새로운 문서에 출현한 단어를 통해 문장 전체의 감성을 분류(김승우·김남규, 2014)하는데, 가령 본 연구에서 수집한 주민들의 의견은 각 문장에서 출현하는 어휘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성향을 기준으로 ‘호감, 분노, 슬픔, 기쁨, 거부감, 흥미, 두려움’ 등의 감성 분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감성분석을 위한 도구는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텍스톰(TEXTOM)을 활용하였다.



[그림 4-4]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에 대한 감성분석 시각화

상기 <표 4-39>는 119개의 문장에서 주민들의 감정이 표출된 단어들에 대해 7개의 세부 감성으로 그 감정의 강도를 분류한 빈도분석 결과이며, [그림 4-4]는 이를 시각화한 자료

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의 감정은 긍정 또는 호감 있는 감정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제주도 관광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사례도 있지만, 개발의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환경이 아름답고,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간직한 제주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도민들의 열망을 읽을 수 있다.

박시원(2016)은 복합리조트에 대한 언론보도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감성분석을 통해 중요한 개념이 부정적으로 보도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도되는 경우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는데, 인터넷 또는 SNS의 확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량의 2차 자료수집이 가능한 지금, 대중의 성향 또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록 본 분석에 활용한 자료가 빅데이터가 아닌 만큼 분석 결과가 소수 주민의 의견인지, 침묵하는 다수를 대표하는 의견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응답자가 제시한 질적 자료를 정량화한 결과의 제시함으로써, 정량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도출하기 어려운 제주 지역사회의 관광개발을 바라보는 응답자들의 수요 또는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절 분석 결과의 요약 및 논의

1.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관광영향의 긍정적·부정적 인식과 지역사회 애착도가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네 개의 커다란 관점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시행하였다. 지역, 성별, 직업, 나이, 경제적인 상황 등이 각기 다른 수백 명의 연구대상자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한두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문제이며, 본 연구의 주제가 지역사회 애착, 관광영향 인식, 친환경 행동의도 및 관광개발 지지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어서 관측 가능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가설 I. 연구모형 검증〉은 가설 H1~H3에 해당하며, PLS-SEM의 경로분석을 통한 변수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것으로 SmartPLS 3.3.2 프로그램의 'PLS Algorithm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한 직접 효과 분석을 통하여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잠재 변수들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후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가설 II. 사회교환이론을 반영한 집단별 연구모형의 검증〉은 가설 H4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SmartPLS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중집단분석(PLS-MGA, Multi-Group Analysis)'을 통해 응답자들을 인구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범주화한 후, 다섯 건의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 경로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 III. 지역주민의 유형별 군집분석〉은 SPSS 프로그램의 요인 및 상관분석에 기반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가설 II의 직관적인 인구특성의 요인을 '관광영향 인식'의 유형에 따른 새로운 3개의 군집으로 표본을 그룹화하여, 군집별 특성 및 군집 간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가설 IV.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평균 및 분산분석으로써, 경로 분석에서 밝히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며, 가설 II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다섯 건의 범주 기준에 따라 응답자들이 가진 잠재변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을 통해 표본의 성격과 각각의 요인별 차이를 고려하면서 연구대상자들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파악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검증(PLS-SEM Path Analysis) 결과

우선 첫 번째 실증분석인 PLS-SEM의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40>과 같이 사회교환이론의 주요 변수인 긍정적 관광영향과 부정적 관광영향, 그리고 지역사회 애착도가 각각 종속변수인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수정된 모형은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그리고 내적일관성 신뢰도 및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작업을 통해, 외부적재치가 낮은 관측변수들을 제거하여, 타당도를 높임으로써 모든 경로에서 효과가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가설 H1, H2, H3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4-40> 사회교환이론 변수와 관광개발 지지도 간의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 통계량	P값	가설검증
H1-1	지역사회 애착도 → 친환경 행동의도(CA → IPB)	0.321	7.723	0.000	채택
H1-2	지역사회 애착도 → 관광개발 지지도(CA → STD)	0.091	2.848	0.004	채택
H2-1	긍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PTI → IPB)	0.186	4.161	0.000	채택
H2-2	긍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PTI → STD)	0.652	22.938	0.000	채택
H3-1	부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NTI → IPB)	0.200	5.015	0.000	채택
H3-2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NTI → STD)	-0.084	2.848	0.004	채택

*p<0.05, **p<0.01, ***p<0.001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상기 6개의 경로 중 긍정적 관광영향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PTI → STD) 관계가 다른 5개의 경로와 비교하여 현저히 크다는 사실이다. 즉,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은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이며, 측정변수의 외부적재치를 기준으로 가장 효과가 큰 항목은 ‘관광산업으로 소득증가를 통해 소득이 증대’된다는 것과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개선’이다. 다음으로 효과가 큰 경로는 지역애착도가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CA → IPB)으로 지역애착도에서 가장 큰 요인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가장 좋다’는 문항이었으며, 친환경 행동의도 중에는 ‘환경 관련 정보(도서, TV, 기사 등)에 관심을 갖는다’는 문항이었다.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가설이 채택되었는데,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과 비교하여,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 변수에 대한 관측 문항은 오로지 환경적인 요인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가중치가 높은 문항은 ‘자연(생태)환경 파괴’라는 점은 응답자들의 인식에서 관광개발을 지지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경제적·환경적인 편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로써 관광의 경제적인 편익이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 애착도가 높을수록 친환경 행동의도가 높게 형성된다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정된 연구모형을 제시하기까지 측정 문항들은 각각의 범주에서 잠재변수를 설명해줄 수 있는 집중타당성과 신뢰 검사를 통해 총 3개의 문항을 먼저 제거하였고, 2차성분 모델 구현을 위해 판별타당도 분석에서 지역애착도(3개), 긍정적 관광영향(4개), 부정적 관광영향(11개)의 관측변수가 제거됨에 따라, 모든 반영지표를 1차성분 모델로 적용하여 수정된 구조모형을 완성하였다. 그 결과로써 제거된 관측변수를 제외한 수정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의 개념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정리해보면 <표 4-41>과 같다.

<표 4-41> 수정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와 구성개념

잠재변수	관측변수	잠재변수	관측변수
지역사회 애착도 (CA)	매우 특별한 곳임(ID2) 지역 관련 이야기 많음(ID3) 지역 거주자 자랑스러움(ID5) 지역 모임에 적극적 활동(SD1) 지역주민 많이 알고 지냄(SD3) 지역 사람들과 친하게 지냄(SD5)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 것(DP1) 지역 이주 시 섭섭함(DP3) 일과 생활에 최적지(DP4) 타지역보다 더 선호함(DP5)	부정적 관광영향 (NTI)	각종 환경문제 심화(NEV1) 자연(생태)환경 파괴(NEV2) 지역 혼잡 문제(NEV3) 교통·주차 문제(NEV4) 주변 경관 훼손(NEV5)
		친환경 행동의도 (IPB)	친환경제품 구매(IPB1) 에너지 절약(IPB2) 쓰레기 저감(IPB3) 환경정화 봉사활동 참여(IPB4) 환경문제 관련 대화(IPB5) 환경 관련 정보에 관심(IPB6)
긍정적 관광영향 (PTI)	고용기회 제공(PEC1) 소득증가로 생활 수준 상승(PEC2) 지역 세수 증가(PEC3) 지역 투자 유치(PEC4) 지역 경제 활성화(PEC5) 문화역사지 보존 향상(PEV1) 문화 활동지 향상(PEV2) 사회기반 시설/공공서비스 개선(PEV4) 주변 경관 관리 향상(PEV5) 생활환경 개선(PEV6) 유적지 보존(PEV7)	관광개발 지지도 (STD)	관광개발의 편익이 더 많음(ATT1) 지역 관광개발은 희망적(ATT2) 관광은 지역발전에 이바지(ATT3) 관광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ATT4) 관광은 주민의 삶에 이바지(ATT5) 현재까지 관광개발 만족(ATT6) 추가 관광개발 지지(ATT7) 지역발전에 협조할 것(ATT8)

2) 사회교환이론을 반영한 집단별 연구모형의 분석(PLS-MGA) 결과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표 4-40>의 결과에 따라 모든 경로에서 그 효과가 유의하다고 하여 응답자 또는 지역주민들의 성향이 같다고 설명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PLS-MGA(다중그룹분석)을 통해 규명할 수 있는 인구특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룹을 나누는 범주의 기준은 차이 분석에도 동일하게 활용하였으며, 도시와 농촌(거주지역), 성별, 관광업 종사 여부, 거주 기간, 그리고 출신 지역에 대해 표본의 그룹을 각기 생성하여 집단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4-42>와 같으며, 거주 기간에 따른 그룹 간의 다수의 경로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에 대하여 도·농간 지역주민의 인식 차이, 남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그리고 관광업 종사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로분석에서 제시한 관광개발 지지도와 친환경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6개의 유의한 경로 가운데 인구특성을 고려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한 경로효과와의 차이는 거주 기간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5개의 경로에서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1개의 경로에 대해 제주도 출신과 제주도의 출신(이주민)들 간의 영향 관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시행한 군집분석에 따른 유형별 집단 간의 차이에서도 1개의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4-42> 다중집단분석의 경로효과: 유의한 그룹 간의 차이 비교 결과

그룹 구분	차이 그룹	경로	유의수준
거주 기간 별 그룹	10년이하 vs 30년이상	지역사회 애착도 → 관광개발 지지도	0.011*
		긍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45*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02**
	11년~30년 vs 30년이상	긍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21*
부정적 관광영향 → 친환경 행동의도		0.049*	
출신지 별 그룹	제주도 vs 제주도 외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31*
관광영향 유형별 군집	미래형 vs 실리형	부정적 관광영향 → 관광개발 지지도	0.003**

*p<0.05, **p<0.01, ***p<0.001

3)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차이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검증은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도, 친환경 행동의도, 관광개발 만족도와 관광개발 지지도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 여부이다. 차이 분석에 이용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경로분석의 다중집단분석에서 활용한 것과 동일하게 거주지역, 성별, 관광업 종사 여부, 거주 기간, 그리고 출신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측정변수별 차이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의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4-43〉 지역별 인식 및 태도의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지역사회 애착도*		긍정적 관광영향*		부정적 관광영향		관광개발 지지도*		친환경 행동의도	
순위	평균 (M)	순위	평균 (M)	순위	평균 (M)	순위	평균 (M)	순위	평균 (M)
성산읍	5.57	성산읍	5.34	애월읍	5.32	성산읍	5.66	성산읍	5.47
애월읍	5.03	조천읍	5.24	성산읍	5.31	조천읍	4.93	애월읍	5.43
한림읍	5.02	제주시 동지역	5.03	한림읍	5.30	표선면	4.63	조천읍	5.36
조천읍	4.93	서귀포시 동지역	4.90	서귀포시 동지역	5.22	서귀포시 동지역	4.58	표선면	5.35
표선면	4.93	한림읍	4.82	조천읍	5.18	중문지역	4.51	제주시 동지역	5.29
서귀포시 동지역	4.77	중문지역	4.80	제주시 동지역	5.08	한림읍	4.41	중문지역	5.26
중문지역	4.65	표선면	4.77	표선면	5.08	제주시 동지역	4.29	서귀포시 동지역	5.11
제주시 동지역	4.47	애월읍	4.60	중문지역	4.96	애월읍	4.14	한림읍	5.05

우선 거주지역별 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의 평가 점수 분산의 차이는 지역사회 애착도와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그리고 관광개발 지지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값으로 비교해 본 지역 간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 4-43〉과 같다. 성산읍이 부정적인 관광영향 인식을 제외한 지역사회 애착도, 친환경 행동의도, 관광개발 만족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부정적인 관광영향 인식은 애월읍이 가장 높고, 성산읍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시 동지역이며,

애월읍의 경우 긍정적인 관광영향 인식과 관광개발 지지도에서 최하위를 보였다. 애월읍과 성산읍 지역주민들의 경우 부정적 관광영향의 인식이 가장 높으면서도 친환경 행동의도는 모두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지역사회 애착도도 다 함께 높다는 점에서 각 지역 간의 특성이 눈에 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개의 그룹으로써 독립검정 t-Test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였으며, 관광산업 종사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도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제주도의 거주 기간에 대해 10년과 30년을 기준으로 한 세 개의 그룹으로 보고, 각 기간에 따른 5개 잠재변수 간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 애착도, 부정적 관광영향의 인식, 그리고 친환경 행동의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 기간의 차이에 따라 10년 이하, 11년~30년, 그리고 30년 이상으로 주민들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점은 세 가지 요인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즉,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지역애착도, 부정적 관광영향의 인식, 그리고 친환경 행동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10년 이하 거주한 주민, 그리고 11년~30년 동안 거주한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제주도 출신 그룹과 제주도 외 출신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관광개발 지지도의 유의확률이 0.050으로 분석되어, 평균 차이로 비교해보면, 제주도 외 출신 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제주도 출신 주민들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지역주민의 유형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결과

네 번째 범주의 가설검증은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관광영향의 요인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유형별로 세분화한 후, 그룹별 인식에 차이 유무에 관한 검증으로 분석 프로그램은 SPSS v24를 활용하였으며, 주성분분석(PCA)로 요인분석을 시행한 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즉, 탐색적 기술분석으로서 사회교환이론을 구성하는 변수의 측정 항목을 바탕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에 따른 주민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군집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응답자들을 사회교환이론의 변수의 요인을 찾아 유형별 분석을 수행한 후 군집 분석으로 그 특성을 압축하여 앞서 실시한 다중그룹분석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관광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따른 주성분 분석(PCA)을 통해, 경제, 사회·문화 환경 분야의 측정 항목에 따라 총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요인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이를 '정서풍요 추구형', '사회문제 우려형', '경제실리 추구형', '실리문제 우려형', '환경실리 추구형', 그리고 '환경문제 우려형'으로 명명하였고, 이들은 각기 가장 높은 중심 값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이 묶여 총 3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요인 3과 4의 유형은 '실리형'으로, 요인 5와 6의 유형이 묶여 '비판형'으로, 요인 1, 2가 묶여 '미래형'으로 각각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군집분석의 최종 결과는 아래의 <표 4-44>와 같다.

<표 4-44> 관광영향 인식 유형별 군집분석 결과 및 태도 차이 분석 결과

요인 \ 군집		군집 1. (N=181)	군집 2. (N=295)	군집 3. (N=151)	F Value	p Value
요인1.	정서풍요 추구형	.05880	-.13397	.19124	5.809	.003
요인2.	사회문제 우려형	.71773	.24402	-1.33705	484.367	.000
요인3.	경제실리 추구형	.13084	.03779	-.23067	5.867	.003
요인4.	실리문제 우려형	-.55981	.47946	-.26566	85.943	.000
요인5.	환경실리 추구형	-.81838	.58259	-.15721	175.163	.000
요인6.	환경문제 우려형	-.14959	.09012	.00325	3.247	.040
군집명		실리형(a)	비판형(b)	미래형(c)	F(p)	사후검정
평균 (M)	지역사회 애착도	4.90	4.71	4.57	3.279 (0.038*)	c<b<a
	친환경 행동의도	5.38	5.23	5.22	1.371 (0.255)	a<b<c
	관광개발 만족도	4.27	3.87	4.11	3.858 (0.022*)	b<c<a
	관광개발 지지도	5.10	4.74	4.64	4.348 (0.013*)	c<b<a

*p<0.05, **p<0.01, ***p<0.001

이들 3개의 군집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애착도, 친환경 행동의도, 관광개발 만족도 및 관광개발 지지도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실리형 집단이 모든 친환경 행동을 제외한 여타의 행동 의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비판형은 관광개발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미래형은 지역사회 애착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실리형 집단의 경우 30년 이상 오래 거주한

제주도 출신 주민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 이들의 지역사회 애착도가 가장 높다는 분석과 일치 하였으며, 동지역을 벗어난 지역 중, 조천읍, 성산읍, 표선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까지의 관광개발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만,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열망과 기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관형은 응답자들의 수가 가장 많은 군집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청장년 그리고 노년층으로, 교육 수준 및 소득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높은 그룹으로 볼 수 있어서 현재까지의 관광개발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광개발에 따르는 환경훼손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드러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에 가장 민감한 집단은 '미래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사회·문화적인 편익을 누리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10대를 비롯한 학생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소득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프리랜서 같은 기타 직업군이 비교적 많은 편인 제주도에 정착한 지 30년을 넘지 않은 이주민들이 다수 속해 있는 집단이다. 이 군집의 특성은 친환경 행동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관광개발의 만족도에 비해 추가적인 지지도는 가장 낮게 보임으로써 개발보다는 환경보호에 더 지지를 보내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경로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은 관광의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지역사회 애착도에 의해 받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대신,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편익과 비용 인식으로 관광개발 지지도와 친환경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가설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논의

본 연구는 관광개발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관광지의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광산업이 관광객 유치를 최대의 목표로 삼아왔다는 것과 개발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종종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작은 목소리에 주목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주민 한 명 한 명이 다소간이라도 관광산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순환은 누군가 나서서 고의로 조작하기 힘든 것으로, 제주도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유효한 한 방문객들은 끊임없이 제주도

관광을 위해 입도(入道)할 것이다. 학생, 농민, 어민, 은행원, 시장 상인 등 제주도의 도민이라면 누구라도 관광산업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혜택과 피해를 주는지 지각하고 있으며, 때로는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낮추고, 때로는 이득을 보는 것도 소리를 높일 수 없는 상황에 매일같이 직면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인 제주도민에게 '이웃'에 대한 애정, 그리고 공동체의 소속감과 관광에 대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는 인식이 관광개발에 대한 만족감과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인식과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효과에 영향을 주게 될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 애착이 관광개발의 지지도에 긍정적으로 미치며, 친환경 행동의도는 지역사회 애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관광의 긍정적 경제 효과와 부정적인 사회·문화 및 환경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가설과 모형을 설계하게 되었다. 만약 이들 변수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가 성립한다면, 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제주도민들의 지역사회 애착도는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관광개발 지지도보다는 친환경 행동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애착도를 지역에 대한 정체성, 사회구성원과의 친분성,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의존성, 이렇게 세 개의 변인 중 지역사회 정체성에서 3개, 사회적 친분성에서 3개, 지역사회 의존성에서 4개의 측정변수가 지역사회 애착도의 개념에 반영되었다.

물리적인 주거의 배경으로써 지역사회는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Ramkissoon, Smith, & Weiler(2013)와 Vaske & Kobrin(2001)이 주장하였듯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애착'이 '친환경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자연환경은 장소 애착의 기능적인 면에서 중요한 변수인 까닭에 자신이 사는 곳의 환경에 대한 애착이 높은 주민들은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련이 있는 환경 인식이 높고, 따라서 지역사회 정체성은 지역사회의 의존성과 더불어 친환경 행동의도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변수가 된다(Lee & Oh, 2018)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모형에서 지역사회 애착도를 구성하는 데에 지역사회 친분성을 구성하는 2개의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활용된 3개의 변수 중 2개는 외부적재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의 경우 지역의 심리적 역할(정체성)과 기능적 역할(의존성)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사회적 역할인 친분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유추되어, 이는 주민(이웃)들 간의 교류가 적거나,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애착과 장소 애착의 개념의 차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지역의 장소성을 더 강조하는 경우, 구성원들 간의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감을 지역 애착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 연구(강영애·유광민·김남조, 2012; 남중현, 2019; 오정학·윤유식, 2009; 이경영, 2019; 황정진·고계성, 2018, Cheng, Wu, & Huang, 2013; Hong & Kim, 2018; Lee, 2011; McCool & Martin, 1994; Styliadis, 2018a)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애착의 개념에 구성원들 간의 친분성을 포함하였으나, 실증분석을 통해 대상 주민들 간의 사회적 친분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관광영향 역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주었다. 즉,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인 관광영향 인식은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정(+의 효과를 미쳤으며, 관광에 대한 긍정적 환경영향 인식 역시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환경영향 인식은 친환경 행동의도에 정(+의 효과를, 관광개발 지지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이 각 지역의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가정하에, 제주도민들이 가진 관광의 영향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며, 관광개발 지지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광으로 인한 환경의 비용 즉, 환경이 훼손되거나, 오염된다고 인지할 경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인식과 태도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환경 지속성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주민들은 지역정체성과 친밀도가 높다(Uzel et al., 2002)는 연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애착심(또는 애향심)을 향상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물론,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최연화·김준우·송학준, 2018).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적어도 연구대상자들은 모든 잠재변수의 관계에서 관광의 긍정적인 경제와 환경의 편익이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관광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인 혜택과 환경에 더해지는 개선점들이 많아질수록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 중 경제적 편익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박윤희·김해옥·현성협(2019), Gursoy, Jurowski, & Uysal(2001), Jurowski

et al.(1997), Pham et al.(201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관광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득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 친환경 행동을 할 의향이 높아지고 더불어 관광 개발에 대한 지지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관광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된다는 인식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들의 영향 관계는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부정적인 모든 환경 분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은 친환경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로, 지역주민들이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희원·문상정(2006)은 관광개발로 인한 부정적 경제와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환경 관여도가 낮은 주민들의 경우 자신들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판단을 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관여도가 낮은 주민은 관광의 긍정적 경제적 영향에도 태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본 연구의 경로분석 결과 관광의 긍정적 인식에는 경제와 환경요인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관광의 경제적 편익이 주민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김진옥·신동주(2017), Andereck & Vogt(2000), Gursoy et al.(2002), Gursoy, Jurowski, & Uysal (2001) 등 여러 실증연구와 같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부정적인 인식에서는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영철(2000)과 Liu, Sheldon, & Var(198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관광지의 지역개발 연구에서 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이해하는 사전 작업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자가 강조한 바 있으나(이후석, 2004; 양성수 외, 2009; 조광익·김남조, 2002; Andriotis, Agiomirgianakis, & Mihiotis, 2008; Harrill, 2004; Nunkoo & Ramkissoon, 2010, Vargas-Sanchez et al, 2009), 개발자나 지자체로서 가장 큰 난관은 지역주민들의 특성과 개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그룹 또는 유형별로 본 연구의 주제를 담은 변수들에 대한 특징을 도출해내고자 몇 가지의 방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앞서 논의한 경로분석에 기초하여 주민들이 인식하는 영향 관계 및 태도를 알아보았다.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 남성과 여성, 관광업 종사자와 비종사자 간에는 경로효과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신지, 즉, 제주도가 고향인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간의 차이는 관광의 부정적 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한 개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장 유의미한 인구특성의 그룹은 거주 기간에 따른 분류 그룹으로, 출신지와 관계없이 지역에 거주한 햇수에 따라 10년 이하, 30년 미만, 30년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적용해본 결과, 10년 이하 거주자와 30년 이상 거주자들 사이에서 지역사회 애착과 부정적 관광영향에 따른 관광개발 지지도와 긍정적 관광영향에 따른 친환경 행동의도 등 다수의 경로효과에서 인식의 차이가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 기간이 11년~30년 사이인 주민들과 30년 이상인 주민들 간에는 긍정적 관광영향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 관광영향에 따른 친환경 행동의도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중그룹분석은 관광의 영향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과정을 사회교환이론 따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명하는 근거를 제공해줌으로써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완료하지 못한 여러 다른 인구특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역주민들을 분야별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에 따라 세분하는 방법으로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을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세분한 연구에서는 ‘옹호자, 사회환경 우려자, 경제 회의론자’의 3개의 군집으로 나뉘었고 (Andriotis & Vaughan, 2001), 신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분류한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 환경 중심, 커뮤니티 중심, 커뮤니티-공공서비스 환경 중심, 중요하지 않은 그룹’ 등 4개의 그룹으로 세분화한 연구도 있다(Sinclair-Maragh, Gursoy, & Vieregge, 2015). 한편, 송재호·고계성(2015)의 연구에서는 관광지 수명주기에 기초한 관광개발의 영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을 나누었는데, ‘경제 여건, 문화 여건, 지역 여건, 모든 여건’ 별로 그룹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론의 변수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본 결과 경제에 민감한 ‘실리형’, 환경에 비판적인 ‘비판형’, 사회·문화의 편익을 중시하는 ‘미래형’의 3개의 유형별 군집을 도출하였으며, 군집 간의 영향 인식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기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속한 그룹이 ‘비판형(전체 627명 중 295명)’이라는 부분이다. 사후분석을 통해 도출된 순위를 비교해 볼 때, 비판형 그룹은 지역사회 애착도와 친환경 행동의도의 수준이 중간이며,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개발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의 지지를 보였다. 또한, 이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현재까지의 관광개발을 통해 환경훼손의 정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관광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조사한 설문문의 마지막 문항인 정량적인 자료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어휘가 '환경, 보존, 자연, 필요, 반대, 희망, 훼손' 등이라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다수의 지역주민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을 지지' 하고 있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할 점이다. 우선 지역별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내용이다. 지역 간 평균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결론적으로 지역 간 분산의 차이에서 지역사회 애착도와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그리고 관광개발 지지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유의한 변수만 확인해 볼 때, 성산읍이 세 개의 변인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지역사회 애착도에서는 애월읍이,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과 관광개발 지지도에서는 조천읍이 그 뒤를 이었다. 성산읍은 독특한 해양 화산인 성산일출봉이 위치한 곳으로 제주도 시내를 벗어난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제주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은 제2공항 건설 관련 이슈로 지역개발에 대해 주민과 개발자들은 물론 지자체와 중앙 정부까지도 의견이 다양하여, 건설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 성산읍 지역주민의 인식이 개발과 친환경 행동의도에 가장 협조적인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발과 그 영향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애월읍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 및 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수려한 해안 도로를 비롯하여 여러 관광지가 이미 개발된 곳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이주민들이 많이 찾으며, 방송에서도 화제가 되는 명소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성산읍과는 대조적으로 애월읍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도는 높지만, 긍정적 관광의 영향과 관광개발 지지도에서 모두 최하위를 보였다. 우선 표본의 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만으로 두 지역의 표본들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산읍과 애월읍, 이 두 지역주민의 극명한 인식 차이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과 심도 있는 분석, 그리고 정책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도가 모두 높은 두 지역에서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개발에 지지도의 차이가 순위권 안에서 최상과 최하를 차지한다는 것은 과잉된 관광객 수에 의한 것인지, 이주민들의 영향 인식 때문인지, 혹은 동지역의 시내와 거리가 가까운 것이 원인이 되는지, 나아가서는 공공 및 사회기반 시설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여러 각도에서 찾아보아

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되었다.

또한,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애착도와 관광개발 지지도는 최하위와 하위를 차지하였고, 관광의 긍정적 영향 인식은 8개 지역 중 3위에 위치하였다. 제주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면서, 직장과 학교로 인구의 이동도 빈번한 곳이므로 지역사회 애착도가 낮은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관광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추가적인 관광개발로 더 많은 혜택을 바라기 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이미 개발된 곳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해석된다.

지역연구에서 시, 군별, 또는 읍면지역 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김진옥·신동주(2017)는 강원도 남부지역 4개의 시, 군에 대한 관광개발 인식 연구에서 그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대단히 가변적인 것이어서(고계성, 2007; 고동완, 2001), 종단적인 연구를 위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성별, 관광업 종사 여부, 그리고 출신지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다중그룹분석의 경로효과 차이에서도 밝혀졌듯이 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강신겸·최승담(2002), 강영애 외(2012),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Harrill(2004), Jurowski (1994), Kasarda & Janowitz (1974), Liu & Var(1986), Um & Crompton(1987)과 같은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해 거주 기간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지지한다. 거주 기간에 대한 분류기준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어, 한 세대(20년)를 기준으로 두 그룹을 나누기도 하고(Kasarda & Janowitz, 1974), 10년/20년으로 3그룹을 나누기도 하며(Um & Crompton, 1987), 매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5개의 그룹으로 나누기도 한다(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그룹화는 범주별 표본의 수를 떨어뜨려, 오히려 표본의 대표성을 낮추는 결과를 줄 수 있다는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한 전문가 집단의 조언에 따라 10년과 30년을 기준으로 세 그룹을 나누어 분석한 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도,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그리고 친환경 행동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은 높아지며,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환경)에 더욱 민감하고, 따라서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친환경 행동)을 할 확률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주민들에게 현재의 지역에서 오래 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계속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것은 직업, 학교 선택 등 주민 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협력과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으로 분야별 관광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와 그 영향 관계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는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러한 지지 없이 관광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Nunkoo, & Ramkissoon, 2010).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민의 개인적 특성, 즉,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한 가설검증의 결과는 관광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변수라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관광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가지는 애착과 관광에 대한 영향 인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지역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차 자료인 문헌 고찰을 통해 1차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의 틀을 만들고, 실증조사와 분석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할 점과 시사점을 찾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였으나, 관광의 영향을 지각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 2020년 제주관광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조사한 가장 혼잡한 8개 관광권역인 제주시 동지역,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중문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성산읍과 표선면을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은 비단 관광객의 유입이 잦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밀집도도 높은 곳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한 곳이며,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 전체 인구인 670,989명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507,329명이며, 8개의 연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는 그 중 약 60%를 차지하는 308,359명이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특정 개발 예정지에 대한 조사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지각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인 개념의 '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조사로서, 현재까지 개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제2공항, 동물테마파크, 신규 리조트 및 관광단지 등 특정 개발사업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까닭은 다소나마 제주도 '관광개발 일반'에 대한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비교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 8개 권역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과 대면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전체 650명의 각 지역 인구 및 성별을 비례로 할당한 표본 중 400부는 대면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유효표본 수는 627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및 SmartPL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거쳐, 빈도분석, 차이 분석(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그리고 요인분석, 교차분석 및 판별분석을 통한 군집분석과

경로분석(PLS Path Analysis) 및 다중집단분석(PLS-MG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네 개의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차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자승법 기반의 구조방정식(PLS-SEM)을 활용하여 설계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에 대하여 각 경로의 효과를 분석(Path Analysis)하였다.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애착도와 관광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요소들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t 통계량과 유의확률을 통해 살펴본 결과 총 6개의 경로에 대해 각 효과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중 긍정적 관광영향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효과가 다른 변수들의 관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관광의 긍정적 영향을 구성하는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인 편익이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효과가 높은 경로는 지역사회 애착도가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의존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친분성(연대감)이 책임 있는 환경의식 및 행동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수정된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로써 관광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관광영향 인식, 친환경 행동의도, 관광개발 지지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완성되었기에,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표본을 도시와 농촌, 성별, 관광산업 종사 여부, 거주 기간, 그리고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각각 그룹별로 분류한 뒤, PLS-MGA(다중그룹분석)를 통해 인구특성에 따른 경로 모형에 대한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도·농 간, 남녀 성별에 따라, 그리고 관광산업 종사 여부에 따른 각 그룹별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역주민들을 거주 기간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씩 전체 경로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5개의 경로에서 효과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거주 기간이 30년 이상인 지역주민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정도와 부정적 관광영향의 인식 정도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주 기간이 10년 이하인 주민들과 차이가 있으며, 긍정적인 관광영향의 인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도 이 두 그룹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차이를 토대로 해석해보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 주민들의 경우 10년 미만으로 거주한 주민들에 비해 지역사회 애착도와 관광으로 인한 환경비용에 따른 관광개발 지지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관광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 있는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1년~30년간

거주한 주민들과의 비교에서도 관광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관광 개발 지지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각종 환경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관광의 영향으로 인해 친환경 행동의도가 받는 영향 효과도 거주 기간의 차이에 따라 11년~30년인 주민들과 30년 이상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거주 기간 이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집단의 범주는 출신지(고향)와 관련된 것인데, 제주도 출신 주민들은 제주도 외 출신의 주민들과 비교할 때 부정적인 관광의 영향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부(-)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더 크며, 해당 경로에 대한 이 두 집단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확인되었다. 즉, 환경비용으로 대표되는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제주도 출신의 주민들이 제주도 외 출신 주민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로분석을 통해 검정을 거친 연구모형에 대해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역주민에 대한 인구특성 별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는 거주 기간과 출신지 부분에서 특정 경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5가지 잠재변수(지역사회 애착도,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친환경 행동의도,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8개의 거주지역, 성별, 관광산업 종사 여부, 거주 기간, 그리고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것으로, 독립변수가 3개 이상인 거주지역과 거주 기간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독립변수가 2개인 성별, 관광산업 종사 여부 및 출신 지역에 대하여는 독립 표본 t 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변수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애착도, 긍정적 관광영향, 관광개발 지지도의 영역에서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성산읍은 이 세 개의 변수에 대하여 가장 높은 평균을, 애월읍은 지역사회 애착도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긍정적 관광영향과 관광개발 지지도에서는 최하위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남녀 성별에 따른 변수의 평균에 대하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관광개발 지지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여성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관광산업 종사 여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역애착도, 부정적인 관광의 영향, 친환경 행동의도에서 비종사자들의 평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관광영향과 관광개발 지지도에서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평균이 더 높은 이유는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업군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다중집단분석의 경로효과 차이에서도 밝혀졌듯이 분산분석의 결과에서도 긍정적 관광의 영향을 제외한 4개의 변수에서 집단 간 평균과 분산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지역사회 애착도,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및 친환경 행동의도에서 거주 기간이 30년 이상인 주민들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10년 이하 주민들이, 그리고 11년~30년 이하의 주민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관광개발 지지도에 있어 가장 평균이 높은 그룹은 10년 이하의 주민들이었으며, 30년 이상 거주자들이 그 뒤를 이었고, 11년~30년 이하 주민들의 평균이 이번에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에 따른 평균의 차이 비교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도,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친환경 행동의도, 관광개발 지지도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넷째, 본 연구의 핵심은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하여 관광지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은 인구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모형 안에서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통계 분석과 수집한 자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 또는 분산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관광영향의 요인을 중심으로 한 전체 표본의 군집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 첫째 단계는 주성분 분석(PCA)을 활용, 측정변수의 요인을 축소하여 총 6개의 요인(긍정적/부정적 경제, 긍정적/부정적 사회·문화, 긍정적/부정적 환경)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특성을 대표하는 6개의 유형으로 전체 표본을 '정서풍요 추구형, 사회문제 우려형, 경제실리 추구형, 실리문제 우려형, 환경실리 추구형, 환경문제 우려형' 등 6개로 구분한 후, 계층적·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3개의 군집으로 묶어, '실리형, 비판형, 미래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표본(627명) 중 가장 많은 주민(295명)이 모인 군집은 비판형으로 이들은 관광의 경제, 사회·문화, 환경 부분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높이 인식하고 있으며, 관광으로 얻게 되는 환경의 혜택은 인정하지만, 환경과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 특히 민감하여 비판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그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30, 50, 70대에 비교적 많고,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나, 소득이 낮은 판매·서비스 직종과 같은 관광업 종사자들의 비율도 높다. 다음은 실리형(181명)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주민들인데, 이들은 관광 비용을 고려하면서 경제적인 편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리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여성 특히,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고, 교육 및 임금 수준은 중·하권이 많으며, 30년 이상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비율이 높다. 끝으로 미래형(151명)의 경우, 관광의 경제, 사회·문화 비용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환경적 편익에 동시에 관심을 가지며,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걱정

하는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관점을 가진 주민들로, 인구 밀집 지역인 시내권과 한림읍에 비교적 많이 거주하며, 10대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아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고, 거주 기간이 30년을 넘지 않는 젊은 주민들 혹은 이주민들이 다수 분포해있으며, 기술직과 프리랜서 같은 기타 직군에 비교적 많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군집별 특성을 토대로 군집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 검증해 본 결과, 지역애착도, 관광개발 만족도 및 관광개발 지지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관광개발의 만족도는 관광개발 지지도의 관측변수 중 '현재까지의 관광개발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한 개 문항을 분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유의한 변수에 대해 실리형 군집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애착도와 관광개발 지지도는 비판형이 비교적 높게, 관광개발 만족도에 대하여는 미래형 군집이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어서 연구모형에 대한 세 유형 군집의 경로효과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부정적 관광영향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래형과 실리형 군집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리형 군집은 같은 변수에 대해 비판형과의 차이도 나타나서, 실리형인 주민들이 다른 두 그룹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관광의 영향에 대해 비교적 민감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관광영향의 요인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세 개의 유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정 요인 및 경로효과에 대하여 그룹별 인식에 차이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의 마지막 가설은 부분적으로 검증이 되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관광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하는 경제활동인 동시에 문화, 역사, 언어는 물론 의·식·주가 오고 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회활동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을 전제로 하므로 이동한 곳(장소)의 환경에 영향을 당연히 주고받는다. 관광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관광지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고, 인간이 가진 사회·문화적인 교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연적인데, 여기서 환경은 그 자체가 관광 자원으로써 손대면 훼손되기 쉽지만, 방치하는 것 역시 보존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이렇듯 관광개발이 가진 양면성으로 갈등의 씨앗은 항상 존재해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왔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심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을 조화롭게 살피고자 시도한 본 연구에서 학문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경로분석을 통해 구현한 연구모형은 지역사회 애착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관광영향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다. 본 연구모형은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하여, 관광의 양면적인 영향을 증명하는 데에 적합한 새로운 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p(1992)가 제시한 사회교환 과정 모형(Model of the Social Exchange Process)이 관광학에서 지지를 얻는 데에는 이 이론을 활용한 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관광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에 따라 관광지 주민들이 관광개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발전시키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 유용한 이론임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모형을 통해 검증된 결과인 관광개발 지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경제 및 환경적인 편익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관광의 본질(Goeldner & Ritchie, 2007)이라는 원론(原論)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관광이 방문객의 정서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이에 따른 재화가 교환되기 위하여, 관광지는 세심한 계획 아래에 개발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관광객을 이끄는 핵심 자원과 매력물 이외에도 관광산업을 지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개발주체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지지야말로 물리적·환경적 조건을 뛰어넘어 가장 획득하기 어려운 요건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된 경제적·환경적 편익 요건은 많은 선행연구자의 자취를 따르고 있지만, 지역사회 애착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을 더하여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주민이 가지는 ‘지역 사랑’ 또는 ‘이웃 사랑’이 지역발전의 한 방법인 관광개발에 대한 고민을 촉발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모형에 적용한 연구 대상지 지역주민의 ‘친환경 행동의도(Inten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를 변수로 활용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찬반 대답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환경 관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인간의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경우 가장 널리 적용되는 합리적 행동(Theory of Reasoned Action) 또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경우 개별 환경에 대한 특이성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추상적인 환경과 구체적인 환경의 평가 기준이 다른 이유로 일관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에(Kilbourne & Pickett, 2008), 사회교환이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인식의 후속 결과(consequence)로 발현되는 책임 있는 환경 행동(사회규범)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제공한다(Su, Huang, & Pearce, 2018; Su, Hsu, & Boostrom Jr., 2020)는 점에서 개연성을 찾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책임행동을 근거로 하는 ‘친환경 행동의도’는 관광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및 지역주민의 정서적 요인이 되는 지역사회 애착과 더불어 관광개발 지지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입증하게 되었다.

넷째, 본 연구의 핵심 이론인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 그동안 관광개발의 외적 역할을 설명하는 관광지 수명주기론(Destination Life Cycle Model)이나 분노지수이론(Irridex Model)과는 다른 관점에서 관광지 주민의 개인적·집단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내면, 즉 인식과 태도를 통해 관광개발에 관한 지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Faulkner & Tideswel, 1997)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지역주민의 인구특성에 주목한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인구특성의 요인 중 주민들의 거주 기간과 출신지에 따른 경로별 영향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평균 차이 분석에서도 거주 기간은 물론 대상 지역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지역주민에 대해 관광 영향 인식의 영역별 민감 정도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군집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교환이론의 다양한 선행연구(고계성·임화순, 2007; Andriotis & Vaughan, 2003; Jurowski & Gursoy, 2004)를 지지하면서, 사회교환이론 적용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를 보태는 데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었다.

2. 정책적 시사점

세계화 및 정보화로 문화와 생산품, 지식과 정보가 국경 없이 개방된 지금 관광은 여전히 매력적인 여가활동이며,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원천으로 사랑받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간의 많은 활동을 인공지능과 같은 기계가 대신해주며, 가상현실(VR)로도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나, 사람들은 두 발로 직접 매력적인 장소를 찾는 행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제주도는 매년 도민의 10~20배가 넘는 방문객을 수용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이며, 70만 인구가 거주하는 생활 터전이다. 지역개발에 대하여 제주도민은 주인이고, 관광객은 객(客)이며 손님이지만, 제주도민들도 수시로 관광객의 처지에서 타지역을 여행하고 방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관광개발은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생활의 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실시한 다양한 분석과 학문적인 논의 이외에도 정책적 또는 실무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관광개발은 지역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발사업자의 공익적인 자세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과 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려고 한 이유는 정부와 개발사업자들에게 주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서이다. 이는 단지 특정 개발 예정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중요하기 때문만은 아니며(Gursoy & Rutherford, 2004), 지역주민들을 양분화하는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강용석·최용복, 2019; Teixeira & Ribeiro, 2020)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둘째, 지역주민들은 물론 기관, 기업, 방문객 등 모든 이해당사자는 관광산업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최종 결과는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관광의 긍정적인 편익(혜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는 경제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 또한, 주민들이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이 토대가 된다는 결과가 함께 도출되었다. 즉, 사회교환 이론에서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계획(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Lee, 2013)에 앞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혜택과 더불어 주민들이 지역

사회 애착도를 높여 자발적으로 지역의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대상지인 제주도는 관광지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이 제주도 외의 주민들을 이끄는 요인이 되어왔으며, 제주도민들은 그 자연환경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지지도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미래의 관광산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가꾸고 지키며 주민이 함께 지역공동체 안에서 '오래도록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관련 개선점이 없는지 살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을 토대로 관광에 대한 영향 인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가 관광지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지지도와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고,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거주 기간과 출신지에 따라 경로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을 통해 지역, 거주 기간 그리고 출신지에 따라 요인들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관광 영향의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에 대해 주민들이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실리형, 비판형, 미래형 등 세 개의 군집으로 세분화 분석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정량적 통계 분석에 이어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의견을 수렴하여, 키워드 분석과 감성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탐구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 이후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여전히 발견되었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표본 선정에 대한 한계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제안의 적용을 위하여, 가장 일반화가 가능한 관광지를 대표하는 지역 및 지역주민들을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제주도를 연구의 목적지로 설정하였음에도 지리적인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연구 대상지로 선정된 곳에 대해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이 견해 차이가 모든 관광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다. 주지하듯이 성산읍 일대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조천읍과 제주시는 동물테마파크와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제주시 노형동에는 제주 최대 도심 복합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어, 다수의 주민이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대표성의 문제는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관광개발 관련 각 사안에 따른 대표성 혹은 지역적 특성이 확보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 대한 실증연구는 2020년 10월이라는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가 단시간에 형성되지는 않는 까닭에 기간을 두어 주민들의 인식형성과 변화를 관찰하고, 개발의 후속 결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도 변화를 시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고찰하는 종단 연구가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의 미흡함이다. 본 연구의 핵심 이론은 사회교환이론이며, 최종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정서에 대한 탐구와 이해이다. 관광지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정성적 연구는 12.9%만을 차지하며,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분석을 혼합한 연구도 그 성과가 아직은 미비한 상황으로 대부분은 심리학과 사회학 이론에 기초를 둔 실증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Nunkoo, Smith, & Ramkissoon, 2013). 본 연구도 대부분 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정량적인 측면에 할애하였지만, 질적 자료의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 혼합적인 연구 방식을 시도하였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인식을 수치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직관적이고 통계적인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적·집단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사회교환이론을 더욱 정교한 시각과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행동 의도를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법을 통해 다량의 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질적분석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 강민정(2014).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숙영(1999). 제주지역주민의 컨벤션영향인식과 확산에 관한 연구. 『제주관광학연구』 2: 5-21.
- 강신겸·최승담(2002). 관광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측정척도 개발. 『관광학연구』 26(1): 103-117.
- 강신겸(2002).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안동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5(1): 139-158.
- 강영애·최승담(2016). 메시지 프레이밍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문객 행동에 미치는 영향-조절초점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0(5): 217-232.
- 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 지역주민의 장소애착과 환경인식이 생태관광영향인식과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4(4): 113-136.
- 강용석·최용복(2019). 제주지역 공공정책 갈등관리 실태와 공공갈등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39: 15-26.
- 강태우(2019). 문화적 정향 및 주관적 안녕감에 따른 지방정부신뢰 및 관광개발 지지 차이검증. 『여가관광연구』 32: 57-80.
- 고계성(2007).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연구. 『호텔관광연구』 9(2): 87-97.
- 고계성(2011). 해양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지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차이 연구: 경남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5(2): 41-54.
- 고계성(2014).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6(9): 379-396.
- 고계성·김영남·현홍준(2010).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에 대한 관광지 지역주민의 영향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2(3): 29-46.
- 고계성·이영진·고미영(2011). 제주도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지지도 관계분석-편익과 비용차원 관점 적용. 『관광학연구』 35(9): 139-161.
- 고계성·임화순(2007). 세계자연유산 방문객 인식에 따른 관리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제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1(3): 153-165.
- 고동완·김현정(2003).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학연구』 27(3): 97-114.
- 고동완·정승호(2004).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태도 차이. 『국토계획』 39(2): 177-188.

- 고동완·이상훈·오수진(2015). 공정관광의 장소애착과 책임관광 행동 탐색. 『관광학연구』 39(4): 129-148.
- 고동완(1998).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동완(2001). 인구통계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 『관광학연구』 25(3): 63-80.
- 고동완(2008).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에 대한 제주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관광학연구』 12: 217-251.
- 고승익·고경실·조문수(2007). 지역주민의 지역축제 평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애착도, 지역축제 영향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4): 177-198.
- 고승익(2008). 지역사회 애착도가 지역축제 영향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제주 우도 유채꽃 잔치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21: 531-550.
- 권송이·송명규(2017). 지역사회애착과 시민의식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평택시를 사례로. 『환경정책』 25(3): 195-219.
- 금지현·김진모(2011). 초등학생의 환경행동과 환경지식, 통제소재, 환경태도 및 친환경행동의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4(1): 27-54.
- 김경준·김성수(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3(2): 211-232.
- 김남선(1991). 『지역사회 개발학 개론』 형설출판사.
- 김명준·김은식(2006). 지역주민의 스포츠이벤트 유치 중요도 평가와 공동체 의식 및 협력의사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357-372.
- 김명준·홍계희(2006). 인문, 사회과학편: 프로구단 웹사이트의 몰입이 팀 충성도 및 지역사회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5(1): 151-160.
- 김보경·조광익(2016). 컨벤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지역사회 애착도와 공동체의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0(12): 5-22.
- 김보형·김영남·홍성화(2019). 지역주민의 복합리조트 산업영향인식이 태도와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MICE 관광연구 (구 컨벤션연구)』 58: 123-140.
- 김보형(2019). 복합리조트 카지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우·김남규(2014). 오피니언 분류의 감성사전 활용효과에 대한 연구. 『지능정보연구』 20(1): 133-148.

- 김영미·김미주·김성섭(2010). 카지노 개발 이전의 기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식, 장소애착심, 카지노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의사 간의 관계. 『관광학연구』 34(5): 307-330.
- 김영진(2015).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관광숙박업의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제주관광학연구』 19: 55-80.
- 김용철·윤유식(2013).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MICE 산업 영향·혜택·지지도 간 관계 분석-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347-368.
- 김이수(2016).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연구-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157-182.
- 김인환·이용진(2009). 농촌관광사업에서 지역주민간의 파트너십 및 갈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4(5): 251-273.
- 김주진·류재준·신우진(2019). 지역애착도와 복합문화시설 만족도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사례로. 『지역개발연구』 51(2): 109-126.
- 김중인(2012). 반영지표 vs. 조형지표: 이론적 논의, 실증적 비교, 그리고 실무적 유용성. 『마케팅연구』 27(4): 199-226.
- 김진옥·신동주(2017). 관광개발영향이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1(3): 69-83.
- 김진옥(2018). VBN (Value-Belief-Norm) 이론을 적용한 기후변화인식이 친환경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2(6): 33-46.
- 김태경·이동엽·최석진·이용순·김주훈(2005). 새로운 환경교육의 목표와 내용.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1-115.
- 김현정·유광민·김남조(2014). 가치, 기후변화 문제지각 및 개인적 책임이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6(4): 43-66.
- 김형중(2020).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와 신남방정책: 아세안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0(3): 21-54.
- 남중현(2019). 축제 성과가 지역애착도 및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창원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3): 151-167.
- 노경섭(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한빛아카데미.
- 노상열·손재만·고성호(2019). 관광지의 사회심리적 수용력 초과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가관광연구』 31: 53-70.
- 노형진(2014). 『SPSS를 활용한 주성분분석과 요인분석』 한울.

- 류동균·박경심·김태훈·주영환(2016). 국립공원 탐방객의 개인적 규범에 따른 친환경행동의도와 국립공원관리정책 지지도 차이 분석. 『관광연구저널』 30(1): 197-210.
- 류을순·서상원(2015). 외식기업의 친환경경영활동, 친환경적 태도, 지각된 소비자 효율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9(11): 87-100.
- 문경주·김수영·장수지(2015). 다층분석에 의한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115-142.
- 문창현(2007). 생태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측면의 지역주민 의식수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5(1): 71-94.
- 문홍교·김민지(2019). 애착도 관여도가 관광요인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관광진흥연구』 7(1): 117-140.
- 민기(2014). 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 거주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137-155.
- 민현선·이기춘(199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 29-44.
- 박경옥(2015). 도보관광지 주민의 환경인식에 따른 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태도: 봉사활동 참여경험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관광연구』 30(3): 41-56.
- 박석희·고동우·김병국(2000). 관광지의 정서적 이미지 척도 개발 연구. 『한국공원휴양학회지』 2(2): 149-163.
- 박시원(2016). 영종도 MICE 중심형 글로벌복합리조트에 대한 언론보도의 감성분석. 『관광연구』 31(7): 109-128.
- 박용순·고동완(2010). 농촌관광마을에서 사회적 자본이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4(8): 33-55.
- 박윤희·김해옥·현성협(2019). 리조트 직원의 심리적 주인의식 및 지역애착도 형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8(2): 1-18.
- 박인규·이희천·전기환(2011). 수변공간 관광개발의 사회적 편익, 환경적 편익, 경제적 편익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낙동강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6(5): 293-314.
- 박주연(2017).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에 관한 연구: 제주 제 2 공항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영·오상훈(2019).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 연구: 관광개발 지지의사 매개효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12): 21-43.
- 박희제·허주영(2010). 친환경행동의 결정요인과 구조: 친환경행동의 다차원성과 환경의식의 영향을

- 중심으로. 『환경정책』 18(1): 1-26.
- 서광용·홍성화(2016). 관광개발영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MICE 관광연구 (구 컨벤션연구)』 46: 121-135.
- 서세진·서용건(2017). 제주 올레에 대한 장소 애착심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탐라문화』 54: 209-233.
- 서세진·서용건(2019). 초등학생의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객에 대한 정서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43(3): 107-126.
- 서용건·고광희·김민철(2010). 섬 관광목적지 경쟁력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1): 167-187.
- 서용건·허향진·고광희·김용이(2005). 골프장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태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0(2): 267-283.
- 서인석·이재원·정원희(2019). 공공문화시설과 지역애착심의 관계-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1): 101-122.
- 서철현·고호석(2011). 지역축제 개최지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지역애호도의 영향관계: 2009 성주 참외축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3(1): 447-466.
- 송광인·김정준·김용준(2010). 관광레저형 여가공간개발의 영향요인과 태도연구. 『관광연구』 24(6): 473-493.
- 송기현(2010). 생태관광축제 영향요인의 지역주민 태도와 관광개발지지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래현·윤유식(2019). 지역주민의 관광개발태도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관광개발 지지도 복합차이연구. 『한국과학예술통합학회』 37(3): 213-224.
- 송명규(2018). 자연관 (생태중심주의 vs. 인간중심주의) 이 친환경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정책』 26(1): 59-85.
- 송재호·고계성(2015).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에 관한 연구: 경남 창원시 마산구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8(1): 37-51.
- 신건권(2018).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청람.
- 신민철(2007). 『사회연구방법의 기초』 창민사.
- 양덕순·강영순(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 양민호·고진영·김명일·김기성(2018). 주민참여가 공동체의식과 관광개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철원군 DMZ 평화마을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국농공학회논문집』 60(2): 65-73.

- 양성수·허향진·서용건(2009). 제주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3(4): 199-210.
- 양승필·서용건(2015). 관광개발에 대한 갈등요인, 갈등수준, 주민협력 및 개발 지지도간 영향 연구: 제주지역 카지노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30(2): 309-329.
- 양승필(2012). 생태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영향요인, 지각된 혜택, 개발 지지도, 참여의도간의 관계 연구. 『관광연구』 27(2): 319-339.
- 엄상근(2020). 국토도시계획 지역별 미래 전망 (II):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보』 (457): 24-27.
- 엄서호(2008). 관광지 개발계획 시 방문자수 예측에 관한 연구. 『여가관광연구』 11, 1-16.
- 오상훈·양필수·양성국(2008). 골프장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지각, 태도, 생활만족과의 구조관계 분석. 『관광연구저널』 22(2): 5-20.
- 오정학·윤유식(2009). 지역애착심과 관광개발선호, 평가, 만족, 인구학적 특성과 관광개발 지지, 효과인식의 영향관계: 지역애착심과 관광개발선호, 평가, 만족, 인구학적 특성과관광개발 지지, 효과인식의 영향관계. 『관광연구』 24(5): 275-295.
- 유광민·김현정·김남조(2015). 기후변화 발생 책임인식이 관광 상황에서 개인 규범과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광학연구』 39(5): 87-100.
- 유근준·이혁진(2014). 체험경제 (4Es) 이론에 따른 축제방문객의 행동의도와 체험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양양송이축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6(3): 263-281.
- 유원희·서세진·최병길(2017). 제주도 UNESCO 및 UNFAO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 비교-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4): 134-143.
- 유인혜·고동완(2009). 지역사회 기반형 관광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환경인식, 참여와 통합의 관계. 『관광학연구』 33(1): 157-179.
- 윤동진(2019). 지역의 국제화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숙박산업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국제경영리뷰』 23(4): 133-146.
- 윤동환·한승훈(2020). 관광지 매력성, 환경책임행동, 그리고 장소애착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3): 33-46.
- 윤병국(2010). 태안관광레저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영향요인 및 개발지지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4(4): 23-41.
- 윤선미·김태욱(202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TPB) 와 규범 활성화 모델 (NAM) 을 활용한 친환경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친환경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9(2): 21-39.

- 윤유식·곽용섭(2005). 관광일반부문: 지역주민의 장소에착함에 따른 관광지 평가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4(2): 511-525.
- 윤유식·오정학·박경연(2009). 호텔선택속성 포지셔닝 분석을 통한 서울지역 특급호텔 경쟁력 비교: 서울지역 내국인의 평가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8(3): 23-44.
- 윤유식(2009). 농촌관광마을 사회자본에 따른 관광개발태도 및 관광개발 지지도에 관한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16(3): 41-61.
- 윤지현·이환봉(2008). 지역사회 애착도와 지역민의 관광개발 태도 연구. 『관광경영연구』 12(2): 76-102.
- 윤희실·윤희현(2013). 개인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식행동의 조절효과. 『호텔경영학연구』 22(1): 253-267.
- 이걸재(2008). 주민의 자기검색성향이 관광개발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에 대한 논산시민의 태도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6): 242-252.
- 이경영(2019). 지역애착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2(4): 1-20.
- 이명구(2010).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갈등 관리 연구: 제주 올레길 중심. 『서비스산업연구』 7(2): 143-164.
- 이봉구·이충기(2004). 강원랜드 카지노 개발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7(4): 289-309.
- 이상용·윤희정(2013). 지역주민 특성별 수변공간 관광개발 태도 차이: 가평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8(3): 249-262.
- 이상훈·최정·김중우(2016). 영역별 맞춤형 감성사진 구축을 통한 영화리뷰 감성분석. 『지능정보연구』 22(2): 97-113.
- 이소정(2019). 내국인의 제주관광 선택요인과 제주의 관광경쟁력 강화방안. 『지역경제동향』 .
- 이영원(2016). 지역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19(1): 389-415.
- 이재영·김인호(2002). 환경교육 연구의 새로운 측정치-주관적으로 책임 있는 환경 행동. 『환경교육』 15(2): 61-75.
- 이재영(2015). 2015 개정<환경>과 교육과정의 주요 의제.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54-60.
- 이종호·노정구·김인숙(2000). 환경의식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29(2): 171-195.

- 이종환·김경환(2012). 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 손으로: 서울시 서초구 주민자치협의회 이종환 회장. 『월간 주민자치』 3: 57-57.
- 이지훈·김윤정(2012). 지역애착심이 집단효능감과 관광개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6(3): 70-81.
- 이진희(2006). 서귀포시 생태관광마을 조성에 대한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2(2): 17-25.
- 이충기·강세영(2004). 폐광카지노 지역주민 인식변화에 관한 중단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3(1): 1-12.
- 이충기·강수경(2008). 지역주민의 카지노 영향요인에 관한 국제간 비교: 강원랜드와 콜로라도 사례. 『관광학연구』 32(1): 53-71.
- 이충기·양형은·이재석(2011). 한·일 간 카지노 지역주민의 인식과 지지도 비교분석. 『관광연구』 26(3):, 361-376.
- 이학식·임지훈(2001). 소비관련 감정, 만족, 그리고 제품태도간의 구조적 관계. 『경영학연구』 30(4): 1115-1142.
- 이학식·임지훈(2017). 『SPSS 24 매뉴얼』 집현재.
- 이형주·김인신(2014).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통한 관광개발 영향이 지역주민의 지역정체성 상실 및 개발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투자이민에 의한 제주지역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6(5): 411-426.
- 이후석·오민재(2004). 관광객 시선이 관광동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3(4): 205-217.
- 이후석·오민재(2014). 지역애착과 관광영향인식이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지지여부에 미치는 영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28(12): 5-16.
- 이후석·오민재(2019). 생태관광에 대한 가치가 만족, 태도 및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31(1): 93-112.
- 이후석(2011). 지역주민의 지역애착 수준별 농촌 관광영향인식과 관광개발태도 관계 분석. 『관광연구저널』 25(5): 29-45.
- 임근욱·함승우·강형철(2012).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영향과 개발지지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4(1): 5-23.
- 임기성(2013).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울산 일산유원지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9(1): 43-63.
- 임성범(2015). 대학교원의 직무만족도 지표개발-PLS-SEM 을 통한 신뢰성, 타당성, 모델 예측력 검증 중심. 『교육행정학연구』 33: 103-132.

- 임화순·고계성(2012).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이 태도 및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8(1): 123-139.
- _____ (2013). 관광지 방문객의 방문 동기가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남 통영시 미륵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7(2): 289-302.
- 임화순·박종준(2018). 의미분별법을 활용한 관광도시의 이미지 평가: 제주도와 제주시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4): 813-828.
- 장모나·허유순·임화순(2019).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주 이주'에 대한 탐색적 키워드 분석. 『산경논집』 39: 15-26.
- 장정순·임원선(2015). 지역사회 애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경기도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2): 101-125.
- 장혜원·김태훈·정철(2011). 다크투어리즘 참가자의 방문 동기-제주 4.3 평화공원 방문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비교. 『관광학연구』 35(6): 79-97.
- 전영철(2000). 사회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 을 통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태도 측정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2(1): 179-194.
- 전희원·문상정(2006). 환경운동 관여수준에 관한 관광개발 영향지각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감포관광단지개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0(1): 89-104.
- 정성문·강신겸(2020). 주민의 부정적 관광개발 영향 지각이 지역 만족과 개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과문화』 7(1): 127-152.
- 정성문(2019). 주민의 오버투어리즘 지각 수준이 지역만족과 관광개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이 축제의 혜택, 손실 및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시흥갯골축제에 방문한 시흥시민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8(4): 177-192.
- 정승훈(2014).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개발 지지도 관계 분석: 제주도 관광권역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7: 253-277.
- 정승훈(2019a). 어촌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영향요인, 지지, 구전 의도 간 관계. 『인문사회 21』 10(2): 409-424.
- _____ (2019b). 정치적 임파워먼트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 인식, 정부 신뢰, 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를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33(8): 47-64.
- _____ (2019c). 제주도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 인식과 개발지지 관계. 『이벤트컨벤션연구』 35: 183-206.

-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도시관광지 주민의 지역애착도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광주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1(7): 21-38.
- 정충영·최이규(2011).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한글 SPSS 14.0』 무역경영사.
- 제주도(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
- 제주특별자치도(20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2020). 제주방문 관광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분석 연구.
- 조광익·김남조(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31-51.
- 조문수(2015).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 연구-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 78(3): 1111-1118.
- 조문수·박시사·노경국(2008). 세계자연유산(世界自然遺産) 등재(登載)에 대한 제주 지역주민의 인식. 『관광학연구』 32(3): 167-186.
- 조장현(2017). 지역주민이 인식한 관광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윤주·신준섭·서동준(2020).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감정노동이 우울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문화산업연구』 20(2): 49-62.
- 진재문(2020).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참여 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 60세 이상 부산시 노인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23(4): 265-293.
- 최규성(2004).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모형화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최규환(2018). 관광개발 지역주민의 지역애착도 군집별 특성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14(1): 23-38.
- 최연화·김준우·송학준(2018).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영향 인식, 장소애착심, 개발인식 및 개발지지도간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7(8): 281-296.
- 최윤석·김인신·정호권(2014). 지역주민의 지역정체성이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인식, 친환경행동 및 관광개발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생성감의 조절효과와 함께. 『관광레저연구』 26(9): 397-414.
- 최지혜·이기종(2016). 항공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객지각이 기업이미지, 브랜드 동일시 및 기업 신뢰에 미치는 영향: 상용고객 우대제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31(5): 43-66.
- 한국법제연구원(20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 한승훈·김진옥(2018). 지역주민의 지역애착, 공동체 의식, 태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어등산 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2(12): 5-18.
- 한승훈·신동주(2017). 지역애착, 개발만족 그리고 개발 지지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강원도 남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1(5): 23-35.
- 한승훈(2019). 지역주민의 관광지 사회적 책임이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네스코 지정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3(6): 145-158.
- 한진성·문현철·윤지환(2018). 제주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과 지속적 관광개발 지지의사 간 관계에서 지역애착도의 조절효과. 『관광학연구』 42(10): 93-109.
- 현미경·황경수·김경범(2013). 제주문화예술도시 발전을 위한 “관용” 인식수준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10): 4791-4798.
- 현홍준·서용건·고계성(2010). 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 선택속성, 영향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비교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37: 481-515.
- 홍성범·오상훈·박운정(2016). 제주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위협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MICE 관광연구 (구 컨벤션연구)』 45: 171-187.
- 황경수(2015). 사회적 자본이 제주지역 공동체 문화인 권당문화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3): 1764-1772.
- 황경후·송상현·정철(2016).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효과인식이 지역애착과 개발지지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8(1): 105-132.
- 황정진·고계성(2018). 도외 제주인의 제주 지역 애착심이 제주 관광 개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지역 정체성의 매개변수 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3(3): 229 - 248.
- Ajzen, I., & Fishbein, M.(1988). Theory of reasoned action-Theory of planned behavior. *University of South Florida*. 2007: 67-98.
- Allen, L. R., Hafer, H. R., Long, P. T., & Perdue, R. R.(1993).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 recre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1(4): 27-33.
- Allen, L. R., Long, P. T., Perdue, R. R., & Kieselbach, S.(1988). The impact of tourism development on residents' perceptions of community lif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7(1): 16-21.

- Altman, I., & Low, S. M. (Eds.).(2012). *Place attachment* (Vol. 12).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Andereck, K. L., & Nyaupane, G. P.(2011). Exploring the nature of tourism and quality of life perceptions among residen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0(3): 248-260.
- Andereck, K. L., & Vogt, C. A.(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and tourism development op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9(1): 27-36.
- Andereck, K. L., Valentine, K. M., Knopf, R. C., & Vogt, C. A.(2005). Residents' perceptions of community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4): 1056-1076.
- Andereck, K., & Jurowski, C.(2006). Tourism and quality of life. *Quality tourism experiences*. 136-154.
- Andriotis, K., & Vaughan, R. D.(2003). Urba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The case of Crete. *Journal of travel research*, 42(2): 172-185.
- Andriotis, K., Agiomirgianakis, G., & Mihiotis, A.(2008). Measuring tourist satisfaction: A factor-cluster segmentation approach.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4(3): 221-235.
- Ap, J. (1992).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665-690.
- Ap, J., & Crompton, J. L.(1998). Developing and testing a tourism impact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2): 120-130.
- Armstrong, A., & Stedman, R. C.(2019). Understanding local environmental concern: the importance of place. *Rural Sociology*. 84(1): 93-122.
- Arrow, K., Bolin, B., Costanza, R., Dasgupta, P., Folke, C., Holling, C. S., ... & Pimentel, D.(1995). Economic growth, carrying capacity, and the environment. *Ecological economics*. 15(2): 91-95.
- Assael, H.(1984).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Kent Pub. Co..
- Ballantyne, R., Packer, J., & Falk, J.(2011). Visitors' learning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esting short-and long-term impacts of wildlife tourism experienc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ourism management*. 32(6): 1243-1252.

- Bamberg, S., & Möser, G.(2007). Twenty years after Hines, Hungerford, and Tomera: A new meta-analysis of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pro-environmental behaviou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7(1): 14-25.
- Blake, D. E.(2001). Contextual effects on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33(5): 708-725.
- Borden, R. J., & Schettino, A. P.(1979).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0(4): 35-39.
- Brehm, J. M., Eisenhauer, B. W., & Krannich, R. S.(2006). Community attachments as predictors of local environmental concern: The case for multiple dimensions of attach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2): 142-165.
- Brougham, J. E., & Butler, R. W.(1981). A segmentation analysis of resident attitudes to the social impact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8(4): 569-590.
- Brunt, P., & Courtney, P.(1999). Host perceptions of sociocultural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3): 493-515.
- Butler, R. W. (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Le Géographe canadien*. 24(1): 5-12.
- Butler, R. W.(1991). Tourism,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18(3): 201-209.
- Byrd, E. T.(2007). Stakeholders i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nd their roles: applying stakeholder theory to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ourism review*.
- Byrd, E. T., Bosley, H. E., & Dronberger, M. G.(2009). Comparisons of stakeholder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in rural eastern North Carolina. *Tourism Management*. 30(5): 693-703.
- Carmichael, B. A.(2000). A matrix model for resident attitudes and behaviours in a rapidly changing tourist area. *Tourism management*. 21(6): 601-611.
- Carmichael, B. A., Peppard Jr, D. M., & Boudreau, F. A.(1996). Megaresort on my doorstep: Local resident attitudes toward Foxwoods Casino and casino gambling on nearby Indian reservation land. *Journal of Travel research*. 34(3): 9-16.

- Cecil, A. K., Fu, Y. Y., Wang, S., & Avgoustis, S.(2010). Cultural tourism and quality of life: Results of a longitudinal study. *Europ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1): 54-66.
- Chavis, D. M., & Newbrough, J. R.(1986). The meaning of “community” in community psycholog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 Chavis, D. M., Hogge, J. H., McMillan, D. W., & Wandersman, A.(1986). Sense of community through Brunswik’s lens: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24-40.
- Chen, C. L.(2011). From catching to watching: Moving towards quality assurance of whale/dolphin watching tourism in Taiwan. *Marine Policy*. 35(1): 10-17.
- Chen, M. F., & Tung, P. J.(2014). Developing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to predict consumers’ intention to visit green hotel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6: 221-230.
- Chen, N. C., Dwyer, L., & Firth, T.(2018). Residents’ place attachment and word-of-mouth behaviours: A tale of two citie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36: 1-11.
- Chen, N., & Dwyer, L.(2018). Residents’ place satisfaction and place attachment on destination brand-building behaviors: Conceptual and empirical differenti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7(8): 1026-1041.
- Cheng, T. M., & Wu, H. C.(2015). How do environmental knowledge, environmental sensitivity, and place attachment affec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An integrated approach for sustainable island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3(4): 557-576.
- Cheng, T. M., Wu, H. C., Wang, J. T. M., & Wu, M. R.(2019). Community Participation as a mediating factor on residents’ attitudes towards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nd their personal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ur. *Current Issues in Tourism*. 22(14): 1764-1782.
- Cheng, T. M., C. Wu, H., & Huang, L. M.(2013). The influence of place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stination attractiveness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for island tourism in Penghu, Taiwan. *Journal of*

- Sustainable Tourism*. 21(8): 1166-1187.
- Chin, C. H., Lo, M. C., Razak, Z. B., Pasbakhsh, P., & Mohamad, A. A.(2020). Resources Confirmation for Tourism Destinations Marketing Efforts Using PLS-MGA: *The Moderating Impact of Semirural and Rural Tourism Destination Sustainability*. 12(17): 6787.
- Chin, W. W.(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295(2): 295-336.
- Cho, M., & Lim, U.(2016). The effect of income-mix on place attachment as civic pride in Seoul-Using the Seoul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32(3): 3-15.
- Choi, H. C., & Murray, I.(2010). Resident attitudes toward sustainable community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8(4): 575-594.
- Choi, H. C., & Sirakaya, E.(2006). Sustainability indicators for managing community tourism. *Tourism management*. 27(6): 1274-1289.
- Choi, H. S. C., & Sirakaya, E.(2005). Measuring residents' attitude toward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of sustainable tourism attitude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4): 380-394.
- Choi, Y. H., Song, H., Wang, J. H., & Hwang, J.(2019).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impacts of a casino-based integrated resort development and their consequences: The case of the Incheon area in South Korea.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14: 100390.
- Clayton, S.(2003). Environmental identity: A conceptual and an operational definition. *Identi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The psychological significance of nature*. 45-65.
- Cohen, E.(1978).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physical environ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5(2): 215-237.
- Corral-Verdugo, V., Garcia-Cadena, C. H., & Frías-Armenta, M.(2010). Psychological approaches to sustainability: Current trends i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 Cottrell, S. P.(2003).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s and environmental attitudes on general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among recreational boaters.

- Environment and behavior*. 35(3): 347-375.
- Dahlsrud, A.(2008).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defined: an analysis of 37 defini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15(1): 1-13.
- De Leeuw, A., Valois, P., Ajzen, I., & Schmidt, P.(2015).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identify key beliefs underlying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high-school students: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interven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2: 128-138.
- Dietz, T., Kalof, L., & Stern, P. C.(2002). Gender, values, and environmentalism. *Social science quarterly*, 83(1): 353-364.
- Doğan, H. Z. (1989). Forms of adjustment: Sociocultural impact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2): 216-236.
- Doxey, G. V.(1975, September). A causation theory of visitor-resident irritants: Methodology and research inferences. In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s sixth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pp. 195-98).
- Dyer, P., Gursoy, D., Sharma, B., & Carter, J.(2007). Structural modeling of resident perceptions of tourism and associated development on the Sunshine Coast, Australia. *Tourism management*. 28(2): 409-422.
- Ellen, P. S., Wiener, J. L., & Cobb-Walgren, C.(1991). The role of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in motivating environmentally conscious behavior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10(2): 102-117.
- Eslami, S., Khalifah, Z., Mardani, A., Streimikiene, D., & Han, H.(2019). Community attachment, tourism impacts, quality of life and residents' suppor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6(9): 1061-1079.
- Faulkner, B., & Tideswell, C.(1997). A framework for monitoring community impacts of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5(1): 3-28.
- Fornell, C., & Bookstein, F. L.(1982).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s: LISREL and PLS applied to consumer exit-voice theo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4): 440-452.

- Fornell, C., & Larcker, D. F.(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 Frauman, E., & Banks, S. (2011). Gateway community resident perceptions of tourism development: Incorporat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nto a Limits of Acceptable Change framework. *Tourism Management*. 32(1): 128-140.
- Gefen, D., Rigdon, E. E., & Straub, D.(2011). Editor's comments: an update and extension to SEM guidelines for administrative and social science research. *Mis Quarterly*. iii-xiv.
- Getz, D.(1994). Residents' attitudes towards tourism: A longitudinal study in Spey Valley, Scotland. *Tourism management*. 15(4): 247-258.
- Glynn, T. J.(1986). Neighborhood and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341-352.
- Goeldner, C. R., & Ritchie, J. B.(2007).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John Wiley & Sons.
- Gonzalez, V. M., Coromina, L., & Galí, N.(2018). Overtourism: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 as an indicator of resident social carrying capacity-case study of a Spanish heritage town. *Tourism Review*.
- Gunn, C. A.(1994). Emergence of effective tourism planning and development. *Tourism: the state of the art*. 10-19.
- Gursoy, D., & Rutherford, D. G.(2004). Host attitudes toward tourism: An improved structural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3): 495-516.
- Gursoy, D., Chi, C. G., & Dyer, P.(2010). Locals' attitudes toward mass and alternative tourism: The case of Sunshine Coast, Austral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49(3): 381-394.
- Gursoy, D., Jurowski, C., & Uysal, M.(2002). Resident attitudes: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79-105.
- Hair Jr, J. F., Hult, G. T. M., Ringle, C., & Sarstedt, M.(2016).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Sage publications.
- Hair, J. F., Ringle, C. M., & Sarstedt, M.(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 Halpenny, E. A.(2006). Environmental behaviour, place attachment and park visitation: A case study of visitors to Point Pelee National Park.
- Halpenny, E. A.(2010). Pro-environmental behaviours and park visitors: The effect of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4): 409-421.
- Han, H.(2015). Traveler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a green lodging context: Converging value-belief-norm theor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urism Management*. 47: 164-177.
- Han, H., & Kim, Y.(2010). An investigation of green hotel customers' decision formation: Developing an extended model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9(4): 659-668.
- Han, H., & Yoon, H. J.(2015). Hotel customers'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al intention: Impact of key constructs on decision in green consume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45: 22-33.
- Hanafiah, M. H., Jamaluddin, M. R., & Zulkifly, M. I.(2013). Local community attitude and support towards tourism development in Tioman Island, Malaysia.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05: 792-800.
- Harrigan, P., Evers, U., Miles, M. P., & Daly, T.(2018). Customer engage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volvement, engagement, self-brand connection and brand usage inten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88: 388-396.
- Harrill, R.(2004).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A literature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tourism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8(3): 251-266.
- Harrill, R., & Potts, T. D.(2003). Tourism planning in historic districts: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in Charlest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9(3): 233-244.
- Henseler, J., & Sarstedt, M.(2013). Goodness-of-fit indices for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Computational Statistics*. 28(2): 565-580.
- Henseler, J.(2012). PLS-MGA: A non-parametric approach to partial least squares-based multi-group analysis. In *Challenges at the interface of data analysis, computer science, and optimization* (pp. 495-501). Springer, Berlin, Heidelberg.

- Henseler, J., Hubona, G., & Ray, P. A.(2016). Using PLS path modeling in new technology research: updated guidelines.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 Hidalgo, M. C., & Hernandez, B.(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 Hillery, M., Nancarrow, B., Griffin, G., & Syme, G.(2001). Tourist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4): 853-867.
- Hines, J. M., Hungerford, H. R., & Tomera, A. N.(1987). Analysis and synthesis of research on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A meta-analysi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8(2): 1-8.
- Homans, G. C.(1958). Social behavior as ex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3(6): 597-606.
- Homburg, A., & Stolberg, A.(2006). Explaining pro-environmental behavior with a cognitive theory of stres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6(1): 1-14.
- Hong, J. J., & Kim Ph D, N. J.(2019).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PA) and Pro-Environmental Behavioural Intentions (PEBI) and its Implications towards Over-Tourism.
- Hummon, D. M.(1992). Community attachment. In *Place attachment* (pp. 253-278). Springer, Boston, MA.
- Hungerford, H. R., & Volk, T. L.(1990). Changing learner behavior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1(3): 8-21.
- Jarvis, P., Holford, J., & Griffin, C.(2003). *The theory & practice of learning*. Psychology Press.
- Jeon, M. M., Kang, M. M., & Desmarais, E.(2016). Residents' perceived quality of life in a cultural-heritage tourism destination.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1(1): 105-123.
- Jin, M. L.(2017). The Influence of Festival Perception on Tourism Destination Resident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9(11): 125-144.
- Jorgensen, B. S., & Stedman, R. C.(2001). Sense of place as an attitude: Lakeshore owners attitudes toward their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33-248.

- Jurowski, C.(2001). A multi-cultural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integrating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human resource management curriculums in hospitality and tourism.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Education*. 13(5): 36-50.
- Jurowski, C. A.(1994). *The interplay of elements affecting host community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A path analytic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Tech).
- Jurowski, C., & Brown, D. O.(2001). A comparison of the views of involved versus noninvolved citizens on quality of life and tourism development issue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25(4): 355-370.
- Jurowski, C., & Gursoy, D.(2004). Distance effects o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2): 296-312.
- Jurowski, C., Uysal, M., & Williams, D. R.(1997). A theoretical analysis of host community resident reactions to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2): 3-11.
- Kaiser, F. G.(1998). A general measure of ecologic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5): 395-422.
- Kaiser, F. G., & Gutscher, H.(2003). The proposition of a general ver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redicting ecologic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3): 586-603.
- Kaiser, F. G., & Wilson, M.(2000). Assessing People's General Ecological Behavior: A Cross Cultural Measur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5): 952-978.
- Kaiser, F. G., & Wilson, M.(2004). Goal-directed conservation behavior: The specific composition of a general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7): 1531-1544.
- Kaiser, F. G., Doka, G., Hofstetter, P., & Ranney, M. A.(2003). Ecological behavior and its environmental consequences: A life cycle assessment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1): 11-20.
- Kasarda, J. D., & Janowitz, M.(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8-339.
- Kiatkawsin, K., & Han, H.(2017). Young travelers' intention to behave pro-environmentally: Merging the value-belief-norm theory and the expectancy theory. *Tourism Management.* 59, 76-88.
- Kilbourne, W., & Pickett, G.(2008). How materialism affects environmental beliefs, concern,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1(9): 885-893.
- Kim, K.(2002). *The effects of tourism impacts upon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the community*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Tech).
- Kim, K., Uysal, M., & Sirgy, M. J.(2013). How does tourism in a community impact the quality of life of community residents?. *Tourism management.* 36: 527-540.
- King, B., Pizam, A., & Milman, A.(1993). Social impacts of tourism: Host percep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4): 650-665.
- Knez, I.(2005). Attachment and identity as related to a place and its perceived climat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2): 207-218.
- Ko, D. W., & Stewart, W. P.(2002).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residents' attitudes for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23(5): 521-530.
- Kock, N., & Hadaya, P.(2018). Minimum sample size estimation in PLS SEM: The inverse square root and gamma exponential methods. *Information Systems Journal.* 28(1), 227-261.
- Koens, K., Postma, A., & Papp, B.(2018). Is overtourism overused?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ourism in a city context. *Sustainability.* 10(12): 4384.
- Kollmuss, A., & Agyeman, J. (2002). Mind the gap: why do people act environmentally and what are the barriers to pro-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8(3): 239-260.
- Kreag, G.(2001). The impacts of tourism.
- Lankford, S. V.(1994).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tourism and rural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35-43.
- Lankford, S. V., & Howard, D. R.(1994). Developing a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1): 121-139.

- Lankford, S. V., Chen, J. S., & Chen, W.(1994). Tourism's impacts in the Penghu national scenic area, Taiwan. *Tourism Management*. 15(3): 222-227.
- Larson, L. R., Stedman, R. C., Cooper, C. B., & Decker, D. J.(2015). Understanding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3: 112-124.
- Lee, C. K., Kang, S. K., Long, P., & Reisinger, Y.(2010). Residents' perceptions of casino impacts: A comparative study. *Tourism Management*. 31(2): 189-201.
- Lee, T. H.(2011). How recreation involvement, place attachment and conservation commitment affec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9(7): 895-915.
- Lee, T. H.(2013). Influence analysis of community resident suppor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34: 37-46.
- Lee, T. H., Jan, F. H., & Yang, C. C.(2013).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s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y-based tourists. *Tourism Management*. 36: 454-468.
- Lepp, A.(2007). Residents' attitudes towards tourism in Bigodi village, Uganda. *Tourism management*. 28(3): 876-885.
- Liu, J. C., Sheldon, P. J., & Var, T.(1987). Resident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1): 17-37.
- Liu, J. C., & Var, T.(1986).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impacts in Hawaii. *Annals of tourism research*. 13(2): 193-214.
- Liu, Z.(2003).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 critiqu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1(6): 459-475.
- Long, D. A., & Perkins, D. D.(200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ense of community index and development of a brief SCI.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3): 279-296.
- MacQueen, K. M., McLellan, E., Metzger, D. S., Kegeles, S., Strauss, R. P., Scotti, R., ... & Trotter, R. T.(2001). What is community? An evidence-based definition for participatory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12): 1929-1938.

- Mainieri, T., Barnett, E. G., Valdero, T. R., Unipan, J. B., & Oskamp, S.(1997). Green buying: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concern on consumer behavior.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2): 189-204.
- Mateu-Sbert, J., Ricci-Cabello, I., Villalonga-Olives, E., & Cabeza-Irigoyen, E.(2013). The impact of tourism on municipal solid waste generation: The case of Menorca Island (Spain). *Waste management*. 33(12): 2589-2593.
- McCool, S. F., & Martin, S. R.(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29-34.
- McGehee, N. G., & Andereck, K. L.(2004). Factors predicting rural residents' support of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2): 131-140.
- McMillan, D. W., & Chavis, D. M.(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egeirhi, H. A., Woosnam, K. M., Ribeiro, M. A., Ramkissoon, H., & Denley, T. J.(2020). Employing a value-belief-norm framework to gauge Carthage residents' intentions to support sustainable cultural heritage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8(9): 1351-1370.
- Mehmetoglu, M.(2010). Factors influencing the willingness to behave environmentally friendly at home and holiday settings. *Scandinavi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10(4): 430-447.
- Meijers, M. H., & Stapel, D. A.(2011). RETRACTED: Me tomorrow, the others later: How perspective fit increases sustainable behavior.
- Mihalič, T.(2000). Environmental management of a tourist destination: A factor of tourism competitiveness. *Tourism management*. 21(1): 65-78.
- Milman, A., & Pizam, A.(1988). Social impacts of tourism on central Florida.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2): 191-204.
- Mobley, C., Vagias, W. M., & DeWard, S. L.(2010). Exploring additional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literature and environmental attitudes. *Environment and Behavior*. 42(4): 420-447.
- Monecke, A., & Leisch, F.(2012). semP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partial least squares.

- Mosler, H. J.(1993). Self-dissemination of environmentally-responsible behavior: The influence of trust in a commons dilemma gam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2): 111-123.
- Nelson, R. R., & Winter, S. G.(2002). Evolutionary theorizing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6(2): 23-46.
- Nicholas, L. N., Thapa, B., & Ko, Y. J.(2009). Residents' perspectives of a world heritage site: the Pitons Management Area, St. Luc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36(3): 390-412.
- Nunally, J., & Bernstein, L.(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acGraw-Hill Higher.
- Nunkoo, R., & Ramkissoon, H.(2010). Modeling community support for a proposed integrated resort projec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8(2): 257-277.
- Nunkoo, R., & Ramkissoon, H.(2011).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attributes and support for tourism.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35(2): 171-190.
- Nunkoo, R., Smith, S. L., & Ramkissoon, H.(2013). Residents' attitudes to tourism: A longitudinal study of 140 articles from 1984 to 2010.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1(1): 5-25.
- Nunkoo, R., & So, K. K. F.(2016).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Testing alternative structural model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5(7): 847-861.
- Nunkoo, R., Gursoy, D., & Juwaheer, T. D.(2010). Island residents' identities and their support for tourism: an integration of two theorie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8(5): 675-693.
- Olya, H. G., Alipour, H., & Gavilyan, Y.(2018). Different voices from community groups to support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t Iranian World Heritage Sites: evidence from Bisotun.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6(10): 1728-1748.
- Orams, M. B.(1997).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education: can we turn tourists into "greenies"?. *Progress in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4): 295-306.

- Papastathopoulos, A., Ahmad, S. Z., Al Sabri, N., & Kaminakis, K.(2020). Demographic analysis of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in the UAE: A Bayesia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ultigroup approach. *Journal of Travel Research*. 59(6): 1119-1139.
- Pearce, P. L., Moscardo, G., & Ross, G. F.(1996). *Tourism community relationships* (p. 6). Oxford: Pergamon.
- Perdue, R. R., Long, P. T., & Allen, L.(1990).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4): 586-599.
- Perdue, R. R., Long, P. T., & Kang, Y. S.(1995). Resident support for gambling as a tourism development strateg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4(2): 3-11.
- Petter, S., Straub, D., & Rai, A.(2007). Specifying formative constructs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MIS quarterly*. 623-656.
- Pham, K., Andereck, K., & Vogt, C.(2019). Local residents' perceptions about tourism development.
- Pizam, A.(1978). Tourism's impacts: The social costs to the destination community as perceived by its residen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4): 8-12.
- Prentice, R.(1993). *Tourism and heritage attractions*. Routledge.
- Prezza, M., Amici, M., Roberti, T., & Tedeschi, G.(2001). Sense of community referred to the whole town: Its relations with neighboring,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nd area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1): 29-52.
- Proshansky, H. M., Fabian, A. K., & Kaminoff, R.(1983). Place-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 57-83.
- Qizilbash, M.(1996). Capabilities, well being and human development: A survey.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3(2): 143-162.
- Ramayah, T., Cheah, J., Chuah, F., Ting, H., & Memon, M. A.(2018).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using smartPLS 3.0. In *An Updated Guide and Practical Guide to Statistical Analysis*. Pearson.
- Ramkissoon, H., Mavondo, F., & Uysal, M.(2018). Social involvement and park citizenship as moderators for quality-of-life in a national park.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6(3): 341-361.

- Ramkissoon, H., Smith, L. D. G., & Weiler, B.(2013). Testing the dimensionality of place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s with place satisfaction and pro-environmental behaviours: A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pproach. *Tourism management*. 36: 552-566.
- Rasoolimanesh, S. M., Jaafar, M., Kock, N., & Ahmad, A. G.(2017). The effects of community factors on residents' perceptions toward World Heritage Site inscription and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5(2): 198-216.
- Ribeiro, M. A., Pinto, P., Silva, J. A., & Woosnam, K. M.(2017). Residents' attitudes and the adoption of pro-tourism behaviours: The case of developing island countries. *Tourism Management*. 61: 523-537.
- Rice, G.(2006).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Egypt: is there a role for Islamic environmental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65(4): 373-390.
- Rigdon, E. E.(2012). Rethinking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In praise of simple methods. *Long range planning*. 45(5-6): 341-358.
- Rigdon, E. E.(2014). Rethinking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breaking chains and forging ahead. *Long range planning*. 47(3): 161-167.
- Rigdon, E. E.(2016). Choosing PLS path modeling as analytical method in European management research: A realist perspective.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4(6): 598-605.
- Roehl, W.(1999). Quality of life issues in a casino destin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4(3): 223-229.
- Rothman, R. A.(1978). Residents and transients: community reaction to seasonal visito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3): 8-13.
- Sarason, S. B.(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Jossey-Bass.
- Sarstedt, M., Henseler, J., & Ringle, C. M.(2011). Multigroup analysis in partial least squares (PLS) path modeling: Alternative methods and empirical results. In *Measurement and research methods in international marketing*.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Sauvé, L.(1996). Environmental edu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 further appraisal. *Canad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 7-34.
- Scannell, L., & Gifford, R.(2010). Defining place attachment: A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1): 1-10.
- Schlittgen, R., Ringle, C. M., Sarstedt, M., & Becker, J. M.(2016). Segmentation of PLS path models by iterative reweighted regress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10): 4583-4592.
- Schultz, P. W.(2000). New environmental theories: Empathizing with nature: The effects of Perspective taking on concern for environmental iss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6(3): 391-406.
- Schwartz, S. H., & Howard, J. A.(1980). Explanation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responsibility denial on the personal norm-behavior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41-446.
- Scott, D., & Willits, F. K. (1994).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 A Pennsylvania survey. *Environment and behavior*. 26(2): 239-260.
- Sharpley, R.(2020). Tourism,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theoretical divide: 20 years on.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8(11): 1932-1946.
- Sheldon, P. J., & Var, T.(1984). Resident attitudes to tourism in North Wales. *Tourism management*. 5(1): 40-47.
- Shumaker, S. A., & Hankin, J. R.(1984). Introduction: The Bonds Between People and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s: Theory and Research. *Population and Environment*. 7(2): 59.
- Sinclair-Maragh, G., Gursoy, D., & Vieregge, M.(2015). Residents' perceptions toward tourism development: A factor-cluster approach.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4(1): 36-45.
- Sivek, D. J., & Hungerford, H.(1990). Predictors of responsible behavior in members of three Wisconsin conservation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1(2): 35-40.
- Smith-Sebasto, N. J., & D'Costa, A.(1995). Designing a Likert-type scale to predic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in undergraduate students: A multistep

- proces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7(1): 14-20.
- Stern, P. C., & National Research Council.(1997). *Environmentally significant consumption: Research directions*. Natl Academy Pr.
- Stern, P. C., Dietz, T., Abel, T., Guagnano, G. A., & Kalof, L.(1999). A value-belief-norm theory of support for social movements: The case of environmentalism. *Human ecology review*. 81-97.
- Stokols, D., & Shumaker, S. A.(1982). The Psychological Context of Residential Mobility and Well Being. *Journal of Social Issues*. 38(3): 149-171.
- Stren, P. C.(2000). Toward a coherent theory of 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ur. *Journal of Social Issues*. 56(3): 407-424.
- Strzelecka, M., Boley, B. B., & Woosnam, K. M.(2017). Place attachment and empowerment: Do residents need to be attached to be empowered?. *Annals of Tourism Research*. 66: 61-73.
- Stylidis, D.(2018a). Place attachment, perception of place and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ourism Planning & Development*. 15(2): 188-210.
- _____ (2018b). Residents' place image: a cluster analysis and its links to place attachment and support for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6(6): 1007-1026.
- Su, L., Hsu, M. K., & Boostrom Jr, R. E.(2020). From recreation to responsibility: Increasing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in tourism.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09: 557-573.
- Su, L., Huang, S. S., & Pearce, J.(2018). How does destination social responsibility contribute to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ur? A destination resident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86: 179-189.
- Su, L., Huang, S., & Huang, J.(2018). Effects of destination social responsibility and tourism impacts on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and perceiv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42(7): 1039-1057.
- Thapa, B.(2010). The mediation effect of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on environmental attitude-behavior correspondence.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41(3): 133-150.

- Teixeira, D., & Ribeiro, J. C.(2019).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Tourism Impacts on a Mature Destination: The Case of Madeira Island.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7(4): 149-167.
- Tosun, C.(2002). Host perceptions of impacts: A comparative tourism stud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231-253.
- Tuan, Y. F.(1975). Place: an experiential perspective. *Geographical review*. 151-165.
- Tuan, Y. F.(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 of Minnesota Press.
- Um, S., & Crompton, J. L.(1987). Measuring resident's attachment levels in a host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26(1): 27-29.
- Uysal, M., Sirgy, M. J., & Perdue, R. R.(2012). The missing link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Handbook of tourism and quality-of-life research* (pp. 669-684). Springer, Dordrecht.
- Uzzell, D., Pol, E., & Badenas, D.(2002). Place identification, social cohes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4(1): 26-53.
- Vargas-Sánchez, A., do Valle, P. O., da Costa Mendes, J., & Silva, J. A.(2015). Residents' attitude and level of destination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ourism Management*. 48: 199-210.
- Vargas-Sánchez, A., Plaza-Mejia, M. D. L. Á., & Porrás-Bueno, N.(2009). Understanding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ourism in a former mining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47(3): 373-387.
- Vaske, J. J., & Kobrin, K. C.(2001). Place attachment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2(4): 16-21.
- Vorkinn, M., & Riese, H.(2001). Environmental concern in a local context: The significance of place attach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33(2): 249-263.
- Wang, Y., & Pfister, R. E.(2008).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and perceived personal benefits in a rural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47(1): 84-93.
- Whitmarsh, L., & O'Neill, S.(2010). Green identity, green living? The role of pro-environmental self-identity in determining consistency across diverse pro-environmental behaviour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3): 305-314.

- Williams, D. R., & Vaske, J. J.(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830-840.
- Williams, J., & Lawson, R.(2001). Community issues and resident opinion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2): 269-290.
- Wold, H. (1974). Causal flows with latent variables: partings of the ways in the light of NIPALS modelling. *European economic review*. 5(1): 67-86.
- Wold, H.(1980). Model construction and evaluation when theoretical knowledge is scarce: Theory and application of partial least squares. In *Evaluation of econometric models* (pp. 47-74). Academic Press.
- Wold, H.(1982). Models for knowledge. In *The making of statisticians* (pp. 189-212). Springer, New York, NY.
- Woo, E., Kim, H., & Uysal, M.(2015). Life satisfaction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50: 84-97.
- Yu, C. P., Chancellor, H. C., & Cole, S. T.(2011). Measuring residents' attitudes toward sustainable tourism: A reexamination of the sustainable tourism attitude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50(1): 57-63.
- Yu, C. P., Cole, S. T., & Chancellor, C.(2018).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in rural midwestern (USA) communities: Perceived tourism impacts and community quality of life perspective. *Sustainability*. 10(3): 802.
- Yuriev, A., Dahmen, M., Paillé, P., Boiral, O., & Guillaumie, L.(2020). Pro-environmental behaviors through the len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scoping review.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155: 104660.
- Zhang, Y., Zhang, H. L., Zhang, J., & Cheng, S.(2014). Predicting residents' pro-environmental behaviors at tourist sites: The role of awareness of disaster's consequences, values, and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0: 131-146.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현황. Retrieved November 25, 2020 <http://ncov.mohw.go.kr/>

제민일보(2020). 제주도 개발사업과 환경보전 원칙 정립한다. Retrieved October 25, 2020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069>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2020). 2020년 9월 관광객 내도현황. Retrieved October 28, 2020
http://www.visitjeju.or.kr/web/bbs/bbsDtl.do;jsessionid=57CoSVkGV6gnPDcQm6vpZreKEcvLagasKMfkKXFMq68fYPW5V1ds275ZXJy4IKj8.DB_servlet_engine6?pageIndex=1&sBbsId=TOURSTAT&bbsId=TOURSTAT¬iceNum=297&authNum=&sKeyOpt=1&sKey=

통계청(2020). 통계별설명자료조회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

Cambridge Dictionary(2020). Meaning of 'impact'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korean/impact>

Oxford Dictionary(2020). Meaning of 'impact'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impact_1?q=impact

UNWTO(2020). INTERNATIONAL TOURISM DOWN 70% AS TRAVEL RESTRICTIONS IMPACT ALL REGIONS. Retrieved October 30, 2020 <https://www.unwto.org/news/international-tourism-down-70-as-travel-restrictions-impact-all-regions>

예비조사 설문지

지역애착도와 관광의 영향에 따른 '환경책임행동'과 '관광개발 지지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지역애착도와 관광산업의 영향에 따른 환경책임행동과 관광개발 지지도에 관한 연구>의 본조사에 활용할 문항 선정을 위한 전문가용 예비조사 질문지입니다. 본 조사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문적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진정성 있는 연구를 위하여 신중하게 답변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연구자 : 장 모 나
 지도교수 : 임 화 순
 (cmn6861@jejunu.ac.kr / 010-****-****)

I. 다음의 '지역애착도' 관련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답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정 체 성	1. 우리 동네는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동네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동네에 대해 할 얘기가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에 대해 얘기 할 때 우리 동네 이야기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 회 적 친 분 성	1. 나는 동네에서 하는 활동(체육, 종교, 취미)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동네 모임에 적극적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동네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많은 동네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동네 사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동네 사람들과 쉽게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의 존 성	1. 우리 아이들도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사 갈 일이 있더라도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역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보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동네를 떠난다면 매우 섭섭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 동네가 최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 동네가 가장 좋다.	

II 귀하의 지역 관광산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느끼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관광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관광산업은 소득증가를 통해 생활 수준을 높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관광산업은 지역의 세금 수입을 가져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관광산업은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관광산업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관광객의 소비와 지출이 증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관광산업을 통해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이해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관광산업은 지역주민의 여가 기회를 높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관광산업을 통해 공공시설과 서비스가 개선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관광산업을 통해 주민의 삶이 향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주민들의 문화, 예술, 오락 활동의 기회가 확대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관광산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역사보존 의식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관광산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 활동 기회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관광산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더욱 잘 보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관광산업을 통해 사회기반 시설과 공공서비스가 더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관광산업을 통해 주변 경관이 잘 가꾸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관광산업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관광산업을 통해 유적지가 잘 보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귀하의 지역 관광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느끼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물가와 생활비가 더 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부동산(주택) 가격이 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지역 자본이 빠져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더 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지역 내 관광수익의 외부유출 발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세금이 더 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미풍양속 등 고유문화가 파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사행성(퇴폐) 문화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각종 범죄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지역의 고유문화가 상품화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사생활이 침해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주민과 관광객 또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환경(쓰레기·소음·대기 및 수질오염 등)문제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자연(생태)환경이 파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지역이 더 혼잡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교통 및 주차 문제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지역의 자원이 파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주변 경관이 훼손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다음의 '관광개발의 지지' 관련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답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관광개발'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관광지를 잘 유지/보존하는 것과 새로운 관광지를 건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지역'은 <I. 거주지 조사>에서 귀하가 답변한 현재 살고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태도	1. 관광의 발전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관광이 발전하면 지역 내 일자리가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관광이 발전하면 지역의 이미지가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관광의 발전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지역 관광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관광객증가는 제주의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지도	1. 나는 관광객이 더 오기를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관광시설이 더 생기기를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관광개발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개발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향후 추가적인 신규 관광지 개발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우리 동네에 새로운 관광지 건설(복합리조트, 테마파크 등)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다음의 지속가능한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책임행동' 관련 질문에 대해 귀하의 의견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제품 구매시 친환경(재활용 가능)제품을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각종 에너지(물, 전기, 연료 등)를 절약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행동(분리수거, 재사용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우리 지역 환경정화(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환경보호에 대해 파트너(배우자)를 설득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환경 관련 정보(도서, TV, 기사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환경단체 활동(회의, 캠페인,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I.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② 고졸 이하 ③ 전문대학 재학/졸업 ④ 대학교 재학/졸업 ⑤ 대학원 재학/졸업
4. 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① 200만원 미만 ② 200~299만원 ③ 300~399만원
④ 400~499만원 ⑤ 500만 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①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② 전문직 ③ 기술직, 기능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자영업, 회사대표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 ⑨ 기타
6. 귀하가 제주도에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5년 ② 6~9년 ③ 10~19년 ④ 20~29년 ⑤ 30~39년 ⑥ 40년 이상
7. 귀하의 거주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8. 귀하의 고향은?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③ 제주도 외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친분성	1. 나는 지역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우리 지역의 친목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지역에는 친한 사람들(친구·친척)이 많이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우리 지역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의 존 성	1. 이사 갈 일이 있더라도, 나는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 생활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지역을 떠난다면, 나는 매우 섭섭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 지역이 최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가장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귀하가 지역의 관광산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느끼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관광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관광산업은 소득증가를 통해 생활 수준을 높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관광산업은 지역의 세금 수입을 가져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관광산업은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관광산업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관광산업을 통해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이해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관광산업은 지역주민의 여가 기회를 높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관광산업을 통해 공공시설과 서비스가 개선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관광산업을 통해 주민의 삶이 향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관광산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역사보존 의식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관광산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 활동 기회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관광산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더욱 잘 보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관광산업을 통해 사회기반 시설이 더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관광산업을 통해 주변 경관이 잘 가꾸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관광산업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관광산업을 통해 유적지가 잘 보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귀하가 지역의 관광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느끼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물가와 생활비가 더 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부동산(주택) 가격이 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지역 자본이 빠져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더 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세금이 더 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미풍양속 등 고유문화가 파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사행성(퇴폐) 문화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각종 범죄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사생활이 침해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주민과 관광객 또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환경(쓰레기·소음·대기 및 수질오염 등) 문제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자연(생태)환경이 파괴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지역이 더 혼잡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교통 및 주차 문제가 늘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관광산업(관광객)의 영향으로 주변 경관이 훼손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다음의 '관광개발의 지지' 관련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답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관광개발'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관광지를 잘 유지/보존하는 것과 새로운 관광지를 건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지역'은 < I. 거주지 조사>에서 귀하가 답변한 현재 살고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지역은 관광개발로 얻는 이득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가 사는 지역의 관광개발을 희망적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관광산업은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관광산업은 내가 사는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관광 발전으로 내가 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사는 지역의 관광개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추가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에 협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I. 다음의 지속가능한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한 '친환경 행동의도' 관련 질문에 대해 귀하에게 해당하는 답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제품 구매시 친환경(재활용 가능)제품을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각종 에너지(물, 전기, 연료 등)를 절약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행동(분리수거, 재사용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우리 지역 환경정화(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환경 관련 정보(도서, TV, 기사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환경단체 활동(회의, 캠페인,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II.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학 재학/졸업
④ 대학교 재학/졸업 ⑤ 대학원 재학/졸업

4. 귀하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 ①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② 전문직 ③ 기술직, 기능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자영업, 회사대표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 ⑨ 기타

6. 귀하는 관광산업 관련 직종에서 일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가 제주도에 거주하신 기간은 몇 년입니까?

() 년

8. 귀하의 고향은?

- ① 제주도 ② 서귀포시 ③ 제주도 외

9. 끝으로 관광개발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선택형)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록 3. 관광개발에 관한 설문 대상자들의 개인적 의견

ID	내 용
002	관광인프라 확충 요망(예: 와이파이의 제주도 전역 실시 등)
007	관광객 유치와 함께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미디어 및 홍보 책자 등).
009	제주도 사투리, 그 지역 방언이 점점 사라지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제주 역사문화 중 파손/ 노화된 게 너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잘 관리되길 바랍니다.
016	자연 친화적이며 보존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함.
019	환경이 보존되고 자연의 가치와 제주도의 아름다운 향토 문화가 관광개발과 어우러졌으면 함.
024	개발보다는 환경 보전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029	관광객이 많으면 시끄럽고 쓰레기가 많고 범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031	성산에 공항 빨리 시작해 주세요.
038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합니다.
040	지역적 특색을 살렸으면 좋습니다.
041	관광개발과 더불어 제주의 교육, 복지, 환경, 교통에 더 투자를 바란다.
053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다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주도가 미워지고 있어요.
055	무분별한 도로개설에 반대합니다. 편의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057	관광개발 같은 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 등이 파괴되거나 물가가 오르고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아 더 이상의 발전은 속상할 것 같아요.
060	관광개발 관리 사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만의 문화와 자연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067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환경, 자연을 파괴하는 관광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68	제주에 관광개발은 찬성하지만, 제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한, 환경파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071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면 교통, 요식업자에게 수입 여건이 조성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간접피해를 주기 때문에 관광업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예방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일반인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예: 쓰레기 투기 예방).
077	환경을 보존할 것인지 관광 유입인구를 제한할 것인지 결정하여 개발이든 보존이든 해야 할 것 같음.
089	제2공항 설립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ID	내 용
090	성산 조개발을 해양관광지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101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잘 관리하고 보존했으면 합니다.
102	관광버스는 기사 한 분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인가요?
103	렌터카가 너무 많고 사고가 많이 나서 도민들이 불안해요.
108	자연 보전과 관광개발을 조화롭게 했으면 한다.
120	자연과 잘 어우러지게 개발되기를 바란다.
122	자연 그대로도 좋지만, 개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라산 케이블카, 서귀포 절경을 볼 수 있는 외돌개 삼매봉, 새섬을 잇는 케이블카 등 관광개발이 우선되면 좋겠다. 환경단체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도민 이익을 위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선에서 개발도 필요하다.
128	제주문화에 맞춰서 했으면 한다.
129	최대한 산림보존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32	한라산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좋겠고, 관광상품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 쓰레기 등 환경 오염이나 훼손 쪽도 신경을 써줬으면...
133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진 그런 개발을 허용했으면 좋겠다.
138	관광개발도 필요하지만 반대에 직면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1	자원보전과 관광산업이 함께 조화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8	무분별한 관광개발에는 반대한다. 관광개발로 교통, 주차 문제가 점점 심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주민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
149	제주의 역사, 4.3사건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가 대중들에게 더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151	세계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대표되지만, 천혜 자원만으로 관광지가 된다면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요. 아름다운 자원과 함께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도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진다면 좋겠습니다.
152	관광을 목적으로 더 이상의 자연훼손은 금지되어야 한다.
157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되면 문화생활 면에서 좋아질 것이다.
159	원도심을 중심으로 제주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와 자연유산을 계승하고 보전하면서 현대에 맞는 환경이나 트렌드에 맞게 변화와 개발을 바랍니다.
161	제주도에 '공정관광'개념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만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은 반대입니다.
168	경관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주의 정서도 이어지길 바란다(수놓음, 조냥정신, 어머니의 강인함 등등).

ID	내 용
175	개발도 좋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여 제주의 친환경과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8	체계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관광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3	우리 지역도 관광지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만 짓는 지역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을 스토리화하여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85	한번 훼손되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개발에 한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186	난개발 반대, 기존에 있던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며 최소한의 변형개발, 자연 친화적이고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을 원합니다.
187	자연을 훼손하는 멀리 보지 않는 관광개발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개발된다면(무차별한) 저는 제주에서 살 이유가 없고 여행을 이유 또한 없습니다.
189	명확하고 뚜렷한 장기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1	지구 환경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여행과 상담' 등 심리치료, 건강한 삶을 위한 생산적 관광 상품 개발
192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만이 관광개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것, 알려진 곳을 더 잘 관리하면서 보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3	환경파괴를 안 했으면 합니다.
197	협재 어촌 뉴딜 300 사업이 꼭 선정되어야 마을이 발전한다!
222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고 정석을 지켜주고, 더 계획적인 현재 환경을 더 발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30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며 개발하는 게 좋겠다.
237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238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를 해주세요.
247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로 인한 교통혼잡과 무분별한 주차행위로 지역주민과의 불만과 불쾌감이 있으니 최대한 서로의 입장에서 고려할 사안들이 많이 있음.
249	제주의 미풍양속이 보존되는 범위에서 제주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60	환경파괴 지양하는 관광개발, 환경보존.
262	너무 많은 개발은 주위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268	제주가 정체성이 살아있고 제주도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ID	내 용
271	지역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자연경관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주변 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73	1) 외국인 제주도 관광 시(단체) 지역주민 가이드(제주도청 육성) 채용 의무화, 2) 도내 외국 관광기업(특히 중국) 모든 관광프로그램 한국인 업체 50% 이상 이용 의무화(월 1회 감사 실시)
275	대중교통 편리화
279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 조속 추진, 관광 및 어촌 인프라를 위한 뉴딜사업 추진
281	무분별한 관광개발은 오히려 제주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개발만이 아니라 보존과 가꾸는 것을 적절히 조화롭게 할 때 더욱 오랫동안 사랑받는 제주가 되리라 생각한다.
283	환경과 결합 된 관광, 체험적 관광
285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관광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290	관광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304	자연환경, 제주문화를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307	물가 상승, 환경 오염(쓰레기) 증가
309	더 이상 관광개발로 자연훼손이 없었으면 합니다.
327	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을 덜 하는 것이 환경보존이다.
331	도로 위 렌터카를 보면 무섭습니다. 일방통행 도로 무단점거,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급한 차선 변경 등.
332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도민과 관광객이 모두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합니다. 운전 시 조심하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 관광객들에게는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선박 탑승 시 안내방송, 공항 전광판 광고 등)
333	관광개발로 옛길(농노, 해안길)의 파손되는 일이 많아서 도행정 책임자 및 의결권 있는 사람들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336	교통혼잡해소!!
343	1) 쓰레기 문제: 재활용정책, 실질적인 확실한 정책 필요(사회감시 필요), 투명하게 관리가 필요, 2) 오수: 근거리 해양 방류로 바다 오염 심각,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용도 투명하게 선진국수준의 관리 필요
348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관광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5	도민이 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관광 소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D	내 용
369	한라산 주위의 타운하우스 등 건물로 경관 이미지를 해친다. 100년 앞을 바라보면서 계획적인 양질의 제주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 및 수질 보존.
433	개발 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36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환경 초점 방향이 바람직하다.
438	관광개발은 발전적이지 않다고 보지만,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을 훼손해서 개발하는 건 반대합니다.
441	개발은 이제 그만!!
442	한라산 케이블카도 했으면 싶습니다
469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관광개발이 필요하다.
472	개발, 하지 마세요.
488	개발이란 개인(집단)의 이익이라는 욕망이 선행되는 것이라 생각이 듦. 관광개발 또한 어떠한 수식어가 붙는다고 해도 이익이라는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친환경 관광개발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됨.
489	제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490	도민에 대한 각종 혜택 확대
491	더 이상 제주 개발은 안 됩니다. 원형 보존이 더 제주다움을 지키는 길입니다.
502	적당히 좀 개발 합시다.
505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로 잘 사는 제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508	환경보존 및 특화된 관광 산업기반 정착되길 바랍니다
519	제주에 개발은 이제 지양돼야 합니다. 제2공항, 영리병원, 난개발 OUT!
524	관광개발을 할 때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동네에 벚꽃축제 할 때가 되면 주차 때문에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불편하다. 축제하는 동안 며칠 장사해서 수익을 내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퇴근길에 주차 한번 하려고 골목길에서 30분 가까이 차들 사이에 끼어있다가 자리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 축제 장소를 전농로로 옮기기 전에 주차 환경을 고려하지 않게 문제인 거 같다.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점까지 생각하며 이득이 된다고 무조건 개발하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27	인구 개발을 억제하고 성과보다 보존에 치중하길...
530	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하여 고려되는 관광개발이 되었으면 한다.
539	친환경을 생각하면서 개발하기를 원함

ID	내 용
545	앞으로의 관광산업은 제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주가 가진 자연환경, 문화,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리고 제주어의 독특한 구성과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산업의 육성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제주도민 자체가 관광의 주역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제님께 의견을 올려 죄송합니다. 연구가 잘 이뤄져 제주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50	개발 제한, 환경 보전이 우선되어야 함
559	청계 제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564	환경파괴 하면서 개발은 반대요.
569	제주인으로서 개발이 싫고 이 이상 개발이 싫습니다. 환경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574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젊은 층의 문화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가 그런 트렌드에 맞게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578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자본 유치에만 신경 쓴 개발로 인해 제주도의 색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579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친환경적인 개발
585	관광과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함께 기획
589	관광산업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593	자연 친화적이고 파괴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관광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 자본 등이 들어와 송악산과 산방산 일대가 무리한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594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관광개발로 힘써주길 바랍니다. 제주 정말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관광도시 이미지보다 청정관광 섬~좋다^^
598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지나친 방문 관광산업집중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0	평소에 관광객을 위한 렌터카 때문에 불편함을 겪습니다. 도로에서 차가 많다 싶으면 반 이상이 렌터카였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사용에 대한 세금이 더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관광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광이랑 상관없이 외지인의 제주 정착은 갈등과 범죄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601	관광개발이 애월과 같은 난개발이라면 반대합니다.
608	아름다운 제주 환경을 지켜내는 범위에서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ABSTRACT

The Effects of Community Attachment and the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on the Intentions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on Jeju Island

Mona Chang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survey and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ty attachment and perceived tourism impacts on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of the local residents in order to reveal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the regional scope of the study, the eight area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are the most crowded tourist destinations, were selected as Jeju-si Dong area, Jocheon-eup, Aewol-eup, Hallim-eup, Jungmun area, Seogwipo-si Dong area, Seongsan-eup and Pyoseon-myeon. As of December 31, 2019, there were 308,359 people aged 15 and over living in the eight study areas, accounting for about 60%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age groups on the island. Online and face-to-face surveys were conducted at the same time from 7 to 24 October, 2020. The number of effective sample was 627 out of 650.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in SPSS and SmartPLS programs. This study mainly conducted analysis based on four research hypotheses,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each path was analyzed(Path Analysis) for the latent variables of the research model designed using the least squares-based structural equation(PLS-SE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ttachment perceived by local residents and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factors of tourism on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hrough t-Value and significance probability, each effect value was statistically determined for a total of six paths. I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nd among them, the result was that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of the positive tourism impact on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was remarkably higher than that of other variables.

Second, PLS-MGA(PLS-Multiple 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Path Coefficients, classifying the sample into each group based on urban and rural areas, gender, whether they are engaged in the tourism industry, period of residence, and hometown,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a result, long-term residents are more affected by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depending on community attachment and environmental costs caused by tourism, and that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of tourism has a greater impact o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behavior.

Third, differenc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for the five potential variables of this study (community attachment, positive/negative tourism impacts,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used One-way ANOVA and t-Test to analyze differences according to eight areas of residents, gender, whether they are engaged in the tourism industry, period of residence, and hometow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s among regional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areas of community attachment, positive tourism impacts,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Seongsan-eup received the highest mean values for these three variables. Aewol-eup, however, received the second

highest for community attachment while the lowest mean value was shown in positive tourism impact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resulting in significant contrast. As previously revealed in the difference in Path Coefficient of MGA, the results of variance analysis also resul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and variance between groups in four variables excluding the impacts of positive tourism. Therefore, the hypothesis that community attachment of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tourism impacts, intentions to take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differ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was partially verified.

Fourth, the cor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and confirming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of tourist destinations based on the Social Exchange Theory.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a total of six factors (positive/negative economic, positive/negative social/cultural, positive/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were derived by reducing the factors of the measured variable, and hierarchical and non-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It was grouped into three clusters and named 'Practical Type', 'Critical Type', and 'Future-oriented Type'.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of the three types of local residents according to the factors of tourism impacts based on Social Exchange Theory, the final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partially verified by show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pecific factors and Path Coefficients by groups.

The Model of the Social Exchange Process proposed by Ap(1992) was supported by the efforts of many researchers who used this theory to gain support in tourism. It was an opportunity to empirically prove that the Social Exchange Theory is a useful theory to explain logically and intuitively the reason why local residents of tourist destinations develop negative or positive perceptions of tourism development by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ourism.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 requirements identified as a result of this study follow the trail of many preceding researchers. It can be said that

the study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to spark concerns about tourism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major driving force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in the country by adding the psychological factor of community attachment, the 'affection of the community' or 'care for the neighbors' of the residents as a member of the local community is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In conclusion, the hypothesis that the Intentions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acts as a variable constituting the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long with Community Attachment 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 of Tourism Impacts. This supports various preceding studies on Social Exchange Theory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residents(Andriotis & Vaughan, 2003; Jurowski & Gursoy, 2004; Ko & Lim, 2007). Hopefully, this study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ntribute by adding another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ocial Exchange Theory.